

# 코로나 세대(Covid-Generation) 아동의 발달 추적 연구(II)

최은영, 김은영, 박진아, 장희선, 이영애, 박유진





# 코로나 세대(Covid-Generation) 아동의 발달 추적 연구(Ⅱ)

**저 자** 최은영, 김은영, 박진아, 장희선, 이영애, 박유진

**연 구 진** 연구 책임자 **최 은 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 동 연 구 원 **김 은 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 동 연 구 원 **박 진 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 동 연 구 원 **장 희 선** (아동권리보장원 부연구위원)  
공 동 연 구 원 **이 영 애**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공 동 연 구 원 **박 유 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기타 기여자** 연구 협력기관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보고 2025-20

## 코로나 세대(Covid-Generation) 아동의 발달 추적 연구(II)

발행일 2026년 2월  
발행인 황옥경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사)한국장애인문화컨텐츠협회 02) 2279-6760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134-0 9337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범세계적 팬데믹 현상이 영유아의 신경 발달에 얼마나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이미 초래된 발달 지연의 격차가 극복될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3세 이하의 영유아는 2011년에서 2019년 사이인 팬데믹 이전 시기에 태어난 영유아와 비교하여 인지 기능이 평균적으로 낮게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Deoni et al., 2021).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영유아의 발달이 지연될 실제적이고 또한 잠재적인 위험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단편적인 소규모 집단의 연구가 아닌, 사회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대규모의 연구를 통해 지금의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외의 일부 연구 결과들은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이기도 하는데 각각 표본 지역, 검사 시점, 검사 방법 등의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방법론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변인들 내에서 팬데믹의 영향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신중하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4년부터 수행된 본 연구를 통해 태내기부터 팬데믹을 경험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성장·발달, 가구의 돌봄, 교육·보육 현황과 변화를 다중 코호트 방식의 종단 추적(5개 연령, 5년간 추적)을 토대로 2차년도 실증 데이터를 누적하여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팬데믹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누적된 종단 데이터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영유아와 가족들, 심도 깊은 분석을 위해 애써주신 원내의 공동연구진, 생애초기 전세계인 팬데믹을 경험한 아동의 발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지지하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2025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황옥경



---

<b>요약</b>	<b>1</b>
<b>I. 서론</b>	<b>15</b>
1. 연구의 목적	17
2. 연구 내용	19
3. 연구 방법	20
<b>II. 2차년도(2025) 조사 개요</b>	<b>37</b>
1. 조사 개요	38
2. 표본 설계	40
3. 가중치 산정	49
<b>III. 1차년도(2024) 데이터 심층분석</b>	<b>53</b>
1. 1차년도(2024년) 연구의 주요결과 및 시사점	55
2. 아동 특성별 비교	60
3. 가구 특성별 비교	77
4. 교사 특성별 비교	90
5. 기관 및 지역 특성별 비교	102
6. K-DST(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결과 비교	114
7. 소결	133
<b>IV. 2차년도(2025) 일반조사 결과</b>	<b>137</b>
1. 조사대상 특성	139
2. 부모가 평정한 아동 발달 현황	149
3. 연령별·영역별 발달 특성	151
4. 아동의 건강 특성	157
5. 부모 및 양육환경 특성	161
6. 기관 이용 특성	165

---

---

7. 부모 응답 K-DST .....	167
8. 소결 .....	171
<b>V. 2차년도 심층조사 결과</b>	<b>173</b>
1. 한국 영유아 베일리발달검사 결과 .....	175
2.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변화 .....	188
3.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의 발달 분석 .....	235
<b>VI. 요약 및 제언</b>	<b>265</b>
1. 요약 및 논의 .....	267
2. 정책 제언 .....	275
3. 후속 연구 추진 방향 .....	278
<b>참고문헌</b>	<b>281</b>
<b>Abstract</b>	<b>289</b>
<b>부록</b>	<b>293</b>
부록 1. 1차년도 설문 문항 구성 .....	295
부록 2. 2차년도 설문 문항 구성 .....	297
부록 3. 2차년도 설문지 .....	301
부록 4. 심층조사 모집 안내문 및 설문 .....	321

---



## 표 목차

〈표 Ⅰ-3- 1〉 1차년도 조사 대상 목표 표본 수 및 연령별 특성(코로나 경험 시기, 시기 구분) .....	21
〈표 Ⅰ-3- 2〉 조사대상 아동 출생연도 .....	22
〈표 Ⅰ-3- 3〉 부모 및 아동 특성 .....	23
〈표 Ⅰ-3- 4〉 K-Bayley-4 소검사 구성 및 내용 .....	26
〈표 Ⅰ-3- 5〉 일반 정보 .....	29
〈표 Ⅰ-3- 6〉 분석 대상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	31
〈표 Ⅰ-3- 7〉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	33
〈표 Ⅱ-1- 1〉 연차별 설문조사 대상 목표 표본 수(5년 종합(안)) .....	39
〈표 Ⅱ-2- 1〉 2024년 기준 시도별 유치원과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현황 .....	41
〈표 Ⅱ-2- 2〉 2024년 기준 권역별/도시규모별 유치원과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현황 .....	41
〈표 Ⅱ-2- 3〉 2025년 기준 어린이집 자원 2세 유아 현황 .....	43
〈표 Ⅱ-2- 4〉 어린이집 자원 2세 유아 수 규모에 따른 기관 현황 .....	43
〈표 Ⅱ-2- 5〉 어린이집 자원 2세 유아 수 규모에 따른 표본배분 결과 .....	44
〈표 Ⅱ-2- 6〉 3~5세 아동 대상 조사를 위한 연령별 모집단 및 표본배분 현황 45	
〈표 Ⅱ-2- 7〉 연령별 기관 유형 및 지역층 표본기관 수 현황: 3~5세 대상 ..	45
〈표 Ⅱ-2- 8〉 초등학교 1학년생 현황(2024년 4월 기준) .....	46
〈표 Ⅱ-2- 9〉 초등학교 1학년생 조사를 위한 표본배분 결과 .....	47
〈표 Ⅱ-2-10〉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등학교 표본기관 수 .....	47
〈표 Ⅱ-2-11〉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등학교 표본배분 결과 .....	48
〈표 Ⅱ-3- 1〉 각 권역별 연령 및 성별 모집단 현황 .....	50
〈표 Ⅲ-2- 1〉 아동 특성 .....	61
〈표 Ⅲ-2- 2〉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 - 성별 .....	62
〈표 Ⅲ-2- 3〉 발달 상황에 대한 종합적 의견 - 성별 .....	62
〈표 Ⅲ-2- 4〉 전반적인 발달 문제에 대한 인식 - 성별 .....	63
〈표 Ⅲ-2- 5〉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 - 연령(학급/반) .....	63
〈표 Ⅲ-2- 6〉 발달 상황에 대한 종합적 의견 - 연령(학급/반) .....	64
〈표 Ⅲ-2- 7〉 전반적인 발달 문제에 대한 인식 - 연령(학급/반) .....	64
〈표 Ⅲ-2- 8〉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 - 코로나 시기 기관 이용 여부 .....	65
〈표 Ⅲ-2- 9〉 발달 상황에 대한 종합적 의견 - 코로나 시기 기관 이용 여부 ..	65

---

〈표 Ⅲ-2-10〉 전반적인 발달 문제에 대한 인식 - 코로나 시기 기관 이용 여부 .....	65
〈표 Ⅲ-2-11〉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 - 기관 이용 기간 .....	66
〈표 Ⅲ-2-12〉 발달 상황에 대한 종합적 의견 - 기관 이용 기간 .....	66
〈표 Ⅲ-2-13〉 전반적인 발달 문제에 대한 인식 - 기관 이용 기간 .....	66
〈표 Ⅲ-2-14〉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 - 1일 평균 이용 시간 .....	67
〈표 Ⅲ-2-15〉 발달 상황에 대한 종합적 의견 - 1일 평균 이용 시간 .....	67
〈표 Ⅲ-2-16〉 전반적인 발달 문제에 대한 인식 - 1일 평균 이용 시간 .....	68
〈표 Ⅲ-2-17〉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 -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여부 .....	68
〈표 Ⅲ-2-18〉 발달 상황에 대한 종합적 의견 -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여부 .....	68
〈표 Ⅲ-2-19〉 전반적인 발달 문제에 대한 인식 -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여부 .....	69
〈표 Ⅲ-2-20〉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 -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수 .....	69
〈표 Ⅲ-2-21〉 발달 상황에 대한 종합적 의견 -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수 .....	70
〈표 Ⅲ-2-22〉 전반적인 발달 문제에 대한 인식 -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수 .....	70
〈표 Ⅲ-2-23〉 놀이와 사회적 활동 종합 - 아동 특성별 비교 .....	71
〈표 Ⅲ-2-24〉 또래 상호작용 종합 - 아동 특성별 비교 .....	72
〈표 Ⅲ-2-25〉 일상생활의 행동 종합 - 아동 특성별 비교 .....	73
〈표 Ⅲ-2-26〉 아동 특성별 아동의 스트레스 .....	75
〈표 Ⅲ-2-27〉 아동 특성별 아동의 행복도 .....	76
〈표 Ⅲ-3- 1〉 가구 특성 .....	77
〈표 Ⅲ-3- 2〉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 - 가구 소득 .....	78
〈표 Ⅲ-3- 3〉 발달 상황에 대한 종합적 의견 - 가구 소득 .....	78
〈표 Ⅲ-3- 4〉 전반적인 발달 문제에 대한 인식 - 가구 소득 .....	79
〈표 Ⅲ-3- 5〉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 - 기초수급 여부 .....	79
〈표 Ⅲ-3- 6〉 발달 상황에 대한 종합적 의견 - 기초수급 여부 .....	80
〈표 Ⅲ-3- 7〉 전반적인 발달 문제에 대한 인식 - 기초수급 여부 .....	80
〈표 Ⅲ-3- 8〉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 - 취약가구 여부 .....	81
〈표 Ⅲ-3- 9〉 발달 상황에 대한 종합적 의견 - 취약가구 여부 .....	81
〈표 Ⅲ-3-10〉 전반적인 발달 문제에 대한 인식 - 취약가구 여부 .....	81
〈표 Ⅲ-3-11〉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 - 맞벌이 여부 .....	82
〈표 Ⅲ-3-12〉 발달 상황에 대한 종합적 의견- 맞벌이 여부 .....	82
〈표 Ⅲ-3-13〉 전반적인 발달 문제에 대한 인식 - 맞벌이 여부 .....	83

---

---

〈표 Ⅲ-3-14〉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 - 주 양육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	83
〈표 Ⅲ-3-15〉 발달 상황에 대한 종합적 의견 - 주 양육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	84
〈표 Ⅲ-3-16〉 전반적인 발달 문제에 대한 인식 - 주 양육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	84
〈표 Ⅲ-3-17〉 놀이와 사회적 활동 종합 - 가구 특성별 비교 .....	85
〈표 Ⅲ-3-18〉 또래 상호작용 종합 - 가구 특성별 비교 .....	86
〈표 Ⅲ-3-19〉 일상생활의 행동 종합 - 가구 특성별 비교 .....	87
〈표 Ⅲ-3-20〉 가구 특성별 아동의 스트레스 .....	88
〈표 Ⅲ-3-21〉 가구 특성별 아동의 행복도 .....	89
〈표 Ⅲ-4- 1〉 교사 특성 .....	90
〈표 Ⅲ-4- 2〉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 - 교사 연령 .....	91
〈표 Ⅲ-4- 3〉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종합적 의견 - 교사 연령 .....	91
〈표 Ⅲ-4- 4〉 전반적인 발달 문제에 대한 인식 - 교사 연령 .....	92
〈표 Ⅲ-4- 5〉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 - 교사 경력 .....	92
〈표 Ⅲ-4- 6〉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종합적 의견 - 교사 경력 .....	93
〈표 Ⅲ-4- 7〉 전반적인 발달 문제에 대한 인식 - 교사 경력 .....	93
〈표 Ⅲ-4- 8〉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 - 담당 학급/반 .....	94
〈표 Ⅲ-4- 9〉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종합적 의견 - 담당 학급/반 .....	94
〈표 Ⅲ-4-10〉 전반적인 발달 문제에 대한 인식 - 담당 학급/반 .....	94
〈표 Ⅲ-4-11〉 놀이와 사회적 활동 종합 - 교사 특성별 비교 .....	95
〈표 Ⅲ-4-12〉 문제행동 - 1) 외향적 문제행동 .....	96
〈표 Ⅲ-4-13〉 문제행동 - 2) 내향적 문제행동 .....	96
〈표 Ⅲ-4-14〉 문제행동 - 3) 발달 지연 상담의 필요성 .....	97
〈표 Ⅲ-4-15〉 또래 상호작용 종합 - 교사 특성별 비교 .....	98
〈표 Ⅲ-4-16〉 일상생활의 행동 종합 - 교사 특성별 비교 .....	100
〈표 Ⅲ-4-17〉 교사 특성별 아동의 스트레스 .....	101
〈표 Ⅲ-4-18〉 교사 특성별 아동의 행복도 .....	101
〈표 Ⅲ-5- 1〉 기관 및 지역 특성 .....	103
〈표 Ⅲ-5- 2〉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 - 이용 기관 .....	104
〈표 Ⅲ-5- 3〉 전반적인 발달 상황에 대한 종합적 의견 - 이용 기관 .....	104
〈표 Ⅲ-5- 4〉 전반적인 발달 문제에 대한 인식 - 이용 기관 .....	104

---

---

〈표 Ⅲ-5- 5〉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 - 기관 유형 .....	105
〈표 Ⅲ-5- 6〉 전반적인 발달 상황에 대한 종합적 의견 - 기관 유형 .....	105
〈표 Ⅲ-5- 7〉 전반적인 발달 문제에 대한 인식 - 기관 유형 .....	106
〈표 Ⅲ-5- 8〉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 - 기관 현원 .....	106
〈표 Ⅲ-5- 9〉 전반적인 발달 상황에 대한 종합적 의견 - 기관 현원 .....	107
〈표 Ⅲ-5-10〉 전반적인 발달 문제에 대한 인식 - 기관 현원 .....	107
〈표 Ⅲ-5-11〉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 - 지역 규모 .....	108
〈표 Ⅲ-5-12〉 전반적인 발달 상황에 대한 종합적 의견 - 지역 규모 .....	108
〈표 Ⅲ-5-13〉 전반적인 발달 문제에 대한 인식 - 지역 규모 .....	108
〈표 Ⅲ-5-14〉 놀이와 사회적 활동 종합 - 기관 특성별 비교 .....	109
〈표 Ⅲ-5-15〉 또래 상호작용 종합 - 기관 특성별 비교 .....	110
〈표 Ⅲ-5-16〉 일상생활의 행동 종합 - 기관 특성별 비교 .....	112
〈표 Ⅲ-5-17〉 기관 특성별 아동의 스트레스 .....	112
〈표 Ⅲ-5-18〉 기관 특성별 아동의 행복도 .....	113
〈표 Ⅲ-6- 1〉 분석에 활용한 변수 .....	114
〈표 Ⅲ-6- 2〉 어머니의 시간지원정책 이용 여부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48~53개월 .....	115
〈표 Ⅲ-6- 3〉 아버지의 시간지원정책 이용 여부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48~53개월 .....	116
〈표 Ⅲ-6- 4〉 어머니의 시간지원정책 이용 여부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54~59개월 .....	117
〈표 Ⅲ-6- 5〉 아버지의 시간지원정책 이용 여부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54~59개월 .....	117
〈표 Ⅲ-6- 6〉 어머니의 시간지원정책 이용 여부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60~65개월 .....	118
〈표 Ⅲ-6- 7〉 아버지의 시간지원정책 이용 여부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60~65개월 .....	119
〈표 Ⅲ-6- 8〉 어머니의 시간지원정책 이용 여부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66~71개월 .....	120
〈표 Ⅲ-6- 9〉 아버지의 시간지원정책 이용 여부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66~71개월 .....	121
〈표 Ⅲ-6-10〉 주양육자의 주중/주말 돌봄시간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24~26개월 .....	123

---

---

〈표 III-6-11〉 형제 유무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24~26개월	123
〈표 III-6-12〉 주양육자의 주중/주말 돌봄시간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27~29개월	123
〈표 III-6-13〉 형제 유무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27~29개월	124
〈표 III-6-14〉 주양육자의 주중/주말 돌봄시간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30~32개월	124
〈표 III-6-15〉 형제 유무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30~32개월	125
〈표 III-6-16〉 주양육자의 주중/주말 돌봄시간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33~35개월	125
〈표 III-6-17〉 형제 유무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33~35개월	125
〈표 III-6-18〉 주양육자의 주중/주말 돌봄시간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36~41개월	126
〈표 III-6-19〉 형제 유무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36~41개월	126
〈표 III-6-20〉 주양육자의 주중/주말 돌봄시간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42~47개월	127
〈표 III-6-21〉 형제 유무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42~47개월	127
〈표 III-6-22〉 주양육자의 주중/주말 돌봄시간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48~53개월	127
〈표 III-6-23〉 형제 유무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48~53개월	128
〈표 III-6-24〉 주양육자의 주중/주말 돌봄시간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54~59개월	128
〈표 III-6-25〉 형제 유무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54~59개월	129
〈표 III-6-26〉 주양육자의 주중/주말 돌봄시간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60~65개월	129
〈표 III-6-27〉 형제 유무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60~65개월	129
〈표 III-6-28〉 주양육자의 주중/주말 돌봄시간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66~71개월	130
〈표 III-6-29〉 형제 유무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66~71개월	130
〈표 III-6-30〉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48~53개월	131
〈표 III-6-31〉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54~59개월	132
〈표 III-6-32〉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

---

60~65개월 .....	132
〈표 III-6-33〉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66~71개월 .....	133
〈표 IV-1- 1〉 부모 및 아동 특성 .....	140
〈표 IV-1- 2〉 주중 돌봄 시간 - 아버지, 어머니 .....	142
〈표 IV-1- 3〉 주말 돌봄 - 아버지, 어머니 .....	143
〈표 IV-1- 4〉 평일 활동 여부, 시간 (요약표) .....	145
〈표 IV-1- 5〉 평일 활동 여부, 시간 - 1) 교육 및 학습 .....	145
〈표 IV-1- 6〉 평일 활동 여부, 시간 - 2) 놀이 시간 .....	146
〈표 IV-1- 7〉 미디어 이용 여부 .....	147
〈표 IV-1- 8〉 미디어 이용 시작 월령 .....	148
〈표 IV-1- 9〉 미디어 이용 시간 - 주중, 주말 1일 평균 .....	148
〈표 IV-2- 1〉 부모가 평정한 자녀 발달 현황 .....	150
〈표 IV-3- 1〉 학업능력(2018-2019년생) .....	151
〈표 IV-3- 2〉 자기조절 학습능력(2019-2021년생): 2차년도 추가 문항 .....	152
〈표 IV-3- 3〉 실행기능(억제, 주의전환, 감정조절, 작업기억, 계획조직) (2019-2022년생) .....	153
〈표 IV-3- 4〉 문제행동(2018년생) : 2차년도 추가 문항 .....	154
〈표 IV-3- 5〉 스트레스 수준 .....	155
〈표 IV-3- 6〉 행복도 .....	156
〈표 IV-4- 1〉 아동의 안경 착용 여부 .....	157
〈표 IV-4- 2〉 아동 건강 상태 .....	158
〈표 IV-4- 3〉 아동의 장애/만성질환 여부(복수) .....	159
〈표 IV-4- 4〉 아동의 장애 정도 .....	160
〈표 IV-4- 5〉 부모의 장애/만성질환 여부(복수) .....	161
〈표 IV-5- 1〉 부모의 양육 특성 .....	162
〈표 IV-5- 2〉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대한민국): 2차년도 추가 문항 .....	163
〈표 IV-5- 3〉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지역사회 또는 공동체) : 2차년도 추가 문항 .....	164
〈표 IV-5- 4〉 동네 만족도 .....	165
〈표 IV-6- 1〉 영유아 자녀 현재 이용 기관: 2차년도 추가 문항 .....	166
〈표 IV-6- 2〉 영유아 자녀 기관 이용 기간: 2차년도 추가 문항 .....	166
〈표 IV-6- 3〉 영유아 자녀 반일제 학원 이용 기간: 2차년도 추가 문항 .....	167

---



---

〈표 V-2-19〉 코로나19 중 내담 아동의 문제행동 군집에 따른 실행기능 차이 .....	225
〈표 V-2-20〉 코로나19 후 내담 아동의 사회·정서 문제행동 군집에 따른 실행기능 차이 .....	226
〈표 V-2-21〉 기질과 내담 아동 사회·정서 문제행동 군집 유형 간의 다항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기준 범주: 경미한 문제형) .....	228
〈표 V-2-22〉 성격과 내담 아동 사회·정서 문제행동 군집 유형 간의 다항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기준 범주: 경미한 문제형) .....	229
〈표 V-2-23〉 모의 양육 태도와 내담 아동 사회·정서 문제행동 군집 유형 간의 관계(기준 범주: 경미한 문제형) .....	231
〈표 V-3- 1〉 분석 대상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	238
〈표 V-3- 2〉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K-DST 검사지 유형별 응답 현황	239
〈표 V-3- 3〉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K-DST(대근육 운동) 하위영역별 분포 현황 .....	241
〈표 V-3- 4〉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K-DST(대근육 운동) 수준 .....	242
〈표 V-3- 5〉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K-DST(소근육 운동) 하위영역별 분포 현황 .....	243
〈표 V-3- 6〉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K-DST(소근육 운동) 수준 .....	244
〈표 V-3- 7〉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K-DST(인지) 하위영역별 분포 현황 245	
〈표 V-3- 8〉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K-DST(인지) 수준 ...	245
〈표 V-3- 9〉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K-DST(언어) 하위영역별 분포 현황 .....	246
〈표 V-3-10〉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K-DST(언어) 수준 ...	247
〈표 V-3-11〉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K-DST(사회성) 하위영역별 분포 현황 .....	248
〈표 V-3-12〉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K-DST(사회성) 수준	249
〈표 V-3-13〉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K-DST(자조) 하위영역별 분포 현황 .....	250
〈표 V-3-14〉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K-DST(자조) 수준 ...	250
〈표 V-3-15〉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의 운동 시간 .....	252

---

---

〈표 V-3-16〉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의 평소 건강 상태 .....	253
〈표 V-3-17〉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의 (학교나 학원이 끝난) 방과 후 돌봄 ..	254
〈표 V-3-18〉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의 평소 주양육자 (아동 응답) .....	255
〈표 V-3-19〉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의 평소 주양육자 (양육자 응답) .....	255
〈표 V-3-20〉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의 가정·학교·동네 인식도 .....	256
〈표 V-3-21〉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의 일상 (초등 고학년) .....	257
〈표 V-3-22〉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의 스트레스 이유 (초등 고학년) .....	258
〈표 V-3-23〉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의 피·가해 경험 (초등 고학년) .....	259
〈표 V-3-24〉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의 웰빙 .....	261

---



## 그림 목차

[그림 Ⅰ-2-1] 조사 내용(안) .....	20
[그림 Ⅰ-2-2] 연구 추진 체계 및 방법 .....	35
[그림 Ⅴ-2-1] 코로나19 전 내담 아동의 사회·정서 문제행동 군집 .....	196
[그림 Ⅴ-2-2] 코로나19 중 내담 아동의 사회·정서 문제행동 군집 .....	200
[그림 Ⅴ-2-3] 코로나19 후 내담 아동의 사회·정서 문제행동 군집 .....	205
[그림 Ⅴ-2-4] 코로나19 전 내담 아동의 실행기능 군집 .....	211
[그림 Ⅴ-2-5] 코로나19 중 내담 아동의 실행기능 군집 .....	212
[그림 Ⅴ-2-6] 코로나19 후 내담 아동의 실행기능 군집 .....	213
[그림 Ⅴ-2-7] 코로나19 중 내담 아동의 부모 양육 태도 군집 .....	215
[그림 Ⅴ-2-8] 코로나19 후 내담 아동의 부모 양육 태도 군집 .....	216
[그림 Ⅴ-2-9] 시기별 모의 '지금 내방한 이유' 범주별 백분율 .....	218



## 부록 표 목차

〈부표 1〉 1차년도 부모 설문 문항 .....	293
〈부표 2〉 2차년도 부모 설문 문항 .....	296



## 1. 서론

### 가. 연구의 목적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교육·보육 돌봄 기관의 폐쇄, 감염으로 인한 자가 격리, 교육적 지원 및 환경적 자극의 부족 등의 요인은 아동 간 발달 격차를 유발할 수 있음이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제기되어 옴.
- 팬데믹 기간인 2020년대 중반 이후 출생한 3세 이하의 영유아는 팬데믹 이전 시기에 태어난 영유아와 비교하였을 때 인지기능이 평균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신경 발달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고 되어 왔음.
- 이와 같이 범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영유아의 발달에 얼마나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미 벌어진 발달 격차가 극복할 수 있는 수준 인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사회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대규모 수준의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팬데믹 현상이 생애 초기인 영유아기의 발달 지연에 미친 영향을 대규모의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발달 지연 격차의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함.
- 태내기부터 팬데믹을 경험한 아동의 발달적 변화를 다중 코호트 방식의 종단 추적(5개 연령, 5년간 추적) 방식을 토대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결핍과 발달 지연의 요소를 밝히고자 함.

### 나. 연구 내용

- 1차년도 연구에서 구축한 영유아 아동 연령별 코호트(2024년 보육연령기준 1~5세, 5개 연령)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조사를 실시함.
- 2차년도 기준, 2018년생(초등 1학년), 2019년생(보육연령 5세), 2020년생(보육연령 4세), 2021년생(보육연령 3세), 2022년생(보육연령 2세)을 대상으로 함.

- 1차년도에 아동 연령별 및 발달 영역별로 조사한 설문조사 문항을 검토하여 아동 발달(신체, 인지/언어, 사회·정서) 측면과 부모, 가정, 기관, 지역사회 특성을 조사함.
- 코로나19 시기에 특징적인 경험을 한 주요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검사를 실시하고, 놀이치료 아동의 임상데이터 및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의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분석함.
- 1차년도 조사 결과 심층분석 및 2차년도 가중치를 산출함.
  - 1차년도에 수집된 일반조사 데이터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함.
  - 2차년도 조사(일반조사, 심층 조사)에 대한 가중치를 산출함.

## 다.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설문조사 및 심층조사 설계를 위해 1차년도 설문지를 검토하고, 한국아동패널 및 한국영유아교육·보육패널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해 보완 사항을 반영함.
- 1차년도 데이터 심층분석
  - 1차년도 일반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 연령별, 참여 가구 특성별 심층분석을 실시함.
- 설문조사(일반 조사)
  - 5개 연령 아동별, 발달 영역별(신체, 인지/언어, 사회·정서) 설문 문항과 척도를 선별하여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 2차년도 조사의 가중치를 산출하고, 2차년도 일반조사에 대한 기초분석을 실시함.
- 심층 조사
  - 코로나19 시기에 특징적인 경험을 한 2세반 영아(2022~2023년생)를 대상으로 발달 수행 검사(한국 영유아 베일리발달검사 4판(K-Bayley-4, 바인랜드 적응행동 포함)를 실시함.
  - 코로나19 팬데믹 전/중/후의 임상데이터 분석,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의 발달 분석을 실시함.

□ 전문가 자문회의

- 표본 설계 및 다중 코호트 구축 방향 설정, 조사 내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함.

## 2. 2차년도(2025) 조사 개요

### 가. 조사 개요

- 2차년도 표본은 2025년 보육연령 기준 2세반(2022년생), 3세반(2021년생), 4세반(2020년생), 5세반(2019년생)과 초등학교 1학년(2018년생) 반에 재학 중인 아동과 부모로 함.
- 2차년도 조사에서는 1차년도 조사 대상 아동을 최대한 중단 추적하여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파악하고자 함.
- 연령별 550명씩 표집, 총 2,750명의 표본을 구축하여, 부모 2,835명(아동 2,835명)이 조사에 참여함.

### 나. 표본 설계

□ 조사모집단 분석

- 2차년도의 목표 모집단은 2025년 1월 기준 보육연령 2~6세 아동 전체이며, 조사모집단은 2018~2022년 사이에 태어난 아동임.
- 표본추출틀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2024년 4월 기준 교육통계 명부를, 어린이집의 경우 2025년 6월 기준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의 OPEN API 명부를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함.
- 전국의 유치원 7,701개소, 어린이집 25,826개소, 초등학교 6,134개교에 재원 중인 2~6세 아동 1,344,002명을 전체 조사 모집단으로 함.

□ 층화 및 표본배분

- 전국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명단을 활용하여 1차 추출단위는 기관으로 하고, 각 연령별 학급을 추출하여 아동을 표집함.
- 표본설계 층화는 기관 유형(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권역(5개 권역) 및 도시 규모(3개 규모) 등을 고려하였고, 내재적 층화변수로 권역 및 도시 규

모 층 내 행정 구역 구분과 기관 설립유형(국공립, 사립 외)을 활용함.

□ 2세 대상 조사 표본설계

- 2세반 조사는 어린이집만을 표본추출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국 25,826개의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2세 영아 242,701명을 대상으로 하였음.
-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조사 영아 수에 차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여, 비례배분법을 활용하여 산출한 2세 대상 조사를 위한 전체 표본 어린이집은 최종적으로 128개소임.

□ 3~5세 대상 조사 표본설계

- 3~5세반 조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에서 이루어졌고, 어린이집 재원 유아 301,397명과 유치원 재원 유아 446,191명을 대상으로 하였음.
- 각 연령에서 기관 유형별 표본배분은 재원 원아 수를 기준으로 비례배분법을 적용함.

□ 6세(초등학교 1학년) 대상 조사 표본설계

- 6세 대상 조사는 초등학교를 표본추출 대상으로 하고, 전국 초등학교 6,134개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1학년생 353,713명을 대상으로 함.
- 최종 표본학교 수는 각 권역에 대한 모집단 초등학교 1학년생 수를 기준으로 비례배분한 후 학교당 조사 인원수로 나누어 산출함.

□ 표본 추출

- 2차년도 연구의 1차 추출단위는 기관이고, 2차 추출단위는 아동임.
- 전체 표본 층화는 기관 유형, 권역 및 규모에 따라 비례배분하였으며 표본추출 단계에서 내재적 층화변수로 시도와 설립유형을 활용함.
- 기관별·연령별 학급 구성에 따라 학급을 추출하고, 결정된 표본 수를 아동 성별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추출함.

다. 가중치 산정

□ 가중치 산출

- 본 조사에서의 가중치는 (1) 설계가중치와 (2) 벤치마킹 보정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작성하였고, 층화변수로 활용한 기관 유형, 권역 및 지역 규모를 설계가중치 산출에 반영함.

### 3. 1차년도(2024) 데이터 심층분석

#### 가. 1차년도(2024) 연구의 시사점

- 1차년도 연구에서는 부모와 교사 조사, 심층조사 결과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모니터링 지원 체계 및 잠재적 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 확립과 잠재적 위험군에 대한 교육과정 및 모니터링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함.
- 일반조사와 심층조사를 통해 나타난 아동의 사회성, 정서성과 언어 발달 및 성별 특성에 대한 이해와 모니터링과 생애 초기 환경의 사회경제적·지역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육아정책의 포괄적 전략을 고도화할 것을 제안함.
- 부모-교사 응답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따른 해석에 유의해야 하며, 어린이집·유치원 및 교사 주축의 부모-지역사회 연계협력의 구축과 코로나 이후 패러다임의 변화와 뉴노멀의 관점을 반영한 아동 발달에의 접근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함.

#### 나. 아동 특성별 비교

- 코로나 팬데믹 시기 아동의 발달에 대한 인식은 성별, 연령, 기관 이용 형태, 사교육 참여 여부 등에 따라 일정한 패턴을 보임.
- 여아는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이 남아보다 높았으며, 특히 언어와 정서 영역의 인식 격차가 두드러짐.
- 기관 이용 여부에 따라서는 인지 발달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기관 이용 아동이 미이용 아동보다 다소 높았음. 기관 이용 기간이 2~3년인 아동의 정서·사회성 발달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은 지속적 기관 경험에 안정적인 상호작용과 사회적 성장에 긍정적임을 시사함.
- 부모가 인식한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은 여아가 다소 높았고, 행복도는 사교육 미이용 아동과 기관 이용 시간이 짧은(7시간 이하) 아동이 높았음. 즉, 장시간 기관 생활과 학습 부담은 행복감 저하와 연결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다. 가구 특성별 비교

- 아동의 발달에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고소득 가정(월 681만 원 이상)의 아동은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 전 영역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임. 저소득 가정(307만 원 이하) 아동은 발달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부모가 자녀 발달에 ‘문제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음.
- 기초수급 및 취약가구 아동은 모든 영역에서 비해당 가구 아동보다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특히 언어·인지 영역의 차이가 두드러졌으며, 부모의 발달문제 인식 역시 높게 나타남.
- 부모의 근로 형태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정의 아동이 외벌이 가정보다 언어·인지·사회성 발달에서 높은 수준을 보임. 주양육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아동 발달 수준이 높다고 인식했으며, 8시간 미만 집단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부모의 시간적 여유가 양육의 질을 높이는 요인임을 보여줌.
- 놀이 및 사회성 활동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취약가구 아동은 ‘고집’ 점수가 높고, 사회적 놀이 참여가 낮았으며, 고소득 가정 아동일수록 행동 모방과 상호작용이 활발했음.
- 또래 상호작용의 경우 고소득, 근로시간이 짧은 가구의 아동이 놀이 상호작용 점수가 높고 놀이 단절이 적었음. 스트레스와 행복도 측면에서도 저소득 가구 아동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으며(4점 척도 평균 2.47점), 행복도는 고소득 가구 아동(7점 척도 평균 6.22점)이 높았음.

## 라. 교사 특성별 비교

- 교사의 연령과 경력에 따른 아동 발달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50세 이상 교사 담당 반의 아동은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신체 발달 모두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교사 경력 10년 이상 집단 역시 발달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았음.
- 반면, 경력 1년 이하 교사가 담당한 반의 아동은 발달문제 인식률이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교사 연령과 경력에 따라 아동의 발달을 인식하는 정도가 복합적이므로 종단 추적을 통해 신중히 해석될 필요가 있음.

### 마. 기관 및 지역 특성별 비교

- 기관 규모와 지역 규모에 따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 아동이 대도시 아동보다 발달과 행복도 모두에서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중소도시 아동의 전반적 발달(5점) 평균은 3.55점, 행복도(7점)는 6.1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 아동은 스트레스(4점)가 2.37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고, 놀이 단절이 빈번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기관 및 지역 규모에 따른 결과는 개인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결과로 종합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음.

### 바. K-DST(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결과 비교

-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단순히 부모의 시간지원 정책 이용 여부나 돌봄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돌봄의 질과 상호작용의 구조적 환경임을 유추할 수 있음.
- 월령이 낮을수록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과 주중 돌봄 참여가 발달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월령이 높아지면서 제도 이용 효과가 감소하고, 주말 중심의 가족 상호작용이 발달의 주요 요인으로 전환됨. 향후 시간지원 정책은 이용률 제고보다는 가정 내 돌봄 경험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 4. 2차년도(2025) 일반조사 결과

### 가. 조사 대상 특성

- 총 2,835명의 부모 응답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발달과 생활환경은 전반적으로 정상 발달 수준을 보였으나 소득·양육환경·지역 규모 등에 따라 발달의 일부 영역에서는 격차가 확인됨.
- 주중 하루 평균 돌봄시간은 어머니 6.58시간, 아버지 2.66시간이었고, 주말에는 각각 10.79시간과 7.58시간으로 증가하였는데, 맞벌이 가구에서는 어머니의 주중 돌봄시간이 감소하고, 아버지의 돌봄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돌봄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남. 맞벌이

가구에서 아버지의 참여가 늘었다는 점은 긍정적 변화로 상호작용의 질을 어떻게 지원하느냐가 향후 발달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나. 부모가 평정한 아동 발달 현황

- 부모가 평정한 아동 발달의 5점 척도 평균은 인지 3.66점, 정서 3.61점, 언어 3.47점, 신체 3.48점, 사회성 3.36점으로, 인지가 상대적으로 높고 사회성이 낮게 나타남.
- 소득이 높을수록 언어·인지·정서 점수가 높았고, 성별에 따라서는 여아의 점수가 남아보다 전반적으로 높았음.

#### 다. 연령별·영역별 발달 특성

- 만 5세와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업능력은 언어·문해 3.80점, 수리 3.59점으로 언어·문해가 다소 높았고, 자기조절 학습능력은 3.66점으로 나타남.
- 사회·정서 발달을 반영한 유아 실행기능(억제, 주의전환, 감정조절, 작업기억, 계획조직)은 주의전환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초등학교 1학년의 문제행동 평균은 1.65점(3점 척도)으로 나타나 문제행동의 우려가 크지는 않았음.

#### 라. 부모 및 양육 환경 특성

- 부모의 양육 어려움(5점)은 평균 2.32점으로 보통 이하였고, 양육 방식은 3.98점으로 대체로 긍정적이었음.
- 소득이 높고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빈도가 높았으며,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10점 척도 평균 5.81점으로 중간 이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고, 지역생활 만족도는 친구·이웃 관계 3.82점, 안전 3.74점, 문화시설 3.38점, 전반 3.69점으로 높게 나타남. 조사에 참여한 부모들은 전반적으로 양육 어려움을 낮게, 양육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바. 부모 응답 K-DST

- K-DST는 월령(1세: 30~35개월, 2세: 36~47개월, 3세: 48~59개월, 4세: 60~72개월)을 구분하여 6개 영역(대근육·소근육·인지·언어·사회성·자조)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됨.

- 전 연령·전 영역에서 ‘또래 수준’과 ‘빠른 수준’의 합이 대체로 80% 내외를 구성했고, ‘심화평가 권고’는 대부분 5% 미만의 소수였으며, 일부 월령·영역에서 ‘추적검사 요망’ 비율이 두 자릿수 초반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정상 범주에 속함. 다만, ‘추적검사 요망’ 비중이 두 자릿수 초반으로 나타난다는 일부 월령과 영역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여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5. 2차년도(2025) 심층조사 결과

### 가. 영유아 베일리발달검사 결과

-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코로나 세대 영유아의 발달 수준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 사이에 출생한 영유아 중 조사 참여를 희망한 아동을 대상으로 베일리 발달검사를 수행함.
- 전반적으로 베일리 발달검사 결과는 영유아의 발달이 평균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줌. 여아가 인지, 언어, 일상생활, 자조능력 등에서 남아보다 높은 발달을 보였으며, 가구 형태는 발달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의 아동이 의사소통과 일상생활, 수용 능력 등 적응행동의 일부 영역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전체적인 발달 수준은 모든 집단이 정상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됨. 다만, 가구 형태와 소득수준에 따라 적응행동과 의사소통, 사회성 발달에서 차이를 보임.

### 나.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변화

- 코로나19 전(2018년~2019년), 코로나19 중(2020년~2021년), 코로나19 후(2023년~2024년 8월) 시기에 놀이치료를 받은 내담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관련 증상의 경향성 및 부모 변인에 대한 양적, 질적 분석을 수행함.
- 코로나19 초, 중, 후 시기에 따라 사회·정서 문제행동, 실행기능, 모의 양육 태도, 주호소 및 지금 내방한 이유에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임. 특히 아동의 사회·정서 문제행동의 경우, 코로나19 전보다 중에 내면화 문제가 더 복합적으로 나타나거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가 더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임. 코로나19 후에도 역시 이러한 양상은 나타났으나 문제의 혼합 및 혼

재의 정도가 감소함.

- 사회·정서 문제행동 군집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기질, 성격요인 및 모의 양육 태도 요인을 살펴본 결과, 아동이 가진 기질, 성격요인과 모의 양육 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에 대한 보호 요인이 되기도 하였고,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하였음. 양육 태도 측면에서는 모의 간섭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이는 모의 과도한 개입을 통해 아동의 내재화된 불안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다.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의 발달 분석

-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의 발달은 전반적으로 또래 수준을 보였으나 언어 영역에서 또래 미만의 수준을 보이는 아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이러한 결과는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언어활동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영유아의 발달 중 대근육과 소근육 활동이 또래 이상인 비율이 높고 총점과 지능 산출법을 적용 시 서비스 이용이 5년 이상인 아동에게서 소근육과 대근육 활동 수준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장기적인 서비스 제공이 영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줌. 영유아 대상의 복지서비스에 언어 관련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근거임.
-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학령기 아동의 발달은 기존의 다른 조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유사한 발달을 형성하고 있지만 초등 저학년 아동에 비하여 초등 고학년 아동의 발달이 다소 부정적이고 남아에 비하여 여아의 발달이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경향성역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지만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과 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한부모·조손가정 아동의 경우 양부모 가정 아동에 비하여 방과 후 돌봄 공백에 놓이는 비율이 높기에 가구의 특성에 따른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것 역시 중요함.

## 6. 제언

### 가. 정책 제언

#### □ 언어 및 인지발달 다중 지원 체계 구축

- 본 연구의 결과, 정서조절이 어려운 아동일수록 억제·작업기억·계획조직 등 실행기능 영역에서 어려움이 발견됨. 이는 사회·정서적 문제와 인지적 조절 능력이 상호작용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언어 및 사회성 발달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신체·인지·정서 영역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다차원적 개입이 필요함.

#### □ 사회·정서 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본 연구의 결과, 사회성 발달 영역에서는 또래와의 기본적 상호작용(놀이 규칙 지키기, 역할놀이 참여)은 양호하였으나, 자기표현력과 타인 경청 등의 사소통의 질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발견됨. 특히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감정인식-충동억제-작업기억-문제해결을 단계적으로 연결하는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음.

#### □ 부모의 양육 태도 및 정서적 지지 강화

- 코로나 시기 부모의 양육 태도는 ‘비일관적으로 혼만 많이 내는 유형’이 증가하였으며, 이후에도 과잉기대와 간섭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됨. 향후 부모 교육은 부모의 정서조절과 공감적 양육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부모 감정코칭, 스트레스 관리, 일관성 유지 등을 포함한 부모 지원이 필요함.

#### □ 발달검사의 정례화 및 통합 관리

- 본 연구와 선행연구에서는 코로나 이후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와 인지적 조절능력의 변화를 단기적 현상이 아닌 발달 궤적의 지연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음. 따라서 아동의 발달을 종단 추적하고, 결과를 통합 관리하는 아동 발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요구됨.
- 본 연구의 결과, 2세 전후의 아동이 언어·정서 발달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였는데, 2세 전후 시기의 언어·정서 통합교육과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는 개입이 중요 시기임을 확인할 수 있음. 영유아기 발달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 2~3세 시기의 표준화된 발달선별검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복지·보

건·교육 데이터와 연계하여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중단연구를 위한 충분한 예산의 확보

- 중단연구의 예산 삭감은 연구 자체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데이터 수집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가장 큰 장애가 됨. 특히 팬데믹 세대의 발달 격차는 단기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음. 이에 중단연구를 통해 연령, 지역, 계층별 발달 변화 양상을 추적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이 요구됨.

□ 기관 미이용 및 취약 가구 코호트 구축

-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표집함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집단은 포괄하고 있지 못함. 또한 기관생명윤리 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거치고 있음. 이에 전국 단위의 표집을 거치긴 했으나 자녀의 발달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인 대상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조사 참여자의 소득수준도 소득이 높은 가구의 비율이 높다는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의 심층분석 결과에서도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의 발달은 전반적으로 정상범위로 나타났으나 언어와 사회성 영역에서 상대적 어려움이 발견됨. 특히 팬데믹 이후 가정 내 언어 상호작용의 감소, 경제적 격차, 돌봄 공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언어·사회정서 발달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기간의 지속적인 추적을 위한 별도의 코호트 구축이 요구됨.

## 나. 후속 연구 추진 방향

□ 표본 유지

- 표본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조사 시행 후에 결과가 어떻게 분석되었으며, 연구 결과가 실제 연구와 정책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환류되었는지를 조사 대상자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표본 추가

- 중단조사는 장기간 동일한 표본을 추적 조사하기 때문에 표본 이탈을 피할 수 없는데, 표본 이탈은 표본의 모집단 대표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이에 조사 자료를 가지고 추정된 값이 모집단의 모수와 다를 개연성이 있는데,

향후 본 연구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검토도 요구됨.

□ 가중치 적용

- 본 연구가 패널조사라는 점에서 패널 이탈 방지 및 패널 이탈에 대한 분석을 통한 가중치 적용 등이 필요함. 횡단면 가중치와 종단면 가중치를 본 연구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3개년 또는 4개년의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종단면 가중치를 산출할 수 있는 것이며, 패널 이탈을 분석하여 추가적인 표집도 고려할 수 있음.

□ 영유아건강검진 DB 연계 및 유관 기관의 협업

- 본 연구에서는 K-DST 문항에 대한 부모 응답을 통해 발달 현황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영유아건강검진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크기 때문임. 향후 연구에서는 영유아건강검진 DB 연계하여 응답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종단 추적율의 제고를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도 교육청 등 유관 기관의 협업을 통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조사 관련 지원과 협력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I

## 서론

01 연구의 목적

02 연구 내용

03 연구 방법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폐쇄와 원격 교육의 시행이 학습 격차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교사와 부모의 역량 차이, 가정의 물리적 자원 차이, 부모의 시간 제약, 부모의 교육 수준 등이 원격교육에서 아동 간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박미희, 2020)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여러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아동 가구의 교육 지출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에 전반적으로 디지털 장치에 대한 지출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중 비빈곤 가구만 유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김지우 등, 2021).

영유아도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권혜진(2021)은 보육교사의 자가 격리로 인해 학급이 통합 운영되거나, 일부 영유아들만 등원하는 등의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웠으며, 등원하지 못한 영유아와 그렇지 못한 영유아 간의 아동의 적응 차이로 인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장시간 가정에서 보내는 유아들은 가정에서의 교육적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자녀에게 교육적 지원이나 환경적 자극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의 유아들에게 장기간의 가정양육은 교육 기회의 박탈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최혜영 등, 2021).

그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실직과 부부 갈등 등의 위험 요인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들도 있는데, 취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아동의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발생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Prime et al., 2020).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증가한 실업률은 빈곤을 심화시키고, 그로 인해 아동의 건강 악화와 발달 지연을 유발한다(Fegert et al., 2020)는 지적도 있다(최윤경 등, 2021에서 재인용).

한편, 임신 중 산모에게 특정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하였을 경우 태아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감염된 산모의 혈액이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어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감염으로 태아의 뇌를 직접 손상시키거나 감염된 산모의 염증반응 또는 과도한 면역반응이 간접적으로 태아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Shook et al., 2022; Yockey et al., 2020).

코로나19 팬데믹인 202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3세 이하의 영유아는 2011년에서 2019년 사이인 팬데믹 이전 시기에 태어난 영유아와 비교하여 인지기능이 평균적으로 낮게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으며(Deoni et al., 2021), 팬데믹 이전에 출생한 영아들을 대조군으로 비교하였을 때 팬데믹 기간에 출생한 영아들의 경우 임신 중 코로나19의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신경발달 정도에서 대조군과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하였으며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회적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고 제시되기도 한다(Shuffrey et al., 2022).

범세계적 팬데믹 현상이 영유아의 신경 발달에 얼마나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이미 초래된 발달 지연의 격차가 극복될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영유아의 발달이 지연될 실체적이고 또한 잠재적인 위험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단편적인 소규모 집단의 연구가 아닌, 사회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대규모의 연구를 통해 지금의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에 대처하고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서 이러한 지원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보육·돌봄 기관의 휴원과 휴업, 교육체계의 붕괴(학교 휴교 및 폐쇄 조치)는 교육·보육·돌봄의 영역과 성과에 국한되지 않고, 영유아와 지역사회 전반의 건강한 성장과 유지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인들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사회 전반의 의식주와 신체적·정신적 건강, 개별 가정의 일·가정 양립 및 일·생활 균형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이로써 가장 취약한 곳과 사각지대에서 사회적 폭력과 학대의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 간의 팬데믹 영향에 대한 논의는 부모 및 가구의 고용·노동 상의 변화와 이로 인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돌봄의 공백과 대응력의 부재 관련 논의에 정책적

초점이 맞추어져 온 경향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현황의 파악과 실증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생애 초기의 출발점이 되고 이후 전 주기에 걸친 영향력이 큰 취학 전-후 영유아 돌봄, 교육·보육의 공백과 그 격차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및 학습의 과정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증 데이터를 통한 (evidence-based)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국내외의 일부 연구 결과들은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이기도 하는데, 각각 표본 지역, 검사 시점, 검사 방법 등의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방법론적 한계가 있으므로,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변인들 내에서 팬데믹의 영향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신중하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은영 등, 2022, 20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 구축한 태내기부터 팬데믹을 경험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성장·발달, 가구의 돌봄, 교육·보육 현황과 변화를 다중 코호트 방식의 종단 추적(5개 연령, 5년간 추적)을 토대로 2차년도 실증 데이터를 누적하여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팬데믹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누적된 종단 데이터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팬데믹에 의한 결핍의 요소를 밝혀 이에 따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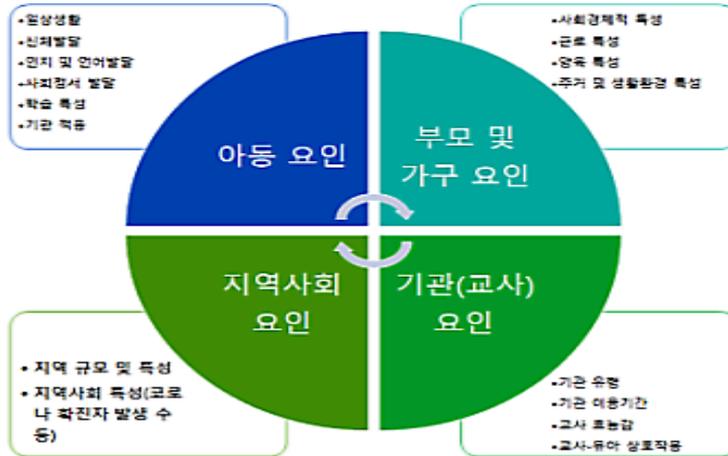
## 2. 연구 내용

이상의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차년도 연구에서는 코로나 세대 아동의 발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영유아 아동 연령별 코호트(보육연령기준 1~5세, 5개 연령)를 구축하였다. 어린이집을 처음 이용하는 시기부터 코로나19와 함께한 2018년생(보육연령 5세)과 2019년생(보육연령 4세), 태내기부터 코로나19를 경험한 2020년생(보육연령 3세), 2021년생(보육연령 2세), 2022년생(보육연령 1세) 아동을 대상으로 연령별 코호트를 구축하였다. 2차년도에는 해당 연령을 종단 추적하여 조사한다.

둘째, 1차년도에 5개 아동 연령별, 발달 영역별로 설계한 설문조사 문항을 검토하여 다양한 아동 발달(신체, 인지/언어, 사회·정서) 측면과 아동을 둘러싼 부모, 가정 특성, 기관 특성, 지역사회 특성을 포함하여 조사한다.

[그림 I-2-1] 조사 내용(안)



셋째, 코로나19 시기에 특징적인 경험을 한 주요 연령 집단(예: 현재 보육연령 2세-임신/태내기부터 코로나를 경험한 2022~2023년생)을 특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수행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놀이치료 아동의 임상데이터,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의 데이터를 심층분석 한다.

넷째, 2024년(1차년도)에 수집된 조사 데이터 결과를 제시하고,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구축된 데이터가 다년간 누적될 시 가능한 분석과 데이터 활용에 대해 논의한다.

다섯째, 다중 코호트 구축 방향 설정과 조사 내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아동의 발달 관련 조사 변인과 지속 추적 필요 변인 등을 추가 설정한다.

### 3. 연구 방법

#### 가. 문헌 연구

설문조사, 심층조사 조사 설계와 문항(척도)의 보완 사항을 검토한다. 1차년도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1차년도 조사 수행 경험을 통한 보완 사항을 반영하고, 한국 아동패널 데이터와의 비교 고려하여 발달 관련 문항을 검토한다. 또한 아동 발달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척도, 한국아동패널과 영유아교육보육패널에서 사용한 척도와 문항을 중심으로 연령별로 이용 가능한 아동, 부모 대상의 측정 도구를 검토하여 연령에 적합한 추가 문항을 설계한다.

## 나. 다중 코호트 종단 설계

1차년도(2024년)에는 보육연령기준 1세(2022년생), 2세(2021년생), 3세(2020년생), 4세(2019년생), 5세(2018년생)반에 재학 중인 아동과 부모, 교사 각각 750명씩 표집하였는데, 본 다중 코호트는 임신기부터 코로나19를 경험한 아동(2020년~2022년생)과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코로나19를 경험한 아동(2018~2019년생)을 포함하고 있어 코로나 세대 아동을 대표하는 연령대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밝힌다. 또한 연령 기준으로 2022년생(보육연령 1세)과 2021년생(보육연령 2세)은 영아기, 2020년생(보육연령 3세)부터 2018년생(보육연령 5세)까지는 유아기로 영유아기를 아우르는 코호트로 구성되었다(최윤경 등, 2024).

〈표 I-3-1〉 1차년도 조사 대상 목표 표본 수 및 연령별 특성(코로나 경험 시기, 시기 구분)

출생년도	연차	1차년도 (2024년)		코로나 경험 시기 구분	연령별 구분
		현재	목표 표본 수		
2022년		현재 1세반	750명	임신/태내기부터	영아기
2021년		현재 2세반	750명		
2020년		현재 3세반	750명		
2019년		현재 4세반	750명	1세, 0세 시기부터	유아기
2018년		현재 5세반	750명		

주: 2020년생은 코로나 시작 이후 태어난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음.  
 자료: 최윤경 등(2024). 코로나 세대 아동 발달 종단추적 연구(1). p. 22

조사 대상의 선별 기준은 1차년도와 동일하다. 첫째, 아동 출생 월이 1~8월 범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영유아기 아동의 발달은 월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조사 시기에 이미 생일이 지난 아이들을 기준으로 대상 아동을 선별하여 보육연령별 발달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둘째, 학급 내 무선 표집을 실시하였다(예: 아동명부/번호를 활용한 무선표집-중간의 남아/여아 각 1명을 표집)(최윤경 등, 2024).

## 다. 설문 조사

### 1) 조사 대상

아동 발달을 둘러싼 중요한 환경 중 가정과 기관의 요소를 포함하기 위해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발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I-3-2〉 조사대상 아동 출생연도

출생연도	연령
2022년생	2025년 기준, 만 3세
2021년생	2025년 기준, 만 4세
2020년생	2025년 기준, 만 5세
2019년생	2025년 기준, 만 6세
2018년생	2025년 기준, 만 7세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는 총 2,835명으로, 응답자 부모의 특성은 〈표 I-3-3〉과 같다. 맞벌이 가구 60.9%, 외벌이 가구 39.1%로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더 높았으며, 가구 소득은 9분위 이상 34.6%, 7분위 이상 34.5%로 7~8분위 가구와 9~10분위 이상 가구가 많았다. 모의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 53.6%, 전문대 졸업 24.7%, 고등학교 졸업 이하 11.5%, 대학원 졸업 10.1%로 대학교를 졸업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의 최종학력 역시 대학교 졸업 53.2%, 전문대 졸업 20.9%로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다. 취업상태는 어머니의 경우 정규직 43.3%, 비취업 37.0%로 취업모이자 정규직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부의 경우 정규직 74.6%, 자영업 19.2%로 정규직이 가장 많고, 그 뒤로는 자영업이 많았다.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중소도시 42.4%, 대도시 40.1%, 읍면 17.5%로 중소도시에 거주가 가장 많았고, 지역은 인천 및 경기권이 36.5%로 가장 많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아동 특성의 경우 남아 51.2%, 여아 48.8%로 남아의 참여율이 더 높았으며, 보육연령은 연구에 참여한 2세반(2022년생)부터 초등학교 1학년(2018년생)까지의 연령 중 5세반(2019년생)과 4세반(2020년생)의 참여율이 이외 연령의 아동에 비해 높았다. 아동의 이용 기관별로는 어린이집 재원이 43.9%로 과반이었으며, 기관 유형은 국공립 및 법인 등 어린이집 재원이 3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사립 유치원 재원이 25.3%로 많았다. 기관 현원에 따라서는 51인~100인 이상이 재

원 및 재학 중인 기관에 다니는 아동이 42.6%로 가장 높았다.

〈표 I-3-3〉 부모 및 아동 특성

단위: %, 명

구분	계	(수)
전체	100.0	(2,835)
모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1.5	(327)
전문대 졸업	24.7	(701)
대학교 졸업	53.6	(1,520)
대학원 졸업	10.1	(287)
부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4.4	(409)
전문대 졸업	20.9	(594)
대학교 졸업	53.2	(1,507)
대학원 졸업	11.5	(325)
모 취업 상태		
정규직	43.3	(1,226)
비정규직	9.7	(275)
자영업	9.3	(265)
학업 중	0.7	(19)
비취업	37.0	(1,049)
부 취업 상태		
정규직	74.6	(2,115)
비정규직	4.2	(120)
자영업	19.2	(544)
학업 중	0.3	(8)
비취업	1.7	(48)
맞벌이 여부		
맞벌이	60.9	(1,727)
외벌이	39.1	(1,108)
가구 소득		
307만원 이하(1~4분위)	7.1	(202)
308~467만원(5~6분위)	23.8	(675)
468~680만원(7~8분위)	34.5	(978)
681만원(9~10분위이상)	34.6	(980)
아동 성별		
남아	51.2	(1,453)
여아	48.8	(1,382)
자녀 연령(반연령)		
2세반(2022년생)	18.7	(529)
3세반(2021년생)	19.7	(558)
4세반(2020년생)	20.7	(587)
5세반(2019년생)	22.6	(641)
초1(2018년생)	18.4	(521)

구분	계	(수)
자녀 이용기관		
어린이집	43.9	(1,246)
유치원	37.7	(1,068)
초등학교	18.4	(521)
기관 유형1		
국공립/법인등 어린이집	32.6	(925)
민간/가정 어린이집	11.3	(320)
국공립 유치원	12.4	(351)
사립 유치원	25.3	(717)
공립 초등학교	18.1	(514)
사립 초등학교	0.2	(7)
기관 현원		
20인 이하	7.8	(222)
21~50인	22.2	(630)
51~100인	42.6	(1,207)
101인 이상	27.4	(777)
지역 규모		
대도시	40.1	(1,136)
중소도시	42.4	(1,201)
읍면	17.5	(497)
지역		
서울	15.1	(428)
인천/경기	36.5	(1,034)
충청/강원권	14.6	(413)
전라/제주권	9.3	(263)
대경권	9.6	(272)
부울경	15.0	(425)

## 2) 조사 내용

설문조사는 웹 또는 모바일로 진행하되, 1차년도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였다. 먼저 1차년도에 참여한 아동이 이용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 조사 협조를 요청하였다. 부모의 협조를 통해 교사에게 연락하고, 정보를 받아 설문조사 링크를 전달하였다.

설문의 구성은 크게 ①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지역, SES, 부모특성(취업여부, 근로시간 등) 등을 구성하고, ② 독립변인으로 부모됨, (돌봄)서비스 이용(코로나기간, 현재), 교우관계(상호작용 등), 미디어 이용, ③ 결과변인으로 아동 발달영역별 문항(조절/집행기능 포함, 연령별 문항)을 구성하였고, ④ 통제변인으로 기질/성격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예: 한국아동패널/한국영유아교육보육패널 도구 프로

파일, 최윤경 등, 2024, 부록 참조).

설문 문항은 크게 아동 발달 특성, 부모 특성, 교사 특성, 기관 이용 특성, 동네 특성, 아동 건강 특성으로 구분되는데, 아동 발달 관련해서는 부모에게 발달영역과 발달전반에 대한 부모의 주관적인 인식을 묻는 문항과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와 같이 표준화된 선별도구 문항을 추가하여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K-DST는 71개월까지만 검사가 가능하며, 2018년생은 학업능력을 검사하는 문항으로 대체하였다(최윤경 등, 2024).

2차년도 연구에서는 아동 발달의 중단 추적을 위해 연속성 있게 조사해야 할 항목을 검토하여 보완하였고, 응답자의 피로도를 최소화하고, 응답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불필요한 문항들을 삭제하였다. 문항 검토 작업은 원내 멘토링, 연구진 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서면 검토를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최종 확정된 2차년도 문항 구성은 다음과 같다(부표 1, 2 참조).

## 라. 심층 조사

자기보고식 조사를 활용하여 수집되는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발달 수행검사, 코로나 전/중/후 임상데이터 분석,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 데이터 분석의 3가지 접근을 취하였다.

### 1) 영유아발달 수행검사

1차년도 연구에서는 다중 코호트로 구축된 표본 중에서 다른 연령대와 구분되는 경험을 지닌 2021~2022년생(2024년 기준 보육연령 1~2세)과 2018년생(2024년 기준 보육연령 5세)을 발달상 주요 대상 연령으로 심층 조사하였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 연구 결과, 사회정서 측면에서 추적이 요구되는 연령인 보육연령 1~2세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하고, 1차년도 결과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심층조사 내용은 코로나19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 방안 연구(I, II)(최은영 등, 2022, 2023)에서 수행한 도구로 한국형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K-Bayley IV)를 수행하였다. 영유아 베일리발달검사는 생후 1~42개월을 대상으

로 하며 인지, 언어, 운동 척도와 양육자 평정용 사회정서 발달 척도, 적응행동, 생활기술 영역, 사회화 영역으로 구성된다.

가) 검사 대상

발달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코로나 세대 아동 발달 현황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의 참여한 영유아 중 심층조사 참여를 희망하는 2022년 8월 ~ 2023년 7월생 영유아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나) 검사 도구: K-Bayley-4

보육연령 1~2세 영아(총 100명, 성비 고려)를 대상으로 한국 영유아 베일리발달검사 4판을 실시하고자 한다. 한국 영유아 베일리발달검사 4판(K-Bayley-4, 바인랜드 적응행동 포함)은 검사자가 직접 영아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인지, 언어(수용언어 소검사와 표현언어 소검사), 운동(소근육 운동 소검사와 대근육 운동 소검사) 척도와 양육자가 질문지로 평정되는 사회정서 발달 척도와 적응행동(의사소통 영역[수용, 표현 하위영역], 일상생활 영역[개인/자조 영역], 사회화 영역[대인관계, 놀이/여가 영역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K-Bayley-4의 소검사 구성 및 내용은 <표 I-3-4>와 같다(Bayley & Aylward, 2019/2023).

<표 I-3-4> K-Bayley-4 소검사 구성 및 내용

척도	소검사/하위영역	문항수	내용
인지	인지	81	감각운동 발달, 탐색과 조작, 사물관계, 개념형성, 기억, 실행기능의 전구체 및 기타 인지처리를 측정
언어	수용언어	42	비언어적 의사소통 이해, 어휘 이해(예: 명명된 사물과 그림을 알아맞힐 수 있는 능력), 대명사나 위치어의 이해, 시제와 사동/피동과 같은 문법형태소 이해, 사회적 참조와 언어이해를 측정
	표현언어	37	언어 이전 의사소통(옹알이, 몸짓하기, 공동주의하기, 번갈아 주고받기 등), 어휘 발달(사물, 사진, 사물의 속성, 명명하기), 통사와 형태소 발달을 측정
운동	소근육 운동	46	잡기, 지각-운동 통합, 운동계획, 운동속도와 관련된 기술을 측정
	대근육 운동	58	주로 팔다리와 몸통의 안정성과 움직임, 정적 자세(예: 앉기, 서기)와 동적 움직임(예: 이동능력, 협응능력, 균형, 운동계획 등), 신경발달을 측정

척도	소검사/하위영역	문항수	내용	
사회정서	사회정서	35	감각처리와 기능적 정서기술의 숙달정도를 측정	
적응행동	의사소통	수용	23	다른 사람의 정보에 관심 가지기, 이해하기, 반응하기
		표현	28	단어와 문장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로 자신 표현 사용하기
	일상생활	개인/자조	30	먹기, 입기, 씻기, 위생, 건강관리 등을 스스로 하기
	사회화	대인관계	20	우정, 보살핌, 사회적 적절성, 대화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맺기
		놀이/여가	19	다른 사람들과 놀거나 재미있는 활동하기
	소계	120		

(1) K-Bayley-4의 인지, 언어, 운동척도<sup>1)</sup>

K-Bayley-4의 인지, 언어, 운동척도의 소검사는 인지, 수용언어, 표현언어, 소근육 운동, 대근육 운동 검사로 양육자를 동반하여 검사가 이루어진다. 영유아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한 공간에서 영유아의 활동이 제한받지 않는 장소에서 실시하며, 영유아가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는 양육자에게 질문을 한다. 각 문항당 수행 정도에 따라 0, 1, 2점으로 채점되며, 검사 시간은 1~2세 영아의 경우 68분 정도 소요된다.

(2) K-Bayley-4의 사회정서척도<sup>2)</sup>

K-Bayley-4의 사회정서척도는 Greenspan의 사회정서성장그래프(Social-Emotional Growth Chart: A Screening Questionnaire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에 기초한 것으로 영유아가 사회정서 발달이정표에 도달했는지를 평가한다. 사회정서척도는 특정 연령에서 달성해야 하는 주요 발달이정표를 제시한다. 발달이정표에는 자기조절과 주변 세계에 대한 관심의 발달, 요구 전달하기,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관계 형성하기, 상호적이고 의도적인 방식으로 정서 사용하기, 정서 신호나 제스처를 사용하여 문제해결하기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이러한 기능적 정서기술의 숙달 정도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총 35문항으로 월령별 중지점이 있다. 각 문항은 영유아의 행동이 항상(10번 중 9번 이상) 관찰되면 5점, 대부분(10번 중 7번 이상) 관찰되면 4점, 반 정도(10번 중 5번 이상) 관찰되

1), 2) Bayley, N., Aylward G. P.(2023). (Bayley-4) 베일리 영유아발달검사 : 실시지침서 : 번역서. 박혜원, 이경옥, 이순행, 심혜진, 윤희진(공역). pp. 17-18 내용을 재구성함.

면 3점, 가끔(10번 중 3번 이상) 관찰되면 2점, 전혀(10번 중 0번 이상) 관찰되면 1점, 알 수 없다(관찰한 것이 확실하지 않거나, 잘 모르는 경우)는 0점으로 평정한다. 응답시간은 대체로 10분 정도 소요된다.

(3) K-Bayley-4의 적응행동척도<sup>3)</sup>

K-Bayley-4의 적응행동척도는 Vineland 적응행동척도 3판[Vineland Adaptive Behavior Scales, third edition](Sparrow et al., 2016)의 양육자용에 기초하여 생후 16일부터 42개월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재구성된 한국판으로 3개의 영역과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의사소통 영역은 수용, 표현, 일상생활 영역은 개인/자조, 사회화 영역은 대인관계, 놀이/여가로 구성되어 있다. 총 120문항으로 각 문항은 영유아가 도와주거나 시키지 않아도 자주 스스로 수행하는 경우 2점, 도와주거나 시키지 않아도 가끔 수행하는 경우 1점, 해당 행동을 수행한 적이 없거나, 또는 도와주거나 시키지 않으면 스스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0점으로 평정한다. 모든 영유아는 영역별로 문항 1에서 시작하여 5문항 연속 0점인 경우, 평정을 중지한다. 응답시간은 대체로 15분 정도 소요된다.

## 2) 코로나 전/중/후의 임상데이터 분석

### 가) 분석 자료

코로나19 팬데믹의 심층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00대학교 00학과 놀이치료실 및 서울, 경기지역에서 본 학과 협업 기관인 놀이치료실에서 코로나 전(2018~2019년), 중(2020~2021년), 후(2023~2024년 8월)에 놀이치료를 받았던 만 3~6세 내담 아동의 총 372 사례의 검사지 및 설문지 코딩자료와 모가 보고한 주호소 내용, 내담 아동 부모 약 372 사례의 검사지 코딩자료를 분석하였다(〈표 I-3-5〉 참조).

---

3) Bayley, N., Aylward G. P.(2023). (Bayley-4) 베일리 영유아발달검사 : 실시지침서 : 번역서, 박혜원, 이경옥, 이순행, 심혜진, 윤희진(공역). pp. 17-18 내용을 재구성 함.

〈표 I-3-5〉 일반 정보

단위: 명(%)

구분		코로나 전(18~19년)	코로나 중(20~21년)	코로나 후(23~24년 8월)
성별	남	34( 61.8)	95( 53.4)	68( 60.2)
	여	21( 38.2)	78( 43.8)	45( 39.8)
	전체	55(100.0)	173(100.0)	113(100.0)
연령	3세	13( 23.6)	43( 24.2)	20( 17.7)
	4세	14( 25.5)	47( 26.4)	33( 29.2)
	5세	12( 21.8)	54( 30.3)	28( 24.8)
	6세	16( 29.1)	30( 16.9)	28( 24.8)
	전체	55(100.0)	174(100.0)	109(100.0)

### 나) 분석 방법

양적연구(군집분석, MANOVA,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와 질적분석(놀이치료 주호소 및 지금 내방한 이유 분석) 혼합연구를 실시하였다.

#### (1) 양적 분석

아동 및 부모 대상 검사지 및 설문지 데이터에 대해 시기별로 기초통계, 상관분석, 군집분석, MANOVA,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시기마다 내담 아동의 사회·정서문제행동 유형, 실행기능 유형 및 모 양육 태도 유형을 검증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주요 변인들의 특성 및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다음, 내담 아동의 사회정서 문제행동, 실행기능, 모의 양육 태도의 하위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하였다. 이를 위해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하였다. 1단계로 표준화된 변인에 Ward의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군집화 일정표와 덴드로그램을 활용하여 적합한 군집의 수를 도출하였다. 2단계로 비계층적인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통해 1단계에서 산출된 군집에 사례를 분류하였다. 둘째로 내담 아동의 사회정서 문제행동 수준에 따른 실행기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분산의 동질성 검증 결과 사회정서 문제행동 군집은 등분산성이 가정되지 않아 Games-Howell 사후 검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후 시기의 내담 아동의 사회정서 문제행동과 기질, 성격 특성 및 모의 양육 태도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소프트웨어는 SPSS Statistics 26.0을 사용하였다.

## (2) 질적 분석

수집된 총 372 사례의 '주호소' 및 '지금 내방한 이유'를 대상으로 질적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접수면접지에 기록된 주호소를 코딩한 자료에서 내용을 추출하여 이를 시기별로 분류한 다음 여러 번 읽고 범주를 구분하였다. 연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이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하여 합의점을 찾았다. 본 연구자들은 놀이치료 임상 경력 35~20년이며 관련 질적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본 분석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놀이치료 전문가 1인에게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 3)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의 발달 분석

코로나19 팬데믹이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 중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이하의 아동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과 그 양육자, 자립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한 자료에서 일부 대상자를 추출하였다. 이 자료는 2023년 첫 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10년 동안 1년 주기로 추적하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아동권리보장원이 구축·운영하는 조사이다.

### 가) 분석 자료

분석 대상인 드림스타트 이용 영유아는 여아(56.3%)의 비중이 다소 더 높았고 장애를 가진 비율은 7.5%였다. 이는 드림스타트 이용 초등 저학년과 초등 고학년의 인구학적 분포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드림스타트 이용 초등 저학년과 초등 고학년의 경우 여아보다는 남아가 조금 더 많이 조사에 참여하였고 장애를 가진 비율은 각각 4%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서비스 이용 시작 시점은 2023년 조사에 참여한 시점을 기준으로 드림스타트 서비스를 이용한 지 얼마의 시간이 경과되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드림스타트 서비스 이용 시점이 5년 초과인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가족구조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양부모 가정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데 반하여 초등 저학년과 초등 고학년의 경우에는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인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의 양육자로서 본 조사에 함께 참여한 양육자는 모든 연령대의 아동에게서 여성의 비율이 단연 높았고 40~49세 사이 연령대의 양육자 분포 비율이 약 50%로 가장 높았다. 장애를 가진 것으로 보고한 양육자는 아동의 연령대별 7% 이내로 나타났다. 최종 학력이 무학 또는 초등학교 졸업인 것으로 보고한 비율은 초등학생 아동을 둔 양육자 내에서 소수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본 분석 대상 아동의 가족구조 중 조손가정 등이 포함된 결과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의 가구 소득수준을 파악해 본 결과, 지난 1년간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양육자의 비율이 영유아와 초등학생 아동 가구에서 38.8%에서 44.0%까지로 확인되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월평균 가구소득 구간은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으로, 영유아(22.5%)와 초등 저학년(25.7%), 초등 고학년(21.3%) 아동을 둔 가구에서 약 25% 내외로 나타났다.

〈표 I-3-6〉 분석 대상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구분	영유아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전체	100.0	(80)	100.0	(190)	100.0	(413)
아동 성별						
남아	43.8	(35)	53.2	(101)	55.7	(230)
여아	56.3	(45)	46.8	(89)	44.3	(183)
아동 장애 여부						
장애	7.5	(6)	3.7	(7)	3.9	(16)
비장애	92.5	(74)	96.3	(183)	96.1	(397)
서비스 이용 시작 시점						
5년 이하	75.0	(60)	63.2	(120)	47.9	(198)
5년 초과	25.0	(20)	36.8	(70)	52.1	(215)
가족 구조						
양부모가정	53.8	(43)	43.2	(82)	43.4	(178)
한부모가정	45.0	(36)	55.3	(105)	51.5	(211)
조손가정	1.2	(1)	1.6	(3)	5.1	(21)
양육자 성별						
남성	8.8	(7)	8.4	(16)	15.3	(63)
여성	91.3	(73)	91.6	(174)	84.7	(350)

구 분	영유아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양육자 장애 여부						
장애	6.3	(5)	3.7	(7)	7.0	(29)
비장애	93.8	(75)	96.3	(183)	93.0	(384)
양육자 연령대						
29세 이하	7.4	(6)	4.7	(9)	0.0	(0)
30 ~ 39세	35.8	(29)	31.4	(60)	20.4	(84)
40 ~ 49세	48.1	(39)	53.4	(102)	52.9	(218)
50 ~ 59세	7.4	(6)	8.4	(16)	20.6	(85)
60세 이상	1.2	(1)	2.1	(4)	6.1	(25)
양육자 최종학력						
무학	0.0	(0)	0.5	(1)	0.7	(3)
초등학교 졸업	1.3	(1)	3.1	(6)	3.6	(15)
중학교 졸업	6.3	(5)	5.8	(11)	7.7	(32)
고등학교 졸업	50.6	(40)	58.1	(111)	55.7	(230)
전문대학교 졸업	20.3	(16)	16.8	(32)	14.8	(61)
대학교 졸업	21.5	(17)	13.6	(26)	16.0	(66)
대학원 졸업	0.0	(0)	2.1	(4)	1.5	(6)
1년간 월평균 가구소득						
소득 없음	8.8	(7)	5.2	(10)	10.4	(43)
100만 원 미만	18.8	(15)	12.6	(24)	12.6	(52)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38.8	(31)	44.0	(84)	43.5	(180)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22.5	(18)	25.7	(49)	21.3	(88)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5.0	(4)	5.2	(10)	8.2	(34)
400만 원 미만 이상	3.8	(3)	4.2	(8)	2.9	(12)
모름	2.5	(2)	3.1	(6)	1.2	(5)

주: 본 분석자료는 표본횡단가중치가 부여되기에, 총인원 및 백분율에서 약간의 오차가 존재함.

## 나) 분석 방법

초등학생 아동의 발달결과를 양부모 가정 여부에 따라 살펴보았다. 코로나 장기화 시기에 양부모 가정보다는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에서 소득 상실 및 돌봄 공백의 어려움이 더 많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려하여 초등학생 아동의 분석은 양부모 가정과 한부모·조손가정의 아동들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집단 비교 시 빈도수가 5 미만인 셀이 존재하는 경우 통계적 유의성을 제시하지 않고 n. a로 표기하였다. 영유아의 경우 발달선별검사 항목별로 4개 정도의 응답 범주가 존재하고 분석 대상의 수도 많지 않기에 별도의 집단 비교 및 통계 검증 결과는 제시하

지 않고 양육자가 영유아의 대근육 및 소근육, 인지 등에 관하여 어떻게 보고하였는지의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빈도분석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 마. 1차년도 조사결과 심층분석 및 2차년도 가중치 산출

1차년도 연구(2024년)에서는 코호트 첫째 산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코로나 세대 아동 연령별 환경 특성 현황과 코로나 세대 아동 연령별 발달 현황에 대한 기본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연령별, 참여 가구 특성별로 심층 분석하였다. 또한 1차년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2차년도 조사에 필요한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 바. 전문가 자문회의

다중 코호트 구축 방향 설정과 조사 내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아동의 발달 관련 조사 변인과 지속 추적 필요 변인을 추가 설정하고, 심층조사 내용(아동 발달 검사도구 검토) 및 실시 방법을 검토하였다.

〈표 I-3-7〉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일자	대상(참석자)	안건
3.14(금)	학계전문가 2인	- 연구방향 및 연구방법 논의 - 2차년도 심층조사 방향 논의
4.4(금)	전문가 2인	- 1차년도 조사문항 검토 및 2차년도 조사 문항 수정 - 심층조사 관련 의견 수렴
4.15(화)	전문가 1인	- 연구방향 및 연구방법 논의 - 심층조사 방향 관련 논의
7.3(목)	전문가 1인	- 연구방향 및 연구방법 논의 - 심층조사 방향 관련 논의
10.31(금)	전문가 3인	- 최종보고 후속조치 관련 논의 - 후속연구방향 관련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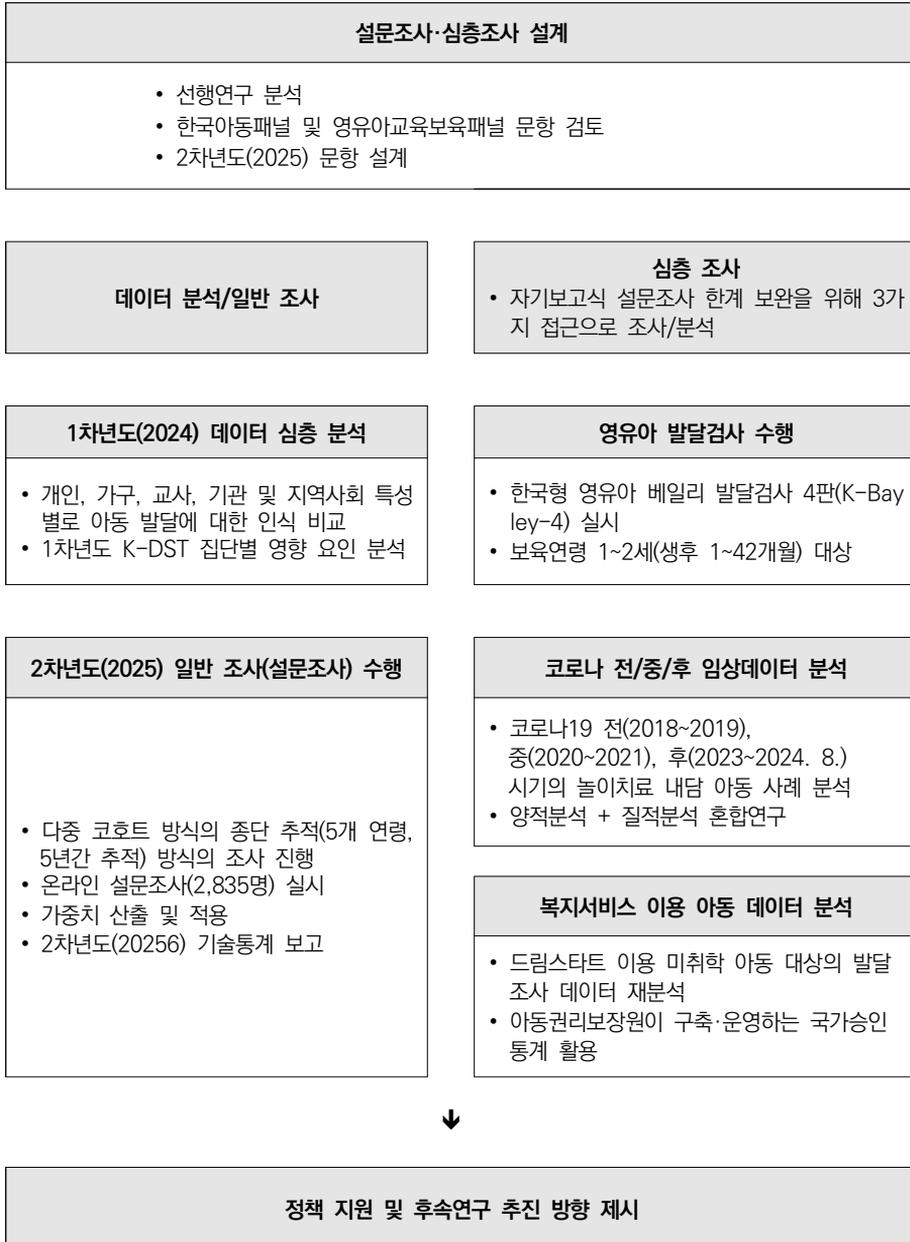
### 마. 연구 추진 체계

위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 체계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진은 1차년도 연구와의 연속성을 고려하고, 국내외 선행연구와

한국아동패널 및 영유아 교육·보육패널을 참고하여 설문조사 문항을 검토하고, 연계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하고, 부모 대상의 아동 발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1차년도에 수집된 조사 데이터 결과를 아동, 가구, 교사, 기관 및 지역사회 특성으로 구분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자기보고식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영유아 발달 수행검사(K-Bayley-4)를, 외부 공동연구진은 각각 코로나 전/중/후 임상데이터 분석과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의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 총 3가지 접근 방식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코로나 세대 영유아의 발달적 변화를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실증적인 데이터로 구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애 초기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코로나 세대의 발달 특성을 누적적인 데이터의 구축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로나 세대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지원 방안과 후속 연구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그림 1-2-2] 참조).

[그림 1-2-2] 연구 추진 체계 및 방법





# II

## 2차년도(2025) 조사 개요

- 01 조사 개요
- 02 표본 설계
- 03 가중치 산정



## II. 2차년도(2025) 조사 개요

### 1. 조사 개요

5개년으로 진행되는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세대 아동’을 (1) 코로나19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아동 세대(2018~2022년 출생 아동)와 태내기부터 경험한 (2) 포스트코로나 아동 세대(2023년~ 2026년 출생 아동)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최윤경 등, 2024). 이에 따라 1차년도에는 코로나19를 직접 경험한 2018년부터 2022년 출생 아동(1~5세)을 표집하였으며,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아동을 최대한 종단 추적하여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표 II-1-1〉 연차별 설문조사 대상 목표 표본 수(5년 종합(안))

출생년도 연차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초1	초2	초3	초4	계
PC 코호트(20201~2022년생)										
2022	750	500	500	500	500					2,750
2021		750	500	500	500	500				2,750
C 코호트(2020년생)										
2020			750	500	500	500	500			2,750
BC 코호트(2018~2019년생)										
2019				750	500	500	500	500		2,750
2018					750	500	500	500	500	2,750

주: 표기된 연령은 보육연령으로(기관 표집의 반 연령 기준으로 제시함)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출생한 아동으로, 해당 아동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해야 하나, 전체 아동 명부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 아동이 재원 중인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1차 추출단위로 설정하여 표본설계를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초등학교를 1차 추출단위로 추가한 것은 2024년 조사에서 5세 아동은 올해 조사에

서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으므로 이들을 조사하기 위함이다.

2024년도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23년 기준으로 3~5세 아동의 89.7%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전체 1~5세 아동 중 약 90% 이상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본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1차 추출단위로 삼아 설계함으로써, 높은 재원율을 기반으로 한 대표성 있는 조사 표본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2. 표본 설계

### 가. 조사 모집단 분석

본 연구에서 목표 모집단은 2025년 1월 기준으로 2~6세 아동 전체이다. 조사 모집단은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출생한 아동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이다. 2차년도 조사를 위한 표본추출틀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2024년 4월 기준, 어린이집의 경우 2025년 6월 기준 명부를 기반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유치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자료는 2024년 기준 자료이고, 어린이집의 경우는 2025년 6월 기준 자료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표본추출틀<sup>4)</sup>은 『교육통계』의 모집단 정보를 이용하였으며, 어린이집 표본추출틀은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sup>5)</sup>에서 제공하는 OPEN API를 활용하여 어린이집 일람 현황 자료를 수집·정제하여 구성하였다.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 수와 아동 수를 시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아 또는 초등학교 1학년생이 1명 이상인 유치원은 7,701개소, 어린이집 25,826개소, 초등학교 6,134개교 등이며, 재원 중인 전체 아동 수는 유치원 446,191명, 어린이집 544,098명, 초등학교 1학년 353,713명 세 기관을 합하여 총 1,344,002명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2-1〉 참조).

4)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5)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main.jsp](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main.jsp)

〈표 II-2-1〉 2024년 기준 시도별 유치원과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현황

단위: 개원, 개소, 명

구분	기관 수				아동 수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계	유치원 (3~5세 반)	어린이집 (2~5세 반)	초등학교 (1학년)	계
전국	7,701	25,826	6,134	39,661	446,191	544,098	353,713	1,344,002
서울	731	3,981	605	5,317	58,842	83,766	51,986	194,594
부산	352	1,271	303	1,926	26,813	25,783	20,916	73,512
대구	297	968	239	1,504	21,727	18,771	16,629	57,127
인천	377	1,550	266	2,193	32,980	33,855	21,566	88,401
광주	254	770	155	1,179	15,423	13,783	10,943	40,149
대전	236	815	152	1,203	16,519	12,793	10,149	39,461
울산	166	531	122	819	11,679	10,931	8,641	31,251
세종	65	284	53	402	5,250	7,903	4,828	17,981
경기	1,952	7,973	1,344	11,269	131,476	175,979	104,407	411,862
강원	339	775	342	1,456	10,861	16,768	9,223	36,852
충북	296	820	259	1,375	12,429	19,928	11,146	43,503
충남	449	1,253	408	2,110	18,143	27,536	15,923	61,602
전북	429	852	382	1,663	13,789	16,121	11,182	41,092
전남	463	866	426	1,755	11,803	19,750	11,155	42,708
경북	574	1,144	462	2,180	22,076	21,349	16,056	59,481
경남	603	1,599	499	2,701	31,786	28,256	23,436	83,478
제주	118	374	117	609	4,595	10,826	5,527	20,948

자료: 1)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4). 교육통계연보.  
 2) 교육부(2025). 2024 보육통계(2024년 12월 말 기준).

〈표 II-2-2〉 2024년 기준 권역별/도시규모별 유치원과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현황

단위: 개원, 개소, 명

구분	기관 수				원아 수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계	유치원 (3~5세 반)	어린이집 (2~5세 반)	초등학교 (1학년)	계	
전국	7,701	25,826	6,134	39,661	446,191	544,098	353,713	1,344,002	
서울	731	3,981	605	5,317	58,842	83,766	51,986	194,594	
인천/경기	광역시	352	1,528	239	2,119	32,980	33,348	21,278	87,606
	시	1,534	6,580	976	9,090	115,431	135,247	90,740	341,418
	읍면	443	1,415	395	2,253	16,045	41,239	13,955	71,239
강원/충청	광역시	235	815	151	1,201	21,769	12,793	10,143	44,705
	시	435	1,753	330	2,518	26,494	36,531	25,822	88,847
	읍면	715	1,379	733	2,827	14,939	35,604	15,304	65,847
영남권	광역시	694	2,396	571	3,661	60,219	47,937	40,207	148,363
	시	572	1,651	365	2,588	39,188	28,132	25,511	92,831

구분	기관 수				원아 수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계	유치원 (3~5세 반)	어린이집 (2~5세 반)	초등학교 (1학년)	계	
호남/ 제주	읍면	726	1,466	689	2,881	14,674	29,021	19,960	63,655
	광역시	254	766	155	1,175	15,423	13,659	10,943	40,025
	시	418	1,126	329	1,873	23,521	23,557	19,396	66,474
	읍면	592	970	596	2,158	6,666	23,264	8,468	38,398

자료: 1)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4). 교육통계연보.  
2) 교육부(2025). 2024 보육통계(2024년 12월 말 기준).

본 연구에서 2~5세 대상 조사는 보육연령을 기준으로 2~5세반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하는 아동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유치원 재원 어린이는 3세 이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세반 조사는 어린이집만을 표본추출 대상으로 하고, 3~5세반 조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6세 대상 조사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 나. 층화 및 표본배분

KICCE 코로나 세대 다층 코호트 구축 연구에서는 아동을 기준으로 2025년 조사에서 연령별 500명씩 총 2,500명의 표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조사는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표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표본추출틀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명단을 활용하여 1차 추출단위는 기관으로 하며 기관의 연령별 학급 구성을 고려하여 연령별 학급에서 아동을 표집하였다.

표본설계의 층화는 기관 유형(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권역 및 도시 규모 등을 고려했고, 표본추출 단계에서 내재적 층화변수로 권역 및 도시 규모 층 내 행정 구역 구분과 설립유형(국공립, 사립 외)을 활용했다.

## 다. 2세 대상 조사 표본설계

본 연구에서는 2세반 조사는 어린이집만을 표본추출 대상으로 하였다. 어린이집 재원 2세 유아는 242,701명이고, 기관 당 평균 원아 수는 약 9.4명이다. 전체 25,826개 어린이집 중에서 재원 유아가 5명 이하인 경우가 8,561개소로 전체의 31.9%를 차지하고 있다(〈표 II-2-3〉, 〈표 II-2-4〉 참조).

〈표 II-2-3〉 2025년 기준 어린이집 자원 2세 유아 현황

단위: 개원, 개소, 명

구분	기관 수	2세		
		원아 수	기관당 평균 원아 수	
전국	25,826	242,701	9.4	
서울	3,981	36,710	9.2	
인천/경기	광역시	1,528	15,814	10.3
	시	6,580	61,595	9.4
	읍면	1,415	13,823	9.8
강원/충청	광역시	815	7,302	9.0
	시	1,753	16,110	9.2
	읍면	1,379	12,128	8.8
영남권	광역시	2,396	25,849	10.8
	시	1,651	15,004	9.1
	읍면	1,466	12,967	8.8
호남/제주	광역시	766	7,257	9.5
	시	1,126	10,224	9.1
	읍면	970	7,918	8.2

자료: 1)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4). 교육통계연보.  
 2) 교육부(2025). 2024 보육통계(2024년 12월 말 기준).

〈표 II-2-4〉 어린이집 자원 2세 유아 수 규모에 따른 기관 현황

단위: 개원, 개소, 명

구분	기관 수				유아 수			
	계	0인	1-5명	6명 이상	계	1-5명	6명 이상	
전국	25,826	1,784	6,777	17,265	242,701	23,472	219,229	
서울	3,981	224	994	2,763	36,710	3,455	33,255	
인천/경기	광역시	1,528	55	332	1,141	15,814	1,205	14,609
	시	6,580	638	1,482	4,460	61,595	5,419	56,176
	읍면	1,415	145	351	919	13,823	1,197	12,626
강원/충청	광역시	815	39	237	539	7,302	821	6,481
	시	1,753	93	470	1,190	16,110	1,647	14,463
	읍면	1,379	101	435	843	12,128	1,422	10,706
영남권	광역시	2,396	104	583	1,709	25,849	1,962	23,887
	시	1,651	93	496	1,062	15,004	1,683	13,321
	읍면	1,466	85	484	897	12,967	1,666	11,301
호남/제주	광역시	766	53	232	481	7,257	783	6,474
	시	1,126	78	328	720	10,224	1,081	9,143
	읍면	970	76	353	541	7,918	1,131	6,787

자료: 교육부(2025). 2024 보육통계(2024년 12월 말 기준).

어린이집은 규모 편차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조사 유아 수에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5명 이하 규모에서는 남녀 각각 1명씩 2명을 조사하고, 6명 이상 규모에서는 남녀 각각 2명씩 총 4명을 조사하는 방안을 적용하였다. 최종 층별 표본크기는 권역 및 기관 유형별 모집단 유아 수 기준으로 비례배분한 후 기관당 조사 인원수를 고려하여 표본기관 수를 산출하였다. 2세 대상 조사를 위한 전체 표본 어린이집은 138개소이다.

〈표 II-2-5〉 어린이집 자원 2세 유아 수 규모에 따른 표본배분 결과

단위: 개원, 명

구분	표본기관 수			표본 유아 수(2세)			
	계	1~5명	6명 이상	계	1~5명	6명 이상	
전국	138	26	112	500	52	448	
서울	21	4	17	76	8	68	
인천/경기	광역시	9	2	7	32	4	28
	시	34	5	29	126	10	116
	읍면	8	1	7	30	2	28
강원/충청	광역시	4	1	3	14	2	12
	시	9	2	7	32	4	28
	읍면	7	2	5	24	4	20
영남권	광역시	14	2	12	52	4	48
	시	9	2	7	32	4	28
	읍면	8	2	6	28	4	24
호남/제주	광역시	4	1	3	14	2	12
	시	6	1	5	22	2	20
	읍면	5	1	4	18	2	16

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4). 교육통계연보.

### 라. 3~5세 대상 조사 표본설계

본 연구에서 3~5세반 조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에서 이루어진다. 어린이집 자원 3~5세 원아는 301,397명이고, 기관당 평균 원아 수는 약 11.7명이다. 유치원 자원 원아는 446,191명이고, 기관당 평균 원아는 57.9명이다. 3~5세 자원 유아 수를 기준으로 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당 평균 원아 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린이집에서는 각 연령에서 남녀 각 1명씩 2명 조사가 가능한 수준이고, 유치원은 각 연령에서 남녀 각 2명씩 총 4명을 조사할 수 있다.

각 연령에서 기관 유형별 표본배분은 정원 원아 수 기준의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으며, 각 연령 및 기관 유형에서 표본기관 수는 어린이집에서는 남녀 각 1명씩, 유치원에서는 남녀 각각 2명씩을 조사하는 것을 기준으로 결정되었다.

〈표 II-2-6〉 3~5세 아동 대상 조사를 위한 연령별 모집단 및 표본배분 현황

단위: 개원, 명

구분	모집단			표본배분					
				표본크기(아동 수)			표본크기(기관 수)		
	어린이집	유치원	합계	어린이집	유치원	합계	어린이집	유치원	합계
3세	116,893	111,022	227,915	256	256	500	128	61	189
4세	93,211	153,928	247,139	189	311	500	95	78	173
5세	91,293	181,241	272,534	167	333	500	84	83	167
합계	301,397	446,191	747,588	612	888	1,500	307	222	529

세부 층의 표본크기는 각 연령에서 기관 유형별로 결정된 표본기관 수를 각 세부 지역층의 정원 유아 수 기준의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표 II-2-7〉 연령별 기관 유형 및 지역층 표본기관 수 현황: 3~5세 대상

단위: 개원, 개소, 명

구분	모집단 기관수			표본기관 수						
				3세		4세		5세		
	계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전국	33,527	25,826	7,701	128	61	95	78	84	83	
서울	4,712	3,981	731	19	9	15	10	13	10	
인천/경기	광역시	1,880	1,528	352	8	5	6	6	5	6
	시	8,114	6,580	1,534	33	15	23	18	19	20
	읍면	1,858	1,415	443	7	2	8	3	8	3
강원/충청	광역시	1,050	815	235	6	3	3	4	3	4
	시	2,188	1,753	435	7	4	5	5	5	5
	읍면	2,094	1,379	715	6	2	7	3	7	3
영남권	광역시	3,090	2,396	694	16	7	9	10	7	12
	시	2,223	1,651	572	8	5	4	7	3	7
	읍면	2,192	1,466	726	5	2	4	3	3	3
호남/제주	광역시	1,020	766	254	4	2	2	3	2	3
	시	1,544	1,126	418	5	3	4	4	4	5
	읍면	1,562	970	592	4	2	5	2	5	2

자료: 1)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4). 교육통계연보.

2) 교육부(2025). 2024 보육통계(2024년 12월 말 기준).

### 마. 6세(초등학교 1학년) 대상 조사 표본설계

본 연구에서는 6세 대상 조사는 초등학교를 표본추출 대상으로 하고, 초등학교 1학년생의 현황은 <표 II-2-8>과 같다.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생이 1명 이상인 초등학교는 6,134개교이고, 1학년생은 353,713명이고, 학급당 평균 1학년생 수는 약 18.9명이다.

<표 II-2-8> 초등학교 1학년생 현황(2024년 4월 기준)

단위: 개원, 개소, 명

구분	초등학교 수	초등학교 1학년			
		학급 수	학생 수	학급당 평균 학생 수	
전국	6,134	18,724	353,713	18.9	
서울	605	2,727	51,986	19.1	
인천/경기	광역시	239	1,021	21,278	20.8
	시	976	4,089	90,740	22.2
	읍면	395	803	13,955	17.4
강원/충청	광역시	152	529	10,149	19.2
	시	330	1,363	25,822	18.9
	읍면	732	1,161	15,298	13.2
영남권	광역시	571	2,035	40,207	19.8
	시	365	1,267	25,511	20.1
	읍면	689	1,294	19,960	15.4
호남/제주	광역시	155	612	10,943	17.9
	시	329	1,022	19,396	19.0
	읍면	596	801	8,468	10.6

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4). 교육통계연보.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개 학급을 추출하여 남녀 각 4명씩 총 8명을 조사하도록 한다. 최종 표본학교 수는 각 권역에 대하여 모집단 초등학교 1학년생 수 기준으로 비례배분한 후 학교당 조사 인원 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표 II-2-9〉 초등학교 1학년생 조사를 위한 표본배분 결과

단위: 개원, 개소, 명

구분	모집단			표본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학교 수	학생 수	
전국	6,134	18,724	353,713	63	500	
서울	605	2,727	51,986	9	72	
인천/경기	광역시	239	1,021	21,278	4	32
	시	976	4,089	90,740	15	116
	읍면	395	803	13,955	3	24
강원/충청	광역시	151	528	10,143	2	16
	시	330	1,363	25,822	5	40
	읍면	733	1,162	15,304	3	24
영남권	광역시	571	2,035	40,207	7	56
	시	365	1,267	25,511	4	32
	읍면	689	1,294	19,960	3	24
호남/제주	광역시	155	612	10,943	2	16
	시	329	1,022	19,396	4	32
	읍면	596	801	8,468	2	16

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4). 교육통계연보.

전체 표본기관은 어린이집 445개소, 유치원 225개원, 초등학교 63개교 등으로 전체 733개 기관이다(〈표 II-2-10〉, 〈표 II-2-11〉 참조).

〈표 II-2-10〉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등학교 표본기관 수

단위: 개원, 개소,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계	2세	3세	4세	5세	계	3세	4세	5세	6세	
전국	445	138	128	95	84	225	61	78	86	63	
서울	68	21	19	15	13	29	9	10	10	9	
인천/경기	광역시	28	9	8	6	5	17	5	6	6	4
	시	109	34	33	23	19	54	15	18	21	15
	읍면	31	8	7	8	8	8	2	3	3	3
강원/충청	광역시	16	4	6	3	3	10	3	4	3	2
	시	26	9	7	5	5	15	4	5	6	5
	읍면	27	7	6	7	7	8	2	3	3	3
영남권	광역시	46	14	16	9	7	28	7	10	11	7
	시	24	9	8	4	3	20	5	7	8	4
	읍면	20	8	5	4	3	10	2	3	5	3
호남/제주	광역시	12	4	4	2	2	8	2	3	3	2
	시	19	6	5	4	4	12	3	4	5	4
	읍면	19	5	4	5	5	6	2	2	2	2

전체 예상 응답자 수는 어린이집 1,114명, 유치원 900명, 초등학교 1학년 500명이다.

〈표 II-2-11〉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등학교 표본배분 결과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계	2세	3세	4세	5세	계	3세	4세	5세	6세	
전국	1,114	500	256	190	168	900	244	312	344	500	
서울	170	76	38	30	26	116	36	40	40	72	
인천/경기	광역시	71	33	16	12	10	68	20	24	24	32
	시	277	127	66	46	38	216	60	72	84	116
	읍면	74	28	14	16	16	32	8	12	12	24
강원/충청	광역시	39	15	12	6	6	40	12	16	12	16
	시	67	33	14	10	10	60	16	20	24	40
	읍면	65	25	12	14	14	32	8	12	12	24
영남권	광역시	117	53	32	18	14	112	28	40	44	56
	시	62	32	16	8	6	80	20	28	32	32
	읍면	50	26	10	8	6	40	8	12	20	24
호남/제주	광역시	31	15	8	4	4	32	8	12	12	16
	시	47	21	10	8	8	48	12	16	20	32
	읍면	44	16	8	10	10	24	8	8	8	16

## 바. 표본추출

본 조사에서 1차 추출단위는 기관(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이고, 2차 추출단위는 아동이다. 어린이집에서는 연령별로 2명의 영유아를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전체적인 표본 층화는 기관 유형(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권역 및 규모에 따라 비례배분하고 표본추출 단계에서 내재적 층화변수로 시도와 설립유형(국공립, 사립 외)을 활용하여 원아 수 기준의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적용하여 표본기관을 추출하였다. 기관별로 기관에 연령별 학급 구성에 따라 학급을 추출하여 각 기관 유형별로 결정된 표본 수를 아동의 성별을 고려하여 임의 추출하였다.

### 3. 가중치 산정

#### 가. 가중치 산출

본 조사의 표본설계는 층화, 다단계 표본추출 등을 고려하여 복합적인 설계 방법을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복합표본조사(complex sample survey)의 가중치는 ①설계 가중치, ②무응답에 대한 조정, ③사후층화에 의한 조정 등의 세 가지 요인을 통합하여 산정하였다.

코로나 세대 아동 발달 2차년도 조사에서 가중치는 설계가중치와 벤치마킹 보정을 통해 작성하였으며, 층화변수로 활용한 기관 유형(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권역(5개 권역) 및 지역 규모(3개 규모)를 설계가중치 산출에 반영하였다.

가중치 산출 과정은 1단계로 설계가중치를 산출하고 2단계로 벤치마킹 보정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표본추출은 2단계에 걸쳐 진행하였는데 1단계로 1차 추출단위인 기관(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을 추출하고 2단계로 기관 내에서 아동을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표본기관 내 표본 아동의 추출확률은 표본추출틀에서 각 기관의 연령별 아동수 정보를 활용하여 기관 내 추출확률을 산출하였다.

이와 같은 층화2단계집락추출법이 적용된 경우, 표본추출률은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f_{hij} = n_h \frac{B_{hi}}{\sum_{i=1}^{N_h} B_{hi}} \cdot \frac{n_{hi}}{B_{hi}} = n_h \frac{n_{hi}}{\sum_{i=1}^{N_h} B_{hi}}$$

여기서  $h$ 층은 기관 유형, 권역 및 규모에 따라 구성되고,  $N_h$ 는  $h$ 층의 모집단 기관수,  $n_h$ 는  $h$ 층의 표본 기관 수이고,  $B_{hi}$ 는  $h$ 층에서  $i$ 번째 기관의 조사대상자 수를 나타내고,  $n_{hi}$ 는 추출된 표본 기관에서 조사한 원아(학생) 수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표본기관에서 조사된 원아(학생) 수이다.

연령별 조사에 대한 설계가중치는 기관 추출확률의 역수와 기관 내 아동추출률의 역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무응답에 대한 조정은 각 표본기관에서 각 연령 구분을 무응답 조정 셀로 하여 이루어졌다.

가중치 산출의 다음 과정으로 사후층화 조정의 단계를 거친다. 사후층화 조정은 표본의 특성을 최신 모집단 정보와 일치시켜 줌으로써 추정량의 편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 조사의 사후층화는 2024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모집단 정보로 이용하였다. 사후층화 조정을 위해서 사용된 모집단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II-3-1〉 각 권역별 연령 및 성별 모집단 현황

단위: 명

구분		모집단 현황		
		남자	여자	합계
서울	2세	20,118	19,123	39,241
	3세	20,921	19,855	40,776
	4세	21,629	20,327	41,956
	5세	23,483	21,632	45,115
	6세	24,655	23,010	47,665
인천/경기	2세	47,960	45,579	93,539
	3세	49,585	47,448	97,033
	4세	51,448	49,782	101,230
	5세	56,613	53,557	110,170
	6세	60,121	57,034	117,155
강원/충청	2세	18,675	17,949	36,624
	3세	20,063	18,831	38,894
	4세	20,850	19,756	40,606
	5세	22,519	21,533	44,052
	6세	24,190	23,214	47,404
영남권	2세	30,104	28,857	58,961
	3세	32,673	30,872	63,545
	4세	35,402	33,483	68,885
	5세	39,010	37,092	76,102
	6세	43,052	40,760	83,812
호남/제주	2세	11,486	11,135	22,621
	3세	12,380	12,035	24,415
	4세	13,210	12,632	25,842
	5세	14,399	14,115	28,514
	6세	15,812	15,054	30,866

자료: 국가데이터처(2024). 인구총조사.<sup>6)</sup>

각 5개 권역에 대해서 각 연령(2세, 3세, 4세, 5세, 6세) 및 성별 모집단 크기를 반영하여 사후층화 조정계수를 다음 식에 따라 구한다.

6)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1N150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1N1503&conn_path=I3)

$$post - adj_{hi(k)}^p = \frac{N_{hi(k)}}{\sum_{j=1}^{n_h(k)} w_{hij}^b}$$

여기서  $N_{hi(1)}$ 과  $N_{hi(2)}$ 는  $h$  권역 층의  $i$  연령에 해당하는 남자와 여자의 모집단 크기이고,  $n_{hi(1)}$ 과  $n_{hi(2)}$ 는 각각  $h$  권역 층의  $i$  연령에 해당하는 남자와 여자의 응답자 수이다.  $w_{hij}^b$ 는  $h$  권역 층,  $i$  연령,  $j$ 번째 응답자의 무응답 조정된 설계 가중치이다. 최종 가중치는 설계 가중치와 사후층화 조정계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w_{hij} = w_{hij}^b \times post - adj_{hi(k)}^p$$

## 나. 추정 방법

### 1) 용어 정의

- $y_{hij}$  : 관측치 (각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 $h$  : 층의 번호 ( $h = 1, 2, \dots, H$ )
  - $i$  : 각 층 내에서의 집락(기관/학교)의 번호 ( $i = 1, 2, \dots, n_h$ )
  - $j$  : 각 집락 내의 응답 원아(학생)의 번호 ( $j = 1, 2, \dots, m_{hi}$ )
  - $m_{hi}$  :  $h$ 번째 층의  $i$ 번째 집락으로부터 응답 원아(학생) 수
- $w_{hij}$  : 표본 가중치
  - $h$ 번째 층,  $i$ 번째 표본 기관,  $j$ 번째 원아(학생)에 대한 가중치
- $n = \sum_{h=1}^H \sum_{i=1}^{n_h} m_{hi}$  : 전체 표본크기

### 2) 모평균에 대한 추정

관찰값  $y_{hij}$ 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각 연령에서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Ratio estimator)으로 계산된다.

- $\bar{Y} = \left(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right) / w_{\dots}$  : 각 연령별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

$$- w_{...}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 \text{표본 가중치의 합계}$$

### 3) 모비율에 대한 추정

관찰값  $y_{hij}$ 가 범주형(categorical) 변수인 경우, 각 범주  $c_k$ 에 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이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를 생성할 수 있다.

- $y_{hij}^{(c_k)} = I(y_{hij} = c_k) = \begin{cases} 1, & \text{if } y_{hij} = c_k \\ 0, & \text{otherwise} \end{cases}$
- $c_k$  :  $y_{hij}$ 가 가질 수 있는 범주의 값 ( $k=1, \dots, l$ )

이러한 지시변수  $y_{hij}^{(c_k)}$ 로부터 모평균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범주  $c_k$ 의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한다.

### 4) 추정량의 분산 계산

- $\hat{V}(\bar{Y}) = \sum_{h=1}^H \hat{V}_h(\bar{Y})$  : 추정량 분산의 추정치
- $N_h$  : 층  $h$ 의 전체 기관 수
- $f_h$  :  $h$ 번째 층의 표본추출율,  $n_h/N_h$
- $n_h > 1$ 일 때,

$$\hat{V}_h(\bar{Y}) =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e_{hi.} = \left( \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_{...}, \quad \bar{e}_{h..} = \left( \sum_{i=1}^{n_h} e_{hi.} \right) / n_h$$

- $n_h = 1$ 인 경우  $\hat{V}_h(\bar{Y}) = 0$ 으로 계산

### 5) 표준오차,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

- $StdErr(\bar{Y}) = \sqrt{\hat{V}(\bar{Y})}$  : 표준오차의 추정치
- $z_{\alpha/2} \times StdErr(\bar{Y})$  : 오차한계의 추정치(95% 신뢰수준에서  $z_{\alpha/2}=1.96$ )

# III

## 1차년도(2024) 데이터 심층분석

- 01 1차년도(2024년) 연구의 주요결과 및 시사점
- 02 아동 특성별 비교
- 03 가구 특성별 비교
- 04 교사 특성별 비교
- 05 기관 및 지역 특성별 비교
- 06 K-DST(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결과 비교
- 07 소결



### III. 1차년도(2024) 데이터 심층분석

본 장에서는 1차년도 데이터를 아동 특성, 가구 특성, 교사 특성, 기관 및 지역 사회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 1. 1차년도(2024년) 연구의 주요결과 및 시사점<sup>7)</sup>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을 둘러싼 환경과 발달 양상에 다양한 변화가 보고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아동의 발달 관련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으나 코로나19와 아동 발달에 대한 국내의 연구 결과는 표본의 특성과 지역, 검사 시점 및 방법의 차이로 연구결과가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 현실이다.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는 코로나19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과 관계를 확인하기에 조사 기간이 짧고 다양한 환경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어려웠던 연구 설계상의 제한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5개년(2024~2028년) 과제의 1년차 수행으로, 아동의 코로나19 팬데믹의 경험과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환경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취학 전 아동(보육연령기준 1~5세반)의 발달 현황을 살펴보고 5년간의 데이터를 축적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코로나 세대 아동’을 2020년 2월 시작된 글로벌 공중보건 위기의 상황을 생애 초기 직접적으로 경험한 아동(2018년~2022년 출생)과 WHO의 공중보건위기 종식 선언 이후 변화된 교육·돌봄 환경 아래 성장하는 포스트코로나 아동 세대(2023년~2026년 출생)를 포괄하는 세대로 정의하였다. 1차년도 연구에서 가장 주요하게 중점을 둔 부분은 태내기(2020년~2022년생)에 그리고 영유아 보육 기관을 처음 이용할 시기(2018년~2019년생)에 코로나19를 경험한 아동의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정서 발달 현황과 가정 내 돌봄 및 교육·보육 기관 이용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7) 최윤경 등(2024). 코로나 세대 아동 발달 중단추적 연구(I)에서 발췌하여 정리함.

## 가. 교사가 측정한 코로나 세대 아동 발달 특성

교사에게 또래와 비교하여 '조사대상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5개 영역별로 조사한 결과, 5점 척도로 언어발달은 평균 3.78점, 인지발달 3.89점, 정서발달 3.65점, 사회성 발달 3.64점, 신체발달 3.79점으로, 영역별 3.5점 이상의 평균 보통 이상의 발달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인지발달'의 교사응답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신체발달'과 '언어발달'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사회성'과 '정서성' 발달에 대한 교사 응답 평균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영역별 발달이 아닌, 아동의 발달 전반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종합적인 의견을 (1) 발달수준에 대해서는 5점 평정과 (2) 발달상에 문제가 있고 없음에 대한 4점 척도로 평정한 결과, 대상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교사의 응답은 평균 3.68점(5점 척도)으로, 아동 발달이 전반적으로 (약간+상당히) 빠르다 58.7%, 보통 31.7%, (약간+매우) 느리다 9.5%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교사 응답 평균 1.47점으로, 교사들은 60.9%가 '발달상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응답하였고, 발달상에 '문제가 있다(있는편+매우 문제있음)' 7.3%에 불과하였다.

영역별로 발달 특성을 질문한 결과, 일상생활 부분에서 1~3세반 아동의 낮잠 수면시간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낮잠을 약 69분을 자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5세반 아동의 식습관에 대해 질문한 결과(5개 항목), 5점 척도 평균 모두 3점 이상,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규칙적인 식습관' 4.36점으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일정한 식사량'(4.23점), '혼자서 식사할 수 있음'(4.18점)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서 발달 관련해서는 2022년생 1세반 아동의 놀이와 사회적 활동의 경우, '다른 아이들과 항상 함께 놀이를 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놀이를 따라 하기도 한다'는 문항이 4.27점/5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주변 모든 환경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한다'가 4.15점으로 조사되었다.

1~5세반 전체 아동의 기질을 사회성, 정서성, 활동성으로 살펴본 결과, 5점 척도 평균 사회성(부모-교사 순으로) 3.7, 3.2점, 정서성 2.9점, 2.6점, 활동성 3.7

점, 3.2점으로 조사되었고, 사회성과 활동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것으로, 보통 수준을 다소 넘기는 평균 점수를 보였으며, 정서성의 경우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 것으로 보통 수준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아동의 사회성과 활동성과 관련해서는 긍정응답이 교사보다 부모에서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성의 경우 교사 응답률이 다소 낮아, 교사보다 부모의 아동 정서성에 대한 부정응답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 및 발달 지연 관련해서 교사에게 아동이 문제행동 또는 발달 지연의 상담 필요성을 보인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1) 외향적 문제행동을 보인 적이 있다 20.1%, (2) 내향적 문제행동을 보인 적이 있다 29.1%, (3) 발달이 또래보다 늦어 전문상담이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 9.7%로 나타났다.

1~4세반 아동의 놀이상황에서의 행동을 교사들에게 질문한 결과, 놀이 상호작용 4점 척도로 평균 3.1점, 놀이방해 1.9점, 놀이단절 1.9점으로 나타났다. 2~5세반 아동의 일상생활 행동에서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는 ‘실행기능’을 억제, 주의 전환, 감정조절, 작업기억, 계획조직의 5개 요소별로 4점 척도 평균을 분석한 결과, 실행기능의 문항은 낮은 수준(부정적 내용)을 담고 있어, 4점 척도 평균은 역코딩 후 산출하여 해당 기능의 수준으로 해석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2~5세반 아동의 일상생활에 주요한 실행기능은 영역별로 전체 4점 평균 3.3~3.4점으로 고르게 높게 조사되었다.

교사들에게 코로나 이전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시기를 경험한 아이들의 발달과 행동에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양상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약간+상당히) 있다 69.1%, 변화된 양상이 (별로+전혀) 없다는 응답은 30.9%로 나타났다(4점 평균 2.81점). 코로나 세대 아동이 갖는 발달 변화에 대해, 코로나19 환경을 경험한 세대가 갖는 ‘새로운 아동 발달 양상’으로 볼 수 있는지(7점) 혹은 코로나19 시기에 상호작용 등의 경험 부족에서 오는 ‘발달 지연 또는 격차의 문제적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1점)에 대해 7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전체 71.7%가 코로나19 시기에 상호작용 등 경험 부족에서 오는 발달 지연 또는 격차의 문제적 상황이라는 의견(1~3점)에 더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로운 뉴노멀의 양상으로 보는 의견(5~7점)은 18.9%의 교사가 응답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시기를 경험한 아동의 현재 발달상태가 코로나19 이전 아이들과 비교하여

발달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대체로+모두) 해소됨 54.2%, (별로+전혀) 해소되지 않음 34.9%로 4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 2.88점으로 나타나 격차 해소에 대한 긍정응답이 과반으로,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회복력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 나. 부모가 측정한 코로나 세대 아동 발달 특성

부모에게 연령별·영역별 발달 특성을 질문하였다. 사회정서 발달 관련해서 1세반 아동의 놀이와 사회적 활동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균을 살펴본 결과, ‘주변 모든 환경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한다’ 4.32점, ‘다른 아이들과 항상 함께 놀이를 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놀이를 따라 하기도 한다’와 ‘가족이나 교사의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을 즐겨한다’가 각 4.2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1~4세반 아동의 놀이 상호작용은 4점 척도 기준으로 3.2점, 놀이 방해는 1.9점, 놀이 단절은 1.6점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놀이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또래 상호작용을 보여주었으며 개별 항목별로 놀이 방해와 단절에서 거부되거나 어울리지 못하고 위축되는 아동이 10~2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행기능 부분에서는 2~5세반 아동의 일상생활 행동을 ‘실행기능’(억제, 주의전환, 감정조절, 작업기억, 계획조직)으로 4점 척도 기준으로 평정한 결과, 평균 3.3~3.5점으로 고르게 높게 나타났고 실행기능 하위영역 ‘억제’와 ‘주의전환’, ‘감정조절’과 ‘작업기억’, ‘계획조직’에서, 대체로 10% 내외의 아동이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은 4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 2.34점으로, (별로+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음 60.5%, (약간+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음 39.5%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행복은 7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평균 6.14점으로 보통 이상의 높은 행복 수준을 보였고 행복해 보인다 97.7%, 보통 1.5%,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0.8%로 나타났다.

## 다. 부모와 교사가 응답한 K-DST 및 심층분석 결과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인 K-DST(Korean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for Infants & Children)를 보육연령 1~4세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6개 발달영역(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별로 영유아의 발달이 어떠한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산출하여 단계(심화평가권고, 추적검사요망, 또래 수준, 빠른 수준) 비율을 제시하였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제시된 2022년 전국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K-DST 건강검진을 받은 영유아 중 양호한 비율은 약 70%, 추적검사 요망 9.8%, 심화평가 권고 2.6%, 지속관리 필요 0.7%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2025).

1차년도 연구에서 부모와 교사의 K-DST 조사 결과를 보육연령별로 살펴보면, 부모와 교사의 응답 패턴은 유사한 모양을 보이나, 심화평가 권고와 추적검사 요망 비율이 부모보다 교사에게서 높고, 또래 수준과 빠른 수준에 대한 응답이 교사보다 부모 응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영역별로는 ‘언어발달’에서 부모와 교사 응답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자조’와 ‘소근육 운동’에서도 응답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세반 영아 98명, 5세반 유아 100명의 총 198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적응행동에 대한 발달수행 검사를 심층적으로 진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평균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검사에 참여한 아동이 적은 사례 수임을 고려하여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2세반 영아의 발달 결과에 평균 이하-평균-평균 이상의 5개 범주를 적용한 결과, 사회정서 척도에서 ‘매우 낮음’의 비율이 32.4%로 나타나 앞서 교사-부모 일반조사에서 사회성과 정서성 영역에서 평균 점수가 다소 낮았던 점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또한 1~2세반 영아의 ‘소근육 운동’에서 여아가 남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적응행동에서는 유의한 성차를 보이지는 않았다. 1~2세반 적응행동 ‘개인/자조’, ‘생활기술’에서 평균 이상 비율로 여아에서 높게 나타났다.

5세반 유아의 경우 인지능력과 적응행동 결과 전반적으로 평균 수준을 보였으며, 적응행동의 ‘사회성’이 다른 주영역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대인관계에서 매우 낮음과 경계선에 해당하는 비율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대처기술과 사회성, 대인관계, 의사소통, 적응행동 영역에서 경계선 비율이 약 10% 내외로 나타났다. 5세반 유아의 인지와 적응행동은 평균 수준으

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조사 결과, 2018년에 출생하여 만 2세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5세 반 유아와 코로나19 팬데믹이 종결되는 시점인 2021년 이후 출생한 1~2세반 영아 모두 발달과 적응행동에서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소근육 운동에 나타난 성별 차이는 남아에 비해 여아의 소근육 적응능력이 높았던 선행연구 결과(최은영 등, 2022, 2023)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또한, 성별에 따른 발달 차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에 기인한 것보다 영유아기 동안 여아의 발달이 남아보다 빠르다는 영유아기 발달의 특성에 따른 일반적인 차이로 볼 수 있다.

## 라. 시사점

1차년도 연구에서는 부모와 교사 조사, 심층조사 결과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모니터링 지원 체계 및 잠재적 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 확립과 잠재적 위험군에 대한 교육과정 및 모니터링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또한, 일반조사와 심층조사를 통해 나타난 아동의 사회성, 정서성과 언어 발달 및 성별 특성에 대한 이해와 모니터링과 생애 초기 환경의 사회경제적·지역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육아정책의 포괄적 전략을 고도화하고, 부모-교사 응답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따른 해석에 유의해야 하며 어린이집-유치원 및 교사 주축의 부모-지역사회 연계협력의 구축과 코로나 이후 패러다임의 변화와 뉴노멀의 관점을 반영한 아동 발달에의 접근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 2. 아동 특성별 비교

1차년도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3,767명으로, 아동의 특성은 다음 <표 III-2-1>과 같다. 성별은 남아 50.4%, 여아 49.6%로 남자인 아동이 더 많았고, 연령은 1세 반 17.2%, 2세반 19.0%, 3세반 19.9%, 4세반 21.1%, 5세반 22.7%로 5세반이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 코로나 시기 기관 이용 여부를 살펴보면, 기관을 이용한 아동은 30.2%, 이용하지 않은 아동은 69.8%로 코로나 시기에 기관을 다니지 않은 아동이 더 많았고, 기관을 이용한 기간은 1년 미만 25.4%, 1년 이상 2년 미만

37.4%, 2년 이상 3년 미만 26.5%, 3년 이상 4년 미만 6.3%, 4년 이상 4.3%로 1년 이상 2년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 1일 평균 이용 시간은 7시간 이하 55.0%, 7시간 초과 45.0%로 7시간 이하로 기관을 이용한 아동이 가장 많았다.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여부는 이용한 아동이 56.3%, 이용하지 않은 아동이 43.7%로 사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가 더 많았으며,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개수는 1개 20.3%, 2개 15.6%, 3개 9.0%, 4개 이상 11.4%로 조사되었다.

〈표 III-2-1〉 아동 특성

단위: (명), %

구분	N	비율	구분	N	비율
<b>전체</b>	<b>(3,767)</b>	<b>100.0</b>			
<b>아동 성별</b>			<b>기관 1일 평균 이용시간</b>		
남아	(1,899)	50.4	7시간 이하	(2,071)	55.0
여아	(1,868)	49.6	7시간 초과	(1,696)	45.0
<b>아동 연령 (반연령)</b>			<b>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개수</b>		
1세반	(648)	17.2	이용 안 함	(1,645)	43.7
2세반	(717)	19.0	1개	(766)	20.3
3세반	(749)	19.9	2개	(587)	15.6
4세반	(796)	21.1	3개	(341)	9.0
5세반	(856)	22.7	4개 이상	(429)	11.4
<b>코로나시기 기관 이용 여부</b>			<b>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여부</b>		
이용	(1,138)	30.2	이용	(2,122)	56.3
비이용	(2,629)	69.8	비이용	(1,645)	43.7
<b>기관 이용 기간</b>					
1년 미만	(958)	25.4			
1년 이상 2년 미만	(1,410)	37.4			
2년 이상 3년 미만	(997)	26.5			
3년 이상 4년 미만	(239)	6.3			
4년 이상	(163)	4.3			

## 가. 개인 특성별 발달 비교

### 1) 성별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신체, 총 5개 영역의 발달 현황을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3,767명의 영역별 평균 점수는 언어 발달 3.63점, 인지 발달 3.78점, 정서 발달 3.69점, 사회성 발달 3.54점, 신체 발달 3.66점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발달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아동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응답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모든 발달 영역에서 남아 부모는 상대적으로 ‘(약간, 매우) 느리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여아 부모는 ‘(약간, 매우) 빠르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평균 점수의 경우 언어 발달은 남아 3.50점, 여아 3.76점, 인지 발달은 남아 3.69점, 여아 3.87점, 정서 발달은 남아 3.56점, 여아 3.83점, 사회성 발달은 남아 3.45점, 여아 3.62점, 신체 발달은 남아 3.68점, 여아 3.64점으로, 신체 발달을 제외한 모든 발달 영역에서 여아의 평균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2-2〉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 - 성별

단위 : 점, (명), %

구분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신체 발달		N	비율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3.63	1.0	3.78	0.9	3.69	0.9	3.54	0.9	3.66	0.9	(3,767)	100.0
남아	3.50	1.0	3.69	0.9	3.56	0.9	3.45	0.9	3.68	0.9	(1,899)	50.4
여아	3.76	1.0	3.87	0.9	3.83	0.9	3.62	0.9	3.64	0.9	(1,868)	49.6
t	-7.6***		-6.7***		-9.1***		-5.8***		1.1			

\*\*\* $p < .001$

발달 상황 전반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남아 3.42점, 여아 3.63점으로, 여아의 부모가 자녀의 발달 상황 전반을 유의하게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3〉 발달 상황에 대한 종합적 의견 - 성별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아동 성별	3.52	0.9	(3,767)	100.0
남아	3.42	0.9	(1,899)	50.4
여아	3.63	0.9	(1,868)	49.6
t	-7.9***			

\*\*\* $p < .001$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남아 1.45점, 여아 1.37점으로, 남아의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2-4〉 전반적인 발달 문제에 대한 인식 - 성별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아동 성별	1.41	0.6	(3,767)	100.0
남아	1.45	0.6	(1,899)	50.4
여아	1.37	0.6	(1,868)	49.6
<i>t</i>	4.0***			

\*\*\**p* < .001

## 2) 연령(학년/반)

영역별 발달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아동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영역별 발달의 평균 점수의 경우 언어 발달은 2세반과 4세반이 3.69점으로 가장 높았고, 인지 발달은 2세반이 3.82점으로 가장 높았다. 정서 발달은 2세반이 3.78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성 발달은 2세반이 3.58점으로 가장 높았다. 신체 발달은 5세반이 3.71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평균 점수의 집단 간 차이는 언어 발달과 정서 발달에서만 유의하였다.

〈표 III-2-5〉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 - 연령(학년/반)

단위 : 점, (명), %

구분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신체 발달		N	비율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3.63	1.0	3.78	0.9	3.69	0.9	3.54	0.9	3.66	0.9	(3,767)	100.0
1세반	3.47	1.0	3.78	0.8	3.72	0.8	3.46	0.9	3.62	0.9	(648)	17.2
2세반	3.69	1.0	3.82	0.8	3.78	0.8	3.58	0.9	3.69	0.9	(717)	19.0
3세반	3.60	1.1	3.74	0.9	3.63	0.9	3.54	0.9	3.60	0.9	(749)	19.9
4세반	3.69	1.0	3.78	0.9	3.69	0.9	3.53	0.9	3.67	0.9	(796)	21.1
5세반	3.66	1.0	3.78	0.9	3.66	1.0	3.56	1.0	3.71	0.9	(856)	22.7
<i>F</i>	5.6***	(a)	0.8(a)		3.1*(a)		1.7(a)		2.0			

\*\*\**p* < .001, \**p* < .05

발달 상황 전반에 대한 평균 점수의 경우 1세반 3.49점, 2세반 3.58점, 3세반 3.47점, 4세반 3.53점, 5세반 3.54점으로 2세반이 가장 높았으나,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6〉 발달 상황에 대한 종합적 의견 - 연령(학급/반)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아동 연령 (반연령)	3.52	0.9	(3,767)	100.0
1세반	3.49	0.8	(648)	17.2
2세반	3.58	0.8	(717)	19.0
3세반	3.47	0.9	(749)	19.9
4세반	3.53	0.9	(796)	21.1
5세반	3.54	0.9	(856)	22.7
F	1.7(a)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3세반이 1.48점으로 가장 높았고, 2세반이 1.36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7〉 전반적인 발달 문제에 대한 인식 - 연령(학급/반)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아동 연령 (반연령)	1.41	0.6	(3,767)	100.0
1세반	1.38	0.6	(648)	17.2
2세반	1.36	0.6	(717)	19.0
3세반	1.48	0.6	(749)	19.9
4세반	1.42	0.6	(796)	21.1
5세반	1.40	0.7	(856)	22.7
F	4.3**(a)			

\*\* $p < .01$

## 나. 기관이용 특성별 발달 비교

### 1) 코로나 시기 기관 이용 여부

영역별 발달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코로나 시기 기관 이용 여부에 따라 살펴 보면, 영역별 발달 평균 점수의 경우 언어, 정서, 사회성, 신체 발달 측면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인지발달 영역에서만 이용 집단 3.82점, 비이용 집단 3.76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III-2-8〉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 - 코로나 시기 기관 이용 여부

단위 : 점, (명), %

구분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신체 발달		N	비율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3.63	1.0	3.78	0.9	3.69	0.9	3.54	0.9	3.66	0.9	(3,767)	100.0
이용	3.66	1.0	3.82	0.9	3.70	0.9	3.57	0.9	3.69	0.9	(1,138)	30.2
비이용	3.62	1.0	3.76	0.8	3.69	0.9	3.52	0.9	3.65	0.9	(2,629)	69.8
t	1.1		2.0*		0.1		1.3		1.3			

\*  $p < .05$

발달 상황 전반에 대한 평균 값을 살펴보면 이용 집단 3.54점, 비이용 집단 3.52점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9〉 발달 상황에 대한 종합적 의견 - 코로나 시기 기관 이용 여부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코로나 시기 기관 이용 여부	3.52	0.9	(3,767)	100.0
이용	3.54	0.9	(1,138)	30.2
비이용	3.52	0.8	(2,629)	69.8
t	0.8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이용 집단 1.42점, 비이용 집단 1.41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III-2-10〉 전반적인 발달 문제에 대한 인식 - 코로나 시기 기관 이용 여부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코로나 시기 기관 이용 여부	1.41	0.6	(3,767)	100.0
이용	1.42	0.7	(1,138)	30.2
비이용	1.41	0.6	(2,629)	69.8
$\chi^2$ (df)/t	0.4			

## 2) 기관 이용 기간

영역별 발달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관 이용 기간에 따라 살펴보면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신체 발달에서만 평균 점수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III-2-11〉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 - 기관 이용 기간

단위 : 점, (명), %

구분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신체 발달		N	비율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3.63	1.0	3.78	0.9	3.69	0.9	3.54	0.9	3.66	0.9	(3,767)	100.0
1년 미만	3.57	1.06	3.73	0.9	3.61	1.0	3.47	0.9	3.59	0.9	(958)	25.4
1년 이상 2년 미만	3.66	1.00	3.81	0.8	3.70	0.9	3.53	0.9	3.67	0.9	(1,410)	37.4
2년 이상 3년 미만	3.66	0.99	3.78	0.8	3.76	0.9	3.59	0.9	3.69	0.9	(997)	26.5
3년 이상 4년 미만	3.57	1.05	3.78	0.9	3.71	0.9	3.55	0.9	3.60	0.9	(239)	6.3
4년 이상	3.57	1.07	3.80	0.9	3.69	0.9	3.66	0.9	3.85	0.9	(163)	4.3
F	2.0(a)		1.3		3.4**(a)		3.2*		3.9**			

\* $p < .05$ , \*\* $p < .01$

발달 상황 전반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기관 이용 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평균 점수가 3.56점으로 가장 높고, 1년 미만인 경우의 평균 점수가 3.49점으로 가장 낮았으나 비율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2〉 발달 상황에 대한 종합적 의견 - 기관 이용 기간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기관 이용 기간	3.52	0.9	(3,767)	100.0
1년 미만	3.49	0.9	(958)	25.4
1년 이상 2년 미만	3.53	0.8	(1,410)	37.4
2년 이상 3년 미만	3.56	0.9	(997)	26.5
3년 이상 4년 미만	3.51	0.9	(239)	6.3
4년 이상	3.50	0.8	(163)	4.3
F	1.1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1년 미만 1.44점, 1년 이상~2년 미만 1.41점, 2년 이상~3년 미만 1.38점, 3년 이상~4년 미만 1.40점, 4년 이상 1.41점으로, 1년 미만 집단이 가장 높았으나 기관 이용 기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2-13〉 전반적인 발달 문제에 대한 인식 - 기관 이용 기간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기관 이용 기간	1.41	0.6	(3,767)	100.0
1년 미만	1.44	0.6	(958)	25.4
1년 이상 2년 미만	1.41	0.6	(1,410)	37.4

구분	M	SD	N	비율
2년 이상 3년 미만	1.38	0.6	(997)	26.5
3년 이상 4년 미만	1.40	0.6	(239)	6.3
4년 이상	1.41	0.7	(163)	4.3
F	1.1			

### 3) 1일 평균 이용 시간

영역별 발달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1일 평균 기관 이용 시간에 따라 살펴보면,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유의한 영역은 신체 발달이었으며 7시간 이하 집단이 3.69점으로 7시간 초과 집단보다 높았다.

〈표 III-2-14〉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 - 1일 평균 이용 시간

단위 : 점, (명), %

구분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신체 발달		N	비율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3.63	1.0	3.78	0.9	3.69	0.9	3.54	0.9	3.66	0.9	(3,767)	100.0
7시간 이하	3.62	1.0	3.78	0.9	3.70	0.9	3.51	0.9	3.69	0.9	(2,071)	55.0
7시간 초과	3.64	1.0	3.78	0.8	3.69	0.9	3.56	0.9	3.63	0.9	(1,696)	45.0
t	-0.688		-0.274		0.222		-1.637		2.103*			

\*p < .05

발달 상황 전반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7시간 이하인 집단의 평균 점수는 3.53 점, 7시간 초과인 집단의 평균 점수는 3.52점으로 1일 평균 이용 시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2-15〉 발달 상황에 대한 종합적 의견 - 1일 평균 이용 시간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기관 1일 평균 이용 시간	3.52	0.9	(3,767)	100.0
7시간 이하	3.53	0.9	(2,071)	55.0
7시간 초과	3.52	0.8	(1,696)	45.0
t	0.478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두 집단의 평균 점수가 1.41점으로 같았으며, 집단에 따른 차이도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2-16〉 전반적인 발달 문제에 대한 인식 - 1일 평균 이용 시간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기관 1일 평균 이용 시간	1.41	0.6	(3,767)	100.0
7시간 이하	1.41	0.6	(2,071)	55.0
7시간 초과	1.41	0.6	(1,696)	45.0
<i>t</i>	0.477			

## 다. 사교육 이용 특성별 발달 비교

### 1)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여부

영역별 발달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여부에 따라 살펴 보면, 정서 발달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집단의 평균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III-2-17〉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 -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여부

단위 : 점, (명), %

구분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신체 발달		N	비율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3.63	1.0	3.78	0.9	3.69	0.9	3.54	0.9	3.66	0.9	(3,767)	100.0
이용	3.70	1.0	3.83	0.9	3.71	0.9	3.58	0.9	3.69	0.9	(2,122)	56.3
비이용	3.53	1.0	3.72	0.8	3.67	0.9	3.47	0.9	3.62	0.9	(1,645)	43.7
<i>t</i>	5.2***		3.8***		1.2		3.6***		2.4*			

\* $p < .05$ , \*\*\* $p < .001$

발달 상황 전반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이용 집단 3.55점, 비이용 집단 3.49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18〉 발달 상황에 대한 종합적 의견 -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여부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여부	3.52	0.9	(3,767)	100.0
이용	3.55	0.9	(2,122)	56.3
비이용	3.49	0.9	(1,645)	43.7
<i>t</i>	2.0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이용 집단 1.42점, 비이용 집단 1.40점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III-2-19〉 전반적인 발달 문제에 대한 인식 -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여부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여부	1.41	0.6	(3,767)	100.0
이용	1.42	0.6	(2,122)	56.3
비이용	1.40	0.6	(1,645)	43.7
t	0.7			

## 2)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수

영역별 발달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수에 따라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수에 따라 평균 점수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인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언어 발달은 2개와 3개 집단이 3.80점으로 가장 높았고, 인지 발달은 3개 집단이 3.92점으로 가장 높았다. 정서 발달 평균 점수는 3개 집단이 3.80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성 발달 또한 3개 집단이 3.65점으로 가장 높았다. 신체 발달도 3개 집단이 3.78점으로 가장 높았다.

〈표 III-2-20〉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 -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수

단위 : 점, (명), %

구분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신체 발달		N	비율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3.78	0.9	3.78	0.9	3.69	0.9	3.54	0.9	3.66	0.9	(3,767)	100.0
이용 안 함	3.53	1.0	3.72	0.8	3.67	0.9	3.47	0.9	3.62	0.9	(1,645)	43.7
1개	3.69	1.0	3.85	0.9	3.70	0.9	3.57	0.9	3.62	0.9	(766)	20.3
2개	3.80	1.0	3.87	0.8	3.78	0.9	3.63	0.9	3.69	0.9	(587)	15.6
3개	3.80	1.0	3.92	0.9	3.80	0.9	3.65	0.9	3.78	0.9	(341)	9.0
4개 이상	3.52	1.0	3.66	1.0	3.55	1.1	3.49	1.1	3.76	1.0	(429)	11.4
F	12.6***		9.3***(a)		5.3***(a)		5.4***(a)		4.0***(a)			

\*\* $p < .01$ , \*\*\* $p < .001$

발달 상황 전반에 대한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용 안 한 집단이 3.49점으로 가장 낮고, 3개 이용한 집단이 3.65점으로 가장 높았다.

〈표 III-2-21〉 발달 상황에 대한 종합적 의견 -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수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개수	3.52	0.9	(3,767)	100.0
이용 안 함	3.49	0.9	(1,645)	43.7
1개	3.52	0.8	(766)	20.3
2개	3.61	0.9	(587)	15.6
3개	3.65	0.9	(341)	9.0
4개 이상	3.44	0.8	(429)	11.4
F	5.0***			

\*\*\*  $p < .001$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평균 점수는 4개 이상 집단이 1.46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개수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22〉 전반적인 발달 문제에 대한 인식 -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수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개수	1.41	0.6	(3,767)	100.0
이용 안 함	1.40	0.6	(1,645)	43.7
1개	1.42	0.6	(766)	20.3
2개	1.37	0.6	(587)	15.6
3개	1.45	0.6	(341)	9.0
4개 이상	1.46	0.6	(429)	11.4
F	1.9			

## 라. 아동 특성별 놀이와 사회적 활동 비교

아동의 놀이와 사회적 활동을 아동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 아동 성별의 일부 영역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행동 모방과 가상/상상놀이는 각각 남아 4.09점 여아 4.34점, 남아 2.99점 여아 3.33점으로 모두 여아 집단이 유의하게 높았다. 함께 있기에서는 여아가 남자보다 높았고, 고집과 호기심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이외 기관 이용 기간,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여부, 사교육 프로그램 개수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III-2-23〉 참조).

〈표 III-2-23〉 놀이와 사회적 활동 종합 - 아동 특성별 비교

단위 : (명), 점

구분	N	전체		행동 모방		함께 있기		고집		가상/상상 놀이		호기심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648)	3.71	0.5	4.22	0.8	4.17	0.7	2.68	0.8	3.16	1.1	4.32	0.7
<b>아동 성별</b>													
남아	(322)	3.65	0.5	4.09	0.8	4.13	0.8	2.71	0.8	2.99	1.1	4.33	0.7
여아	(326)	3.77	0.5	4.34	0.7	4.22	0.7	2.65	0.9	3.33	1.1	4.30	0.7
<i>t</i>		-3.227**		-4.251***		-1.592		0.959		-4.061***		0.594	
<b>기관 이용 기간</b>													
1년 미만	(249)	3.74	0.5	4.24	0.8	4.19	0.7	2.69	0.8	3.24	1.1	4.32	0.7
1년 이상 2년 미만	(353)	3.70	0.5	4.21	0.8	4.18	0.7	2.66	0.9	3.12	1.1	4.31	0.7
2년 이상 3년 미만	( 46)	3.68	0.4	4.12	0.7	4.02	0.7	2.83	0.6	3.08	1.0	4.33	0.6
<i>F</i>		0.604		0.503		1.068		0.906		1.091		0.025	
<b>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여부</b>													
이용	(440)	3.71	0.5	4.25	0.8	4.18	0.8	2.66	0.8	3.18	1.1	4.30	0.7
비이용	(208)	3.71	0.4	4.15	0.8	4.17	0.7	2.73	0.8	3.13	1.1	4.35	0.6
<i>t</i>		0.173		1.498		0.189		-1.050		0.486		-0.794	
<b>사교육 프로그램 개수</b>													
이용 안 함	(208)	3.71	0.4	4.15	0.8	4.17	0.7	2.73	0.8	3.13	1.1	4.35	0.7
1개	( 66)	3.63	0.5	4.13	0.8	4.11	0.8	2.58	0.8	3.02	1.1	4.31	0.6
2개	(161)	3.68	0.5	4.25	0.8	4.16	0.7	2.59	0.8	3.13	1.1	4.28	0.8
3개	(134)	3.76	0.5	4.28	0.7	4.21	0.8	2.75	0.9	3.21	1.1	4.36	0.7
4개 이상	( 79)	3.76	0.4	4.29	0.8	4.20	0.7	2.71	0.7	3.34	0.9	4.25	0.7
<i>F</i>		1.206		1.074		0.269		1.185		0.906		0.515	

\*\**p* < .01, \*\*\**p* < .001

### 마. 아동 특성별 또래 상호작용 비교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을 아동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 일부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놀이 상호작용, 놀이 방해, 놀이 단절에서 남아, 여아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놀이 상호작용은 남아 3.14 점, 여아 3.24점으로 여아 집단이, 놀이 방해는 남아 1.95점, 여아 1.85점으로 남아 집단이, 놀이 단절은 남아 1.64점, 여아 1.59점으로 남아 집단이 유의하게 평균 점수가 더 높았다. 코로나 시기 기관 이용 기간에 따라 살펴보면 놀이 방해와 놀이 단절에서 1년 미만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였다. 기관 1일 평균 이용 시간에 따라서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영역이 없었다. 사교육 프

로그램 이용 여부에 따라서는 놀이 상호작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용 집단이 3.22점으로 비이용 집단 3.15점보다 더 높았다. 사교육 프로그램 개수에 따라 살펴보면 놀이 상호작용은 2개 집단, 놀이 단절은 4개 이상 집단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고,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24〉 또래 상호작용 종합 - 아동 특성별 비교

단위 : (명), 점

2018~2021년생	N	놀이 상호작용		놀이 방해		놀이 단절	
		M	SD	M	SD	M	SD
전체	(3,767)	3.19	0.4	1.90	0.4	1.62	0.5
<b>아동 성별</b>							
남아	(1,899)	3.14	0.4	1.95	0.4	1.64	0.5
여아	(1,868)	3.24	0.4	1.85	0.4	1.59	0.5
<i>t</i>		-7.0***		8.1***		2.9**	
<b>아동 연령 (반연령)</b>							
1세	(648)	0.00	0.0	0.00	0.0	0.00	0.0
2세	(717)	3.18	0.4	1.98	0.4	1.61	0.5
3세	(749)	3.17	0.4	1.94	0.4	1.65	0.5
4세	(796)	3.20	0.4	1.89	0.4	1.62	0.5
5세	(856)	3.21	0.4	1.81	0.4	1.59	0.5
<i>F</i>		2.2		28.3***		2.3(a)	
<b>코로나 시기 기관 이용 여부</b>							
이용	(1,138)	3.19	0.4	1.89	0.4	1.62	0.5
비이용	(2,629)	3.19	0.4	1.91	0.4	1.61	0.5
<i>t</i>		0.2		-1.3		0.4	
<b>기관 이용 기간</b>							
1년 미만	(958)	3.15	0.4	1.94	0.4	1.68	0.5
1년 이상 2년 미만	(1,410)	3.19	0.4	1.90	0.4	1.61	0.5
2년 이상 3년 미만	(997)	3.21	0.4	1.90	0.4	1.59	0.5
3년 이상 4년 미만	(239)	3.20	0.4	1.87	0.4	1.61	0.5
4년 이상	(163)	3.22	0.4	1.81	0.4	1.55	0.5
<i>F</i>		2.3		4.2**(a)		5.4***	
<b>기관 1일 평균 이용시간</b>							
7시간 이하	(2,071)	3.20	0.4	1.75	0.4	1.61	0.5
7시간 초과	(1,696)	3.18	0.4	1.77	0.4	1.62	0.5
<i>t</i>		1.541		-1.520		-0.338	
<b>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여부</b>							
이용	(2,122)	3.22	0.4	1.89	0.4	1.62	0.5
비이용	(1,645)	3.15	0.4	1.92	0.4	1.62	0.5
<i>t</i>		5.0***		-1.9		-0.2	
<b>사교육 프로그램 개수</b>							
이용 안 함	(1,645)	3.15	0.4	1.92	0.4	1.62	0.5
1개	(766)	3.24	0.4	1.88	0.4	1.62	0.5

2018~2021년생	N	놀이 상호작용		놀이 방해		놀이 단절	
		M	SD	M	SD	M	SD
2개	(587)	3.26	0.4	1.87	0.4	1.57	0.5
3개	(341)	3.22	0.4	1.89	0.4	1.59	0.5
4개 이상	(429)	3.13	0.4	1.93	0.4	1.69	0.5
F		13.5***(a)		2.3(a)		3.7**(a)	

\*\**p* < .01, \*\*\**p* < .001

### 바. 아동 특성별 일상생활 행동 비교

아동의 일상생활 행동을 아동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억제, 주의 전환, 감정 조절, 작업기억, 계획 조직 모두에서 여아 집단의 평균 점수가 남아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아동 연령의 경우, 감정 조절, 작업 기간, 계획 조직에서 5세 집단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고,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코로나 시기 기관 이용 여부의 경우 억제 점수가 비이용 집단이 3.46점으로 이용 집단 3.42점보다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기관 이용 기간의 경우 주의 전환에서만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 1일 평균 이용 시간의 경우 억제, 작업기억, 계획 조직에서 7시간 이하 집단의 평균 점수가 높았으나,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영역은 없었다. 사교육 프로그램 개수의 경우 집단에 따라 작업기억과 계획 조직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여부에 따라서는 일상생활의 행동 모두에서 집단 간 평균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25〉 일상생활의 행동 종합 - 아동 특성별 비교

단위 : (명), 점

2018~2021년생	N	억제		주의전환		감정조절		작업기억		계획조직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3,767)	3.45	0.5	3.31	0.5	3.43	0.5	3.46	0.5	3.40	0.5	
아동 성별	남아	(1,899)	3.36	0.6	3.29	0.5	3.40	0.5	3.42	0.5	3.37	0.5
	여아	(1,868)	3.53	0.5	3.33	0.5	3.45	0.5	3.50	0.5	3.44	0.5
	<i>t</i>		-9.6***		-2.4*		-2.7**		-4.5***		-4.3***	
아동 연령 (반연령)	1세	(648)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2세	(717)	3.42	0.5	3.30	0.5	3.41	0.5	3.44	0.5	3.37	0.5
	3세	(749)	3.42	0.5	3.28	0.5	3.41	0.6	3.43	0.5	3.38	0.5

2018~2021년생	N	억제		주의전환		감정조절		작업기억		계획조직	
		M	SD	M	SD	M	SD	M	SD	M	SD
4세	(796)	3.46	0.5	3.32	0.5	3.41	0.5	3.46	0.5	3.40	0.5
5세	(856)	3.48	0.5	3.34	0.6	3.47	0.5	3.50	0.5	3.45	0.5
F		2.6		2.0		2.8*		3.3*(a)		4.6**	
<b>코로나 시기 기관 이용 여부</b>											
이용	(1,138)	3.42	0.6	3.33	0.5	3.41	0.6	3.44	0.5	3.39	0.5
비이용	(2,629)	3.46	0.5	3.30	0.5	3.44	0.5	3.47	0.5	3.41	0.5
t		-2.3*		1.5		-1.8		-1.3		-0.8	
<b>기관 이용 기간</b>											
1년 미만	(958)	3.41	0.5	3.25	0.5	3.39	0.5	3.43	0.5	3.36	0.5
1년 이상 2년 미만	(1,410)	3.45	0.5	3.33	0.5	3.42	0.6	3.46	0.5	3.42	0.5
2년 이상 3년 미만	(997)	3.46	0.5	3.32	0.5	3.45	0.5	3.47	0.5	3.42	0.5
3년 이상 4년 미만	(239)	3.47	0.5	3.28	0.6	3.49	0.5	3.47	0.5	3.43	0.5
4년 이상	(163)	3.46	0.5	3.39	0.5	3.44	0.6	3.44	0.5	3.39	0.5
F		1.2		3.5**		2.1(a)		1.0(a)		1.6(a)	
<b>기관 1일 평균 이용시간</b>											
7시간 이하	(2,071)	3.46	0.5	3.29	0.6	3.43	0.6	3.46	0.5	3.29	0.5
7시간 초과	(1,696)	3.43	0.5	3.33	0.5	3.43	0.5	3.45	0.5	3.28	0.5
t		1.189		1.910		0.013		-0.874		-0.742	
<b>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여부</b>											
이용	(2,122)	3.45	0.5	3.31	0.5	3.41	0.5	3.47	0.5	3.41	0.5
비이용	(1,645)	3.44	0.5	3.30	0.5	3.45	0.5	3.44	0.5	3.40	0.5
t		0.2		0.4		-1.8		1.5		0.5	
<b>사교육 프로그램 개수</b>											
이용 안 함	(1,645)	3.44	0.5	3.30	0.5	3.45	0.5	3.44	0.5	3.40	0.5
1개	(766)	3.48	0.5	3.32	0.5	3.42	0.5	3.49	0.5	3.41	0.5
2개	(587)	3.46	0.5	3.33	0.5	3.43	0.5	3.49	0.5	3.45	0.5
3개	(341)	3.44	0.5	3.31	0.5	3.43	0.5	3.49	0.5	3.43	0.5
4개 이상	(429)	3.39	0.6	3.28	0.6	3.37	0.6	3.38	0.6	3.33	0.6
F		2.0(a)		0.6(a)		1.7(a)		4.6**(a)		4.0**(a)	

\* $p < .05$ , \*\* $p < .01$ , \*\*\* $p < .001$

## 사. 아동 특성별 스트레스 비교

아동의 스트레스를 아동 특성에 따라 비교해 보았을 때, 먼저 성별에 따른 평균 점수가 남아 2.30점, 여아 2.39점으로 여아 집단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연령에 따른 평균 점수는 4세 집단에서 2.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코로나 시기 기관 이용 여부의 경우 이용 집단 2.38점, 비이용 집단 2.33점으로 이용 집단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기관 이용 기간에 따라서는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관 1일 평균 이용 시간의 경우 7시간 초과 집단의 평균 점수가 2.36점으로 7시간 이하 집단보다 더 높았

나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사교육 이용 여부에 따라 평균 점수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용 집단 2.37점, 비이용 집단 2.30점으로 이용 집단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사교육 프로그램 개수 역시 집단 간 평균 점수의 차이가 유의했는데, 3개 이용 집단이 2.40점으로 가장 높았다.

〈표 III-2-26〉 아동 특성별 아동의 스트레스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전체	2.34	0.6	(3,767)	100.0
<b>아동 성별</b>				
남아	2.30	0.6	(1,899)	50.4
여아	2.39	0.6	(1,868)	49.6
<i>t</i>	-4.5***			
<b>아동 연령 (반연령)</b>				
1세	2.32	0.6	(648)	17.2
2세	2.28	0.6	(717)	19.0
3세	2.33	0.7	(749)	19.9
4세	2.43	0.6	(796)	21.1
5세	2.34	0.6	(856)	22.7
<i>F</i>	5.4***(a)			
<b>코로나 시기 기관 이용 여부</b>				
이용	2.38	0.7	(1,138)	30.2
비이용	2.33	0.6	(2,629)	69.8
<i>t</i>	2.1*			
<b>기관 이용 기간</b>				
1년 미만	2.34	0.6	(958)	25.4
1년 이상 2년 미만	2.36	0.6	(1,410)	37.4
2년 이상 3년 미만	2.33	0.6	(997)	26.5
3년 이상 4년 미만	2.25	0.6	(239)	6.3
4년 이상	2.41	0.6	(163)	4.3
<i>F</i>	2.2			
<b>기관 1일 평균 이용시간</b>				
7시간 이하	2.33	0.6	(2,071)	55.0
7시간 초과	2.36	0.6	(1,696)	45.0
<i>t</i>	-1.113			
<b>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여부</b>				
이용	2.37	0.6	(2,122)	56.3
비이용	2.30	0.6	(1,645)	43.7
<i>t</i>	3.5**			
<b>사교육 프로그램 개수</b>				
이용 안 함	2.30	0.6	(1,645)	43.7
1개	2.37	0.6	(766)	20.3
2개	2.36	0.6	(587)	15.6
3개	2.40	0.6	(341)	9.0
4개 이상	2.39	0.7	(429)	11.4
<i>F</i>	3.3*(a)			

\* $p < .05$ , \*\* $p < .01$ , \*\*\* $p < .001$

### 아. 아동 특성별 행복도 비교

아동 행복도의 평균 점수의 경우 연령과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연령의 경우 1세 집단의 평균 점수가 6.26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여부의 경우 비이용 집단의 행복도가 6.17점으로 이용 집단 6.12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표 III-2-27〉 아동 특성별 아동의 행복도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전체	6.14	0.8	(3,767)	100.0
<b>아동 성별</b>				
남아	6.15	0.8	(1,899)	50.4
여아	6.13	0.8	(1,868)	49.6
<i>t</i>	0.8			
<b>아동 연령 (반연령)</b>				
1세	6.26	0.7	(648)	17.2
2세	6.19	0.7	(717)	19.0
3세	6.13	0.8	(749)	19.9
4세	6.02	0.8	(796)	21.1
5세	6.13	0.8	(856)	22.7
<i>F</i>	9.8***			
<b>코로나시기 기관 이용 여부</b>				
이용	6.11	0.7	(1,138)	30.2
비이용	6.16	0.8	(2,629)	69.8
<i>t</i>	-1.9			
<b>기관 이용 기간</b>				
1년 미만	6.11	0.8	(958)	25.4
1년 이상 2년 미만	6.16	0.7	(1,410)	37.4
2년 이상 3년 미만	6.14	0.7	(997)	26.5
3년 이상 4년 미만	6.16	0.8	(239)	6.3
4년 이상	6.18	0.7	(163)	4.3
<i>F</i>	0.9			
<b>기관 1일 평균 이용시간</b>				
7시간 이하	6.17	0.8	(2,071)	55.0
7시간 초과	6.11	0.8	(1,696)	45.0
<i>t</i>	2.379			
<b>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여부</b>				
이용	6.12	0.8	(2,122)	56.3
비이용	6.17	0.8	(1,645)	43.7
<i>t</i>	-2.1*			
<b>사교육 프로그램 개수</b>				
이용 안 함	6.17	0.8	(1,645)	43.7
1개	6.13	0.7	(766)	20.3
2개	6.15	0.8	(587)	15.6
3개	6.08	0.7	(341)	9.0
4개 이상	6.09	0.9	(429)	11.4
<i>F</i>	1.7(a)			

\* $p < .05$ , \*\*\* $p < .001$

### 3. 가구 특성별 비교

본 연구에 참여한 가구는 3,767가구로, 응답자 가구의 특성은 다음 <표 III-3-1>과 같다.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을 포함한 맞벌이 가구는 57.6%, 한부모를 포함한 외벌이 가구는 42.4%로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기초수급 여부의 경우 수급을 받는 가구가 4.1%, 받지 않는 가구가 95.9%로 기초수급을 받지 않는 가구가 더 많았으며,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가구는 8.2%,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91.8%로 취약가구에 속하지 않는 가구가 더 많았다. 가구 소득을 분위별로 살펴보면, 1~4분위에 속하는 가구는 12.5%, 5~6분위에 속하는 가구는 25.0%, 7~8분위에 속하는 가구는 30.1%, 9~10분위 이상에 속하는 가구는 32.4%로 9~10분위 이상이 가장 많았다. 주양육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 미만 23.3%, 8시간 28.6%, 8시간 초과 9.8%로 한 주에 8시간을 근로하는 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1> 가구 특성

단위: (명), %

구분	N	비율
전체	(3,767)	100.0
<b>맞벌이 여부</b>		
맞벌이(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2,171)	57.6
외벌이(한부모 포함)	(1,596)	42.4
<b>기초수급 여부(차상위 포함)</b>		
해당	(154)	4.1
비해당	(3,613)	95.9
<b>취약가구 여부</b>		
해당	(307)	8.2
비해당	(3,460)	91.8
<b>가구 소득</b>		
307만 원 이하(1~4분위)	(470)	12.5
308~467만 원 이하(5~6분위)	(941)	25.0
468~680만 원 이하(7~8분위)	(1,135)	30.1
681만 원 이상(9~10분위 이상)	(1,221)	32.4
<b>주양육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b>		
8시간 미만	(884)	23.3
8시간	(1,083)	28.6
8시간 초과	(372)	9.8

### 가. 가구 소득에 따른 발달 비교

영역별 발달 현황에 대한 평균 점수를 이용 기관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681만 원 이상 집단이 언어 발달은 3.77점, 인지 발달은 3.90점, 정서 발달은 3.78점, 사회성 발달이 3.58점으로 가장 높았고, 신체 발달은 468~680만 원이 3.68점으로 가장 높았다. 집단 간 평균 점수의 차이는 신체 발달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III-3-2〉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 - 가구 소득

단위 : 점, (명), %

구분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신체 발달		N	비율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3.63	1.0	3.78	0.9	3.69	0.9	3.54	0.9	3.66	0.9	(3,767)	100.0
307만 원 이하(1~4분위)	3.39	1.2	3.66	1.0	3.66	1.0	3.50	1.0	3.64	1.0	(470)	12.5
308~467만 원 이하(5~6분위)	3.50	1.0	3.64	0.9	3.57	0.9	3.47	0.9	3.63	0.9	(941)	25.0
468~680만 원 이하(7~8분위)	3.68	1.0	3.82	0.8	3.72	0.9	3.55	0.9	3.68	0.9	(1,135)	30.1
681만 원 이상(9~10분위 이상)	3.77	1.0	3.90	0.8	3.78	0.9	3.58	0.9	3.67	0.9	(1,221)	32.4
F	23.7***(a)		21.3***(a)		10.3***(a)		3.0*(a)		0.6(a)			

\* $p < .05$ , \*\*\* $p < .001$

발달 상황 전반에 대한 조사 결과, 평균 점수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307만 원 이하 3.42점, 308~467만 원 이하 3.44점, 468~680만 원 이하 3.55점, 681만 원 이상 3.61점으로, 681만 원 이상이 가장 높았다.

〈표 III-3-3〉 발달 상황에 대한 종합적 의견 - 가구 소득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가구 소득	3.52	0.9	(3,767)	100.0
307만 원 이하(1~4분위)	3.42	1.0	(470)	12.5
308~467만 원 이하(5~6분위)	3.44	0.9	(941)	25.0
468~680만 원 이하(7~8분위)	3.55	0.8	(1,135)	30.1
681만 원 이상(9~10분위 이상)	3.61	0.8	(1,221)	32.4
F	10.1***(a)			

\*\*\* $p < .001$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307만 원 이하 1.54점, 308~467만 원 이하 1.42점, 468~680

만 원 이하 1.43점, 681만 원 이상 1.33점으로, 307만 원 이하가 가장 높았고,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4〉 전반적인 발달 문제에 대한 인식 - 가구 소득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가구 소득	1.41	0.6	(3,767)	100.0
307만 원 이하(1~4분위)	1.54	0.7	(470)	12.5
308~467만 원 이하(5~6분위)	1.42	0.6	(941)	25.0
468~680만 원 이하(7~8분위)	1.43	0.7	(1,135)	30.1
681만 원 이상(9~10분위 이상)	1.33	0.6	(1,221)	32.4
F	14.2***(a)			

\*\*\* $p < .001$

### 나. 기초수급/취약가구 여부에 따른 발달 비교

#### 1) 기초수급 여부

영역별 발달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초수급 여부에 따라 평균 점수로 살펴 보면, 언어 발달은 해당 가정 아동 3.30점, 비해당 가정 아동 3.64점, 인지 발달은 해당 가정 아동 3.54점, 비해당 가정 아동 3.79점, 정서 발달은 해당 가정 아동 3.51점, 비해당 가정 아동 3.70점으로,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정서발달에서 비해당 가정 아동의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5〉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 - 기초수급 여부

단위 : 점, (명), %

구분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신체 발달		N	비율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3.63	1.0	3.78	0.9	3.69	0.9	3.54	0.9	3.66	0.9	(3,767)	100.0
해당	3.30	1.2	3.54	1.1	3.51	1.2	3.48	1.0	3.62	1.1	(154)	8.2
비해당	3.64	1.0	3.79	0.9	3.70	0.9	3.54	0.9	3.66	0.9	(3,613)	91.8
t	-3.4**		-2.8**		-2.0*		-0.8		-0.5			

\* $p < .05$ , \*\* $p < .01$

발달 상황 전반에 대한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기초수급 해당 가정 아동 3.33점, 비해당 가정 아동 3.53점으로, 비해당 가정 아동의 부모가 자녀의 발달 상황 전반을 유의하게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6〉 발달 상황에 대한 종합적 의견 - 기초수급 여부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기초수급 여부(차상위 포함)	3.52	0.9	(3,767)	100.0
해당	3.33	1.0	(154)	8.2
비해당	3.53	0.9	(3,613)	91.8
<i>t</i>	-2.4*			

\* $p < .05$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평균 점수로 살펴보면 기초수급 해당 가정 아동 1.55점, 비해당 가정 아동 1.40점으로, 해당 가정 아동의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3-7〉 전반적인 발달 문제에 대한 인식 - 기초수급 여부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기초수급 여부(차상위 포함)	1.41	0.6	(3,767)	100.0
해당	1.55	0.7	(154)	8.2
비해당	1.40	0.6	(3,613)	91.8
<i>t</i>	2.6*			

\* $p < .05$

## 2) 취약가구 여부

영역별 발달 현황에 대한 평균 점수를 취약가구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언어 발달은 해당 가정 아동 3.21점, 비해당 가정 아동 3.67점, 인지 발달은 해당 가정 아동 3.41점, 비해당 가정 아동 3.81점, 정서 발달은 해당 가정 아동 3.37점, 비해당 가정 아동 3.72점, 사회성 발달은 해당 가정 아동 3.38점, 비해당 가정 아동 3.55점, 신체 발달은 해당 가정 아동 3.50점, 비해당 가정 아동 3.67점으로, 모든 영역에서 비해당 가정 아동의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8〉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 - 취약가구 여부

단위 : 점, (명), %

구분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신체 발달		N	비율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3.63	1.0	3.78	0.9	3.69	0.9	3.54	0.9	3.66	0.9	(3,767)	100.0
해당	3.21	1.3	3.41	1.1	3.37	1.1	3.38	1.1	3.50	1.1	(307)	8.2
비해당	3.67	1.0	3.81	0.8	3.72	0.9	3.55	0.9	3.67	0.9	(3,460)	91.8
<i>t</i>	-6.2***		-6.3***		-5.3***		-2.7**		-2.6**			

\*\*\**p* < .01, \*\**p* < .001

발달 상황 전반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취약가구 해당 가정 아동 3.19점, 비해당 가정 아동 3.55점으로, 비해당 가정 아동의 부모가 자녀의 발달 상황 전반을 유의하게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9〉 발달 상황에 대한 종합적 의견 - 취약가구 여부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취약가구 여부	3.52	0.9	(3,767)	100.0
해당	3.19	1.1	(307)	8.2
비해당	3.55	0.8	(3,460)	91.8
<i>t</i>	-5.8***			

\*\*\**p* < .001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취약가구 해당 가정 아동 1.64점, 비해당 가정 아동 1.39점으로, 해당 가정 아동의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3-10〉 전반적인 발달 문제에 대한 인식 - 취약가구 여부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취약가구 여부	1.41	0.6	(3,767)	100.0
해당	1.64	0.8	(307)	8.2
비해당	1.39	0.6	(3,460)	91.8
<i>t</i>	5.3***			

\*\*\**p* < .001

## 다. 주양육자의 근로 특성에 따른 발달 비교

### 1) 맞벌이 여부

영역별 발달 현황에 대한 평균 점수를 맞벌이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언어 발달은 맞벌이 가정 아동 3.73점, 외벌이 가정 아동 3.50점, 인지 발달은 맞벌이 가정 아동 3.83점, 외벌이 가정 아동 3.71점, 정서 발달은 맞벌이 가정 아동 3.75점, 외벌이 가정 아동 3.62점, 사회성 발달은 맞벌이 가정 아동 3.59점, 외벌이 가정 아동 3.47점, 신체 발달은 맞벌이 가정 아동과 외벌이 가정 아동이 모두 3.66점으로, 신체 발달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맞벌이 가정 아동의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1〉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 - 맞벌이 여부

단위 : 점, (명), %

구분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신체 발달		N	비율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3.63	1.0	3.78	0.9	3.69	0.9	3.54	0.9	3.66	0.9	(3,767)	100.0
해당	3.73	1.0	3.83	0.9	3.75	0.9	3.59	0.9	3.66	0.9	(2,171)	57.6
비해당	3.50	1.0	3.71	0.9	3.62	0.9	3.47	0.9	3.66	0.9	(1,596)	42.4
<i>t</i>	6.9***		4.4***		4.4***		4.1***		-0.1			

\*\*\*  $p < .001$

발달 상황 전반에 대한 조사 결과를 평균 점수로 살펴보면 맞벌이 가정 아동 3.59점, 외벌이 가정 아동 3.44점으로, 맞벌이 가정 아동의 부모가 자녀의 발달 상황 전반을 유의하게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2〉 발달 상황에 대한 종합적 의견- 맞벌이 여부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맞벌이 여부	3.52	0.9	(3,767)	100.0
맞벌이(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3.59	0.8	(2,171)	57.6
외벌이(한부모 포함)	3.44	0.9	(1,596)	42.4
<i>t</i>	5.1***			

\*\*\*  $p < .001$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평균 점수

를 살펴보면 맞벌이 가정 아동 1.38점, 외벌이 가정 아동 1.45점으로, 외벌이 가정 아동의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3-13〉 전반적인 발달 문제에 대한 인식 - 맞벌이 여부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맞벌이 여부	1.41	0.6	(3,767)	100.0
맞벌이(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1.38	0.6	(2,171)	57.6
외벌이(한부모 포함)	1.45	0.6	(1,596)	42.4
t	-3.3**			

\*\*p < .01

## 2) 주 양육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영역별 발달의 평균 점수의 경우 8시간 미만 언어 발달은 3.77점, 인지 발달은 3.91점, 정서 발달은 3.85점, 사회성 발달은 3.66점, 신체 발달은 3.7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는 언어 발달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III-3-14〉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 - 주 양육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 점, (명), %

구분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신체 발달		N	비율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3.63	1.0	3.78	0.9	3.69	0.9	3.54	0.9	3.66	0.9	(3,767)	100.0
8시간 미만	3.77	1.0	3.91	0.9	3.85	0.9	3.66	0.9	3.71	0.9	(884)	23.3
8시간	3.69	1.0	3.79	0.8	3.68	0.9	3.54	0.9	3.66	0.9	(1,083)	28.6
8시간 초과	3.68	1.0	3.77	0.9	3.72	0.9	3.48	0.9	3.56	0.9	(372)	9.8
F	2.0		6.7**		8.3***		6.8**		3.8*			

\*p < .05, \*\*p < .01, \*\*\*p < .001

발달 상황 전반에 대한 평균 점수의 경우 8시간 미만 3.64점, 8시간 3.54점, 8시간 초과 3.55점으로, 8시간 미만이 가장 유의하게 높았다.

〈표 III-3-15〉 발달 상황에 대한 종합적 의견 - 주 양육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주양육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3.52	0.9	(3,767)	100.0
8시간 미만	3.64	0.9	(884)	23.3
8시간	3.54	0.8	(1,083)	28.6
8시간 초과	3.55	0.9	(372)	9.8
F	3.3*			

\* $p < .05$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8시간 미만 1.36점, 8시간 1.41점, 8시간 초과 1.39점으로 8시간 집단이 가장 높았으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III-3-16〉 참조).

〈표 III-3-16〉 전반적인 발달 문제에 대한 인식 - 주 양육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주양육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1.41	0.6	(3,767)	100.0
8시간 미만	1.36	0.62	(884)	23.3
8시간	1.41	0.61	(1,083)	28.6
8시간 초과	1.39	0.56	(372)	9.8
F	1.7			

## 라. 가구 특성별 놀이와 사회적 활동 비교

아동의 놀이와 사회적 활동을 가구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 일부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기초수급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고집 영역에서 기초수급 해당 집단이 3.17점, 비해당 집단이 2.66점으로 기초수급을 받는 집단이 유의하게 평균 점수가 더 높았다. 취약가구 여부도 고집 영역에서만 집단 간 차이가 유의했는데, 취약가구 해당 집단 3.10점, 비해당 집단 2.65점으로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집단의 점수가 더 높았다. 가구 소득의 경우, 전체 평균과 행동 모방에서만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307만 원 이하(1~4분위) 3.73점, 308~467만 원 이하(5~6분위) 3.67점, 468~680만 원 이하(7~8분위) 3.69점, 681만 원 이상(9~10분위 이상) 3.74점으로 9~10분위에 해당하는 집단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아동의 놀이와 사회적 활동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III-3-17〉 놀이와 사회적 활동 종합 - 가구 특성별 비교

단위 : (명), 점

구분	N	전체		행동 모방		함께 있기		고집		가상/상상놀이		호기심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648)	3.71	0.5	4.22	0.8	4.17	0.7	2.68	0.8	3.16	1.1	4.32	0.7
<b>맞벌이 여부</b>													
맞벌이(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356)	3.71	0.5	4.24	0.8	4.18	0.7	2.63	0.9	3.15	1.1	4.33	0.7
외벌이(한부모 포함)	(275)	3.72	0.5	4.19	0.8	4.16	0.7	2.74	0.8	3.19	1.1	4.30	0.7
무응답	( 17)	3.66	0.3	4.04	0.7	4.26	0.5	2.75	0.6	2.86	0.9	4.37	0.6
<i>F</i>		0.170		0.127		0.411		0.622		0.549		0.546	
<b>기초수급 여부 (차상위 포함)</b>													
해당	( 21)	3.76	0.5	3.99	0.8	4.00	0.6	3.17	0.8	3.21	0.9	4.45	0.7
비해당	(627)	3.71	0.5	4.22	0.8	4.18	0.7	2.66	0.8	3.16	1.1	4.31	0.7
<i>t</i>		0.845		0.092		0.141		0.000***		0.635		0.593	
<b>취약가구 여부</b>													
해당	( 45)	3.70	0.5	4.02	0.9	4.06	0.7	3.10	0.8	3.01	0.9	4.33	0.7
비해당	(603)	3.71	0.5	4.23	0.8	4.19	0.7	2.65	0.8	3.17	1.1	4.32	0.7
<i>t</i>		0.360		0.037		0.229		0.001***		0.038		0.826	
<b>가구 소득</b>													
307만 원 이하 (1~4분위)	( 66)	3.73	0.5	4.08	0.8	4.13	0.7	2.80	0.8	3.30	1.0	4.33	0.7
308~467만 원 이하 (5~6분위)	(168)	3.67	0.5	4.16	0.9	4.16	0.8	2.78	0.9	3.02	1.2	4.25	0.8
468~680만 원 이하 (7~8분위)	(184)	3.69	0.5	4.24	0.7	4.19	0.7	2.63	0.8	3.13	1.1	4.29	0.7
681만 원 이상 (9~10분위 이상)	(230)	3.74	0.4	4.28	0.7	4.19	0.7	2.61	0.8	3.26	1.1	4.38	0.6
<i>F</i>		0.026*		0.003**		0.233		0.444		0.070		0.163	

\* $p < .05$ , \*\* $p < .01$ , \*\*\* $p < .001$

### 마. 가구 특성별 또래 상호작용 비교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을 가구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 일부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또래 상호작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초수급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모든 하위 영역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놀이 상호작용은 기초수급 비해당 집단이 3.19점으로 더 높았고, 놀이 방해는 해당 집단이 2.03점, 놀이 단절도 해당 집단이 1.73점으로

더 높았다. 취약가구 여부는 역시 모든 하위 영역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놀이 상호작용은 취약가구 비해당 집단이 3.20점으로 더 높았고, 놀이 방해는 해당 집단이 1.97점, 놀이 단절도 해당 집단이 1.72점으로 더 높았다. 가구 소득의 경우 모든 하위 영역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놀이 상호작용은 681만 원 이상이 3.25점, 놀이 방해는 308~467만 원 이하가 1.93점, 놀이 단절도 308~467만 원 이하가 1.67점으로 가장 높았다. 주 양육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의 경우에도 모든 하위 영역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놀이 상호작용은 8시간 미만이 3.23점으로, 놀이 방해는 8시간 초과가 1.94점, 놀이 단절은 8시간이 1.65점으로 가장 높았다(〈표 III-3-18〉 참조).

〈표 III-3-18〉 또래 상호작용 종합 - 가구 특성별 비교

단위 : (명), 점

2018~2021년생	N	놀이 상호작용		놀이 방해		놀이 단절	
		M	SD	M	SD	M	SD
전체	(3,767)	3.19	0.4	1.90	0.4	1.62	0.5
<b>맞벌이 여부</b>							
맞벌이(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2,171)	3.19	0.4	1.91	0.4	1.61	0.5
외벌이(한부모 포함)	(1,596)	3.19	0.4	1.89	0.4	1.62	0.5
<i>t</i>		0.3		0.8		-0.5	
<b>기초수급 여부(차상위 포함)</b>							
해당	(154)	3.11	0.4	2.03	0.4	1.73	0.5
비해당	(3,613)	3.19	0.4	1.89	0.4	1.61	0.5
<i>t</i>		-2.3*		4.1***		2.8**	
<b>취약가구 여부</b>							
해당	(307)	3.09	0.5	1.97	0.4	1.72	0.5
비해당	(3,460)	3.20	0.4	1.89	0.4	1.61	0.5
<i>t</i>		-3.7***		2.9**		3.5***	
<b>가구 소득</b>							
307만 원 이하(1~4분위)	(470)	3.13	0.5	1.92	0.4	1.63	0.5
308~467만 원 이하(5~6분위)	(941)	3.13	0.4	1.93	0.4	1.67	0.5
468~680만 원 이하(7~8분위)	(1,135)	3.21	0.4	1.90	0.4	1.63	0.5
681만 원 이상(9~10분위 이상)	(1,221)	3.25	0.4	1.87	0.4	1.55	0.4
<i>F</i>		16.1***(a)		4.5**(a)		9.6***(a)	
<b>주양육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b>							
8시간 미만	(884)	3.23	0.4	1.87	0.4	1.56	0.5
8시간	(1,083)	3.16	0.4	1.92	0.4	1.65	0.5
8시간 초과	(372)	3.17	0.4	1.94	0.4	1.64	0.4
<i>F</i>		5.9**		5.1**		7.6***(a)	

\* $p < .05$ , \*\* $p < .01$ , \*\*\* $p < .001$

### 바. 가구 특성별 일상생활 행동 비교

아동의 일상생활 행동을 가구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맞벌이 이용 기관에 따라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초수급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모든 하위영역에서 비해당 가정이 해당 가정보다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취약가구 여부의 경우 또한 모든 하위영역에서 비해당 가정이 해당 가정보다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의 경우, 모든 하위 영역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681만 원 이상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 양육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억제와 계획조직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8시간 미만 가정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다(〈표 III-3-19〉 참조).

〈표 III-3-19〉 일상생활의 행동 종합 - 가구 특성별 비교

단위 : (명), 점

2018~2021년생	N	억제		주의 전환		감정 조절		작업기억		계획 조직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3,767)	3.45	0.5	3.31	0.5	3.43	0.5	3.46	0.5	3.40	0.5
<b>맞벌이 여부</b>											
맞벌이(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2,171)	3.46	0.5	3.32	0.5	3.44	0.5	3.47	0.5	3.42	0.5
외벌이(한부모 포함)	(1,596)	3.43	0.5	3.29	0.6	3.41	0.6	3.44	0.5	3.39	0.5
<i>t</i>		1.8		1.8		2.0		1.9		1.7	
<b>기초수급 여부(차상위 포함)</b>											
해당	(154)	3.18	0.6	3.13	0.6	3.14	0.7	3.23	0.6	3.16	0.6
비해당	(3,613)	3.46	0.5	3.32	0.5	3.44	0.5	3.47	0.5	3.41	0.5
<i>t</i>		-5.3***		-3.6**		-5.1***		-4.3***		-4.5***	
<b>취약가구 여부</b>											
해당	(307)	3.21	0.6	3.18	0.6	3.20	0.7	3.24	0.7	3.18	0.6
비해당	(3,460)	3.47	0.5	3.32	0.5	3.45	0.5	3.48	0.5	3.42	0.5
<i>t</i>		-6.6***		-3.7***		-5.9***		-5.9***		-6.2***	
<b>가구 소득</b>											
307만 원 이하 (1~4분위)	(470)	3.35	0.6	3.27	0.6	3.36	0.6	3.36	0.6	3.33	0.5
308~467만 원 이하 (5~6분위)	(941)	3.40	0.5	3.29	0.5	3.43	0.6	3.42	0.5	3.37	0.5
468~680만 원 이하 (7~8분위)	(1,135)	3.45	0.5	3.29	0.5	3.42	0.5	3.45	0.5	3.41	0.5
681만 원 이상 (9~10분위 이상)	(1,221)	3.52	0.5	3.36	0.5	3.47	0.5	3.53	0.4	3.45	0.5
<i>F</i>		12.6***(a)		4.3***(a)		4.6***(a)		13.2***(a)		7.4***(a)	

2018~2021년생	N	억제		주의 전환		감정 조절		작업기억		계획 조직	
		M	SD	M	SD	M	SD	M	SD	M	SD
주양육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8시간 미만	(884)	3.49	0.5	3.34	0.5	3.47	0.5	3.50	0.5	3.47	0.5
8시간	(1,083)	3.44	0.5	3.32	0.5	3.43	0.6	3.46	0.5	3.39	0.5
8시간 초과	(372)	3.38	0.5	3.28	0.6	3.41	0.5	3.42	0.5	3.36	0.5
F		5.6** <sup>(a)</sup>		1.5		1.7		2.9 <sup>(a)</sup>		7.7*** <sup>(a)</sup>	

\*\* $p < .01$ , \*\*\* $p < .001$

### 사. 가구 특성별 아동의 스트레스 비교

아동의 스트레스를 가구 특성에 따라 비교해 보았을 때, 먼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유의한 평균 차이가 있었는데 맞벌이 2.33점, 외벌이 2.37점으로 외벌이가 정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수급 여부에 따라서는 해당 2.52점, 비해당 2.34점으로 해당 가정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가구 여부의 경우 평균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해당 가정 2.47점, 비해당 집단 2.33점으로 해당 가정 점수가 더 높았다. 가구소득의 경우 평균 점수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고, 307만 원 이하 가정의 평균 점수가 2.49점으로 가장 높았다. 주양육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III-3-20〉 가구 특성별 아동의 스트레스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전체	2.34	0.6	(3,767)	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2.33	0.6	(2,171)	57.6
외벌이(한부모 포함)	2.37	0.7	(1,596)	42.4
t	-2.0*			
기초수급 여부(차상위 포함)				
해당	2.52	0.7	(154)	4.1
비해당	2.34	0.6	(3,613)	95.9
t	3.2**			
취약가구 여부				
해당	2.47	0.7	(307)	8.2
비해당	2.33	0.6	(3,460)	91.8
t	3.2**			
가구 소득				
307만 원 이하(1~4분위)	2.49	0.7	(470)	12.5

구분	M	SD	N	비율
308~467만 원 이하(5~6분위)	2.35	0.7	(941)	25.0
468~680만 원 이하(7~8분위)	2.34	0.6	(1,135)	30.1
681만 원 이상(9~10분위 이상)	2.29	0.6	(1,221)	32.4
<i>F</i>	12.3***(a)			
<b>주양육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b>				
8시간 미만	2.33	0.6	(884)	23.3
8시간	2.31	0.6	(1,083)	28.6
8시간 초과	2.37	0.6	(372)	9.8
<i>F</i>	1.1			

\* $p < .05$ , \*\* $p < .01$ , \*\*\* $p < .001$

### 아. 가구 특성별 아동의 행복도 비교

아동 행복도의 경우 기초수급 여부, 취약가구 여부, 가구 소득에 따라 평균 점수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초수급 해당 가정 아동의 행복도는 5.81점으로 비해당 가정 6.16점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취약가구 해당 가정 아동의 행복도는 5.92점으로 비해당 가정 6.16점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681만 원 이상 가정 아동의 행복도가 6.22점으로 가장 높았다(〈표 III-3-21〉 참조).

〈표 III-3-21〉 가구 특성별 아동의 행복도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전체	6.14	0.8	(3,767)	100.0
<b>맞벌이 여부</b>				
맞벌이(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6.16	0.7	(2,171)	57.6
외벌이(한부모 포함)	6.12	0.8	(1,596)	42.4
<i>t</i>	1.8			
<b>기초수급 여부(차상위 포함)</b>				
해당	5.81	1.0	(154)	4.1
비해당	6.16	0.7	(3,613)	95.9
<i>t</i>	-4.2***			
<b>취약가구 여부</b>				
해당	5.92	1.0	(307)	8.2
비해당	6.16	0.7	(3,460)	91.8
<i>t</i>	-4.2***			
<b>가구 소득</b>				
307만 원 이하(1~4분위)	5.99	0.9	(470)	12.5
308~467만 원 이하(5~6분위)	6.11	0.8	(941)	25.0
468~680만 원 이하(7~8분위)	6.15	0.7	(1,135)	30.1
681만 원 이상(9~10분위 이상)	6.22	0.7	(1,221)	32.4

구분	M	SD	N	비율
F	11.5 <sup>***</sup> (a)			
주양육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8시간 미만	6.19	0.8	(884)	23.3
8시간	6.14	0.7	(1,083)	28.6
8시간 초과	6.09	0.8	(372)	9.8
F	2.9			

<sup>\*\*\*</sup>  $p < .001$

#### 4. 교사 특성별 비교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2,433명으로, 응답자 교사의 특성은 다음 <표 III-4-1>과 같다. 교사의 성별은 남자 0.8%, 여자 99.2%로 여자인 교사가 더 많았으며, 연령은 20대 21.5%, 30대 31.3%, 40대 32.7%, 50세 이상 14.5%로 40대 교사가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4.0%, 전문대 졸업은 43.5%, 대학교 졸업은 42.8%, 대학원 졸업은 9.7%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교사 경력은 1년 이하가 15.9%, 1년~5년 미만은 10.8%, 5년~10년 미만은 60.8%, 10년 이상은 12.5%로 5년~10년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II-4-1> 참조).

<표 III-4-1> 교사 특성

구분	N	비율
전체	(2,433)	100.0
교사 성별		
남자	(20)	0.8
여자	(2,413)	99.2
교사 연령		
20대	(523)	21.5
30대	(762)	31.3
40대	(795)	32.7
50세 이상	(353)	14.5
교사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7)	4.0
전문대 졸업	(1,058)	43.5
대학교 졸업	(1,042)	42.8
대학원 졸업	(236)	9.7
교사 경력		
1년 이하	(387)	15.9
1년~5년 미만	(264)	10.8
5년~10년 미만	(1,479)	60.8
10년 이상	(304)	12.5

단위 : (명), %

## 가. 교사 특성별 발달 비교

### 1) 교사 연령

영역별 발달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교사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영역별 발달의 평균 점수의 경우 사회성 발달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교사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언어 발달은 20대와 50세 이상 집단이 각 3.85점으로 가장 높았고, 인지 발달은 50세 이상 집단이 3.99점으로 가장 높았다. 정서 발달은 50세 이상 집단이 3.80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성 발달 또한 50세 이상 집단이 3.73점으로 가장 높았다. 신체 발달도 50세 이상 집단이 3.92점으로 가장 높았다.

〈표 III-4-2〉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 - 교사 연령

단위 : 점, (명), %

구분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신체 발달		N	비율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3.78	1.1	3.89	0.9	3.65	1.0	3.64	1.0	3.79	0.9	(2,433)	100.0
20대	3.85	1.0	3.95	0.9	3.59	1.0	3.66	1.0	3.76	0.9	(523)	21.5
30대	3.72	1.0	3.86	0.9	3.58	1.0	3.61	1.0	3.74	0.9	(762)	31.3
40대	3.75	1.1	3.83	1.0	3.69	1.0	3.60	1.0	3.80	0.9	(795)	32.7
50세 이상	3.85	1.1	3.99	0.9	3.80	1.0	3.73	1.0	3.92	1.0	(353)	14.5
F	3.4*(a)		5.3**(a)		7.3***		2.4		5.0**			

\* $p < .05$ , \*\* $p < .01$ , \*\*\* $p < .001$

발달 상황 전반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20대 3.70점, 30대 3.66점, 40대 3.65점, 50세 이상 3.77점으로, 50세 이상 집단에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평균 차이는 집단 간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4-3〉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종합적 의견 - 교사 연령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교사 연령	3.68	0.9	(2,433)	100.0
20대	3.70	0.9	(523)	21.5
30대	3.66	0.9	(762)	31.3
40대	3.65	1.0	(795)	32.7
50세 이상	3.77	0.9	(353)	14.5
F	2.5(a)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교사 연령에 따라 평균 점수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40대 집단이 1.54점으로 가장 높았다.

〈표 III-4-4〉 전반적인 발달 문제에 대한 인식 - 교사 연령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교사 연령	1.47	0.7	(2,433)	100.0
20대	1.39	0.6	(523)	21.5
30대	1.48	0.7	(762)	31.3
40대	1.54	0.7	(795)	32.7
50세 이상	1.43	0.6	(353)	14.5
F	9.0***(a)			

\*\*\* $p < .001$

## 2) 교사 경력

영역별 발달 현황에 대한 평균 점수를 교사 경력에 따라 살펴보면, 언어 발달에 서만 교사 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언어 발달은 10년 이상이 3.87점으로 가장 높았고, 인지 발달은 1년~5년 미만이 3.95점으로 가장 높았다. 정서 발달은 10년 이상이 3.75점으로 가장 높았다. 사회성 발달은 10년 이상이 3.67점으로 가장 높았다. 신체 발달은 1년~5년 미만이 3.83점으로 가장 높았다.

〈표 III-4-5〉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 - 교사 경력

단위 : 점, (명), %

구분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신체 발달		N	비율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3.78	1.1	3.89	0.9	3.65	1.0	3.64	1.0	3.79	0.9	(2,433)	100.0
1년 이하	3.66	1.1	3.81	1.0	3.60	1.0	3.54	1.0	3.73	0.9	(387)	15.9
1년~5년 미만	3.81	1.1	3.95	0.9	3.64	1.1	3.63	1.0	3.83	1.0	(264)	10.8
5년~10년 미만	3.78	1.0	3.89	0.9	3.64	1.0	3.65	1.0	3.81	0.9	(1,479)	60.8
10년 이상	3.87	1.0	3.94	0.9	3.75	1.1	3.67	1.0	3.73	0.9	(304)	12.5
F	3.7*(a)		2.5		2.2(a)		2.1		1.7(a)			

\* $p < .05$

발달 상황 전반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교사 경력에 따라 평균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1년 이하 3.58점, 1년~5년 미만 3.71점, 5년~10년 미만 3.70

점, 10년 이상 3.70점으로 1년~5년 미만 집단이 가장 높았다.

〈표 III-4-6〉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종합적 의견 - 교사 경력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교사 경력	3.68	0.9	(2,433)	100.0
1년 이하	3.58	1.0	(387)	15.9
1년~5년 미만	3.71	0.9	(264)	10.8
5년~10년 미만	3.70	0.9	(1,479)	60.8
10년 이상	3.70	0.9	(304)	12.5
F	2.8*			

\* $p < .05$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평균 점수의 경우 교사 경력 1년 이하 집단이 1.56점으로 가장 높았고, 5년~10년 미만 1.4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7〉 전반적인 발달 문제에 대한 인식 - 교사 경력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교사 경력	1.47	0.7	(2,433)	100.0
1년 이하	1.56	0.7	(387)	15.9
1년~5년 미만	1.50	0.6	(264)	10.8
5년~10년 미만	1.44	0.6	(1,479)	60.8
10년 이상	1.51	0.7	(304)	12.5
F	5.5**(a)			

\*\* $p < .01$

### 3) 담당 학급/반

영역별 발달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당 학급/반에 따라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응답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언어 발달은 5세반이 3.90점으로 가장 높았고, 인지 발달도 5세반이 3.99점으로 가장 높았다. 정서 발달은 2세반이 3.79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성 발달은 5세반이 3.73점으로 가장 높았고, 신체 발달은 2세반이 3.95점으로 가장 높았다.

〈표 III-4-8〉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 - 담당 학급/반

단위 : 점, (명), %

구분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신체 발달		N	비율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3.78	1.1	3.89	0.9	3.65	1.0	3.64	1.0	3.79	0.9	(3,767)	100.0
1세반	3.59	1.1	3.86	0.9	3.74	1.0	3.62	1.0	3.83	0.9	(648)	17.2
2세반	3.87	1.1	3.98	1.0	3.79	1.0	3.72	1.0	3.95	0.9	(717)	19.0
3세반	3.68	1.0	3.77	0.9	3.52	1.0	3.54	1.0	3.63	0.9	(749)	19.9
4세반	3.80	1.0	3.83	0.9	3.50	1.0	3.56	0.9	3.67	0.9	(796)	21.1
5세반	3.90	1.0	3.99	1.0	3.70	1.0	3.73	1.0	3.87	0.9	(856)	22.7
F	11.5***(a)		8.3***(a)		13.4***		5.8***(a)		17.0***			

\*\*\*  $p < .001$

발달 상황 전반에 대한 평균 점수에서도 담당 학급/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1세반 3.67점, 2세반 3.78점, 3세반 3.57점, 4세반 3.59점, 5세반 3.79점으로, 5세반이 가장 높았다.

〈표 III-4-9〉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종합적 의견 - 담당 학급/반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담당 학급/반	3.68	0.9	(3,767)	100.0
1세반	3.67	1.0	(648)	17.2
2세반	3.78	1.0	(717)	19.0
3세반	3.57	0.9	(749)	19.9
4세반	3.59	0.9	(796)	21.1
5세반	3.79	0.9	(856)	22.7
F	9.3***			

\*\*\*  $p < .001$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1세반 1.45점, 2세반 1.44점, 3세반 1.53점, 4세반 1.51점, 5세반 1.43점으로 3세반이 가장 높았고,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10〉 전반적인 발달 문제에 대한 인식 - 담당 학급/반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담당 학급/반	1.47	0.7	(3,767)	100.0
1세반	1.45	0.7	(648)	17.2

구분	M	SD	N	비율
2세반	1.44	0.7	(717)	19.0
3세반	1.53	0.7	(749)	19.9
4세반	1.51	0.6	(796)	21.1
5세반	1.43	0.6	(856)	22.7
F	3.7**(a)			

\*\*  $p < .01$

### 나. 교사 특성별 아동의 놀이와 사회적 활동 비교

아동의 놀이와 사회적 활동을 교사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 교사 연령, 교사 경력, 담당 학급/반 모두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사의 특성에 따른 아동의 놀이와 사회적 특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4-11〉 놀이와 사회적 활동 종합 - 교사 특성별 비교

단위 : (명), 점

구분	사례수 (명)	전체		행동 모방		함께 있기		고집		가상/ 상상놀이		호기심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648)	3.71	0.5	4.22	0.8	4.17	0.7	2.68	0.8	3.16	1.1	4.32	0.7
<b>교사 연령</b>													
20대	( 60)	3.76	0.5	4.32	0.7	4.27	0.9	2.59	0.7	3.27	1.0	4.37	0.6
30대	(157)	3.76	0.5	4.32	0.7	4.18	0.8	2.73	0.9	3.24	1.2	4.32	0.7
40대	(281)	3.67	0.5	4.14	0.8	4.14	0.7	2.70	0.8	3.10	1.0	4.27	0.7
50세 이상	(150)	3.71	0.4	4.20	0.8	4.19	0.7	2.64	0.8	3.17	1.2	4.37	0.7
F		0.551		0.469		0.175		0.108		0.623		0.385	
<b>교사 경력</b>													
1년 이하	(123)	3.73	0.6	4.17	0.8	4.15	0.7	2.77	0.8	3.21	1.2	4.33	0.7
1년~5년 미만	( 88)	3.75	0.5	4.25	0.7	4.24	0.8	2.72	0.8	3.32	1.0	4.23	0.7
5년~10년 미만	(362)	3.68	0.5	4.21	0.8	4.16	0.7	2.64	0.8	3.07	1.1	4.32	0.7
10년 이상	( 75)	3.78	0.4	4.31	0.8	4.21	0.7	2.68	0.8	3.34	1.0	4.36	0.6
F		0.219		0.179		0.123		0.594		0.263		0.784	

### 다. 교사 특성별 아동의 문제행동 비교

아동의 외향적 문제행동을 교사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아동에게 외향적 문제행동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40대가 23.4%로 가장 많았고, 교사 경력에 따라 살펴보면 1년~5년 미만이 23.2%로 가장 많았다. 담당 학급/반에 따라 살펴보면 1세반

이 27.5%로 가장 많았다. 이 중 교사 연령과 담당 학급/반에 따라서만 응답 분포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III-4-12〉 문제행동 - 1) 외향적 문제행동

단위 : %, (명)

구분	없다	있다	N	비율
전체	79.9	20.1	(3,767)	100.0
<b>교사 연령</b>				
20대	80.8	19.2	(831)	22.1
30대	83.9	16.1	(1,232)	32.7
40대	76.6	23.4	(1,186)	31.5
50세 이상	76.7	23.3	(518)	13.8
$\chi^2$ (df)	23.968(3)***			
<b>교사 경력</b>				
1년 이하	78.8	21.2	(557)	14.8
1년~5년 미만	76.8	23.2	(399)	10.6
5년~10년 미만	80.6	19.4	(2,354)	62.5
10년 이상	80.2	19.8	(457)	12.1
$\chi^2$ (df)	3.479(3)			
<b>담당 학급/반</b>				
1세반	72.5	27.5	(648)	17.2
2세반	78.7	21.3	(717)	19.0
3세반	81.9	18.1	(749)	19.9
4세반	81.8	18.2	(796)	21.1
5세반	83.0	17.0	(856)	22.7
$\chi^2$ (df)	31.466(4)***			

\*\*\* $p < .001$

아동의 내향적 문제행동을 교사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아동에게 외향적 문제행동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50세 이상이 30.8%로 가장 많았고, 교사 경력에 따라 살펴보면 1년~5년 미만이 34.6%로 가장 많았다. 담당 학급/반에 따라 살펴보면 4세반이 34.3%로 가장 많았다. 이 중 교사 경력과 담당 학급/반에 따라서만 응답 분포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III-4-13〉 문제행동 - 2) 내향적 문제행동

단위 : %, (명)

구분	없다	있다	N	비율
전체	70.9	29.1	(3,767)	100.0
<b>교사 연령</b>				
20대	70.8	29.2	(831)	22.1

구분	없다	있다	N	비율
30대	71.7	28.3	(1,232)	32.7
40대	71.0	29.0	(1,186)	31.5
50세 이상	69.2	30.8	(518)	13.8
$\chi^2$ (df)	1.119(3)			
<b>교사 경력</b>				
1년 이하	71.3	28.7	(557)	14.8
1년~5년 미만	65.4	34.6	(399)	10.6
5년~10년 미만	72.3	27.7	(2,354)	62.5
10년 이상	68.1	31.9	(457)	12.1
$\chi^2$ (df)	9.900(3)*			
<b>담당 학급/반</b>				
1세반	75.1	24.9	(648)	17.2
2세반	73.6	26.4	(717)	19.0
3세반	72.7	27.3	(749)	19.9
4세반	65.7	34.3	(796)	21.1
5세반	68.8	31.2	(856)	22.7
$\chi^2$ (df)	21.674(4)***			

\* $p < .05$ , \*\*\* $p < .001$

아동의 발달 지연 상담의 필요성을 교사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아동에게 외향적 문제행동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40대가 10.4%로 가장 많았고, 교사 경력에 따라 살펴보면 1년 이하가 12.9%로 가장 많았다. 담당 학급/반에 따라 살펴보면 3세반이 10.9%로 가장 많았다. 이 중 교사 경력에 따라서만 응답 분포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III-4-14> 참조).

<표 III-4-14> 문제행동 - 3) 발달 지연 상담의 필요성

단위 : %, (명)

구분	없다	있다	N	비율
전체	90.3	9.7	(3,767)	100.0
<b>교사 연령</b>				
20대	90.0	10.0	(831)	22.1
30대	90.1	9.9	(1,232)	32.7
40대	89.6	10.4	(1,186)	31.5
50세 이상	92.4	7.6	(518)	13.8
$\chi^2$ (df)	3.512(3)			
<b>교사 경력</b>				
1년 이하	87.1	12.9	(557)	14.8
1년~5년 미만	89.6	10.4	(399)	10.6
5년~10년 미만	91.0	9.0	(2,354)	62.5
10년 이상	90.8	9.2	(457)	12.1
$\chi^2$ (df)	8.288(3)*			

구분	없다	있다	N	비율
<b>담당 학급/반</b>				
1세반	91.9	8.1	(648)	17.2
2세반	89.7	10.3	(717)	19.0
3세반	89.1	10.9	(749)	19.9
4세반	89.6	10.4	(796)	21.1
5세반	91.0	9.0	(856)	22.7
$\chi^2$ (df)	4.393(4)			

\* $p < .05$

### 라. 교사 특성별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 비교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을 교사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 모든 특성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교사 연령에 따라 모든 하위영역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놀이 상호작용에서는 20대 집단이 3.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놀이 방해와 놀이 단절에서는 40세 집단과 50세 이상 집단이 2.0점으로 동일하게 가장 높았다. 교사 경력에 따라서도 모든 하위영역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놀이 상호작용에서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집단이 3.2점으로 가장 높았고, 놀이 방해에서는 1년 이하와 1년~5년 미만 경력을 가진 집단이 2.0점으로 동일하게 가장 높았다. 놀이 단절에서는 1년 이하와 10년 이상 경력 집단이 2.0점으로 가장 높았다. 담당 학급/반 역시 모든 하위영역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놀이 상호작용은 4세반, 5세반 담당 집단이 3.2점으로 동일하게 가장 높았으며, 놀이 방해는 2세반 담당 집단이 2.1점으로 가장 높았다. 놀이 단절의 경우,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담당 집단에서 모두 1.9점으로 가장 높았다(〈표 III-4-15〉 참조).

〈표 III-4-15〉 또래 상호작용 종합 - 교사 특성별 비교

단위 : 점, (명), %

구분	놀이 상호작용		놀이 방해		놀이 단절		N	비율
	M	SD	M	SD	M	SD		
전체	3.19	0.4	1.90	0.4	1.62	0.5	(3,767)	100.0
<b>교사 연령</b>								
20대	3.2	0.4	1.8	0.5	1.8	0.4	(831)	22.1
30대	3.1	0.5	1.9	0.5	1.9	0.4	(1,232)	32.7
40대	3.1	0.4	2.0	0.5	2.0	0.4	(1,186)	31.5
50세 이상	3.1	0.4	2.0	0.5	2.0	0.4	(518)	13.8

구분	놀이 상호작용		놀이 방해		놀이 단절		N	비율
	M	SD	M	SD	M	SD		
F	14.4 <sup>***(a)</sup>		29.2 <sup>***</sup>		24.4 <sup>***(a)</sup>			
<b>교사 경력</b>								
1년 이하	3.1	0.5	2.0	0.6	2.0	0.4	(557)	14.8
1년~5년 미만	3.1	0.4	2.0	0.5	1.9	0.4	(399)	10.6
5년~10년 미만	3.1	0.4	1.9	0.5	1.9	0.4	(2,354)	62.5
10년 이상	3.2	0.4	1.9	0.5	2.0	0.4	(457)	12.1
F	6.8 <sup>***</sup>		11.2 <sup>***(a)</sup>		13.8 <sup>***(a)</sup>			
<b>담당 학급/반</b>								
1세반	0.0	0.0	0.0	0.0	0.0	0.0	(648)	17.2
2세반	3.0	0.4	2.1	0.5	1.9	0.4	(717)	19.0
3세반	3.1	0.5	1.9	0.5	1.9	0.4	(749)	19.9
4세반	3.2	0.4	1.9	0.5	1.9	0.4	(796)	21.1
5세반	3.2	0.4	1.8	0.5	1.9	0.4	(856)	22.7
F	22.1 <sup>***(a)</sup>		46.4 <sup>***(a)</sup>		4.6 <sup>** (a)</sup>			

<sup>\*\*</sup>p < .01, <sup>\*\*\*</sup>p < .001

### 마. 교사 특성별 아동의 일상생활 행동 비교

아동의 일상생활 행동을 교사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사 연령에서는 억제와 감정 조절, 작업기억, 계획 조직 4개 영역에서 모두 20대와 30대의 평균 점수가 동일하게 3.4점, 3.5점, 3.5점, 3.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주의 전환에서는 20대가 3.5점으로 가장 높았다. 교사 경력에서는 억제와 주의 전환, 감정 조절에서만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억제와 주의 전환에서는 5년~10년 미만 3.4점, 10년 이상 3.4점으로 교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집단들이 높았으며, 감정 조절은 5년~10년 미만 집단이 3.4점으로 가장 높았다. 담당 학급/반에서는 억제 영역에서 3세반, 4세반, 5세반이 모두 3.4점으로 동일하게 높았고, 주의 전환에서는 4세반과 5세반이 3.4점으로 평균 점수가 높았다. 감정 조절과 작업기억에서는 5세반이 평균 3.5점으로 가장 높았고, 계획 조직에서도 5세반이 3.4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내었다(〈표 III-4-16〉 참조).



〈표 III-4-16〉 일상생활의 행동 종합 - 교사 특성별 비교

단위 : 점, (명), %

구분	억제		주의 전환		감정 조절		작업기억		계획 조직		N	비율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3.45	0.5	3.31	0.5	3.43	0.5	3.46	0.5	3.40	0.5	(3,767)	100.0
<b>교사 연령</b>												
20대	3.4	0.7	3.5	0.5	3.5	0.6	3.5	0.6	3.4	0.5	(831)	22.1
30대	3.4	0.6	3.4	0.6	3.5	0.6	3.5	0.6	3.4	0.6	(1,232)	32.7
40대	3.3	0.7	3.2	0.6	3.3	0.7	3.3	0.6	3.3	0.6	(1,186)	31.5
50세 이상	3.3	0.6	3.2	0.5	3.3	0.6	3.3	0.6	3.2	0.5	(518)	13.8
F	10.3***(a)		32.6***		21.4***(a)		19.3***		18.3***			
<b>교사 경력</b>												
1년 이하	3.3	0.7	3.3	0.6	3.3	0.7	3.4	0.7	3.3	0.6	(557)	14.8
1년~5년 미만	3.3	0.6	3.3	0.6	3.3	0.6	3.4	0.6	3.3	0.5	(399)	10.6
5년~10년 미만	3.4	0.6	3.4	0.5	3.4	0.6	3.4	0.6	3.3	0.6	(2,354)	62.5
10년 이상	3.4	0.7	3.4	0.5	3.3	0.7	3.4	0.6	3.3	0.6	(457)	12.1
F	3.7*(a)		5.0**(a)		9.4***(a)		1.2(a)		1.2(a)			
<b>담당 학급/반</b>												
1세반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648)	17.2
2세반	3.3	0.7	3.3	0.6	3.3	0.7	3.4	0.6	3.3	0.6	(717)	19.0
3세반	3.4	0.7	3.3	0.6	3.4	0.6	3.4	0.7	3.3	0.6	(749)	19.9
4세반	3.4	0.6	3.4	0.6	3.4	0.6	3.4	0.6	3.3	0.5	(796)	21.1
5세반	3.4	0.7	3.4	0.5	3.5	0.6	3.5	0.6	3.4	0.5	(856)	22.7
F	3.2*(a)		10.2***		11.6***(a)		11.7***(a)		16.7***(a)			

\* $p < .05$ , \*\* $p < .01$ , \*\*\* $p < .001$

#### 바. 교사 특성별 아동의 스트레스 비교

아동의 스트레스를 교사의 특성에 따라 비교해 보았을 때, 평균 점수는 50세 이상이 2.33점으로 가장 높았다. 교사 경력별로는 1년 이하 2.25점, 1년~5년 미만 2.27점, 5년~10년 미만 2.26점, 10년 이상 2.35점으로 10년 이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담당 학급/반의 경우 평균 점수는 1세반 0점, 2세반 0.6점, 3세반 0.7점, 4세반 0.6점, 5세반 0.6점으로 3세반이 가장 높았다(〈표 III-4-17〉 참조).

〈표 III-4-17〉 교사 특성별 아동의 스트레스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전체	2.27	0.7	(3,767)	100.0
<b>교사 연령</b>				
20대	2.25	0.7	(831)	22.1
30대	2.25	0.7	(1,232)	32.7
40대	2.29	0.7	(1,186)	31.5
50세 이상	2.33	0.7	(518)	13.8
F	2.4			
<b>교사 경력</b>				
1년 이하	2.25	0.7	(557)	14.8
1년~5년 미만	2.27	0.7	(399)	10.6
5년~10년 미만	2.26	0.7	(2,354)	62.5
10년 이상	2.35	0.6	(457)	12.1
F	2.6*(a)			
<b>담당 학급/반</b>				
1세반	0.0	0.0	(648)	17.2
2세반	0.6	3.3	(717)	19.0
3세반	0.7	3.3	(749)	19.9
4세반	0.6	3.3	(796)	21.1
5세반	0.6	3.4	(856)	22.7
F	-1.5			

\* $p < .05$

### 사. 교사 특성별 아동의 행복도 비교

아동 행복도의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교사 연령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30대 집단의 평균 점수가 5.97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교사 경력에 따라서는 1년 이하와 10년 이상 집단이 5.92점으로 가장 높았다. 담당 학급/반에 따라 살펴보면 1세반 집단이 5.98점으로 가장 높았다.

〈표 III-4-18〉 교사 특성별 아동의 행복도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전체	5.91	1.0	(3,767)	100.0
<b>교사 연령</b>				
20대	5.95	0.9	(831)	22.1
30대	5.97	0.9	(1,232)	32.7
40대	5.84	1.0	(1,186)	31.5

구분	M	SD	N	비율
50세 이상 F	5.85 5.1**(a)	1.0	(518)	13.8
<b>교사 경력</b>				
1년 이하	5.92	1.0	(557)	14.8
1년~5년 미만	5.88	1.0	(399)	10.6
5년~10년 미만	5.91	0.9	(2,354)	62.5
10년 이상 F	5.92 0.2(a)	1.0	(457)	12.1
<b>담당 학급/반</b>				
1세반	5.98	0.9	(648)	17.2
2세반	5.91	1.0	(717)	19.0
3세반	5.88	1.0	(749)	19.9
4세반	5.85	1.0	(796)	21.1
5세반 F	5.93 2.0(a)	0.9	(856)	22.7

\*\* $p < .01$

## 5. 기관 및 지역 특성별 비교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3,767명으로, 응답자 아동의 이용 기관 및 지역 특성은 다음 <표 III-5-1>과 같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63.9%, 유치원은 36.1%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더 많았으며, 기관 유형의 경우 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은 28.4%, 민간/가정어린이집은 35.5%, 국공립 유치원은 10.5%, 사립 유치원은 25.5%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현원은 20인 이하가 18.1%, 21~50인 29.2%, 51~100인 32.0%, 101인 이상 20.7%로 51~100인이 현원인 기관이 가장 많았다. 설립 유형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20.6%, 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3.8%, 민간어린이집 24.4%, 가정어린이집 11.1%, 직장어린이집 3.9%, 협동어린이집 0.1%, 국공립유치원 10.5%, 사립유치원 25.5%로 사립유치원이 가장 많았다. 지역 규모는 대도시 37.2%, 중소도시 42.7%, 읍면 20.1%로 나타났다.

〈표 III-5-1〉 기관 및 지역 특성

단위: (명), %

구분	N	비율
전체	(3,767)	100.0
<b>이용 기관</b>		
어린이집	(2,409)	63.9
유치원	(1,358)	36.1
<b>기관 유형</b>		
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	(1,071)	28.4
민간/가정어린이집	(1,338)	35.5
국공립 유치원	(397)	10.5
사립 유치원	(962)	25.5
<b>기관 현원</b>		
20인 이하	(683)	18.1
21~50인	(1,099)	29.2
51~100인	(1,206)	32.0
101인 이상	(778)	20.7
<b>설립 유형</b>		
국공립 어린이집	(778)	20.6
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143)	3.8
민간어린이집	(918)	24.4
가정어린이집	(420)	11.1
직장어린이집	(148)	3.9
협동어린이집	(3)	0.1
국공립 유치원	(397)	10.5
사립 유치원	(962)	25.5
<b>지역 규모</b>		
대도시	(1,402)	37.2
중소도시	(1,607)	42.7
읍면	(758)	20.1

## 가. 기관 특성별 아동의 발달 비교

### 1) 이용 기관

영역별 발달 현황에 대한 평균 점수를 이용 기관에 따라 살펴보면, 정서 발달을 제외한 모든 발달 영역에서 유치원 이용 아동의 평균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언어 발달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 3.55점, 유치원 이용 아동 3.77점, 인지 발달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 3.74점, 유치원 이용 아동 3.84점, 정서 발달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 3.69점, 유치원 이용 아동 3.70점, 사회성 발달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 3.50점, 유치원 이용 아동 3.59점, 신체 발달은 어린이집 이용 아

동 3.63점, 유치원 이용 아동 3.72점으로 나타났다.

〈표 III-5-2〉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 - 이용 기관

단위 : 점, (명), %

구분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신체 발달		N	비율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3.63	1.0	3.78	0.9	3.69	0.9	3.54	0.9	3.66	0.9	(3,767)	100.0
어린이집	3.55	1.1	3.74	0.9	3.69	0.9	3.50	0.9	3.63	0.9	(2,409)	63.9
유치원	3.77	1.0	3.84	0.9	3.70	0.9	3.59	0.9	3.72	0.9	(1,358)	36.1
<i>t</i>	-6.5***		-3.3**		-0.3		-2.8**		-3.2**			

\*\* $p < .01$ , \*\*\* $p < .001$

발달 상황 전반에 대한 평균 점수에서도 어린이집 이용 아동 3.48점, 유치원 이용 아동 3.60점으로, 유치원 이용 아동의 부모가 자녀의 발달 상황 전반을 유의하게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3〉 전반적인 발달 상황에 대한 종합적 의견 - 이용 기관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이용 기관	3.52	0.9	(3,767)	100.0
어린이집	3.48	0.9	(2,409)	63.9
유치원	3.60	0.8	(1,358)	36.1
<i>t</i>	-4.2***			

\*\*\* $p < .001$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이용 아동 1.43점, 유치원 이용 아동 1.38점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다소 높았다.

〈표 III-5-4〉 전반적인 발달 문제에 대한 인식 - 이용 기관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이용 기관	1.41	0.6	(3,767)	100.0
어린이집	1.43	0.6	(2,409)	63.9
유치원	1.38	0.6	(1,358)	36.1
<i>t</i>	2.2*			

\* $p < .05$

## 2) 기관 유형

영역별 발달 현황에 대한 평균 점수를 이용 기관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사립 유치원이 언어 발달은 3.83점, 인지 발달은 3.91점, 정서 발달은 3.74점, 사회성 발달은 3.61점, 신체 발달은 3.7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정서 발달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III-5-5〉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 - 기관 유형

단위 : 점, (명), %

구분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신체 발달		N	비율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3.63	1.0	3.78	0.9	3.69	0.9	3.54	0.9	3.66	0.9	(3,767)	100.0
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	3.55	1.0	3.73	0.9	3.68	0.9	3.50	0.9	3.61	0.9	(1,071)	28.4
민간/가정어린이집	3.55	1.1	3.76	0.9	3.70	0.9	3.51	0.9	3.64	0.9	(1,338)	35.5
국공립 유치원	3.61	1.1	3.69	1.0	3.61	1.0	3.56	1.0	3.59	0.9	(397)	10.5
사립 유치원	3.83	0.9	3.91	0.8	3.74	0.9	3.61	0.9	3.78	0.9	(962)	25.5
F	17.9***(a)		10.1***(a)		1.9		3.0*		7.9***(a)			

\* $p < .05$ , \*\*\* $p < .001$

발달 상황 전반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집단 간 평균 점수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 3.47점, 민간/가정어린이집 3.48점, 국공립 유치원 3.51점, 사립 유치원 3.64점으로, 사립 유치원이 가장 높았다.

〈표 III-5-6〉 전반적인 발달 상황에 대한 종합적 의견 - 기관 유형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기관 유형	3.52	0.9	(3,767)	100.0
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	3.47	0.9	(1,071)	28.4
민간/가정어린이집	3.48	0.9	(1,338)	35.5
국공립 유치원	3.51	0.9	(397)	10.5
사립 유치원	3.64	0.8	(962)	25.5
F	8.4***(a)			

\*\*\* $p < .001$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평균 점수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 1.45점, 민간/가

정어린이집 1.41점, 국공립 유치원 1.45점, 사립 유치원 1.35점으로, 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다.

〈표 III-5-7〉 전반적인 발달 문제에 대한 인식 - 기관 유형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기관 유형	1.41	0.6	(3,767)	100.0
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	1.45	0.7	(1,071)	28.4
민간/가정어린이집	1.41	0.6	(1,338)	35.5
국공립 유치원	1.45	0.7	(397)	10.5
사립 유치원	1.35	0.6	(962)	25.5
F	4.7**(a)			

\*\* $p < .01$

### 3) 기관 현원

영역별 발달 현황에 대한 평균 점수를 이용 기관 현원에 따라 살펴보면, 언어 발달은 101인 이상이 3.80점으로 가장 높았다. 인지 발달 역시 101인 이상이 3.90점으로 가장 높았다. 정서 발달은 20인 이하가 3.77점으로 가장 높았다. 사회성 발달은 101인 이상이 3.62점으로 가장 높았다. 신체 발달 또한 101인 이상이 3.75점으로 가장 높았다. 집단 간 차이는 정서 발달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III-5-8〉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 - 기관 현원

단위 : 점, (명), %

구분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신체 발달		N	비율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3.63	1.0	3.78	0.9	3.69	0.9	3.54	0.9	3.66	0.9	(3,767)	100.0
20인 이하	3.64	1.1	3.83	0.9	3.77	0.9	3.55	0.9	3.69	0.9	(683)	18.1
21~50인	3.54	1.1	3.71	0.9	3.66	0.9	3.50	0.9	3.63	0.9	(1,099)	29.2
51~100인	3.59	1.0	3.74	0.9	3.69	0.9	3.50	0.9	3.61	0.9	(1,206)	32.0
101인 이상	3.80	0.9	3.90	0.8	3.68	1.0	3.62	0.9	3.75	0.9	(778)	20.7
F	10.7***(a)		9.1***(a)		2.2(a)		3.4*		4.6**(a)			

\* $p < .05$ , \*\* $p < .01$ , \*\*\* $p < .001$

발달 상황 전반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평균 점수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20인 이하 3.55점, 21~50인 3.48점, 101인 이상 3.50점, 101인 이상

3.61점으로 101인 이상이 가장 높았다.

〈표 III-5-9〉 전반적인 발달 상황에 대한 종합적 의견 - 기관 현원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기관 현원	3.52	0.9	(3,767)	100.0
20인 이하	3.55	0.9	(683)	18.1
21~50인	3.48	0.9	(1,099)	29.2
51~100인	3.50	0.9	(1,206)	32.0
101인 이상	3.61	0.8	(778)	20.7
F	3.9**(a)			

\*\* $p < .01$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역시 평균 점수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인 이하 1.40점, 21~50인 1.44점, 51~100인 1.45점, 101인 이상 1.32점으로, 51~100인이 가장 높았다.

〈표 III-5-10〉 전반적인 발달 문제에 대한 인식 - 기관 현원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기관 현원	1.41	0.6	(3,767)	100.0
20인 이하	1.40	0.6	(683)	18.1
21~50인	1.44	0.7	(1,099)	29.2
51~100인	1.45	0.6	(1,206)	32.0
101인 이상	1.32	0.5	(778)	20.7
F	8.4***(a)			

\*\*\* $p < .001$

#### 4) 지역 규모

영역별 발달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용 지역 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영역별 발달의 평균 점수의 경우 언어 발달은 대도시 3.61점, 중소도시 3.65점, 읍면 3.63점으로, 중소도시가 가장 높았고, 인지 발달은 대도시 3.73점, 중소도시 3.79점, 읍면 3.85점으로, 읍면이 가장 높았다. 정서 발달은 대도시 3.62점, 중소도시 3.73점, 읍면 3.76점으로, 읍면이 가장 높았다. 사회성 발달은 대도시 3.47점, 중소도시 3.58점, 읍면 3.57점으로, 중소도시가 가장 높았다. 신체 발달은 대도시

3.58점, 중소도시 3.69점, 읍면 3.76점으로, 읍면이 가장 높았다. 집단 간 차이는 언어 발달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III-5-11〉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 - 지역 규모

단위 : 점, (명), %

구분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신체 발달		N	비율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3.63	1.0	3.78	0.9	3.69	0.9	3.54	0.9	3.66	0.9	(3,767)	100.0
대도시	3.61	1.0	3.73	0.9	3.62	0.9	3.47	0.9	3.58	0.9	(1,402)	37.2
중소도시	3.65	1.0	3.79	0.9	3.73	0.9	3.58	0.9	3.69	0.9	(1,607)	42.7
읍면	3.63	1.1	3.85	0.9	3.76	0.9	3.57	0.9	3.76	0.9	(758)	20.1
F	0.6		5.6**		8.8***(a)		5.9**		10.9***			

\*\* $p < .01$ , \*\*\* $p < .001$

발달 상황 전반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지역 규모에 따라 평균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도시 3.47점, 중소도시 3.55점, 읍면 3.57점으로, 읍면이 가장 높았다.

〈표 III-5-12〉 전반적인 발달 상황에 대한 종합적 의견 - 지역 규모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지역 규모	3.52	0.9	(3,767)	100.0
대도시	3.47	0.9	(1,402)	37.2
중소도시	3.55	0.9	(1,607)	42.7
읍면	3.57	0.9	(758)	20.1
F	4.1*			

\* $p < .05$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대도시 1.43점, 중소도시 1.39점, 읍면 1.43점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5-13〉 전반적인 발달 문제에 대한 인식 - 지역 규모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지역 규모	1.41	0.6	(3,767)	100.0
대도시	1.43	0.6	(1,402)	37.2

구분	M	SD	N	비율
중소도시	1.39	0.6	(1,607)	42.7
읍면	1.43	0.6	(758)	20.1
F	2.1(a)			

### 나. 기관 특성별 아동의 놀이와 사회적 활동 비교

아동의 놀이와 사회적 활동을 기관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 일부 영역에 따라 서만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 유형의 경우, 행동 모방에서 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 4.28점, 민간/가정어린이집 4.18점, 가상/상상놀이 영역에서 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 3.23점, 민간/가정어린이집 3.12점으로 모두 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의 평균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기관 현원의 경우, 행동 모방에서는 20인 이하 4.11점, 21인~50인 4.27점, 51~100인 4.37점, 101인 이상 2.76점으로 51~100인 현원의 어린이집이 가장 유의하게 높았으며, 고집 영역에서는 20인 이하 2.76점, 21인~50인 2.65점, 51~100인 2.53점, 101인 이상 3.17점으로 101인 이상 현원의 어린이집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다.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5-14〉 놀이와 사회적 활동 종합 - 기관 특성별 비교

단위 : (명), 점

구분	N	전체		행동 모방		함께 있기		고집		가상/상상놀이		호기심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648)	3.71	0.5	4.22	0.8	4.17	0.7	2.68	0.8	3.16	1.1	4.32	0.7
이용 기관 어린이집	(648)	3.71	0.5	4.22	0.8	4.17	0.7	2.68	0.8	3.16	1.1	4.31	0.7
기관 유형													
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	(245)	3.75	0.5	4.28	0.7	4.22	0.7	2.70	0.8	3.23	1.1	4.32	0.7
민간/가정어린이집	(403)	3.69	0.5	4.18	0.8	4.15	0.7	2.67	0.8	3.12	1.1	4.32	0.7
t			0.005**		0.030*		0.055		0.236		0.041*		0.521
기관 현원													
20인 이하	(259)	3.70	0.5	4.11	0.8	4.12	0.8	2.76	0.8	3.17	1.1	4.34	0.7
21~50인	(296)	3.74	0.5	4.27	0.7	4.25	0.7	2.65	0.8	3.17	1.1	4.34	0.7
51~100인	( 91)	3.66	0.4	4.37	0.6	4.09	0.7	2.53	0.8	3.12	1.1	4.18	0.7
101인 이상	( 2)	3.41	0.7	2.76	2.0	3.59	0.7	3.17	0.5	2.94	1.5	4.59	0.7
F			0.476		0.000***		0.160		0.014*		0.993		0.593

구분	N	전체		행동 모방		함께 있기		고집		가상/상상놀이		호기심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지역 규모													
대도시	(249)	3.71	0.5	4.17	0.8	4.10	0.8	2.78	0.9	3.17	1.1	4.32	0.7
중소도시	(279)	3.70	0.5	4.26	0.8	4.19	0.7	2.60	0.8	3.14	1.1	4.32	0.7
읍면	(120)	3.73	0.5	4.21	0.7	4.28	0.7	2.69	0.8	3.19	1.0	4.28	0.7
F		0.509		0.628		0.203		0.086		0.344		0.671	

\* $p < .05$ , \*\* $p < .01$ , \*\*\* $p < .001$

### 다. 기관 특성별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 비교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을 기관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 일부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이용 기관에 따라 살펴보면 놀이 방해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놀이 방해 평균은 1.93점으로 유치원 이용 아동 1.87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기관 유형의 경우 놀이 상호작용, 놀이 방해, 놀이 단절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놀이 상호작용과 놀이 방해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3.22점, 1.93점으로 가장 높았고, 놀이 단절은 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이 모두 1.64점으로 가장 높았다. 기관 현원의 경우 놀이 상호작용, 놀이 방해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놀이 상호작용은 101인 이상이 3.22점, 놀이 방해는 20인 이하가 1.97점으로 가장 높았다. 지역 규모의 경우 모든 하위영역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놀이 상호작용은 중소도시 3.22점, 놀이 방해는 대도시가 1.92점, 놀이 단절은 대도시가 1.66점으로 가장 높았다.

〈표 III-5-15〉 또래 상호작용 종합 - 기관 특성별 비교

단위 : 점, (명), %

구분	놀이 상호작용		놀이 방해		놀이 단절		N	비율
	M	SD	M	SD	M	SD		
전체	3.19	0.4	1.90	0.4	1.62	0.5	(3,767)	100.0
이용 기관								
어린이집	3.19	0.4	1.93	0.4	1.62	0.5	(2,409)	63.9
유치원	3.20	0.4	1.87	0.4	1.62	0.5	(1,358)	36.1
t	-0.6		4.3***		-0.1			
기관 유형								
국공립/법인 등	3.16	0.4	1.92	0.4	1.64	0.5	(1,071)	28.4

구분	놀이 상호작용		놀이 방해		놀이 단절		N	비율
	M	SD	M	SD	M	SD		
어린이집								
민간/가정어린이집	3.22	0.4	1.93	0.4	1.59	0.5	(1,338)	35.5
국공립 유치원	3.20	0.4	1.85	0.4	1.57	0.5	(397)	10.5
사립 유치원	3.19	0.4	1.88	0.4	1.64	0.5	(962)	25.5
F	3.5*		6.8***		3.3*			
기관 현원								
20인 이하	3.15	0.4	1.97	0.4	1.64	0.5	(683)	18.1
21~50인	3.16	0.5	1.89	0.4	1.61	0.5	(1,099)	29.2
51~100인	3.20	0.4	1.90	0.4	1.61	0.5	(1,206)	32.0
101인 이상	3.22	0.4	1.86	0.4	1.63	0.5	(778)	20.7
F	5.4**(a)		8.5***		0.8			
지역 규모								
대도시	3.15	0.4	1.92	0.4	1.66	0.5	(1,402)	37.2
중소도시	3.22	0.4	1.88	0.4	1.60	0.5	(1,607)	42.7
읍면	3.19	0.4	1.89	0.4	1.58	0.5	(758)	20.1
F	10.6***		3.8*		9.6***			

\* $p < .05$ , \*\* $p < .01$ , \*\*\* $p < .001$

### 라. 기관 특성별 아동의 일상생활 행동 비교

아동의 일상생활 행동을 기관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용 기관에 따라 살펴보면 억제, 감정 조절, 작업기억, 계획 조직에서 유치원 이용 아동의 평균 점수가 어린이집 이용 아동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기관 유형의 경우 억제, 주의 전환, 감정 조절, 작업기억, 계획 조직 모두에서 국공립 유치원 이용 아동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고,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관 현원의 경우 억제, 작업기억, 계획 조직에서 101인 이상 기관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고,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지역 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억제는 중소도시가, 주의 전환은 읍면이, 감정 조절은 중소도시와 읍면이, 작업기억은 중소도시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고, 억제, 주의 전환, 감정 조절, 작업기억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III-5-16〉 일상생활의 행동 종합 - 기관 특성별 비교

단위 : (명), 점

2018~2021년생	N	억제		주의 전환		감정 조절		작업기억		계획 조직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3,767)	3.45	0.5	3.31	0.5	3.43	0.5	3.46	0.5	3.40	0.5
<b>이용 기관</b>											
어린이집	(2,409)	3.42	0.5	3.29	0.5	3.41	0.5	3.43	0.5	3.37	0.5
유치원	(1,358)	3.48	0.5	3.32	0.5	3.45	0.5	3.50	0.5	3.44	0.5
<i>t</i>		-3.1**		-1.5		-2.2*		-4.1***		-3.8***	
<b>기관 유형</b>											
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	(1,071)	3.39	0.5	3.25	0.5	3.37	0.6	3.40	0.5	3.34	0.5
민간/가정어린이집	(1,338)	3.45	0.5	3.33	0.5	3.45	0.5	3.45	0.5	3.40	0.5
국공립 유치원	(397)	3.52	0.6	3.41	0.5	3.47	0.6	3.55	0.5	3.47	0.5
사립 유치원	(962)	3.46	0.5	3.29	0.5	3.44	0.5	3.48	0.5	3.43	0.5
<i>F</i>		6.4***		8.8***		5.0**(a)		8.8***(a)		7.3***	
<b>기관 현원</b>											
20인 이하	(683)	3.40	0.5	3.27	0.5	3.41	0.6	3.42	0.5	3.37	0.5
21~50인	(1,099)	3.42	0.5	3.32	0.5	3.40	0.6	3.44	0.5	3.37	0.5
51~100인	(1,206)	3.44	0.5	3.31	0.5	3.45	0.5	3.45	0.5	3.41	0.5
101인 이상	(778)	3.51	0.5	3.31	0.6	3.44	0.5	3.51	0.5	3.45	0.5
<i>F</i>		5.6**		0.7		1.8(a)		4.1**(a)		4.3**	
<b>지역 규모</b>											
대도시	(1,402)	3.41	0.5	3.23	0.5	3.40	0.5	3.44	0.5	3.41	0.5
중소도시	(1,607)	3.47	0.5	3.35	0.5	3.45	0.5	3.48	0.5	3.40	0.5
읍면	(758)	3.46	0.5	3.36	0.6	3.45	0.6	3.45	0.5	3.40	0.5
<i>F</i>		4.1*		18.4***		3.2*(a)		3.0*(a)		0.0	

\* $p < .05$ , \*\* $p < .01$ , \*\*\* $p < .001$

#### 마. 기관 특성별 아동의 스트레스 비교

아동 스트레스의 평균 점수를 이용 기관과 기관 유형, 기관 현원, 지역 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지역 규모에서만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중소도시 아동의 스트레스가 2.37점으로 가장 높았다.

〈표 III-5-17〉 기관 특성별 아동의 스트레스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전체	2.34	0.6	(3,767)	100.0
<b>이용 기관</b>				
어린이집	2.34	0.6	(2,409)	64.0
유치원	2.34	0.6	(1,358)	36.0
<i>t</i>	0.0			

구분	M	SD	N	비율
<b>기관 유형</b>				
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	2.35	0.6	(1,071)	28.4
민간/가정어린이집	2.34	0.6	(1,338)	35.5
국공립 유치원	2.36	0.6	(397)	10.5
사립 유치원	2.34	0.6	(962)	25.5
F	0.2			
<b>기관 현원</b>				
20인 이하	2.31	0.7	(683)	18.1
21~50인	2.32	0.7	(1,099)	29.2
51~100인	2.36	0.6	(1,206)	32.0
101인 이상	2.38	0.6	(778)	20.7
F	2.6			
<b>지역 규모</b>				
대도시	2.34	0.6	(1,402)	37.2
중소도시	2.37	0.6	(1,607)	42.7
읍면	2.30	0.6	(758)	20.1
F	3.3*			

\* $p < .05$

### 바. 기관 특성별 아동의 행복도 비교

아동 행복도의 경우 이용 기관, 기관 유형, 기관 현원에 따라 평균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행복도는 6.17점으로 유치원 이용 아동 6.09점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기관 유형은 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6.18점으로 가장 높았다. 기관 현원은 21~50인이 6.19점으로 가장 높았다.

〈표 III-5-18〉 기관 특성별 아동의 행복도

단위 : 점, (명), %

구분	M	SD	N	비율
전체	6.14	0.8	(3,767)	100.0
<b>이용 기관</b>				
어린이집	6.17	0.7	(2,409)	64.0
유치원	6.09	0.8	(1,358)	36.0
t	3.1**			
<b>기관 유형</b>				
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	6.18	0.7	(1,071)	28.4
민간/가정어린이집	6.17	0.8	(1,338)	35.5
국공립 유치원	6.07	0.8	(397)	10.5
사립 유치원	6.10	0.8	(962)	25.5
F	3.4*			
<b>기관 현원</b>				

구분	M	SD	N	비율
20인 이하	6.16	0.8	(683)	18.1
21~50인	6.19	0.7	(1,099)	29.2
51~100인	6.11	0.8	(1,206)	32.0
101인 이상	6.11	0.8	(778)	20.7
F	2.7*(a)			
<b>지역 규모</b>				
대도시	6.12	0.8	(1,402)	37.2
중소도시	6.14	0.8	(1,607)	42.7
읍면	6.18	0.7	(758)	20.1
F	1.2			

\* $p < .05$ , \*\* $p < .01$

## 6. K-DST(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결과 비교

### 가. 팬데믹 기간의 시간지원정책 이용 여부에 따른 차이

팬데믹 기간의 시간지원정책 이용 여부에 따른 K-DST 점수 차이를 또래보다 빠른 발달을 보이는 집단과 발달 지연을 보이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군집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2~47개월의 경우 사례 수가 적어서 분석이 불가하여 48~53개월부터 분석하였다.

〈표 III-6-1〉 분석에 활용한 변수

독립 변인	종속 변인
주중 평일 1일 평균 돌봄시간(주양육자) 5_1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부모 평가(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신체) 1(5점 척도)
주말 1일 평균 돌봄시간(주양육자) 5_2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 2_2
형제자매 여부	문제행동 및 발달 지연 15_1, 15_2
기관 이용 기간	2018년 학업능력 (언어 및 문해능력, 수리적 사고)

#### 1) 48~53개월

어머니의 시간지원정책 이용 여부에 따라 K-DST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6-2〉 어머니의 시간지원정책 이용 여부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48~53개월

구분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N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육아 휴직	유	24.5	75.5	11.8	88.2	11.8	88.2	6.4	93.6	10.6	89.34	7.5	92.5	
	무	26.3	73.7	17.9	82.1	17.6	82.4	11.4	88.6	11.8	88.2	13.5	86.5	
$X^2$		.124		1.908		1.721		1.942		.089		2.366		
근로 시간 단축	유	15.6	84.4	9.4	90.6	12.5	87.5	6.2	93.8	9.1	90.9	12.1	87.9	
	무	26.8	73.2	17.1	82.9	16.5	83.5	10.5	89.5	12.0	88.0	12.3	87.7	
$X^2$		1.904		1.271		.350		.584		.241		.000		
유연 근무제	유	18.2	81.8	18.2	81.8	9.1	90.9	8.3	91.7	8.3	91.7	16.7	83.3	12
	무	26.1	73.9	16.4	83.6	16.1	83.9	10.2	89.8	11.6	88.4	12.1	87.9	372
$X^2$		.347		.025		.395		.045		.119		.226		
재택 (원격)	유	35.3	64.7	11.8	88.2	22.2	77.8	5.9	94.1	5.6	94.4	22.2	77.8	18
	무	25.4	74.6	16.7	83.3	15.8	84.2	10.1	89.9	12.0	88.0	11.7	88.3	366
$X^2$		.828		.284		.515		.325		.693		1.752		
가족 돌봄 휴가	유	31.6	68.4	10.5	89.5	22.2	77.8	10.5	89.5	0.0	100.0	16.7	83.3	18
	무	25.5	74.5	16.8	83.2	15.9	84.1	10.1	89.9	12.1	87.9	12.1	87.9	365
$X^2$		.351		.510		.507		.003		2.451		.339		
가족 돌봄 휴직	유	0.0	100.0	0.0	100.0	0.0	100.0	0.0	100.0	0.0	100.0	0.0	100.0	2
	무	26.0	74.0	16.5	83.5	16.1	83.9	10.0	90.0	11.5	88.5	12.3	87.7	381
$X^2$		.701		.396		.382		.222		.261		.281		
기타 육아 시간 지원	유	23.5	76.5	11.8	88.2	18.8	81.2	5.9	94.1	0.0	100.0	17.6	82.4	17
	무	26.0	74.0	16.7	83.3	15.8	84.2	10.1	89.9	12.0	88.0	12.0	88.0	367
$X^2$		.050		.284		.096		.325		2.302		.484		

아버지의 경우 유연근무제, 재택 근로,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이용 여부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경우, 언어, 사회성 자조 발달이 또래 이상으로 나타난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재택근무 이용의 경우에도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에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특이한 점은 대근육 운동의 경우 아버지가 재택근무를 이용한 경우에 비해 이용하지 않은 경우 오히려 또래 이상 발달한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가구돌봄 휴직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재택근무, 가구돌봄 휴직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대근육 운동 발달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나며,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에서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한 경우에 발달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 비중이 높았다.



〈표 III-6-3〉 아버지의 시간지원정책 이용 여부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48~53개월

구분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N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육아 휴직	유	32.0	68.0	8.0	92.0	12.5	87.5	4.2	95.8	8.0	92.0	12.5	87.5	24
	무	24.9	75.1	16.6	83.4	15.7	84.3	10.3	89.7	11.4	88.6	11.4	88.6	
$X^2$		.629		1.276		.177		.950		.276		.025		
근로 시간 단축	유	28.6	71.4	14.3	85.7	9.5	90.5	4.8	95.2	0.0	100.0	9.5	90.5	
	무	24.9	75.1	16.1	83.9	15.9	84.1	10.5	89.5	11.9	88.1	11.6	88.4	
$X^2$		.140		.051		.608		.710		2.815		.085		
유연 근무제	유	28.3	71.7	7.5	92.5	7.5	92.5	0.0	100.0	0.0	100.0	1.9	98.1	53
	무	24.9	75.1	17.4	82.6	16.8	83.2	11.5	88.5	13.0	87.0	13.4	86.6	
$X^2$		.274		3.281		2.987		6.780*		7.785**		5.778*		
재택 (원격)	유	36.7	63.3	10.0	90.0	5.0	95.0	1.7	98.3	0.0	100.0	1.6	98.4	61
	무	23.2	76.8	17.2	82.8	17.5	82.5	11.5	88.5	13.4	86.6	13.7	86.3	
$X^2$		4.786*		1.937		6.022*		5.425*		9.041**		7.167**		
가족 돌봄 휴가	유	15.8	84.2	7.9	92.1	7.9	92.1	13.2	86.8	0.0	100.0	0.0	100.0	38
	무	26.5	73.5	17.0	83.0	16.4	83.6	9.6	90.4	12.5	87.5	12.8	87.2	
$X^2$		2.062		2.085		1.871		.497		5.351*		5.495*		
가족 돌봄 휴직	유	75.0	25.0	20.0	80.0	0.0	100.0	0.0	100.0	0.0	100.0	0.0	100.0	4
	무	24.6	75.4	15.9	84.1	15.7	84.3	10.0	90.0	11.4	88.6	11.6	88.4	
$X^2$		5.343*		.060		.742		.444		.511		.525		
기타 육아 시간 지원	유	38.5	61.5	15.4	84.6	8.3	91.7	7.7	92.3	0.0	100.0	7.7	92.3	13
	무	24.9	75.1	16.1	83.9	15.7	84.3	10.0	90.0	11.6	88.4	11.6	88.4	
$X^2$		1.212		.004		.487		.073		1.699		.192		

\* $p < .05$ , \*\* $p < .01$

## 2) 54~59개월

시간지원정책 중 어머니의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이용이 자녀 발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어머니가 육아휴직을 이용한 경우 대근육 운동, 언어, 사회성 발달이 또래 이상인 비중이 높았고,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한 경우 인지 발달이 또래 이상인 비중이 높았다(〈표 III-6-4〉 참조).

〈표 III-6-4〉 어머니의 시간지원정책 이용 여부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54~59개월

구분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N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육아 휴직	유	8.7	91.3	10.6	89.4	9.6	90.4	3.8	96.2	3.9	96.1	5.8	94.2	103
	무	17.5	82.5	14.4	85.6	17.1	82.9	14.4	85.6	11.4	88.6	9.8	90.2	
$X^2$	4.440*		.966		3.286		8.210**		4.971*		1.507			
근로 시간 단축	유	12.5	87.5	12.5	87.5	14.3	85.7	7.0	93.0	5.4	94.5	5.4	94.6	56
	무	15.8	84.2	13.5	86.5	15.1	84.9	12.2	87.8	10.0	90.0	9.3	90.7	
$X^2$	.389		.041		.025		1.289		1.200		.939			
유연 근무제	유	6.7	93.3	10.0	90.0	3.3	96.7	10.0	90.0	6.5	93.5	3.2	96.8	31
	무	16.0	84.0	13.7	86.3	16.0	84.0	11.3	88.7	9.8	90.2	9.2	90.8	
$X^2$	1.865		.323		3.482		.047		.368		1.284			
재택 (원격)	유	19.0	81.0	14.6	85.4	11.9	88.1	19.0	81.0	7.1	92.9	9.8	90.2	42
	무	14.7	85.3	13.2	86.8	15.4	84.6	10.4	89.6	9.5	90.5	8.3	91.7	
$X^2$	.539		.062		.354		2.733		.254		.099			
가족돌봄휴가	유	13.5	86.5	13.9	86.1	2.7	97.3	5.4	94.6	2.8	97.2	8.3	91.7	36
	무	15.5	84.5	13.3	86.7	16.4	83.6	12.1	87.9	10.0	90.0	8.8	91.2	
$X^2$	.097		.010		4.873*		1.488		2.009		.007			
가족돌봄휴직	유	25.0	75.0	25.0	75.0	20.0	80.0	25.0	75.0	20.0	80.0	20.0	80.0	5
	무	15.2	84.8	13.2	86.8	14.9	85.1	11.3	88.7	9.4	90.6	9.6	91.4	
$X^2$	.297		.474		.100		.733		.648		.810			
기타 육아 시간 지원	유	16.1	83.9	16.7	83.3	3.2	96.8	3.2	96.8	6.5	93.5	12.9	87.1	31
	무	15.2	84.8	13.1	86.9	16.1	83.9	12.2	87.8	9.8	90.2	8.3	91.7	
$X^2$	.020		.310		3.676		2.244		.368		.745			

\*  $p < .05$ , \*\*  $p < .01$

한편, 아버지의 시간지원정책 이용의 경우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가 이용이 자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경우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발달이 또래 이상인 비중이 높았고,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한 경우 자조가 또래 이상인 비중이 높았다.

〈표 III-6-5〉 아버지의 시간지원정책 이용 여부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54~59개월

구분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N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육아 휴직	유	17.9	82.1	2.5	97.5	10.0	90.0	12.8	87.2	5.1	94.9	5.0	95.0	40
	무	12.8	87.2	13.2	86.8	12.9	87.1	8.7	91.3	6.4	93.6	7.7	92.3	
$X^2$	.786		3.840		.265		.726		.097		.381			

구분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N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근로 시간 단축	유	9.7	90.3	6.2	93.8	6.5	93.5	3.2	96.8	3.2	96.8	6.2	93.8	32
	무	13.8	86.2	12.8	87.2	13.1	86.9	9.7	90.3	6.6	93.4	7.5	92.5	320
$X^2$		.404		1.168		1.148		1.424		.536		.069		
유연 근무제	유	2.1	97.9	2.1	97.9	0.0	100.0	2.1	97.9	2.1	97.9	2.1	97.9	48
	무	14.9	85.1	13.9	86.1	14.5	85.5	10.2	89.8	6.9	93.1	8.3	91.7	303
$X^2$		5.932*		5.347*		7.806**		3.320		1.657		2.298		
재택 (원격)	유	5.6	94.4	5.6	94.4	11.1	88.9	5.6	94.4	8.3	91.7	5.6	94.4	36
	무	14.0	86.0	13.0	87.0	13.0	87.0	9.5	90.5	6.1	93.9	7.6	92.4	315
$X^2$		2.008		1.673		.105		.614		.286		.201		
가족 돌봄가	유	11.1	88.9	13.0	87.0	17.8	82.2	15.2	84.8	4.4	95.6	0.0	100.0	45
	무	13.4	86.6	11.8	88.2	11.8	88.2	8.2	91.8	6.6	93.4	8.2	91.8	305
$X^2$		.187		.058		1.274		2.378		.297		3.972*		
가족 돌봄직	유	0.0	100.0	0.0	100.0	0.0	100.0	0.0	100.0	0.0	100.0	0.0	100.0	4
	무	13.3	86.7	12.1	87.9	12.7	87.3	9.2	90.8	6.4	93.6	7.5	92.5	347
$X^2$		.612		.552		.582		.407		.271		.324		
기타 육아 시간 지원	유	3.3	96.7	3.4	96.6	3.4	96.6	17.2	82.8	3.4	96.6	3.4	96.6	29
	무	14.3	85.7	12.8	87.2	13.4	86.6	8.4	91.6	6.5	93.5	7.8	92.2	322
$X^2$		2.845		2.190		2.394		2.496		.432		.722		

\* $p < .05$ , \*\* $p < .01$

### 3) 60~65개월

어머니가 육아휴직을 이용한 경우 인지에서 또래 이상 수준의 발달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경우, 언어에서는 오히려 제도를 이용한 경우가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발달 수준이 또래 미만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6-6> 참조).

<표 III-6-6> 어머니의 시간지원정책 이용 여부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60~65개월

구분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N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육아 휴직	유	22.3	77.7	12.4	87.6	5.0	95.0	19.8	80.2	13.2	86.8	9.1	90.9	121
	무	27.9	72.1	20.0	80.0	15.1	84.9	19.9	80.1	11.6	88.4	11.2	88.8	250
$X^2$		1.316		3.262		8.114**		.000		.202		.386		
근로 시간 단축	유	28.0	72.0	14.0	86.0	6.0	94.0	22.4	77.6	8.2	91.8	10.0	90.0	50
	무	25.8	74.2	18.0	82.0	12.7	87.3	19.3	80.7	12.7	87.3	10.9	89.1	322
$X^2$		.111		.483		1.864		.275		.833		.034		

구분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N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유연 근무제	유	30.3	69.7	24.2	75.8	9.1	90.9	42.4	57.6	21.9	78.1	12.1	87.9	33
	무	25.7	74.3	16.8	83.2	11.8	88.2	17.7	82.3	11.2	88.8	10.6	89.4	339
$X^2$		.336		1.151		.216		11.537**		3.121		.071		
재택(원격)	유	35.7	64.3	16.7	83.3	4.8	95.2	16.7	83.3	9.5	90.5	9.3	90.7	43
	무	24.9	75.2	17.6	82.4	12.5	87.5	20.1	79.9	12.5	87.5	10.9	89.1	329
$X^2$		2.282		.021		2.155		.271		.302		.107		
가족돌봄가	유	16.7	83.3	13.8	86.2	3.4	96.6	33.3	66.7	6.7	93.3	10.0	90.0	30
	무	26.9	73.1	17.8	82.2	12.3	87.7	18.5	81.5	12.6	87.4	10.8	89.2	342
$X^2$		1.499		.302		2.035		3.852		.905		.019		
가족돌봄직	유	25.0	75.0	33.3	66.7	0.0	100.0	33.3	66.7	0.0	100.0	0.0	100.0	3
	무	26.1	73.9	17.4	82.6	11.7	88.3	19.8	80.2	12.2	87.8	10.6	89.4	368
$X^2$		.002		.523		.396		.343		.417		.355		
기타 육아 시간 지원	유	21.4	78.6	21.4	78.6	0.0	100.0	21.4	78.6	15.4	84.6	23.1	76.9	13
	무	26.3	73.7	17.3	82.7	12.0	88.0	19.8	80.2	12.0	88.0	10.1	89.9	358
$X^2$		.163		.158		1.766		.022		.134		2.261		

\*\* $p < .01$

아버지의 경우, 육아휴직을 이용한 경우 오히려 자조에서 또래보다 발달 미만인 비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에서, 재택(원격)근무의 경우 언어에서 제도 이용이 또래 이상의 발달 수준을 나타내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 제도 이용이 아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7> 아버지의 시간지원정책 이용 여부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60~65개월

구분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N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육아 휴직	유	23.3	76.7	9.3	90.7	9.5	90.5	20.9	79.1	11.6	88.4	23.3	76.7	43
	무	28.2	71.8	20.4	79.6	13.9	86.1	21.4	78.6	13.6	86.4	10.5	89.5	324
$X^2$		.459		3.013		.611		.004		.125		5.860*		
근로 시간 단축	유	15.8	84.2	5.3	94.7	2.6	97.4	7.9	92.1	2.6	97.4	13.2	86.8	38
	무	29.2	70.8	20.7	79.3	14.6	85.4	22.9	77.1	14.6	85.4	11.9	88.1	328
$X^2$		3.043		5.268*		4.231*		4.552*		4.231*		.052		
유연 근무제	유	15.4	84.6	7.7	92.3	4.0	96.0	8.0	92.0	7.7	92.3	7.7	92.3	26
	무	28.7	71.3	19.9	80.1	14.1	85.9	22.3	77.7	13.8	86.2	12.3	87.7	341
$X^2$		2.147		2.348		2.039		2.835		.775		.490		

구분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N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재택 (원격)	유	32.6	67.4	9.1	90.9	9.3	90.7	9.3	90.7	7.0	93.0	16.3	83.7	43
	무	26.9	73.1	20.4	79.6	13.9	86.1	22.9	77.1	14.2	85.8	11.5	88.5	
$X^2$		.601		3.228		.701		4.190*		1.727		.835		
가족돌봄휴가	유	23.8	76.2	12.2	87.8	9.5	90.5	16.7	83.3	7.3	92.7	19.0	81.0	42
	무	28.3	71.7	20.0	80.0	13.9	86.1	21.9	78.1	14.2	85.8	11.1	88.9	325
$X^2$		.375		1.434		.611		.610		1.468		2.239		
가족돌봄직	유	25.0	75.0	14.3	85.7	0.0	100.0	28.6	71.4	12.5	87.5	12.5	87.5	8
	무	27.9	72.1	19.2	80.8	13.6	86.4	21.2	78.8	13.4	86.6	12.0	88.0	359
$X^2$		.032		.108		1.260		.224		.006		.002		
기타 육아 시간 지원	유	10.0	90.0	10.0	90.0	5.0	95.0	15.0	85.1	10.0	90.0	10.0	90.0	20
	무	28.6	71.4	19.4	80.6	13.9	86.1	21.7	78.3	13.6	86.4	12.1	87.9	347
$X^2$		3.278		1.084		1.284		.503		.209		.079		

\*  $p < .05$

#### 4) 66~71개월

어머니와 아버지의 시간지원정책 이용에 따른 각 발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육아휴직은 소근육 운동에,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직은 인지능력 발달에, 가족돌봄휴가와 기타 육아시간 지원 이용은 인지능력, 자조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육아휴직은 자조에, 유연근무제는 대근육 운동과 언어 발달에, 가족돌봄휴직은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언어 발달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6-8〉 참조).

〈표 III-6-8〉 어머니의 시간지원정책 이용 여부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66~71개월

구분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N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육아 휴직	유	21.2	78.8	12.7	87.3	22.5	77.5	22.5	77.5	15.0	85.0	30.4	69.6	80
	무	26.6	73.4	27.5	72.5	23.7	76.3	22.8	77.2	16.4	83.6	17.0	83.0	342
$X^2$		.977		7.585**		.051		.003		.091		7.370**		
근로 시간 단축	유	29.3	70.7	22.0	78.0	7.5	92.5	29.3	70.7	7.5	92.5	14.6	85.4	41
	무	25.2	74.8	25.2	74.8	24.9	75.1	22.0	78.0	16.8	83.2	20.2	79.8	382
$X^2$		.322		.209		6.161*		1.098		2.339		.716		
유연 근무제	유	44.7	55.3	36.8	63.2	17.9	82.1	43.6	56.4	7.7	92.3	15.4	84.6	39
	무	23.8	76.2	23.5	76.5	24.0	76.0	20.6	79.4	16.7	83.3	19.8	80.2	383
$X^2$		7.976**		3.309		.727		10.621**		2.155		.449		

구분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N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재택 (원격)	유	33.3	66.7	27.5	72.5	13.7	86.3	35.3	64.7	11.5	88.5	13.5	86.5	52
	무	24.5	75.5	24.3	75.7	24.6	75.4	20.8	79.2	16.7	83.3	20.5	79.5	
$X^2$		1.825		.236		2.955		5.381*		.905		1.427		
가족돌봄휴직	유	24.4	75.6	20.0	80.0	7.3	92.7	24.4	75.6	12.2	87.8	4.9	95.1	41
	무	25.7	74.3	25.3	74.7	25.2	74.8	22.6	77.4	16.5	83.5	21.3	78.7	
$X^2$		.034		.538		6.590*		.070		.516		6.287*		
가족돌봄직	유	75.0	25.0	53.8	46.2	0.0	100.0	61.5	38.5	15.4	84.6	0.0	100.0	13
	무	24.2	75.8	24.0	76.0	24.2	75.8	21.5	78.5	16.1	83.9	20.0	80.0	
$X^2$		15.771***		6.021*		4.111*		11.484**		.005		3.235		
기타 육아시간지원	유	30.0	70.0	24.1	75.9	3.3	96.7	26.7	73.3	6.9	93.1	0.0	100.0	30
	무	25.5	74.5	24.7	75.3	25.0	75.0	22.4	77.6	16.6	83.4	20.9	79.1	
$X^2$		.293		.005		7.286**		.282		1.893		7.789**		

\* $p < .05$ , \*\* $p < .01$ , \*\*\* $p < .001$

한편, 아버지의 경우 육아휴직 이용은 소근육 운동에, 근로시간 단축은 인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가족돌봄휴직 이용의 경우, 대근육 운동 발달의 또래 미만 수준 비중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가족돌봄휴직은 대근육 운동 발달 외에도 소근육 운동과 언어 발달에 있어서도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이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또래 미만 수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육아시간 지원 이용도 언어 발달에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재택근무 이용은 사회성, 자조에서, 기타 육아시간 지원 이용은 인지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6-9〉 참조).

〈표 III-6-9〉 아버지의 시간지원정책 이용 여부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66~71개월

구분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N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육아 휴직	유	33.3	66.7	5.6	94.4	31.6	69.4	16.7	83.3	21.1	78.9	5.6	94.4	19
	무	26.1	73.9	26.4	73.6	23.8	76.2	23.3	76.7	16.2	83.8	19.2	80.8	
$X^2$		.455		3.940*		.590		.431		.317		2.123		
근로 시간 단축	유	26.7	73.3	26.7	73.3	6.7	93.3	29.0	71.0	16.7	83.3	13.3	86.7	30
	무	26.5	73.5	25.6	74.4	25.4	74.6	22.5	77.5	16.4	83.6	19.0	81.0	
$X^2$		.001		.017		5.343*		.693		.001		.599		

구분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N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유연 근무제	유	48.0	52.0	24.0	76.0	20.0	80.0	33.3	66.7	12.0	88.0	8.0	92.0	25
	무	25.0	75.0	25.8	74.2	24.5	75.5	22.2	77.8	16.7	83.3	19.3	80.7	383
$X^2$		6.389*		.039		.257		1.590		.373		1.984		
재택 (원격)	유	38.1	61.9	20.6	79.4	17.2	82.8	28.6	71.4	7.8	92.2	4.8	95.2	63
	무	24.3	75.7	26.4	73.6	25.5	74.5	21.7	78.3	18.0	82.0	21.2	78.8	
$X^2$		5.173*		.925		2.037		1.413		4.067*		9.450**		345
가족 돌봄가	유	30.6	69.4	30.6	69.4	13.9	86.1	30.6	69.4	13.9	86.1	5.6	94.4	36
	무	26.1	73.9	25.2	74.8	25.0	75.0	22.3	77.7	16.6	83.4	19.9	80.1	373
$X^2$		.339		.493		2.220		1.258		.179		4.451*		
가족 돌봄직	유	66.7	33.3	55.6	44.4	0.0	100.0	66.7	33.3	22.2	77.8	0.0	100.0	9
	무	25.5	74.5	25.0	75.0	24.6	75.4	21.8	78.2	16.2	83.8	19.0	81.0	400
$X^2$		7.676**		4.307*		2.909		10.066**		.229		2.107		
기타 육아 시간 지원	유	40.0	60.0	37.5	62.5	0.0	100.0	43.8	56.2	12.5	87.5	0.0	100.0	16
	무	26.0	74.0	25.2	74.8	24.9	75.1	22.1	77.9	16.5	83.5	19.3	80.7	393
$X^2$		1.465		1.221		4.923*		4.057*		.183		3.565		

\* $p < .05$ , \*\* $p < .01$

종합하면, 팬데믹 기간 동안, 어머니와 아버지의 시간지원정책 이용에 따른 K-DST 영역별 점수는 월령 및 발달 영역에 따라 때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발달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는 등 복합적인 현상을 보인다. 아동의 월령이 낮은 경우, 부모의 제도 이용이 언어·사회성·자조 등 사회·정서적 발달을 촉진하는 경향이 뚜렷했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효과는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 나. 주양육자의 주중/주말 돌봄시간과 형제 유무에 따른 차이

##### 1) 24~26개월

24~26개월의 경우, 주양육자의 주중 돌봄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인지 발달 수준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며, 주말 돌봄시간과 형제 유무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6-10〉 주양육자의 주중/주말 돌봄시간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24~26개월

구분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N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주중 돌봄 시간	8시간 미만	18.5	81.5	7.4	92.6	33.3	66.7	30.8	69.2	18.5	81.5	18.5	81.5	27
	8시간 이상	8.8	91.2	7.0	93.0	8.8	91.2	15.5	84.5	7.0	93.0	8.8	91.2	57
X <sup>2</sup>		1.660		.004		7.958**		2.587		2.533		1.660		84
주말 돌봄 시간	18시간 미만	13.2	86.8	8.1	91.9	13.5	85.5	24.3	75.7	15.8	84.2	10.8	89.2	38
	18시간 이상	10.9	89.1	4.3	95.7	19.1	80.9	17.0	83.0	6.4	93.6	13.0	87.0	47
X <sup>2</sup>		.104		.549		.473		.684		1.954		.096		

\*\*p < .01

〈표 III-6-11〉 형제 유무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24~26개월

구분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N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형제	무 유	8.3	91.7	6.1	93.9	14.3	85.7	18.4	81.6	10.2	89.8	12.2	87.8	49
	유	14.3	85.7	8.6	91.4	22.2	77.8	22.9	77.1	11.4	88.6	11.4	88.6	35
X <sup>2</sup>		.742		.185		.899		.255		.032		.013		

2) 27~29개월

27~29개월의 경우에도 주중 돌봄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8시간 미만보다 인지 발달과 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말 돌봄시간은 18시간 이상인 경우가 18시간 미만인 경우보다 대근육 운동과 언어 발달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형제 유무의 경우에는 형제가 없는 경우 소근육 운동과 언어 발달이 또래 이상인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III-6-12〉, 〈표 III-6-13〉 참조).

〈표 III-6-12〉 주양육자의 주중/주말 돌봄시간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27~29개월

구분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N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주중 돌봄 시간	8시간 미만	17.5	82.5	19.3	80.7	22.8	77.2	17.5	82.5	1.8	98.2	17.9	82.1	56
	8시간 이상	.9	90.6	12.3	87.7	9.4	90.6	7.0	93.0	1.8	98.2	12.3	87.7	170
X <sup>2</sup>		2.836		1.745		6.967**		5.433*		.000		1.113		

구분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N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주말 돌봄 시간	18시간 미만	18.4	81.6	14.0	86.0	17.4	82.6	18.6	81.4	2.3	97.7	18.6	81.4	86
	18시간 이상	7.1	92.9	13.6	86.4	9.9	90.1	4.3	95.7	1.4	98.6	9.9	90.1	141
$\chi^2$		6.798**		.007		2.706		12.567***		.254		3.506		227

\* $p < .05$ , \*\* $p < .01$ , \*\*\* $p < .001$

〈표 III-6-13〉 형제 유무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27~29개월

구분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N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형제	무	8.3	91.7	8.3	91.7	11.5	88.5	4.2	95.8	2.1	97.9	14.6	85.4	96
	유	13.0	87.0	18.2	81.8	13.6	86.4	13.0	87.0	2.3	97.7	13.0	87.0	131
$\chi^2$		1.219		4.468*		.237		5.021*		.009		.121		227

\* $p < .05$

### 3) 30~32개월

30~32개월은 주중 돌봄시간에 따른 발달 수준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주말 돌봄 시간에 따라 언어, 자조에서 돌봄시간이 더 많을수록 또래 이상 발달 수준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형제 유무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14〉 주양육자의 주중/주말 돌봄시간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30~32개월

구분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N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주중 돌봄 시간	8시간 미만	9.2	90.8	10.5	89.5	6.6	93.4	11.8	88.2	3.9	96.1	22.4	77.6	76
	8시간 이상	7.9	92.1	9.9	90.1	4.6	95.4	11.3	88.7	7.9	92.1	26.5	73.5	151
$\chi^2$		.105		.019		.381		.017		1.285		.457		
주말 돌봄 시간	18시간 미만	11.0	89.0	14.4	85.6	7.8	92.2	16.7	83.3	10.0	90.0	33.0	67.0	91
	18시간 이상	7.3	92.7	7.3	92.7	3.6	96.4	7.3	92.7	3.6	96.4	20.4	79.6	137
$\chi^2$		.930		3.045		1.849		4.863*		3.785		4.525*		228

\* $p < .05$

〈표 III-6-15〉 형제 유무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30~32개월

구분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N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형제	무	9.3	90.7	14.0	86.0	2.8	97.2	12.3	87.7	6.6	93.4	29.0	71.0	107
	유	7.5	92.5	6.7	93.3	7.4	92.6	10.0	90.0	5.8	94.2	21.7	78.3	220
X <sup>2</sup>		.251		3.358		2.396		.293		.065		1.605		

4) 33~35개월

33~35개월의 경우, 주중 돌봄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말 돌봄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형제 유무의 경우 소근육 운동에서 형제가 있는 경우에 또래 이상의 발달 수준을 나타내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16〉 주양육자의 주중/주말 돌봄시간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33~35개월

구분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N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주중 돌봄 시간	8시간 미만	6.2	93.8	48.5	51.5	15.6	84.4	27.3	72.7	18.8	81.2	31.2	68.8	32
	8시간 이상	9.8	90.2	30.5	69.5	11.0	89.0	11.1	88.9	11.0	89.0	31.7	68.3	82
X <sup>2</sup>		.354		3.322		.482		4.606*		1.218		.002		114
주말 돌봄 시간	18시간 미만	5.8	94.2	30.2	69.8	17.0	83.0	18.9	81.1	13.2	86.8	32.1	67.9	53
	18시간 이상	11.3	88.7	39.3	60.7	8.1	91.9	13.1	86.9	13.1	86.9	31.1	68.9	61
X <sup>2</sup>		1.077		1.044		2.125		.706		.000		.011		

\*p < .05

〈표 III-6-17〉 형제 유무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33~35개월

구분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N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형제	무	14.6	85.4	53.2	46.8	14.6	85.4	14.6	85.4	18.8	81.2	38.3	61.7	48
	유	4.5	95.5	22.7	77.3	10.6	89.4	17.9	82.1	9.1	90.9	27.3	72.7	66
X <sup>2</sup>		3.597		11.141**		.408		.224		2.269		1.537		114

\*\*p < .01

5) 36~41개월

36~41개월의 경우, 주중 돌봄시간이 8시간 이상의 경우, 대근육 운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주말 돌봄시간이 많을수록 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형제 유무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18〉 주양육자의 주중/주말 돌봄시간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36~41개월

구분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N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주중 돌봄 시간	8시간 미만	20.7	79.3	16.2	83.8	7.1	92.9	10.8	89.2	6.3	93.7	14.4	85.6	111
	8시간 이상	8.7	91.3	19.7	80.3	7.8	92.2	11.9	88.1	7.8	92.2	9.2	90.8	
X <sup>2</sup>		9.519**		.599		.045		.090		.253		2.031		328
주말 돌봄 시간	18시간 미만	12.7	87.3	22.4	77.6	10.4	89.6	17.9	82.1	9.0	91.0	9.8	90.2	133
	18시간 이상	12.8	87.2	16.4	83.6	5.1	94.9	7.2	92.8	6.6	93.4	11.8	88.2	
X <sup>2</sup>		.000		1.856		3.323		8.952**		.613		.330		

\*\*p < .01

〈표 III-6-19〉 형제 유무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36~41개월

구분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N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형제	무 유	14.7	85.3	22.9	77.1	8.9	91.1	10.8	89.2	9.6	90.4	13.4	86.6	157
	유	10.5	89.5	14.5	85.5	5.8	94.2	12.2	87.8	5.8	94.2	9.2	90.8	
X <sup>2</sup>		1.369		3.830		1.169		.153		1.635		1.408		330

6) 42~47개월

42~47개월은 주중 돌봄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언어와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주말 돌봄시간이 더 길수록 인지 발달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형제가 있는 경우, 대근육 운동 발달에서 또래 이상의 발달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20〉 주양육자의 주중/주말 돌봄시간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42~47개월

구분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N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주중 돌봄 시간	8시간 미만	16.7	83.3	18.9	81.1	12.8	87.2	15.2	84.8	13.6	86.4	17.3	82.7	133
	8시간 이상	13.9	86.1	16.1	83.9	10.5	89.5	8.6	91.4	7.5	92.5	15.4	84.6	267
X <sup>2</sup>		.553		.502		.468		3.926*		3.872*		.248		400
주말 돌봄 시간	18시간 미만	12.8	87.2	19.1	80.9	15.0	85.0	12.7	87.3	11.0	89.0	18.5	81.5	173
	18시간 이상	15.9	84.1	15.5	84.5	8.0	92.0	9.3	90.7	8.4	91.6	13.7	86.3	226
X <sup>2</sup>		.773		.892		4.984*		1.229		.779		1.684		

\*p < .05

〈표 III-6-21〉 형제 유무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42~47개월

구분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N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형제	무	19.3	80.7	21.4	78.6	11.0	89.0	10.3	89.7	12.4	87.6	18.6	81.4	145
	유	11.8	88.2	14.6	85.4	11.4	88.6	11.0	89.0	7.5	92.5	14.2	85.8	254
X <sup>2</sup>		4.179*		3.030		.014		.044		2.670		1.373		399

\*p < .05

7) 48~53개월

48~53개월의 아동은 주중 돌봄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자조에서 또래 이상 발달을 나타내는 비중이 높았으며, 주말 돌봄시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형제 유무에 따라서는 형제가 있는 경우가 언어 발달에 있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22〉 주양육자의 주중/주말 돌봄시간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48~53개월

구분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N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주중 돌봄 시간	8시간 미만	32.5	67.5	21.4	78.6	17.5	82.5	12.5	87.5	13.8	86.2	17.0	83.0	159
	8시간 이상	21.3	78.7	12.9	87.1	15.2	84.8	8.5	91.5	10.2	89.8	8.9	91.1	224
X <sup>2</sup>		6.054*		4.817*		.372		1.651		1.127		5.601*		383

구분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N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주말 돌봄 시간	18시간 미만	23.2	76.8	17.2	82.8	16.6	83.4	12.6	87.4	14.1	85.9	12.6	87.4	199
	18시간 이상	28.6	71.4	15.7	84.3	15.7	84.3	7.1	92.9	8.6	91.4	11.9	88.1	185
X <sup>2</sup>		1.464		.156		.058		3.292		2.778		.040		

\*  $p < .05$

〈표 III-6-23〉 형제 유무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48~53개월

구분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N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형제	무	28.3	71.7	19.5	80.5	15.0	85.0	15.9	84.1	14.2	85.8	11.5	88.5	113
	유	24.7	75.3	15.2	84.8	16.7	83.3	7.7	92.3	10.4	89.6	12.6	87.4	270
X <sup>2</sup>		.539		1.064		.155		5.848*		1.125		.088		

\*  $p < .05$

### 8) 54~59개월

54~59개월 아동은 주중 돌봄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대근육 운동, 인지 발달, 언어 발달, 사회성, 자조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말 돌봄 시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에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형제 유무에 따라서는 형제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사회성 발달이 또래 이상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6-24〉 주양육자의 주중/주말 돌봄시간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54~59개월

구분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N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주중 돌봄 시간	8시간 미만	21.4	78.6	15.7	84.3	23.4	76.6	20.6	79.4	18.4	81.6	12.8	87.2	141
	8시간 이상	10.9	89.1	11.7	88.3	9.6	90.4	5.7	94.3	3.9	96.1	6.1	93.9	230
X <sup>2</sup>		7.667**		1.197		13.258***		19.370***		21.728***		4.948*		371
주말 돌봄 시간	18시간 미만	20.0	80.0	16.5	83.5	20.6	79.4	18.9	81.2	14.7	85.3	11.2	88.8	170
	18시간 이상	11.0	89.0	10.5	89.5	10.0	90.0	5.0	95.0	4.5	95.5	6.5	93.5	201
X <sup>2</sup>		5.795*		2.851		8.254**		17.450***		11.470**		2.591		

\*  $p < .05$ , \*\*  $p < .01$ , \*\*\*  $p < .001$

〈표 III-6-25〉 형제 유무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54~59개월

구분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N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형제	무	17.3	82.7	13.4	86.6	16.5	83.5	14.2	85.8	14.2	85.8	8.7	91.3	127
	유	14.0	86.0	13.5	86.5	14.0	86.0	9.8	90.2	6.6	93.4	8.2	91.8	243
$\chi^2$		.721		.001		.426		1.565		5.756*		.020		370

\* $p < .05$

9) 60~65개월

60~65개월 아동은 주중 돌봄시간이 발달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말 돌봄시간은 18시간 이상인 집단에서 또래 이상의 언어발달 수준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형제 유무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26〉 주양육자의 주중/주말 돌봄시간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60~65개월

구분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N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주중 돌봄 시간	8시간 미만	24.7	75.3	17.9	82.1	12.3	87.7	18.5	81.5	13.0	87.0	12.3	87.7	162
	8시간 이상	28.9	71.1	18.8	81.2	13.8	86.2	22.9	77.1	13.3	86.7	11.4	88.6	219
$\chi^2$		.833		.051		.163		1.091		.009		.077		381
주말 돌봄 시간	18시간 미만	31.2	68.8	20.6	79.4	15.7	84.3	25.9	74.1	14.6	85.4	13.7	86.3	205
	18시간 이상	22.7	77.3	15.9	84.1	10.2	89.8	15.4	84.6	11.4	88.6	9.7	90.3	176
$\chi^2$		3.441		1.377		2.464		6.173*		.849		1.454		

\* $p < .05$

〈표 III-6-27〉 형제 유무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60~65개월

구분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N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형제	무	27.1	72.9	18.6	81.4	10.0	90.0	20.0	80.0	12.9	87.1	13.6	86.4	140
	유	27.4	72.6	18.3	81.7	15.0	85.0	21.7	78.3	13.3	86.7	10.4	89.6	240
$\chi^2$		.003		.006		1.935		.148		.018		.880		380

10) 66~71개월

66~71개월 아동은 앞서 나타난 결과들과 반대로 주중 돌봄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가 오히려 대근육 운동, 인지, 언어, 자조에서 또래 이상 발달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 월령이 높을수록 기관 이용 및 사교육 이용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주중 부모의 돌봄시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주말 돌봄시간이 18시간 이상인 경우, 대근육 운동, 인지, 사회성, 자조에서 발달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주중에는 기관과 사교육 이용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돌봄 시간이 적을수록 발달 수준이 높게 나타나며, 주말에는 다른 기관 이용 시간이 적기 때문에 부모의 돌봄시간이 길수록 자녀 발달 수준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형제 유무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28〉 주양육자의 주중/주말 돌봄시간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66~71개월

구분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N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주중 돌봄 시간	8시간 미만	17.4	82.6	21.0	79.0	15.2	84.8	15.9	84.1	17.4	82.6	12.3	87.7	138
	8시간 이상	29.7	70.3	26.8	73.2	27.5	72.5	26.1	73.9	15.5	84.5	23.0	77.0	283
X <sup>2</sup>		7.347**		1.641		7.758**		5.406*		.248		6.708*		421
주말 돌봄 시간	18시간 미만	30.1	69.9	28.5	71.5	27.9	72.1	24.6	75.4	22.1	77.9	24.2	75.8	240
	18시간 이상	19.8	80.2	20.2	79.8	17.6	82.4	20.2	79.8	8.2	91.8	13.7	86.3	183
X <sup>2</sup>		5.798*		3.759		6.156*		1.127		14.751***		7.266**		423

\* $p < .05$ , \*\* $p < .01$ , \*\*\* $p < .001$

〈표 III-6-29〉 형제 유무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66~71개월

구분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N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형제	무	32.1	67.9	31.2	68.8	22.3	77.7	23.2	76.8	11.6	88.4	20.5	79.5	
	유	23.2	76.8	22.6	77.4	23.9	76.1	22.6	77.4	17.4	82.6	19.4	80.6	
X <sup>2</sup>		3.435		3.308		.110		.019		2.081		.073		

주양육자의 돌봄시간과 형제 유무가 아동의 발달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월령별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돌봄시간의 길이와 형제 유무는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나타냈다. 월령이 낮을수록 주중 돌봄시간이, 월령이 높아질수록 주말 돌봄시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형제가 있는 경우 사회성과 언어 발달이 더 높게 나타나, 형제간 상호작용이 사회적·정서적 발달의 촉진 요인으로 작용함을 유추할 수 있다.

#### 다. 팬데믹 기간의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른 차이

48개월 미만은 기관 이용 여부에 따른 사례 수가 충족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48개월 이상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48~53개월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발달이 또래 이상 발달 수준인 비중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48~53개월 아동의 기관 이용 여부 자체보다는 가정 내 양육환경, 부모의 양육 태도, 기관 내 상호작용의 질 등 다양한 요인이 아동의 발달에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표 III-6-30〉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48~53개월

구분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N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기관	이용 안함	27.1	72.9	14.4	85.6	14.1	85.9	8.5	91.5	11.3	88.7	10.9	89.1	284
	이용	22.2	77.8	22.2	77.8	22.0	78.0	14.1	85.9	12.1	87.9	16.0	84.0	
$\chi^2$		.916		3.290		3.423		2.660		.053		1.780		384

##### 2) 54~59개월

54~59개월 아동의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른 발달 수준을 분석한 결과,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발달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인지, 언어, 사회성 영역에서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기관 이용 여부에 따른 발달 차이는 운동 및 자조 영역에서만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III-6-31〉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54~59개월

구분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N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기관	이용안함	11.3	88.7	10.0	90.0	12.4	87.6	10.5	89.5	8.0	92.0	5.2	94.8	248
	이용	22.3	77.7	19.7	80.3	19.8	80.2	13.1	86.9	11.5	88.5	15.6	84.4	122
X <sup>2</sup>		7.792**		6.627*		3.509		.562		1.166		11.048**		370

\* $p < .05$ , \*\* $p < .01$

### 3) 60~65개월

60~65개월 아동의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른 발달 수준을 비교한 결과, 언어 발달 영역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언어발달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사회성, 자조 영역에서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6-32〉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60~65개월

구분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N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기관	이용안함	23.2	76.8	19.4	80.6	15.1	84.9	14.0	86.0	12.4	87.6	12.4	87.6	186
	이용	30.8	69.2	17.4	82.6	11.3	88.7	27.8	72.2	13.8	86.2	11.3	88.7	195
X <sup>2</sup>		2.721		.234		1.233		10.970**		.183		.107		381

\*\* $p < .01$

### 4) 66~71개월

66~71개월 아동의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른 발달 수준을 분석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6-33〉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른 K-DST 영역별 차이: 66~71개월

구분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N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또래 미만	또래 이상		
기관	이용 안함	28.9	71.1	19.4	80.6	24.3	75.7	22.2	77.8	17.4	82.6	18.4	81.6	190
	이용	23.2	76.8	17.4	82.6	22.7	77.3	22.8	77.2	14.7	85.3	20.6	79.4	233
$\chi^2$	1.822		.234		.147		.023		.576		.315		423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른 K-DST 발달 수준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월령이 증가할수록 기관 이용 아동과 미이용 아동 간의 발달 차이가 점차 감소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방향이 역전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이 대체로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자조 등 여러 영역에서 ‘또래 이상’ 비율이 높게 나타나 기관 이용이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60~65개월 아동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사라졌으나, 언어에서만 기관 미이용 아동이 더 높은 발달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6~71개월 아동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기관 이용 여부에 따른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관 이용 경험의 누적이나 가정양육 경험의 보완을 통해 집단 간 격차가 줄어든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 7. 소결

본 장에서는 1차년도 결과를 아동 특성, 가구 특성, 교사 특성, 기관 및 지역사회 특성으로 구분하여 심층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팬데믹 시기 아동의 발달에 대한 인식은 성별, 연령, 기관 이용 형태, 사교육 참여 여부 등에 따라 일정한 패턴을 보였다. 여아는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이 남아보다 높았으며, 특히 언어와 정서 영역의 인식 격차가 두드러졌다. 기관 이용 여부에 따라서는 인지 발달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기관 이용 아동이 미이용 아동보다 다소 높았다. 기관 이용 기간이 2~3년인 아동의 정서·사회성 발달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은 지속적 기관 경험이 안정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성장에 긍정적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교육 이용 아동은 언어, 인지, 사회성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발달 수준을 보였으나, 사교육 프로그램을 4개 이상 이용하는 경우 평균 점수가 오히려 감소하였다. 부모가 인식한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은 여아가 다소 높았고, 행복도는 사교육 미이용 아동과 기관 이용 시간이 짧은(7시간 이하) 아동이 높았다. 즉, 장시간 기관 생활과 학습 부담은 행복감 저하와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아동의 발달에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고소득 가정(월 681만 원 이상)의 아동은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 전 영역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저소득 가정(307만 원 이하) 아동은 발달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부모가 자녀 발달에 ‘문제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가장 높았다. 또한 기초수급 및 취약가구 아동은 모든 영역에서 비해당 가구 아동보다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언어·인지 영역의 차이가 두드러졌으며, 부모의 발달 문제 인식 역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근로형태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정의 아동이 외벌이 가정보다 언어·인지·사회성 발달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주양육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아동 발달 수준이 높다고 인식했으며, 8시간 미만 집단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부모의 시간적 여유가 양육의 질을 높이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놀이 및 사회성 활동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취약가구 아동은 ‘고집’ 점수가 높고, 사회적 놀이 참여가 낮았으며, 고소득 가정 아동일수록 행동 모방과 상호작용이 활발했다. 또래 상호작용의 경우 고소득, 근로시간이 짧은 가구의 아동이 놀이 상호작용 점수가 높고 놀이 단절이 적었다. 스트레스와 행복도 측면에서도 경제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저소득 가구 아동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으며(평균 2.47점), 행복도는 고소득 가구 아동(6.22점)이 가장 높았다.

셋째, 교사의 연령과 경력에 따른 아동 발달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50세 이상 교사 담당 반의 아동은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신체 발달 모두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교사 경력 10년 이상 집단 역시 발달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반면 경력 1년 이하 교사가 담당 반의 아동은 발달문제 인식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 연령과 경력에 따라 아동의 발달을 인식하는 정도가 매우 복합적이므로 종단 추적을 통해 신중히 해석될 필요가 있다.

넷째, 기관 규모와 지역 규모에 따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 아동이 대도시 아동보다 발달과 행복도 모두에서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중소도시 아동의 전반적 발달 평균은 3.55점, 행복도는 6.1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 아동은 스트레스(2.37점)가 상대적으로 높고, 놀이 단절이 빈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관 및 지역 규모에 따른 결과는 개인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결과로 종합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단순히 부모의 시간지원정책 이용 여부나 돌봄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돌봄의 질과 상호작용의 구조적 환경임을 유추할 수 있다. 월령이 낮을수록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과 주중 돌봄 참여가 발달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월령이 높아지면서 제도 이용 효과가 감소하고, 주말 중심의 가족 상호작용이 발달의 주요 요인으로 전환되었다. 향후 시간지원정책은 이용률 제고보다는 가정 내 돌봄 경험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 IV

## 2차년도(2025) 일반조사 결과

- 01 조사대상 특성
- 02 부모가 평정한 아동 발달 현황
- 03 연령별·영역별 발달 특성
- 04 아동의 건강 특성
- 05 부모 및 양육환경 특성
- 06 기관 이용 특성
- 07 부모 응답 K-DST
- 08 소결



## IV. 2차년도(2025) 일반조사 결과

### 1. 조사대상 특성

본 절에서는 코로나 세대 아동 발달 연구에 참여한 영유아 부모 및 가구의 응답자 특성을 기술하고, 부모가 응답한 아동의 발달 현황 결과를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 가. 부모/가구 응답자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는 총 2,835명으로, 응답자 부모의 특성은 <표 IV-1-1>과 같다. 맞벌이 가구 60.9%, 외벌이 가구 39.1%로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더 높았으며, 가구 소득은 9분위 이상 34.6%, 7분위 이상 34.5%로 7~8분위 가구와 9~10분위 이상 가구가 많았다. 모의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 53.6%, 전문대 졸업 24.7%, 고등학교 졸업 이하 11.5%, 대학원 졸업 10.1%로 대학교를 졸업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의 최종학력 역시 대학교 졸업 53.2%, 전문대 졸업 20.9%로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다. 취업상태는 어머니의 경우 정규직 43.3%, 비취업 37.0%로 취업모이자 정규직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부의 경우 정규직 74.6%, 자영업 19.2%로 정규직이 가장 많고, 그 뒤로는 자영업이 많았다.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중소도시 42.4%, 대도시 40.1%, 읍면 17.5%로 중소도시 거주가 가장 많았고, 지역은 인천 및 경기권이 36.5%로 가장 많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아동 특성의 경우 남아 51.2%, 여아 48.8%로 남아의 참여율이 더 높았으며, 보육연령은 연구에 참여한 2세반(2022년생)부터 초등학교 1학년(2018년생)까지의 연령 중 5세반(2019년생)과 4세반(2020년생)의 참여율이 이외 연령의 아동에 비해 높았다. 아동의 이용 기관별로는 어린이집 재원이 43.9%로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기관 유형은 국공립 및 법인 등 어린이집 재원이 3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사립 유치원 재원이 25.3%로 많았다. 기관 현원에 따라서는 51인~100인이 재원 및 재학 중인 기관에 다니는 아동이 42.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 부모 및 아동 특성

단위: %, 명

구분	계	(수)
전체	100.0	(2,835)
모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1.5	(327)
전문대 졸업	24.7	(701)
대학교 졸업	53.6	(1,520)
대학원 졸업	10.1	(287)
부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4.4	(409)
전문대 졸업	20.9	(594)
대학교 졸업	53.2	(1,507)
대학원 졸업	11.5	(325)
모 취업 상태		
정규직	43.3	(1,226)
비정규직	9.7	(275)
자영업	9.3	(265)
학업 중	0.7	(19)
비취업	37.0	(1,049)
부 취업 상태		
정규직	74.6	(2,115)
비정규직	4.2	(120)
자영업	19.2	(544)
학업 중	0.3	(8)
비취업	1.7	(48)
맞벌이 여부		
맞벌이	60.9	(1,727)
외벌이	39.1	(1,108)
가구 소득		
307만원 이하(1~4분위)	7.1	(202)
308~467만원(5~6분위)	23.8	(675)
468~680만원(7~8분위)	34.5	(978)
681만원(9~10분위이상)	34.6	(980)
아동 성별		
남아	51.2	(1,453)
여아	48.8	(1,382)
자녀 연령(반연령)		
2세반(2022년생)	18.7	(529)
3세반(2021년생)	19.7	(558)
4세반(2020년생)	20.7	(587)
5세반(2019년생)	22.6	(641)
초1(2018년생)	18.4	(521)
자녀 이용기관		
어린이집	43.9	(1,246)
유치원	37.7	(1,068)
초등학교	18.4	(521)

구분	계	(수)
기관 유형		
국공립/법인등 어린이집	32.6	(925)
민간/가정 어린이집	11.3	(320)
국공립 유치원	12.4	(351)
사립 유치원	25.3	(717)
공립 초등학교	18.1	(514)
사립 초등학교	0.2	(7)
기관 현원		
20인 이하	7.8	(222)
21~50인	22.2	(630)
51~100인	42.6	(1,207)
101인 이상	27.4	(777)
지역 규모		
대도시	40.1	(1,136)
중소도시	42.4	(1,201)
읍면	17.5	(497)
지역		
서울	15.1	(428)
인천/경기	36.5	(1,034)
충청/강원권	14.6	(413)
전라/제주권	9.3	(263)
대경권	9.6	(272)
부울경	15.0	(425)

## 나. 부모 돌봄시간

부모의 돌봄시간을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주중의 경우 어머니는 하루 평균 약 7시간, 아버지는 약 3시간 자녀를 돌보며, 주말의 경우 어머니는 하루 평균 약 11시간, 아버지는 약 8시간 자녀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모두 주중보다 주말에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더 많았다.

### 1) 평일 부모 돌봄시간<sup>8)</sup>

부모의 주중 돌봄 시간을 부모 및 가구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부부가 맞벌이일 경우 어머니의 자녀 돌봄 시간은 약 6시간으로 외벌이 시 평균 돌봄 시간인 약 7시간보다 더 적었지만, 아버지의 경우에는 맞벌이일 경우 약 3시간, 외벌이일 경우 약 2시간으로 맞벌이 시 자녀 돌봄 시간이 더 많았다. 모의 취업상태는 비취업모의

8) 자녀를 돌보는 시간: 밥/간식 먹이기, 목욕시키기, 상호작용 등 자녀양육과 관련된 시간과 문화센터 등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시간 포함 (가사노동 시간, 기관 이용시간 제외)

경우 어머니의 자녀 돌봄 시간이 약 7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의 돌봄 시간은 어머니가 정규직 취업모일 경우 약 3시간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은 낮을수록 어머니의 자녀 돌봄 시간이 약 7시간으로 가장 많았지만, 아버지의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1~4분위 가구보다 5~6분위 가구가 돌봄시간 약 3시간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부모 모두 돌봄 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아동 특성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평균 돌봄 시간이 남아 6.46시간, 여아 6.71시간으로 여아일 경우 더 많았지만, 아버지의 돌봄 시간에는 아동 성별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 연령은 아버지의 경우 2세반(2022년생) 자녀의 평균 돌봄 시간이 약 3시간으로 다른 연령들에 비해 많았고, 어머니의 경우에는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일 경우에 자녀 돌봄 시간이 약 7시간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2〉 주중 돌봄 시간 - 아버지, 어머니

단위: 시간(명)

구분	아버지		(수)	어머니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66	1.77	(2,835)	6.58	3.08	(2,835)
모 취업 상태						
정규직	3.03	1.86	(1,226)	5.87	2.75	(1,226)
비정규직	2.45	1.66	(275)	6.43	2.80	(275)
자영업	2.47	1.75	(265)	6.45	3.15	(265)
학업 중	1.86	1.61	(19)	6.10	2.81	(19)
비취업	2.36	1.61	(1,049)	7.49	3.27	(1,049)
<i>F</i>	24.143***			41.830***		
맞벌이 여부						
맞벌이	2.85	1.82	(1,727)	6.04	2.80	(1,727)
외벌이	2.38	1.65	(1,108)	7.42	3.30	(1,108)
<i>t</i>	7.057***			-11.520***		
가구 소득						
307만원 이하(1~4분위)	2.30	1.89	(202)	7.34	3.51	(202)
308~467만원(5~6분위)	2.82	1.82	(675)	6.94	2.89	(675)
468~680만원(7~8분위)	2.60	1.69	(978)	6.59	3.03	(978)
681만원(9~10분위이상)	2.69	1.78	(980)	6.16	3.10	(980)
<i>F</i>	5.007**			13.350***		
아동 성별						
남아	2.61	1.73	(1,453)	6.46	3.08	(1,453)
여아	2.72	1.81	(1,382)	6.71	3.07	(1,382)

구분	아버지		(수)	어머니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i>t</i>	-1.660			-2.131*		
자녀 연령(반연령)						
2세반(2022년생)	2.89	1.78	(529)	6.68	3.02	(529)
3세반(2021년생)	2.62	1.83	(558)	6.61	3.11	(558)
4세반(2020년생)	2.58	1.69	(587)	6.42	2.96	(587)
5세반(2019년생)	2.57	1.77	(641)	6.36	2.95	(641)
초1(2018년생)	2.68	1.77	(521)	6.89	3.38	(521)
<i>F</i>	2.938*			2.728*		
지역 규모						
대도시	2.71	1.77	(1,136)	6.58	2.99	(1,136)
중소도시	2.61	1.78	(1,201)	6.54	3.20	(1,201)
읍면	2.68	1.75	(497)	6.68	2.98	(497)
<i>F</i>	1.029			0.385		

\**p* < .05, \*\**p* < .01, \*\*\**p* < .001

## 2) 주말 부모 돌봄시간

주말 돌봄시간의 경우, 어머니의 돌봄 시간은 취업상태가 비취업일 경우와 부부가 외벌이일 때 가장 많았으며,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돌봄 시간이 길었고,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아버지의 돌봄 시간은 부부가 맞벌이일 경우와 모의 취업상태가 정규직일 때 가장 많았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가장 길게 나타났다. 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부모 모두 2세반(2022년생) 자녀를 둔 경우에 주말 돌봄 시간이 가장 많았다. 이외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주말 돌봄 시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1-3〉 주말 돌봄 - 아버지, 어머니

단위: 시간(명)

구분	아버지		(수)	어머니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7.58	3.88	(2,835)	10.79	3.88	(2,835)
모 취업 상태						
정규직	7.81	3.64	(1,226)	10.43	3.57	(1,226)
비정규직	7.44	4.17	(275)	11.13	4.20	(275)
자영업	7.43	3.88	(265)	10.38	4.00	(265)
학업 중	5.74	4.39	(19)	10.98	5.83	(19)
비취업	7.42	4.03	(1,049)	11.22	4.03	(1,049)
<i>F</i>	2.823*			7.210***		

구분	아버지		(수)	어머니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맞벌이 여부						
맞벌이	7.71	3.75	(1,727)	10.50	3.71	(1,727)
외벌이	7.39	4.06	(1,108)	11.25	4.10	(1,108)
<i>t</i>	2.089*			-5.003***		
가구 소득						
307만원 이하(1~4분위)	5.87	4.34	(202)	11.78	5.07	(202)
308~467만원(5~6분위)	7.30	3.78	(675)	10.80	3.62	(675)
468~680만원(7~8분위)	7.84	3.78	(978)	10.81	3.77	(978)
681만원(9~10분위이상)	7.88	3.84	(980)	10.57	3.87	(980)
<i>F</i>	17.918***			5.406**		
아동 성별						
남아	7.65	3.92	(1,453)	10.87	3.89	(1,453)
여아	7.51	3.82	(1,382)	10.71	3.88	(1,382)
<i>t</i>	0.940			1.143		
자녀 연령(반연령)						
2세반(2022년생)	8.36	3.60	(529)	11.31	3.54	(529)
3세반(2021년생)	7.91	4.03	(558)	10.90	3.64	(558)
4세반(2020년생)	7.62	3.87	(587)	11.03	4.08	(587)
5세반(2019년생)	7.47	3.89	(641)	10.62	3.86	(641)
초1(2018년생)	6.54	3.75	(521)	10.10	4.16	(521)
<i>F</i>	16.217***			7.459***		
지역 규모						
대도시	7.85	3.85	(1,136)	10.72	3.68	(1,136)
중소도시	7.63	3.86	(1,201)	10.76	3.91	(1,201)
읍면	6.85	3.89	(497)	11.04	4.26	(497)
<i>F</i>	11.700***			1.277		

\* $p < .05$ , \*\* $p < .01$ , \*\*\* $p < .001$

## 다. 아동의 일상생활- 활동 시간 및 미디어 이용

아동의 일과를 살펴보고자 평일을 기준으로 교육 및 학습과 놀이 시간에 대한 각각의 여부와 활동 시간을 조사하였다. 활동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교육 및 학습 시간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82.8%, 활동하지 않는 경우가 17.2%로 교육 및 학습 시간에 활동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하루 평균 교육 및 학습 시간은 약 1시간 10분 정도였다. 놀이 시간의 경우 활동하는 경우 92.3%, 활동하지 않는 경우 7.7%로 놀이 활동을 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하루 평균 놀이 시간은 약 1시간 29분이었다.

1) 평일 활동 및 활동시간

평일 활동 여부와 활동 시간을 교육 및 학습시간과 놀이시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교육 및 학습시간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경우는 82.8%로 하루 평균 약 1시간 10분 정도였고, 놀이시간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경우는 92.3%로 하루 평균 1시간 29분 정도였다.

〈표 IV-1-4〉 평일 활동 여부, 시간 (요약표)

단위: %, 시간(명)

구분	활동 여부		계(수)	활동 시간(분)		(수)
	활동함	활동하지 않음		평균	표준 편차	
1) 교육 및 학습시간	82.8	17.2	100.0 (2,835)	70.20	68.94	(2,348)
2) 놀이 시간	92.3	7.7	100.0 (2,835)	88.80	67.65	(2,617)

주: 1) 교육·학습: 학원·복지관, 학습지, 책읽기 등임. 어린이집·유치원 기관 이용시간은 제외  
 2) 놀이 시간: 밖에서 놀기, 성인과의 외출, 실내의 놀이시간 등

교육 및 학습 시간에 활동한다고 응답한 경우, 활동 여부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 연령이 5세반(2019년생)일 경우에 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활동 시간은 자녀 연령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2018년생)일 경우에 하루 평균 약 1시간 51분으로 가장 많았다.

〈표 IV-1-5〉 평일 활동 여부, 시간 - 1) 교육 및 학습

단위: %, 시간(명)

구분	활동 여부		계(수)	활동 시간(분)		(수)
	활동함	활동하지 않음		평균	표준 편차	
전체	82.8	17.2	100.0 (2,835)	70.20	68.94	(2,348)
맞벌이 여부						
맞벌이	82.1	17.9	100.0 (1,727)	69.02	67.18	(1,418)
외벌이	83.9	16.1	100.0 (1,108)	71.99	71.55	(930)
$\chi^2$ (df) / t	1.584(1)			-1.020		
가구 소득						
307만원 이하(1~4분위)	74.7	25.3	100.0 (202)	63.53	64.15	(151)
308~467만원(5~6분위)	75.3	24.7	100.0 (675)	71.91	81.76	(508)
468~680만원(7~8분위)	85.5	14.5	100.0 (978)	66.89	58.22	(837)
681만원(9~10분위이상)	87.0	13.0	100.0 (980)	73.60	70.97	(853)
$\chi^2$ (df) / F	53.003(3)***			0.125		



구분	활동 여부		계(수)	활동 시간(분)		(수)
	활동함	활동하지 않음		평균	표준 편차	
아동 성별						
남아	83.6	16.4	100.0 (1,453)	69.17	64.43	(1,215)
여아	82.0	18.0	100.0 (1,382)	71.30	73.49	(1,133)
$\chi^2$ (df) / $t$	1.335(1)			-0.748		
자녀 연령(반연령)						
2세반(2022년생)	71.7	28.3	100.0 (529)	57.66	66.57	(379)
3세반(2021년생)	78.5	21.5	100.0 (558)	48.47	47.72	(438)
4세반(2020년생)	85.7	14.3	100.0 (587)	57.81	56.22	(503)
5세반(2019년생)	91.5	8.5	100.0 (641)	74.67	75.88	(586)
초1(2018년생)	84.9	15.1	100.0 (521)	110.62	74.54	(442)
$\chi^2$ (df) / $F$	90.775(4) <sup>***</sup>			62.610 <sup>***</sup>		

<sup>\*\*\*</sup>  $p < .001$

놀이 시간에 활동한다고 응답한 경우, 활동 여부는 부모가 외벌이일 경우, 가구 소득이 1~4분위로 가장 낮을 경우, 자녀 성별이 남아일 경우 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한편, 활동 시간은 부모의 맞벌이 여부와 자녀 연령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부모가 외벌이일 경우 하루 평균 약 1시간 34분으로 맞벌이일 경우보다 많았고, 자녀 연령이 2세반(2022년생)일 경우 하루 평균 약 1시간 35분으로 이외 연령에 비해 많게 나타났다.

〈표 IV-1-6〉 평일 활동 여부, 시간 - 2) 놀이 시간

단위: %, 시간(명)

구분	활동 여부		계(수)	활동 시간(분)		(수)
	활동함	활동하지 않음		평균	표준 편차	
전체	92.3	7.7	100.0 (2,835)	88.80	67.65	(2,617)
맞벌이 여부						
맞벌이	90.4	9.6	100.0 (1,727)	85.57	65.59	(1,561)
외벌이	95.3	4.7	100.0 (1,108)	93.58	70.35	(1,056)
$\chi^2$ (df) / $t$	22.137(1) <sup>***</sup>			-2.938 <sup>**</sup>		
가구 소득						
307만원 이하(1~4분위)	96.7	3.3	100.0 (202)	99.28	79.38	(195)
308~467만원(5~6분위)	85.5	14.5	100.0 (675)	87.47	65.35	(577)
468~680만원(7~8분위)	94.0	6.0	100.0 (978)	87.47	67.09	(919)
681만원(9~10분위이상)	94.4	5.6	100.0 (980)	88.75	66.86	(926)
$\chi^2$ (df) / $F$	58.970(3) <sup>***</sup>			1.753		
아동 성별						
남아	94.3	5.7	100.0 (1,453)	87.59	65.58	(1,370)

구분	활동 여부		계(수)	활동 시간(분)		(수)
	활동함	활동하지 않음		평균	표준 편차	
여아 $\chi^2$ (df) / $t$	90.2	9.8	100.0 (1,382)	90.12	69.87	(1,247)
	16.417(1) <sup>***</sup>			-0.955		
자녀 연령(반연령)						
2세반(2022년생)	96.1	3.9	100.0 (529)	95.10	68.87	(508)
3세반(2021년생)	96.3	3.7	100.0 (558)	91.78	70.39	(537)
4세반(2020년생)	93.0	7.0	100.0 (587)	83.73	61.36	(546)
5세반(2019년생)	92.0	8.0	100.0 (641)	85.45	69.52	(589)
초1(2018년생)	83.8	16.2	100.0 (521)	88.65	67.28	(436)
$\chi^2$ (df) / $F$	77.185(4) <sup>***</sup>			2.496 <sup>*</sup>		

\*  $p < .05$ , \*\*  $p < .01$ , \*\*\*  $p < .001$

## 2) 미디어 이용

아동의 미디어 이용 여부와 이용 시작 연령, 이용 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 시간으로 조사하였다. 미디어를 이용한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5.5%였으며, 한 번도 이용한 적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5%였다. 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미디어를 이용한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1-7〉 미디어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미디어 이용 여부		계(수)	
	이용한적 있음	한번도 이용한 적 없음		
전체	95.5	4.5	100.0	(2,835)
자녀 연령(반연령)				
2세반(2022년생)	98.1	1.9	100.0	(529)
3세반(2021년생)	97.2	2.8	100.0	(558)
4세반(2020년생)	97.3	2.7	100.0	(587)
5세반(2019년생)	96.8	3.2	100.0	(641)
초1(2018년생)	87.5	12.5	100.0	(521)
$\chi^2$ (df)	95.231(4) <sup>***</sup>			

\*\*\*  $p < .001$

미디어 이용 시작 월령은 응답자 아동 전체 평균 약 26개월로, 아동 성별이 여아 일 때 미디어 이용을 시작한 시기가 더 빨랐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IV-1-8〉 미디어 이용 시작 월령

단위: 개월

구분	미디어 시작 월령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5.64	13.43	(2,707)
아동 성별			
남아	25.97	13.77	(1,431)
여아	25.26	13.04	(1,276)
<i>t</i>	1.364		

미디어 이용 시간은 주중 평균 약 55시간, 주말 평균 약 99시간이었으며, 주중 미디어 이용 시간은 가구 소득, 아동 성별, 자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가구 소득이 1~4분위일 때 미디어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약 1시간 10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 약 58분, 여아 약 51분으로 남아가 더 많이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었다. 자녀 연령은 초등학교 1학년일 경우 하루 평균 약 1시간 8분으로 이외 연령에 비해 미디어를 많이 이용하였다.

주말 미디어 이용 시간은 부부의 맞벌이 여부, 가구 소득, 아동 성별, 자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부모가 외벌이일 경우 미디어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약 1시간 43분으로 맞벌이일 경우보다 많았고, 가구 소득이 1~4분위일 때 하루 평균 약 1시간 58분, 아동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일 경우 하루 평균 약 1시간 46분, 여아 약 1시간 32분으로 남아가 미디어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 연령은 초등학교 1학년일 때 하루 평균 약 2시간 11분으로 미디어 이용 시간이 가장 많게 나타났다.

〈표 IV-1-9〉 미디어 이용 시간 - 주중, 주말 1일 평균

단위: 분(명)

구분	주중 미디어 이용 시간		(수)	주말 미디어 이용 시간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5.06	42.84	(2,533)	99.42	75.61	(2,674)
맞벌이 여부						
맞벌이	53.87	39.75	(1,522)	96.72	70.54	(1,608)
외벌이	56.84	47.06	(1,011)	103.49	82.53	(1,066)
<i>t</i>	-1.709			-2.200*		
가구 소득 307만원 이하(1~4분위)	70.36	75.55	(195)	118.36	103.39	(198)

구분	주중 미디어 이용 시간		(수)	주말 미디어 이용 시간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308~467만원(5~6분위)	58.23	44.93	(574)	106.99	86.02	(595)
468~680만원(7~8분위)	55.23	38.36	(877)	101.88	71.36	(937)
681만원(9~10분위이상)	49.47	33.81	(887)	88.22	63.32	(944)
<i>F</i>	14.623***			13.564***		
아동 성별						
남아	58.47	48.81	(1,329)	106.33	83.12	(1,413)
여아	51.28	34.71	(1,204)	91.68	65.37	(1,261)
<i>t</i>	4.305***			5.091***		
자녀 연령(반연령)						
2세반(2022년생)	51.55	36.79	(482)	77.80	56.55	(512)
3세반(2021년생)	48.44	32.63	(506)	83.80	62.49	(531)
4세반(2020년생)	53.56	43.71	(534)	97.42	70.78	(565)
5세반(2019년생)	55.24	37.49	(575)	109.54	79.14	(614)
초1(2018년생)	68.17	59.24	(437)	131.05	94.49	(452)
<i>F</i>	14.525***			41.07***		

\* $p < .05$ , \*\*\* $p < .001$ 

## 2. 부모가 평정한 아동 발달 현황

### 가. 영역별 발달 현황

부모가 영유아와 초등학교 1학년생 자녀를 대상으로 5점 척도로 평정한 발달 점수 평균은 언어 발달 3.47점, 인지 발달 3.66점, 정서 발달 3.61점, 사회성 발달 3.36점, 신체 발달 3.48점으로 인지 발달에 대한 평정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사회성 발달 평정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발달은 가구소득이나 아동 성별, 자녀 연령에 따라 일부 차이를 나타냈다.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정서 발달에 대한 평정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사회성 발달과 신체 발달은 가구 소득 5~6분위일 경우에 가장 낮게 평정되었으며, 1~4분위일 경우 그다음으로 낮았고, 이후는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평정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신체 발달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아동 성별에 따라서는 신체 발달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차이가 있었다.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모두 여아가 남아보다 평정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인지 발달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인지 발달에 대한 평정은 2세반의 경우 가장 높았고, 3세반의 경우 가장 낮았다.

〈표 IV-2-1〉 부모가 평정한 자녀 발달 현황

단위: 점(명)

구분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신체 발달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3.47	1.01	3.66	0.87	3.61	0.91	3.36	0.90	3.48	0.89	(2,835)
가구 소득											
307만원 이하 (1~4분위)	3.25	1.08	3.42	0.93	3.53	1.01	3.31	0.87	3.42	0.95	(202)
308~467만원 (5~6분위)	3.29	0.98	3.58	0.84	3.51	0.87	3.26	0.87	3.41	0.83	(675)
468~680만원 (7~8분위)	3.46	0.98	3.64	0.86	3.62	0.91	3.38	0.91	3.48	0.91	(978)
681만원 (9~10분위이상)	3.64	1.00	3.78	0.86	3.69	0.91	3.43	0.90	3.52	0.90	(980)
<i>F</i>	19.871***		14.139***		6.172***		5.141**		2.409		
아동 성별											
남아	3.31	1.05	3.54	0.87	3.45	0.91	3.26	0.90	3.45	0.90	(1,453)
여아	3.63	0.94	3.78	0.85	3.78	0.89	3.48	0.88	3.50	0.88	(1,382)
<i>t</i>	-8.446***		-7.133***		-9.827***		-6.717***		-1.506		
자녀 연령(반연령)											
2세반 (2022년생)	3.52	1.00	3.76	0.78	3.70	0.81	3.38	0.82	3.48	0.88	(529)
3세반 (2021년생)	3.43	1.09	3.62	0.94	3.60	0.95	3.32	0.93	3.46	0.92	(558)
4세반 (2020년생)	3.45	1.02	3.63	0.89	3.58	0.94	3.31	0.95	3.44	0.90	(587)
5세반 (2019년생)	3.49	1.01	3.64	0.91	3.57	0.98	3.44	0.93	3.52	0.92	(641)
초1 (2018년생)	3.45	0.89	3.66	0.80	3.63	0.84	3.38	0.83	3.49	0.85	(521)
<i>F</i>	0.785		2.409*		1.920		2.148		0.684		

주: 5점척도임(1점: 매우 늦음 ~ 5점: 매우 빠름)

\* $p < .05$ , \*\* $p < .01$ , \*\*\* $p < .001$

### 3. 연령별·영역별 발달 특성

#### 가. 학업능력(2018-2019년생)

아동의 학업능력을 5세반과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언어 및 문해 능력은 3.80점, 수리적 사고는 3.59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능력은 가구 소득, 아동 성별, 자녀 연령, 기관 현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가구 소득에 따라서 언어 및 문해 능력, 수리적 사고 모두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점수도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아동 성별에 따라서는 언어 및 문해 능력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아가 남아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언어 및 문해 능력과 수리적 사고에서 차이를 보였다. 2가지 모두 초1인 경우가 5세반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기관 현원에 따라서도 언어 및 문해 능력과 수리적 사고에서 차이를 보였다. 언어 및 문해 능력은 기관 현원이 많아질수록 점수도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수리적 사고에서는 101인 이상에서 가장 점수가 높았고, 20인 이하에서 가장 점수가 낮았으나, 21~50인인 경우의 점수가 51~100인인 경우의 점수보다 높아서 일관된 경향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표 IV-3-1〉 학업능력(2018-2019년생)

단위: 점(명)

구분	언어 및 문해 능력		수리적 사고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80	0.78	3.59	0.86	(1,162)
가구 소득					
307만원 이하(1~4분위)	3.58	0.93	3.39	0.99	(77)
308~467만원(5~6분위)	3.69	0.72	3.39	0.84	(290)
468~680만원(7~8분위)	3.80	0.78	3.60	0.85	(417)
681만원(9~10분위이상)	3.93	0.77	3.77	0.83	(377)
<i>F</i>	7.434***		12.331***		
아동 성별					
남아	3.71	0.82	3.59	0.89	(596)
여아	3.90	0.73	3.58	0.83	(565)
<i>t</i>	-4.143***		0.235		
자녀 연령(반연령)					
5세반(2019년생)	3.69	0.85	3.50	0.91	(641)
초1(2018년생)	3.94	0.66	3.69	0.78	(521)
<i>t</i>	-5.749***		-3.828***		

구분	언어 및 문해 능력		수리적 사고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기관 현원					
20인 이하	3.68	0.83	3.39	0.96	(99)
21~50인	3.77	0.84	3.60	0.89	(218)
51~100인	3.75	0.79	3.52	0.87	(462)
101인 이상	3.91	0.72	3.71	0.79	(383)
<i>F</i>	4.226**		5.365***		

주: 1) 5점척도임(1점: 아직 하지 않음 ~ 5점: 능숙함)

2) 2018-2019년생만 응답

\*\**p* < .01, \*\*\**p* < .001

2019~2021년생 유아를 대상으로 자기조절 학습능력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은 3.66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능력은 가구 소득과 아동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점수도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아동 성별에 따라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IV-3-2〉 자기조절 학습능력(2019-2021년생): 2차년도 추가 문항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66	0.66	(1,785)
가구 소득			
307만원 이하(1~4분위)	3.51	0.80	(126)
308~467만원(5~6분위)	3.56	0.64	(413)
468~680만원(7~8분위)	3.62	0.63	(624)
681만원(9~10분위이상)	3.78	0.65	(621)
<i>F</i>	13.411***		
아동 성별			
남아	3.58	0.71	(915)
여아	3.74	0.59	(870)
<i>t</i>	-5.035***		
자녀 연령(반연령)			
3세반(2021년생)	3.61	0.67	(558)
4세반(2020년생)	3.67	0.68	(587)
5세반(2019년생)	3.69	0.62	(641)
<i>F</i>	2.258		
기관 현원			
20인 이하	3.61	0.75	(102)
21~50인	3.61	0.70	(378)
51~100인	3.66	0.66	(753)
101인 이상	3.69	0.61	(552)
<i>F</i>	1.172		

주: 1) 5점척도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2) 2019-2022년생만 응답

\*\*\**p* < .001

## 나. 사회 및 정서 발달(2019-2022년생)

아동의 사회 및 정서발달을 나타내는 실행기능을 유아를 대상으로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억제는 3.35점, 주의전환은 3.20점, 감정조절은 3.29점, 작업기억은 3.36점, 계획조직은 3.33점으로 주의전환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실행기능은 가구 소득, 아동 성별, 자녀 연령, 기관 현원에 따라 항목별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었다.

실행기능 중 주의전환과 감정조절을 제외한 억제, 작업기억, 계획조직에서 가구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뚜렷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3가지 모두에서 가구소득이 9~10분위 이상일 경우 점수가 가장 높았다.

아동 성별에 따라서는 실행기능의 5가지 모든 영역에서 여아의 점수가 남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실행기능 중 5가지 영역 모두에서 차이가 있었다. 주의전환을 제외한 4가지 영역에서 5세반일 경우 점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주의전환은 2세반에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5가지 영역 공통적으로 3세반일 경우 점수가 가장 낮았다.

기관 현원에 따라서는 실행기능 중 주의전환과 감정조절에서 차이를 보였다. 주의전환에서는 21~50인일 경우 점수가 가장 높았고, 101인 이상일 경우 점수가 가장 낮았다. 감정조절에서는 21~50인일 경우 점수가 가장 높았고, 51~100인일 경우 점수가 가장 낮았다(〈표 IV-3-3〉 참조).

〈표 IV-3-3〉 실행기능(억제, 주의전환, 감정조절, 작업기억, 계획조직)(2019-2022년생)

단위: 점(명)

구분	억제		주의전환		감정조절		작업기억		계획조직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3.35	0.56	3.20	0.57	3.29	0.55	3.36	0.53	3.33	0.52	(2,314)
가구 소득											
307만원 이하(1~4분위)	3.32	0.67	3.29	0.59	3.29	0.62	3.31	0.64	3.35	0.59	(161)
308~467만원(5~6분위)	3.32	0.55	3.20	0.56	3.28	0.55	3.33	0.54	3.30	0.53	(532)
468~680만원(7~8분위)	3.32	0.56	3.17	0.56	3.25	0.57	3.33	0.54	3.32	0.54	(802)
681만원(9~10분위이상)	3.40	0.54	3.20	0.57	3.33	0.53	3.41	0.49	3.37	0.49	(819)
<i>F</i>	3.504*		1.959		2.384		4.620**		2.741*		
아동 성별											
남아	3.25	0.59	3.16	0.58	3.24	0.57	3.28	0.56	3.27	0.54	(1,185)

구분	억제		주의전환		감정조절		작업기억		계획조직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여아	3.45	0.51	3.24	0.55	3.34	0.54	3.43	0.49	3.40	0.50	(1,129)
<i>t</i>	-8.813***		-3.248**		-4.479***		-6.815***		-5.698***		
자녀 연령(반연령)											
2세반(2022년생)	3.39	0.54	3.24	0.53	3.33	0.53	3.38	0.51	3.32	0.50	(529)
3세반(2021년생)	3.29	0.57	3.15	0.56	3.22	0.58	3.27	0.56	3.30	0.54	(558)
4세반(2020년생)	3.31	0.58	3.17	0.59	3.25	0.58	3.34	0.54	3.33	0.54	(587)
5세반(2019년생)	3.40	0.55	3.23	0.57	3.35	0.53	3.43	0.50	3.38	0.51	(641)
<i>F</i>	5.747***		3.331*		7.283***		9.204***		2.919*		
기관 현원											
20인 이하	3.32	0.58	3.22	0.55	3.27	0.50	3.36	0.55	3.35	0.52	(164)
21~50인	3.36	0.55	3.26	0.57	3.34	0.54	3.37	0.53	3.38	0.51	(544)
51~100인	3.34	0.56	3.18	0.56	3.25	0.58	3.34	0.53	3.31	0.51	(996)
101인 이상	3.36	0.57	3.15	0.58	3.31	0.55	3.38	0.53	3.33	0.54	(609)
<i>F</i>	0.446		4.217**		3.234*		0.870		2.273		

주: 1) 4점척도임(1점: 매우 그렇다 ~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역코딩함.

2) 2019~2022년생만 응답

\* $p < .05$ , \*\* $p < .01$ , \*\*\* $p < .001$

초등학교 1학년생(2018년생)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을 3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1.64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이러한 문제행동 점수는 가구 소득, 아동 성별, 기관 현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 5~6분위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고, 9~10분위 이상에서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아동 성별에 따라서는 여아의 점수가 남아보다 높았다. 기관 현원에 따라서는 기관 현원이 적어질수록 문제행동 점수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표 IV-3-4〉 참조).

〈표 IV-3-4〉 문제행동(2018년생) : 2차년도 추가 문항

단위: 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1.65	0.38	(521)
가구 소득			
307만원 이하(1~4분위)	1.60	0.38	(41)
308~467만원(5~6분위)	1.85	0.39	(143)
468~680만원(7~8분위)	1.59	0.33	(176)
681만원(9~10분위이상)	1.57	0.34	(161)
<i>F</i>	20.146***		
아동 성별			
남아	1.62	0.36	(267)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여아	1.69	0.39	(254)
<i>t</i>	-2.087*		
기관 현원			
20인 이하	1.88	0.42	(58)
21~50인	1.69	0.38	(85)
51~100인	1.66	0.38	(210)
101인 이상	1.55	0.32	(168)
<i>F</i>	11.759***		

주: 1) 3점척도임(1점: 전혀 아니다 ~ 3점: 자주 그렇다)

2) 2018년생만 응답

\*  $p < .05$ , \*\*\*  $p < .001$

### 다. 스트레스, 행복감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을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스트레스 수준은 2.47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비율을 살펴보면, 스트레스 수준에서는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는 비율이 4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은 가구소득에 따라서만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에 따른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진 않았으나, 가구소득이 1~4분위인 경우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았고, 9~10분위 이상인 경우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낮았다.

〈표 IV-3-5〉 스트레스 수준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다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다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6.3	44.3	45.5	3.9	100.0 (2,835)	2.47	0.67
가구 소득							
307만원 이하(1~4분위)	8.4	32.9	53.3	5.3	100.0 (202)	2.56	0.72
308~467만원(5~6분위)	6.0	45.2	45.0	3.8	100.0 (675)	2.47	0.67
468~680만원(7~8분위)	5.6	42.5	47.3	4.7	100.0 (978)	2.51	0.67
681만원(9~10분위이상)	6.8	47.9	42.4	2.8	100.0 (980)	2.41	0.66
$X^2$ (df) / <i>F</i>	24.060(9)**					4.713**	
아동 성별							
남아	7.3	42.3	46.0	4.4	100.0 (1,453)	2.47	0.70
여아	5.2	46.5	44.9	3.3	100.0 (1,382)	2.46	0.65
$X^2$ (df) / <i>t</i>	10.423(3)*					0.413	

구분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다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다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지역 규모							
대도시	6.3	46.0	44.3	3.4	100.0 (1,136)	2.45	0.66
중소도시	6.2	43.6	45.9	4.3	100.0 (1,201)	2.48	0.68
읍면	6.5	42.3	47.3	3.8	100.0 (497)	2.48	0.68
$X^2$ (df) / $F$	3.339(6)					0.930	
자녀 연령(반연령)							
2세반(2022년생)	7.8	45.7	43.6	2.9	100.0 (529)	2.42	0.68
3세반(2021년생)	5.6	43.8	46.9	3.7	100.0 (558)	2.49	0.66
4세반(2020년생)	6.5	43.9	44.8	4.8	100.0 (587)	2.48	0.69
5세반(2019년생)	6.7	43.5	46.8	3.1	100.0 (641)	2.46	0.67
초1(2018년생)	4.9	45.0	45.1	5.0	100.0 (521)	2.50	0.67
$X^2$ (df) / $F$	10.769(12)					1.284	

주: 4점 척도임  
\* $p < .05$ , \*\* $p < .01$

아동의 행복도를 7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행복도는 5.91점으로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점이 51.6%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행복도에 있어서는 가구소득, 자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행복도는 가구 소득이 9~10분위 이상일 때 가장 높았고, 5~6분위일 경우 가장 낮았다. 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행복도 점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표 IV-3-6〉 행복도

단위: %(명), 점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0	0.1	0.8	2.6	22.6	51.6	22.2	100.0 (2,835)	5.91	0.80
가구 소득										
307만원 이하(1~4분위)	0.0	0.3	2.6	2.3	19.9	50.7	24.3	100.0 (202)	5.91	0.90
308~467만원(5~6분위)	0.0	0.2	0.7	2.3	31.9	47.5	17.5	100.0 (675)	5.78	0.80
468~680만원(7~8분위)	0.0	0.2	0.9	2.0	21.6	54.9	20.5	100.0 (978)	5.91	0.78
681만원(9~10분위이상)	0.0	0.0	0.4	3.6	17.7	51.4	26.9	100.0 (980)	6.01	0.80
$F$									10.673***	
아동 성별										
남아	0.0	0.1	0.9	2.5	23.2	50.6	22.6	100.0 (1,453)	5.91	0.81
여아	0.0	0.2	0.7	2.8	21.9	52.7	21.8	100.0 (1,382)	5.92	0.79
$t$									-0.207	
자녀 연령(반연령)										
2세반(2022년생)	0.0	0.0	0.4	1.9	16.3	53.6	27.7	100.0 (529)	6.06	0.74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평균	표준 편차
	3세반(2021년생)	0.0	0.3	0.7	3.0	17.0	54.8			
4세반(2020년생)	0.0	0.3	0.5	1.4	24.5	49.9	23.3	100.0 (587)	5.93	0.80
5세반(2019년생)	0.0	0.1	0.5	3.4	21.1	53.7	21.2	100.0 (641)	5.91	0.78
초1(2018년생)	0.0	0.0	2.0	3.4	34.5	45.5	14.6	100.0 (521)	5.67	0.84
<i>F</i>									17.869	***
지역 규모										
대도시	0.0	0.0	0.9	3.8	22.4	50.8	22.1	100.0 (1,136)	5.89	0.82
중소도시	0.0	0.2	0.9	1.7	21.0	53.9	22.3	100.0 (1,201)	5.94	0.78
읍면	0.0	0.2	0.3	2.3	26.7	47.9	22.5	100.0 (497)	5.89	0.80
<i>F</i>									1.422	

주: 7점 척도임

\*\*\*  $p < .001$

## 4. 아동의 건강 특성

### 1) 안경 착용 여부

조사 대상 아동 중 3.6%가 안경을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착용 비율은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높아졌는데,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안경 착용 비율이 9.7%로 5세반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라서 도시 규모가 커질수록 안경 착용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IV-4-1〉 아동의 안경 착용 여부

단위: %, 개월(명)

구분	착용 여부		계(수)	
	착용함	착용하지 않음		
전체	3.6	96.4	100.0	(2,835)
자녀 연령(반연령)				
2세반(2022년생)	0.9	99.1	100.0	(529)
3세반(2021년생)	1.2	98.8	100.0	(558)
4세반(2020년생)	3.4	96.6	100.0	(587)
5세반(2019년생)	2.9	97.1	100.0	(641)
초1(2018년생)	9.7	90.3	100.0	(521)
$X^2$ (df)	77.971(4)***			
지역 규모				
대도시	3.8	96.2	100.0	(1,136)
중소도시	3.7	96.3	100.0	(1,201)

구분	착용 여부		계(수)	
	착용함	착용하지 않음		
음면	2.6	97.4	100.0	(497)
$\chi^2$ (df)	1.579(2)			

\*\*\*  $p < .001$

## 2) 아동의 건강상태

조사 대상 아동의 건강상태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5점 척도 중 4.10점으로 대체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좋다는 응답이 55.1%로 가장 높았다. 아동의 건강상태는 가구 소득, 아동 성별, 자녀 연령, 지역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아동의 건강상태는 가구소득이 9~10분위 이상인 경우 상대적으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6분위인 경우 가장 낮았다. 아동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의 건강 상태 점수가 여아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상태 점수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지역 규모가 커질수록 건강상태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IV-4-2〉 아동 건강 상태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나쁨	대체로 나쁨	보통	대체로 좋음	매우 좋음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0	0.8	16.1	55.1	28.0	100.0 (2,835)	4.10	0.68
가구 소득								
307만원 이하(1~4분위)	0.0	1.2	16.7	51.2	30.9	100.0 (202)	4.12	0.72
308~467만원(5~6분위)	0.0	0.6	25.1	49.1	25.2	100.0 (675)	3.99	0.73
468~680만원(7~8분위)	0.1	1.2	14.2	58.6	25.9	100.0 (978)	4.09	0.67
681만원(9~10분위이상)	0.0	0.5	11.6	56.6	31.4	100.0 (980)	4.19	0.64
$\chi^2$ (df) / F	69.988(12)***						11.794***	
아동 성별								
남아	0.0	0.6	15.0	55.5	28.9	100.0 (1,453)	4.13	0.67
여아	0.1	1.0	17.2	54.7	27.0	100.0 (1,382)	4.08	0.70
$\chi^2$ (df) / t	5.731(4)						2.009*	
자녀 연령(반연령)								
2세반(2022년생)	0.0	0.4	10.9	55.6	33.2	100.0 (529)	4.22	0.64
3세반(2021년생)	0.2	1.0	15.0	54.9	29.0	100.0 (558)	4.12	0.69
4세반(2020년생)	0.0	1.4	13.3	57.6	27.7	100.0 (587)	4.11	0.67
5세반(2019년생)	0.0	1.0	14.4	57.9	26.8	100.0 (641)	4.10	0.66
초1(2018년생)	0.0	0.2	27.6	48.7	23.5	100.0 (521)	3.95	0.72
$\chi^2$ (df) / F	81.397(16)***						9.986***	

구분	매우 나쁨	대체로 나쁨	보통	대체로 좋음	매우 좋음	계(수)	평균	표준편차
지역 규모								
대도시	0.1	0.8	14.6	54.5	30.0	100.0 (1,136)	4.13	0.68
중소도시	0.0	0.7	16.3	55.9	27.2	100.0 (1,201)	4.10	0.67
읍면	0.0	1.2	18.8	54.8	25.2	100.0 (497)	4.04	0.70
$\chi^2$ (df) / F								3.438*

\*  $p < .05$ , \*\*  $p < .001$

### 3) 아동의 장애/질환 여부 및 장애 정도

아동의 장애나 만성질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는 비율은 2.5%, 만성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는 비율은 7.7%로 나타났다. 복수 응답으로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긴 어려우나, 수치상으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장애 진단은 외벌이의 경우, 가구 소득이 1~4분위인 경우, 아동 성별이 남아인 경우, 4세반인 경우,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읍면 지역인 경우 진단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만성질환은 외벌이의 경우, 가구 소득이 7~8분위인 경우, 남아인 경우, 2세반인 경우, 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읍면 지역인 경우 진단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IV-4-3〉 참조).

〈표 IV-4-3〉 아동의 장애/만성질환 여부(복수)

구분	장애 진단 받은 적 있음	만성질환 진단 받은 적 있음	장애/만성질환 둘 다 받은 적 없음	단위: %(명) (수)
전체	2.5	7.7	90.1	(2,835)
맞벌이 여부				
맞벌이	2.1	7.1	91.1	(1,727)
외벌이	3.0	8.7	88.5	(1,108)
가구 소득				
307만원 이하(1~4분위)	3.6	5.4	91.3	(202)
308~467만원(5~6분위)	2.5	7.6	90.3	(675)
468~680만원(7~8분위)	2.4	8.2	89.6	(978)
681만원(9~10분위이상)	2.3	7.8	90.1	(980)
아동 성별				
남아	3.0	8.7	88.4	(1,453)
여아	1.9	6.7	91.8	(1,382)
자녀 연령(반연령)				
2세반(2022년생)	1.2	9.3	90.0	(529)

구분	장애 진단 받은 적 있음	만성질환 진단 받은 적 있음	장애/만성질환 둘 다 받은 적 없음	(수)
3세반(2021년생)	2.8	8.4	89.1	(558)
4세반(2020년생)	3.4	6.3	90.5	(587)
5세반(2019년생)	2.9	8.4	88.9	(641)
초1(2018년생)	1.8	6.2	92.2	(521)
기관 유형				
국공립/법인등 어린이집	2.9	9.3	88.3	(925)
민간/가정 어린이집	1.9	7.9	90.4	(320)
국공립 유치원	4.5	6.7	89.1	(351)
사립 유치원	1.6	7.3	91.1	(717)
공립 초등학교	1.9	6.2	92.2	(514)
사립 초등학교	0.0	8.8	91.2	(7)
지역 규모				
대도시	2.5	7.1	90.4	(1,136)
중소도시	2.2	7.4	90.8	(1,201)
읍면	2.9	9.9	87.6	(497)

아동의 장애 정도는 중증인 경우가 33.2%, 경증인 경우가 66.8%였다. 아동 성별에 따라 중증인 경우는 남아가, 경증인 경우는 여아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표 IV-4-4〉 참조).

〈표 IV-4-4〉 아동의 장애 정도

구분	단위: %(명)		
	중증	경증	계(수)
전체	33.2	66.8	100.0 (70)
아동 성별			
남아	40.0	60.0	100.0 (43)
여아	21.9	78.1	100.0 (26)
$\chi^2$ (df)	1.975(1)		

부모의 장애나 만성질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는 비율은 0.6%, 만성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는 비율은 8.4%로 나타났다. 자녀가 남아인 경우 장애 진단을 받거나 만성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경우가 여아인 경우보다 높았다.

〈표 IV-4-5〉 부모의 장애/만성질환 여부(복수)

단위: %(명)

구분	장애 진단 받은 적 있음	만성질환 진단 받은 적 있음	장애/만성질환 진단 둘 다 받은 적 없음	(수)
전체	0.6	8.4	91.1	(2,835)
아동 성별				
남아	0.9	8.8	90.4	(1,453)
여아	0.4	8.0	91.8	(1,382)

## 5. 부모 및 양육환경 특성

### 가. 양육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부모의 양육 특성을 조사하였다. 양육의 어려움을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평균 2.32점으로 보통(3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양육의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특성에 따라서는 가구 소득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맞벌이 가구 2.29점, 외벌이 가구 2.37점으로 외벌이 가구에서 양육의 어려움을 느끼는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307만 원 이하(1~4분위) 구간 평균이 2.41점, 308~467만 원(5~6분위) 구간 2.42점, 468~680만 원(7~8분위) 구간 2.33점, 681만 원(9~10분위 이상) 구간 2.22점으로 소득 구간이 낮을수록 양육의 어려움 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양육 방식에 대해서 조사에 응답한 부모들은 5점 척도 평균 3.98점으로 긍정적인 양육 방식을 지닌 것으로 평가하였다. 가구 소득과 자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양육 방식이 긍정적인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의 양육 방식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은 4점 척도로 일주일 동안 활동하는 빈도를 응답하게 하였다.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은 평균 2.62점으로 일주일 동안 2~3회 정도 자녀와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또한 가구 소득과 아동 성별, 자녀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가구 소득이 높고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빈도가 많아지며, 자녀가 여아인 경우가 남아인 경우보다 더 자주 자녀와 활동을 함께 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V-5-1〉 부모의 양육 특성

단위: 점(명)

구분	양육의 어려움		양육 방식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32	0.73	3.98	0.53	2.62	0.53	(2,835)
맞벌이 여부							
맞벌이	2.29	0.72	3.99	0.54	2.63	0.53	(1,727)
외벌이	2.37	0.75	3.97	0.51	2.62	0.54	(1,108)
<i>t</i>	-2.667**		1.228		0.491		
가구 소득							
307만원 이하(1~4분위)	2.41	0.80	3.91	0.58	2.51	0.57	(202)
308~467만원(5~6분위)	2.42	0.74	3.88	0.52	2.57	0.51	(675)
468~680만원(7~8분위)	2.33	0.72	3.99	0.51	2.62	0.52	(978)
681만원(9~10분위이상)	2.22	0.71	4.05	0.53	2.68	0.54	(980)
<i>F</i>	11.780***		14.892***		8.813***		
아동 성별							
남아	2.32	0.76	3.99	0.52	2.60	0.53	(1,453)
여아	2.32	0.70	3.97	0.54	2.65	0.53	(1,382)
<i>t</i>	-0.117		0.814		-2.632**		
자녀 연령(반연령)							
2세반(2022년생)	2.31	0.74	4.07	0.49	2.75	0.52	(529)
3세반(2021년생)	2.29	0.73	4.07	0.52	2.68	0.54	(558)
4세반(2020년생)	2.34	0.75	3.96	0.56	2.64	0.52	(587)
5세반(2019년생)	2.28	0.75	3.95	0.52	2.62	0.54	(641)
초1(2018년생)	2.40	0.68	3.85	0.51	2.41	0.48	(521)
<i>F</i>	2.253		17.080***		31.480***		

주: 1) 양육의 어려움 및 양육방식은 5점 척도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2)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은 4점 척도임(1점: 전혀 하지 않음 ~ 4점: 매일 함)

\*\**p* < .01, \*\*\**p* < .001

## 나. 주관적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부모들에게 우리 사회의 구조를 나타내는 사다리를 제시하고 주관적인 위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응답자의 위치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28.2%가 중간보다 한 단계 위인 여섯 번째에 위치한다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22.1%가 다섯 번째 위치, 19.1%가 일곱 번째 위치에 해당한다고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이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간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다리 구간을 10점 척도로 하여 평균을 산출한 결과, 전체 평균 5.81점으로 중간 단계와 그 위 단계 사이 정도로 나타났다. 가구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맞벌이 여부, 가구 소득, 아동 성별에 따라서 응답

자가 생각하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구는 5.93점, 외벌이 가구는 5.61점으로 외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는 가구 소득과도 연동이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가구 소득에 따라서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차이가 나타났다. 307만 원 이하 소득 그룹은 4.99점, 308~467만 원 그룹은 5.46점, 468~680만 원 그룹은 5.52점, 681만 원 이상 그룹은 6.40점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주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별에 따라서는 자녀가 여아인 경우가 남아인 경우보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IV-5-2〉 참조).

〈표 IV-5-2〉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대한민국): 2차년도 추가 문항

단위: %(명), 점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8	1.6	5.3	9.9	22.1	28.0	19.1	10.4	1.8	0.9	100(2,835)	5.81	1.56
맞벌이 여부													
맞벌이	0.8	1.1	4.6	9.7	20.4	27.7	20.7	12.4	1.7	1.0	100(1,727)	5.93	1.55
외벌이	0.7	2.4	6.5	10.3	24.9	28.6	16.4	7.3	1.9	0.8	100(1,108)	5.61	1.56
<i>t</i>													5.301***
가구 소득													
307만원 이하(1~4분위)	2.3	6.0	9.7	16.5	26.6	26.2	5.0	5.5	0.9	1.3	100(202)	4.99	1.70
308~467만원(5~6분위)	1.1	2.4	7.4	13.2	28.3	23.3	12.4	10.9	0.2	0.7	100(675)	5.46	1.60
468~680만원(7~8분위)	0.7	1.3	6.7	10.8	24.2	30.4	17.7	6.1	1.5	0.7	100(978)	5.62	1.48
681만원(9~10분위 이상)	0.2	0.6	1.6	5.5	15.0	29.4	27.9	15.4	3.4	1.2	100(980)	6.40	1.37
<i>F</i>													88.813***
아동 성별													
남아	0.7	1.9	5.8	9.7	24.4	26.7	19.3	8.7	1.8	1.0	100(1,453)	5.73	1.56
여아	0.8	1.3	4.8	10.2	19.8	29.5	18.8	12.2	1.8	0.9	100(1,382)	5.88	1.55
<i>t</i>													-2.554*
자녀 연령(반연령)													
2세반(2022년생)	0.7	2.8	6.4	9.9	23.3	27.1	17.3	9.4	2.8	0.4	100(529)	5.69	1.61
3세반(2021년생)	1.4	1.3	3.7	10.9	21.6	29.6	19.1	9.7	1.6	1.1	100(558)	5.81	1.55
4세반(2020년생)	0.7	0.9	6.2	8.5	21.9	31.4	21.5	6.7	1.7	0.6	100(587)	5.78	1.45
5세반(2019년생)	0.8	2.1	5.1	9.1	22.7	27.1	20.7	9.5	1.3	1.6	100(641)	5.82	1.58
초1(2018년생)	0.2	1.1	5.3	11.5	21.2	24.6	16.1	17.3	1.7	0.9	100(521)	5.93	1.59
<i>F</i>													1.612

주: 10점 척도임  
\* $p < .05$ , \*\*\* $p < .001$



지역사회 또는 본 조사 참여 부모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질문한 결과, 대한민국 전체에서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판단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27.4%가 중간보다 한 단계 위인 여섯 번째에 위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23.0%가 다섯 번째 위치, 20.9%가 일곱 번째 위치에 해당한다고 응답하였다. 가구 특성에 따라서도 맞벌이 여부와 가구소득, 아동 성별에 따라 주관적 인식 수준이 차이가 있었으며, 그 경향성은 앞의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3〉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지역사회 또는 공동체) : 2차년도 추가 문항

단위: %(명), 점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6	2.0	5.1	8.8	23.0	27.4	20.9	8.7	2.3	1.2	100(2,835)	5.83	1.56
맞벌이 여부													
맞벌이	0.3	1.2	3.7	8.5	21.5	28.4	22.8	9.6	2.6	1.3	100(1,727)	5.99	1.49
외벌이	1.1	3.2	7.3	9.2	25.3	25.9	17.9	7.4	1.8	1.0	100(1,108)	5.58	1.64
<i>t</i>													6.734***
가구 소득													
307만원 이하(1~4분위)	1.8	7.4	6.6	14.2	28.1	19.9	12.4	4.9	3.5	1.1	100(202)	5.22	1.82
308~467만원(5~6분위)	0.5	2.8	7.8	11.1	25.6	23.5	20.9	6.9	0.4	0.4	100(675)	5.52	1.53
468~680만원(7~8분위)	0.6	1.7	5.8	9.1	24.9	31.0	17.2	6.9	1.7	1.0	100(978)	5.69	1.50
681만원(9~10분위이상)	0.4	0.5	2.3	5.7	18.2	28.0	26.3	12.7	3.9	2.0	100(980)	6.31	1.47
<i>F</i>													54.793***
아동 성별													
남아	0.7	2.2	6.0	8.7	23.3	28.2	18.6	8.5	2.8	1.0	100(1,453)	5.77	1.59
여아	0.6	1.7	4.3	8.8	22.6	26.6	23.3	9.0	1.7	1.4	100(1,382)	5.89	1.53
<i>t</i>													-2.100*
자녀 연령(반연령)													
2세반(2022년생)	0.9	2.2	5.0	8.6	24.2	28.5	17.9	8.5	3.0	1.3	100(529)	5.80	1.60
3세반(2021년생)	0.3	1.6	5.3	8.4	24.8	27.1	18.6	9.9	2.3	1.7	100(558)	5.87	1.56
4세반(2020년생)	0.7	1.5	5.0	8.5	22.5	29.7	20.7	8.1	2.2	1.0	100(587)	5.84	1.52
5세반(2019년생)	0.7	3.0	5.9	7.9	22.8	25.3	21.0	10.6	1.9	1.0	100(641)	5.80	1.63
초1(2018년생)	0.5	1.4	4.4	10.6	20.6	26.7	26.5	6.3	2.0	1.0	100(521)	5.86	1.49
<i>F</i>													0.244

주: 10점 척도임  
\* $p < .05$ , \*\*\* $p < .001$

## 다. 동네 환경

본 조사에 참여한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5점 척도로 안전한 환경, 친구 및 이웃과의 관계, 여가/문화시설 이용,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모두 평균 3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중 친구 및 이웃과의 관계가 3.8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그다음으로 안전한 환경 3.74점, 여가/문화시설 이용 3.38점 순이며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3.69점으로 거주하는 동네 환경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5-4〉 동네 만족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단위: 점(명)
			(수)
1) 안전한 환경	3.74	0.93	(2,835)
2) 친구 및 이웃과의 관계	3.82	0.77	(2,835)
3) 여가/문화시설 이용	3.38	1.05	(2,835)
4) 전반적인 만족도	3.69	0.84	(2,835)

## 6. 기관 이용 특성

### 1) 이용 기관(현재)

본 연구에 참여한 전체 아동의 현재 이용하는 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음 〈표 IV-6-1〉과 같다. 전체 아동 중 25.3%가 사립유치원에 가장 많이 재원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국공립 외)어린이집 22.5%, (국공립)어린이집 21.4% 순으로 조사되었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 재원하는 기관 비율이 차이가 있었는데 맞벌이 가구에서는 (국공립 외)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나 (국공립 외)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비율이 전체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외벌이 가구에서는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비율이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공립)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비율은 19.2%로 맞벌이 가구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IV-6-1〉 영유아 자녀 현재 이용 기관: 2차년도 추가 문항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외)	반일제 이상 학원	공립 초등학교	사립 초등학교	계(수)
전체	12.4	25.3	21.4	22.5	0.0	18.1	0.2	100(2,835)
맞벌이 여부								
맞벌이	11.5	23.3	22.8	23.9	0.0	18.2	0.3	100(1,727)
외벌이	13.8	28.4	19.2	20.4	0.0	18.0	0.2	100(1,108)
$\chi^2$					2.328*			

\*  $p < .05$

## 2) 기관 이용 기간(기관, 반일제 학원)

본 조사에 참여한 아동의 출생부터 현재까지 이용한 기관의 이용 기간을 조사하였다. 유치원은 평균 21.55개월, 어린이집은 31.46개월, 반일제 이상 학원은 13.47개월, 초등학교는 7.15개월, 기타 기관은 12.14개월 재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맞벌이 가구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더 길게 이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서 분석한 현재 이용 기관의 이용 비율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재원 비율이 높고 이용 기간이 긴 것을 미루어 보아 맞벌이 가구에서 어린 연령부터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표 IV-6-2〉 영유아 자녀 기관 이용 기간: 2차년도 추가 문항

단위: 개월(명)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초등학교		기타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21.55	11.70	31.46	13.67	13.47	9.86	7.15	0.79	12.14	10.33	(2,835)
맞벌이 여부											
맞벌이	21.89	12.01	32.89	13.62	11.63	9.14	7.18	0.81	10.36	7.43	(1,727)
외벌이	21.12	11.28	29.32	13.46	15.40	10.37	7.10	0.75	13.51	12.12	(1,108)
$t$	1.208		6.322***		-1.515		1.240		-0.887		

\*\*\*  $p < .001$

반일제 학원을 이용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한 반일제 학원 유형의 이용 기간을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자 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나 영어학원은 평균 10.75개월, 놀이학교 12.86개월, 유아체능단 14.56개월, 기타 기간 9.36개월 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 응답자 수가 비슷한 수준이나 반일제 학원의 평균 이용 기간은 유아체능단 유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IV-6-3〉 영유아 자녀 반일제 학원 이용 기간: 2차년도 추가 문항

단위: 개월(명)

구분	영어학원		놀이학교		유아체능단		기타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0.75	9.03	12.86	11.07	14.56	9.21	9.36	7.79	(62)
맞벌이 여부									
맞벌이	10.40	9.76	3.00	0.00	11.60	9.23	9.13	8.28	(32)
외벌이	11.14	8.53	14.31	11.17	19.57	7.08	9.48	7.97	(30)
<i>t</i>	-0.206		-9)		-2.176*		-0.081		

\*  $p < .05$

## 7. 부모 응답 K-DST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관을 통해 학급/반의 영유아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같은 학급/반에서 월령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월령에 맞는 K-DST 문항에 응답하도록 설문을 설계하였다. 따라서 각 학급/반에 두 개의 월령에 따른 응답 결과를 제시하였다.

### 가. 1세반

1세반은 30~32개월과 33~35개월 월령에 따라 연령에 맞는 K-DST 도구를 사용하였다. 1세반에서 30~32개월 월령 그룹의 표본 수가 매우 적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심화평가권고 비율이 대근육 운동 2.6%, 소근육 운동 7.3%, 인지 9.9%, 언어 2.6%, 사회성 2.6%, 자조 9.9% 수준으로 인지

9) 케이스 가중값 합이 여러 집단 중 하나 이상에 대해 1보다 작으므로 *t*-값을 계산할 수 없음.

와 자조영역이 다소 높기는 하나 다른 연령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고 있다. 1세반 영유아의 경우 6개 영역에서 추적검사요망과 심화평가권고 비율은 20% 미만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또래 수준과 빠른 수준은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대근육 운동 영역에서는 두 연령 그룹 각각 또래 수준 61.5%, 63.5%이며 빠른 수준도 30~32개월 월령 그룹 22.1%, 33~35개월 월령 그룹 19.2%로 조사되었다. 소근육 운동, 사회성, 자조 영역은 또래 수준 비율이 두 월령 구분 모두 60% 수준으로 나타났고 언어 영역은 연구에 참여한 아동이 또래 수준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30~32개월 월령 그룹은 87.5%, 33~35개월 85.9%로 5개 영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또래보다 빠른 수준이라고 응답한 부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1〉 K-DST 응답 결과(1세반)

단위: %(명)

구분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또래 수준	빠른 수준	계(수)
대근육 운동	전체(30~32개월)	2.6	13.9	61.5	22.1	100.0( 22)
	전체(33~35개월)	4.1	13.2	63.5	19.2	100.0(126)
소근육 운동	전체(30~32개월)	7.3	12.8	57.8	22.1	100.0( 22)
	전체(33~35개월)	3.2	12.0	59.0	25.8	100.0(126)
인지	전체(30~32개월)	9.9	2.6	77.0	10.5	100.0( 22)
	전체(33~35개월)	4.8	7.0	64.1	24.1	100.0(126)
언어	전체(30~32개월)	2.6	9.9	87.5	0.0	100.0( 22)
	전체(33~35개월)	6.1	8.0	85.9	0.0	100.0(126)
사회성	전체(30~32개월)	2.6	13.7	59.1	24.6	100.0( 22)
	전체(33~35개월)	3.1	8.6	63.5	24.8	100.0(126)
자조	전체(30~32개월)	9.9	5.0	61.3	23.8	100.0( 22)
	전체(33~35개월)	2.4	14.4	66.0	17.3	100.0(126)

## 나. 2세반

2세반의 경우 36~41개월과 42~47개월 월령에 따라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영역으로 조사하였다. 대근육 운동 영역에서 2세반 중 월령이 낮은 그룹에서는 또래 수준이 7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빠른 수준 19.0%, 추적검사요망 7.1%, 심화평가 권고 1.7%로 나타났다. 42개월 이상 그룹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또래 수준 66.8%, 빠른 수준 21.0%, 추적검

사요망 9.7%, 심화평가권고 2.4%인 것을 알 수 있다.

소근육 운동 영역에서는 두 월령 모두 70% 이상 또래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추적검사요망은 각각 9.6%, 10.8%로 나타났다. 심화평가권고는 36~41개월 월령에서는 2.3%, 42~47개월 월령에서는 3.3%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지 영역에서 36~41개월 월령에서는 72.3%가 또래 수준으로 나타났고 빠른 수준 14.2%, 추적검사요망 10.3%, 심화평가권고 3.2%이며 42~47개월 월령의 영유아는 또래수준 68.6%, 빠른수준 18.9%, 추적검사요망 9.5%, 심화평가권고 2.9%로 조사되었다.

한편 언어 영역은 36~41개월 월령에서 또래수준이라는 응답이 90.7%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심화평가권고 6.1%, 추적검사 요망 3.2%로 나타났으며 42~47개월 월령에서는 또래수준 62.7%, 빠른 수준 24.5%, 추적검사 요망 10.2%, 심화평가권고 2.5%로 언어 발달이 빠른 수준이라는 응답이 앞서 분석한 다른 영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사회성 부분도 언어, 인지 영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또래수준이라고 평가하는 부모들이 36~41개월 67.6%, 42~47개월 66.4%로 나타났고 심화평가 권고는 각각 3.3%, 2.2%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자조 영역은 또래수준이라고 평가하는 부모들이 36~41개월 72.8%, 42~47개월 71.2%로 나타났고 심화평가 권고는 각각 3.8%, 4.6%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V-7-2〉 K-DST 응답 결과(2세반)

단위: %(명)

구분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또래 수준	빠른 수준	계(수)
대근육 운동	전체(36~41개월)	1.7	7.1	72.3	19.0	100.0(277)
	전체(42~47개월)	2.4	9.7	66.8	21.0	100.0(270)
소근육 운동	전체(36~41개월)	2.3	9.6	74.3	13.8	100.0(277)
	전체(42~47개월)	3.3	10.8	72.5	13.5	100.0(270)
인지	전체(36~41개월)	3.2	10.3	72.3	14.2	100.0(277)
	전체(42~47개월)	2.9	9.5	68.6	18.9	100.0(270)
언어	전체(36~41개월)	6.1	3.2	90.7	0.0	100.0(277)
	전체(42~47개월)	2.5	10.2	62.7	24.5	100.0(270)
사회성	전체(36~41개월)	3.3	12.5	67.6	16.7	100.0(277)
	전체(42~47개월)	2.2	9.6	66.4	21.8	100.0(270)
자조	전체(36~41개월)	3.8	8.9	72.8	14.5	100.0(277)
	전체(42~47개월)	4.6	8.4	71.2	15.8	100.0(270)

### 다. 3세반

3세반 영유아의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부분의 발달수준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영역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또래수준이라고 대략 60~70%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다른 부분은 54~59개월 월령에서 소근육 운동 영역이 또래 수준이라고 평가한 비중이 57.9%로 다소 낮았으며 언어 영역에서 48~53개월 월령이 또래 수준이라고 평가한 비중이 91.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2세반 36~41개월 월령에서 또래수준이라고 평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소근육 운동 영역과 언어 영역에서 48~53개월 월령 그룹과 54~59개월 월령 그룹의 또래 수준 비율이 차이를 보였는데 54~59개월 월령에서 또래 수준 응답이 낮은 만큼 빠른 수준으로 평가한 비율이 20% 이상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또래 수준과 빠른 수준을 합쳤을 때 모든 영역에서 80%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영역에서 심화평가 권고는 5% 이하, 추적검사요망은 5~11%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V-7-3〉 K-DST 응답 결과(3세반)

단위: %(명)

구분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또래 수준	빠른 수준	계(수)
대근육 운동	전체(48~53개월)	3.3	9.9	60.3	26.5	100.0(281)
	전체(54~59개월)	3.3	9.2	66.6	20.9	100.0(257)
소근육 운동	전체(48~53개월)	4.5	11.9	70.8	12.9	100.0(281)
	전체(54~59개월)	4.9	7.6	57.9	29.6	100.0(257)
인지	전체(48~53개월)	4.2	5.3	68.4	22.1	100.0(281)
	전체(54~59개월)	3.7	7.9	72.0	16.3	100.0(257)
언어	전체(48~53개월)	4.4	4.5	91.1	0.0	100.0(281)
	전체(54~59개월)	4.1	5.3	69.9	20.7	100.0(257)
사회성	전체(48~53개월)	3.2	7.7	68.9	20.3	100.0(281)
	전체(54~59개월)	3.0	8.1	70.4	18.4	100.0(257)
자조	전체(48~53개월)	3.6	5.8	71.1	19.5	100.0(281)
	전체(54~59개월)	3.1	9.9	69.2	17.8	100.0(257)

### 라. 4세반

본 조사에 참여한 4세반 영유아의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

성, 자조 부분의 발달 수준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영역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또래수준이라고 대략 70%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경향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60~65개월 월령에서 대근육 운동 영역이 또래 수준이라고 평가한 비중이 59.4%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대근육 운동 발달 수준이 빠른 수준이라고 평가한 비중이 29.6%로 높게 나타났다. 66~72개월 월령에서는 또래수준이라는 평가가 78.3%로 높게 나타난 반면, 빠른 수준이 10.4%로 낮아 월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소근육 운동 영역에서 60~65개월 월령이 심화평가권고 비중이 4.3%로 다른 영역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대부분 심화평가 권고는 5% 미만 수준이었으며 80% 이상이 또래 수준과 빠른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7-4〉 K-DST 응답 결과(4세반)

단위: %(명)

구분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또래 수준	빠른 수준	계(수)
대근육 운동	전체(60~65개월)	3.7	7.3	59.4	29.6	100.0(308)
	전체(66~72개월)	2.8	8.6	78.3	10.4	100.0(325)
소근육 운동	전체(60~65개월)	4.3	6.1	64.1	25.5	100.0(308)
	전체(66~72개월)	2.7	11.1	67.7	18.5	100.0(325)
인지	전체(60~65개월)	3.0	7.0	71.7	18.2	100.0(308)
	전체(66~72개월)	3.5	8.8	66.4	21.3	100.0(325)
언어	전체(60~65개월)	3.7	10.6	63.6	22.2	100.0(308)
	전체(66~72개월)	3.8	8.0	69.7	18.5	100.0(325)
사회성	전체(60~65개월)	2.2	14.1	61.6	22.1	100.0(308)
	전체(66~72개월)	3.4	9.6	69.5	17.5	100.0(325)
자조	전체(60~65개월)	3.7	5.4	70.9	20.0	100.0(308)
	전체(66~72개월)	3.8	7.8	71.9	16.5	100.0(325)

## 8. 소결

본 장에서는 총 2,835명의 부모 응답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발달과 생활 환경은 전반적으로 정상 발달 수준을 보였으나 소득·양육환경·지역 규모 등에 따라 발달의 일부 영역에서는 격차가 확인되었다. 이를 정리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중 하루 평균 돌봄시간은 어머니 6.58시간, 아버지 2.66시간이었고, 주말에는 각각 10.79시간과 7.58시간으로 증가하였는데, 맞벌이 가구에서는 어머니의 주중 돌봄시간이 감소하고, 아버지의 돌봄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돌봄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맞벌이 가구에서 아버지의 참여가 늘었다는 점은 긍정적 변화로 상호작용의 질을 어떻게 지원하느냐가 향후 발달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가 평정한 아동 발달의 5점 척도 평균은 인지 3.66점, 정서 3.61점, 언어 3.47점, 신체 3.48점, 사회성 3.36점으로, 인지가 상대적으로 높고 사회성이 낮게 나타났다. 소득이 높을수록 언어·인지·정서 점수가 높았고, 성별에 따라서는 여아의 점수가 남아보다 전반적으로 높았다.

셋째, 만 5세와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업능력은 언어·문해 3.80점, 수리 3.59점으로 언어·문해가 다소 높았고, 자기조절 학습능력은 3.66점이었다. 사회·정서 발달을 반영한 유아 실행기능(억제, 주의전환, 감정조절, 작업기억, 계획조직)은 주의전환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초등학교 1학년의 문제행동 평균은 1.65점(3점 척도)으로 나타나 문제행동의 우려가 높지는 않았다.

넷째, 부모의 양육 어려움(5점)은 평균 2.32점으로 보통 이하였고, 양육방식은 3.98점으로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소득이 높고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빈도가 높았으며,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10점 척도 평균 5.81점으로 중간 이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고, 지역생활 만족도는 친구·이웃관계 3.82점, 안전 3.74점, 문화시설 3.38점, 전반 3.6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부모들은 전반적으로 양육 어려움을 낮게, 양육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섯째, K-DST는 월령(1세: 30~35개월, 2세: 36~47개월, 3세: 48~59개월, 4세: 60~72개월)을 구분하여 6개 영역(대근육·소근육·인지·언어·사회성·자조)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전 연령·전 영역에서 '또래수준'과 '빠른수준'의 합이 대체로 80% 내외를 구성했고, '심화평가 권고'는 대부분 5% 미만의 소수로 보고되었다. 일부 월령·영역에서 '추적검사 요망' 비율이 두 자릿수 초반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정상 범주로 나타났다. 다만, '추적검사 요망' 비중이 두 자릿수 초반으로 나타난 일부 월령과 영역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여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V

## 2차년도 심층조사 결과

- 01 한국 영유아 베일리발달검사 결과
- 02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변화
- 03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의 발달 분석



## V. 2차년도 심층조사 결과

본 장에서는 자기보고식 조사를 활용하여 수집되는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영유아발달 수행검사, 코로나 전/중/후 임상데이터 분석,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 데이터 분석의 3가지 접근으로 분석하였다.

### 1. 한국 영유아 베일리발달검사 결과

본 심층조사는 약 2년여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코로나 세대 영유아를 대상으로 생애 초기 발달의 민감기인 영유아시기의 발달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영유아의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적응행동 등의 발달을 살펴보았다.

#### 가. 조사 대상

본 심층조사는 영유아의 발달 현황에 대한 심층조사로 발달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영유아 중 심층조사 참여를 희망하는 2022년 8월 ~ 2023년 7월생 영유아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영유아의 배경 변인을 지역, 가구형태(외벌이, 맞벌이), 소득수준(680만 원 이하, 680만 원 이상)에 따라 분류<sup>10)</sup>하여 <표 V-1-1>에 제시하였다.

<표 V-1-1> 연구 대상

단위: 명(%)

구분		남	여	전체
평균월령(SD)		33.42(2.90)	34.10(3.25)	33.78(3.09)
지역	서울	19( 19.0)	25( 25.0)	44( 44.0)
	경기	15( 15.0)	8( 8.0)	23( 23.0)
	충청	1( 1.0)	2( 2.0)	3( 3.0)
	경상	12( 12.0)	18( 18.0)	30( 30.0)

10) 샘플 수의 한계로 참여자의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함.

구분		남	여	전체
가구형태	전체	47( 47.0)	53( 53.0)	100(100.0)
	외벌이	12( 12.0)	22( 22.0)	34( 34.0)
	맞벌이	35( 35.0)	31( 31.0)	66( 66.0)
소득수준	전체	47( 47.0)	53( 53.0)	100(100.0)
	680이하	24( 24.0)	30( 30.0)	54( 54.0)
	680이상	23( 23.0)	23( 23.0)	46( 46.0)
	전체	47( 47.0)	53( 53.0)	100(100.0)

## 나. 조사 결과

### 1) 1~2세(반) 전반적인 발달 현황

#### 가) 1~2세(반)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발달

1~2세(반)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발달 결과는 <표 V-1-2>와 같다. 척도별 발달지수는 104.79~106.83(SD= 12.69~14.03)로 평균 수준이었다. 소검사별 환산점수는 10.12~11.80(SD= 2.48~3.29)로 모두 평균 수준이었다. 종합하면, 1~2세(반)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발달은 전반적으로 평균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V-1-2>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구분		환산점수 <sup>1)</sup> / 발달지수 <sup>2)</sup>
소검사	인지	10.91(2.65)
	수용언어	11.80(2.57)
	표현언어	10.12(2.48)
	소근육 운동	11.88(3.29)
	대근육 운동	10.94(2.49)
	사회정서	11.07(2.85)
척도	인지	105.41(13.13)
	언어 <sup>3)</sup>	105.20(12.69)
	운동 <sup>4)</sup>	106.83(14.03)
	사회정서 <sup>5)</sup>	104.79(13.00)

주: 1) 인지, 수용언어, 표현언어, 소근육, 대근육, 사회정서는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산점수로 제시

2)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는 평균 100, 표준편차 15로 변환된 점수로 제시

3) 언어척도는 수용언어, 표현언어 소검사 환산점수 합으로 산출됨

4) 운동척도는 소근육, 대근육 소검사 환산점수 합으로 산출됨

5) 사회정서는 사회정서 소검사 환산점수 합으로 산출됨

## 나) 1~2세(반) 적응행동 발달

1~2세(반) 적응행동 발달 결과는 <표 V-1-3>과 같다. 적응행동은 109.97(SD=13.33)로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발달지수를 살펴보면, 평균 107.10~110.30(SD= 12.72~14.22)으로 평균 수준이었다. 하위영역별 환산점수도 11.07~12.25(SD= 2.57~3.22)로 평균 수준이었다. 종합하면, 1~2세(반) 적응행동의 발달이 전반적으로 평균 수준임을 알 수 있다.

&lt;표 V-1-3&gt; 1~2세(반) 적응행동

N=100, M(SD)

구분		환산점수 <sup>1)</sup> / 발달지수 <sup>2)</sup>
하위영역	수용	11.59(2.75)
	표현	12.25(2.68)
	개인/자조	11.07(2.58)
	대인관계	11.51(2.57)
	놀이/여가	11.84(3.22)
영역	의사소통 <sup>3)</sup>	110.30(12.72)
	일상생활 <sup>4)</sup>	107.10(13.31)
	사회화 <sup>5)</sup>	109.66(14.22)
적응행동		109.97(13.33)

주: 1) 수용, 표현, 개인/자조, 대인관계, 놀이/여가는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산점수로 제시

2) 의사소통, 일상생활, 사회화는 평균 100, 표준편차 15로 변환된 점수로 제시

3) 의사소통은 수용, 표현 하위영역 환산점수 합으로 산출됨

4) 일상생활은 개인/자조 하위영역 환산점수 합으로 산출됨

5) 사회화는 대인관계, 놀이/여가 하위영역 환산점수 합으로 산출됨

## 2) 1~2세(반) 성별에 따른 발달 현황

## 가) 1~2세(반) 성별에 따른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발달

1~2세(반) 성별에 따른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발달검사 결과는 <표 V-1-4>와 같다.

〈표 V-1-4〉 1~2세(반) 성별에 따른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N=100, M(SD)

구분		환산점수 <sup>1)</sup> / 발달지수 <sup>2)</sup>		t	p	effect size
		남(n = 47)	여(n = 53)			
소검사	인지	10.13(2.88)	11.60(2.23)	-2.88**	.00	-.58
	수용언어	11.09(2.81)	12.43(2.17)	-2.70*	.01	-.54
	표현언어	9.89(2.47)	10.32(2.49)	-.86	.39	-.17
	소근육 운동	10.66(3.28)	12.96(2.92)	-3.69***	.00	-.74
	대근육 운동	10.51(2.83)	11.32(2.11)	-1.61	.11	-.33
	사회정서	10.64(3.05)	11.45(2.64)	-1.42	.16	-.29
척도	인지	101.68(14.24)	108.72(11.18)	-2.76*	.01	-.55
	언어 <sup>3)</sup>	102.55(13.28)	107.55(11.78)	-1.98	.05	-.40
	운동 <sup>4)</sup>	102.32(14.71)	110.83(12.19)	-3.13**	.00	-.63
	사회정서 <sup>5)</sup>	102.72(13.88)	106.62(11.99)	-1.49	.14	-.30

주: 1) 인지, 수용언어, 표현언어, 소근육, 대근육, 사회정서는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산점으로 제시  
 2)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는 평균 100, 표준편차 15로 변환된 점수로 제시  
 3) 언어척도는 수용언어, 표현언어 소검사 환산점수 합으로 산출됨  
 4) 운동척도는 소근육, 대근육 소검사 환산점수 합으로 산출됨  
 5) 사회정서는 사회정서 소검사 환산점수 합으로 산출됨  
 \*p < .05, \*\*p < .01, \*\*\*p < .001

척도별 발달지수를 살펴보면, 인지척도의 경우, 남아의 평균은 101.68(SD= 14.24), 여아의 평균은 108.72(SD= 11.18)로 여아가 남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 -2.76, p= .01). 운동척도의 경우, 남아의 평균은 102.32(SD= 14.71), 여아의 평균은 110.83(SD= 12.19)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 -3.13, p= .00).

소검사별 환산점수를 살펴보면, 인지, 수용언어, 소근육 운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남아의 인지 소검사 평균은 10.13(SD= 2.88), 여아의 인지 소검사 평균은 11.60(SD= 2.23)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 -2.88 p= .00). 남아의 수용언어 소검사의 평균은 11.09(SD= 2.81), 여아 평균은 12.43(SD= 2.17)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 -2.70, p= .01). 남아의 소근육 운동 소검사의 평균은 10.66(SD= 3.28) 여아의 소근육 운동 소검사의 평균은 12.96(SD= 2.92)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 -3.96, p= .00). 종합하면, 1~2세(반) 인지와 언어척도와, 인지, 수용언어, 소근육 운동 소검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발달 수준을 보였다.

## 나) 1~2세(반) 성별에 따른 적응행동 발달

1~2세(반) 성별에 따른 적응행동 발달검사 결과는 <표 V-1-5>와 같다. 적응행동의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남아의 평균은 108.96( $SD= 15.10$ ), 여아의 평균은 110.87( $SD= 11.61$ )로 남녀 모두 평균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lt;표 V-1-5&gt; 1~2세(반) 성별에 따른 적응행동

구분		환산점수 <sup>1)</sup> / 발달지수 <sup>2)</sup>		<i>t</i>	<i>p</i>	effect size
		남( <i>n</i> = 47)	여( <i>n</i> = 53)			
하위 영역	수용	11.77(2.99)	11.43(2.52)	.60	.55	.12
	표현	12.34(2.65)	12.17(2.73)	.32	.75	.06
	개인/자조	10.34(2.78)	11.72(2.23)	-2.7*	.01	-.55
	대인관계	11.60(2.79)	11.43(2.37)	.31	.76	.06
	놀이/여가	11.62(3.73)	12.04(2.70)	-.65	.52	-.13
영역	의사소통 <sup>3)</sup>	110.83(13.36)	109.83(12.24)	.39	.70	.08
	일상생활 <sup>4)</sup>	103.38(14.10)	110.40(11.75)	-2.68*	.01	-.54
	사회화 <sup>5)</sup>	109.06(16.35)	110.19(12.15)	-.39	.70	-.08
적응행동		108.96(15.10)	110.87(11.61)	-.71	.48	-.14

*N*=100, *M*(*SD*)\**p* < .05

주: 1) 수용, 표현, 개인/자조, 대인관계, 놀이/여가는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산점수로 제시

2) 의사소통, 일상생활, 사회화는 평균 100, 표준편차 15로 변환된 점수로 제시

3) 의사소통은 수용, 표현 하위영역의 환산점수 합으로 산출됨

4) 일상생활은 개인/자조 하위영역의 환산점수 합으로 산출됨

5) 사회화는 대인관계, 놀이/여가 하위영역의 환산점수 합으로 산출됨

영역별 발달지수를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일상생활 영역의 남아의 평균은 103.38( $SD= 14.10$ ), 여아의 평균은 110.40( $SD= 11.75$ )로 여아가 남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 -2.68$ ,  $p= .01$ ). 하위영역별 환산점수를 살펴보면, 개인/자조에서 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개인/자조 하위영역의 남아의 평균은 10.34( $SD= 2.78$ ), 여아의 평균은 11.72( $SD= 2.23$ )로 여아가 남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 -2.71$ ,  $p= .01$ ). 종합하면, 1~2세(반) 적응행동 전체 점수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일상생활 영역과 개인/자조 하위영역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발달 수준을 보였다.

### 3) 1~2세(반) 가구 형태에 따른 발달 현황

#### 가) 1~2세(반) 가구 형태에 따른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발달

1~2세(반) 가구 형태에 따른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발달검사 결과는 <표 V-1-6>과 같다. 척도별 발달지수를 살펴보면, 외별이 가정의 영유아는 104.35~107.21(SD= 11.74~13.67)이고, 맞별이 가정의 영유아는 104.98~106.64(SD= 12.35~15.15)로 남녀 모두 평균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1-6> 1~2세(반) 가구 형태에 따른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N=100, M,SD)

구분		환산점수 <sup>1)</sup> / 발달지수 <sup>2)</sup>		t	p	effect size
		외별이(n = 34)	맞별이(n = 66)			
소검사	인지	11.06(2.59)	10.83(2.69)	.41	.69	.09
	수용언어	11.82(2.69)	11.79(2.53)	.06	.95	.01
	표현언어	9.88(2.54)	10.24(2.45)	-.68	.50	-.14
	소근육 운동	12.00(2.72)	11.82(3.56)	.26	.79	.06
	대근육 운동	10.97(2.28)	10.92(2.62)	.09	.93	.02
	사회정서	10.97(2.98)	11.12(2.80)	-.24	.81	-.05
척도	인지	106.24(12.99)	104.98(13.27)	.45	.65	.10
	언어 <sup>3)</sup>	104.65(13.50)	105.48(12.35)	-.30	.76	-.06
	운동 <sup>4)</sup>	107.21(11.74)	106.64(15.15)	.21	.84	.04
	사회정서 <sup>5)</sup>	104.35(13.67)	105.02(12.74)	-.23	.82	-.05

주: 1) 인지, 수용언어, 표현언어, 소근육, 대근육, 사회정서는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산점수로 제시

2)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는 평균 100, 표준편차 15로 변환된 점수로 제시

3) 언어척도는 수용언어, 표현언어 소검사 환산점수 합으로 산출됨

4) 운동척도는 소근육, 대근육 소검사 환산점수 합으로 산출됨

5) 사회정서는 사회정서 소검사 환산점수 합으로 산출됨

소검사별 환산점수를 살펴보면, 외별이 가정의 영유아는 9.88~12.00(SD= 2.28~2.98)이고, 맞별이 가정의 영유아는 10.24~11.82(SD= 2.45~3.56)로 남녀 모두 평균 수준으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종합하면, 1~2세(반)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발달은 가구 형태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 나) 1~2세(반) 가구 형태에 따른 적응행동 발달

1~2세(반) 가구 형태에 따른 적응행동 발달 결과는 <표 V-1-7>과 같다. 적응행

동의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외벌이 가정의 영유아의 평균은 104.76(SD= 14.57),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의 평균은 112.65(SD= 11.88)로 가구 형태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 = -2.72, p = .01$ ).

〈표 V-1-7〉 1~2세(반) 가구 형태에 따른 적응행동

N=100, M(SD)

구분		환산점수 <sup>1)</sup> / 발달지수 <sup>2)</sup>		t	p	effect size
		외벌이(n = 34)	맞벌이(n = 66)			
하위영역	수용	10.71(2.79)	12.05(2.63)	-2.32*	.02	-0.49
	표현	11.74(2.77)	12.52(2.62)	-1.36	.18	-0.29
	개인/자조	10.47(2.64)	11.38(2.52)	-1.65	.10	-0.35
	대인관계	10.62(2.90)	11.97(2.27)	-2.37*	.02	-0.52
	놀이/여가	10.76(3.33)	12.39(3.04)	-2.39*	.02	-0.51
영역	의사소통 <sup>3)</sup>	106.09(13.14)	112.47(12.04)	-2.37*	.02	-0.51
	일상생활 <sup>4)</sup>	103.91(13.49)	108.74(13.02)	-1.72	.09	-0.36
	사회화 <sup>5)</sup>	104.26(15.43)	112.44(12.81)	-2.65*	.01	-0.58
적응행동		104.76(14.57)	112.65(11.88)	-2.72*	.01	-0.60

\*  $p < .05$

주: 1) 수용, 표현, 개인/자조, 대인관계, 놀이/여가는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산점수로 제시

2) 의사소통, 일상생활, 사회화는 평균 100, 표준편차 15로 변환된 점수로 제시

3) 의사소통은 수용, 표현 하위영역의 환산점수 합으로 산출됨

4) 일상생활은 개인/자조 하위영역의 환산점수 합으로 산출됨

5) 사회화는 대인관계, 놀이/여가 하위영역의 환산점수 합으로 산출됨

영역별 발달지수를 살펴보면, 의사소통과 사회화에서 가구 형태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의사소통 영역에서 외벌이 가정의 영유아 평균은 106.09(SD= 13.14)이고,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 평균은 112.47(SD= 12.04)로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가 외벌이 가정의 영유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 = -2.37, p = .02$ ). 사회화 영역에서 외벌이 가정의 영유아 평균은 104.26(SD= 15.43)이고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 평균은 112.44(SD= 12.81)로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가 외벌이 가정의 영유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 = -2.65, p = .01$ ).

하위영역별 환산점수를 살펴보면, 수용과 대인관계, 놀이/여가에서 가구 형태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수용 하위영역에서 외벌이 가정의 영유아 평균은 10.71(SD= 2.79)이고,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 평균은 12.05(SD= 2.63)로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가 외벌이 가정의 영유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 = -2.32, p = .02$ ). 대인관계 하위영역에서 외벌이 가정의 영유아 평균은 10.62(SD= 2.90)이고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 평균은 11.97(SD= 2.27)으로 맞벌

이 가정의 영유아가 외별이 가정의 영유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다( $t = -2.37, p = .02$ ). 놀이/여가 하위영역에서 외별이 가정의 영유아 평균은 10.76( $SD = 3.33$ )이고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 평균은 12.39( $SD = 3.04$ )으로 맞벌 이 가정의 영유아가 외별이 가정의 영유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다( $t = -2.39, p = .02$ ). 종합하면, 1~2세(반) 적응행동 전체 점수와 의사소통과 사 회화 영역, 수용, 대인관계, 놀이/여가 하위영역에서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가 외별 이 영유아보다 더 높은 발달 수준을 보였다.

#### 4) 1~2세(반) 가구소득에 따른 발달 현황

##### 가) 1~2세(반) 가구소득에 따른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발달

1~2세(반) 가구소득에 따른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발달검사 결과는 <표 V-1-8>과 같다. 척도별 발달지수를 살펴보면, 가구소득 680만 원 이하인 가정의 영 유아는 103.09~107.91( $SD = 12.93 \sim 13.98$ )이고, 가구소득 680만 원 이상인 가정 의 영유아는 105.43~107.48( $SD = 11.83 \sim 14.13$ )으로 모두 평균 수준으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1-8> 1~2세(반) 가구소득에 따른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N=100, M(SD)$

구분	환산점수 <sup>1)</sup> / 발달지수 <sup>2)</sup>		<i>t</i>	<i>p</i>	effect size	
	680만 원 이하 ( <i>n</i> = 54)	680만 원 이상 ( <i>n</i> = 46)				
소검사	인지	10.93(2.61)	10.89(2.72)	.06	.95	.01
	수용언어	11.54(2.72)	12.11(2.38)	-1.12	.26	-.22
	표현언어	9.69(2.34)	10.63(2.56)	-1.92	.06	-.39
	소근육 운동	12.11(3.27)	11.61(3.33)	.76	.45	.15
	대근육 운동	11.07(2.36)	10.78(2.66)	.58	.57	.12
	사회정서	10.67(2.89)	11.54(2.75)	-1.55	.12	-.31
척도	인지	105.39(12.93)	105.43(13.50)	-.02	.99	.00
	언어 <sup>3)</sup>	103.26(13.18)	107.48(11.83)	-1.69	.09	-.34
	운동 <sup>4)</sup>	107.91(13.98)	105.57(14.13)	.83	.41	.17
	사회정서 <sup>5)</sup>	103.09(13.36)	106.78(12.40)	-1.43	.16	-.29

주: 1) 인지, 수용언어, 표현언어, 소근육, 대근육, 사회정서는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산점수로 제시

2)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는 평균 100, 표준편차 15로 변환된 점수로 제시

3) 언어척도는 수용언어, 표현언어 소검사 환산점수 합으로 산출됨

4) 운동척도는 소근육, 대근육 소검사 환산점수 합으로 산출됨

5) 사회정서는 사회정서 소검사 환산점수 합으로 산출됨

소검사별 환산점수를 살펴보면, 가구소득 680만 원 이하인 가정의 영유아는 9.69~12.11(SD= 2.34~3.27)이고, 가구소득 680만 원 이상인 가정의 영유아는 10.63~12.11(SD= 2.38~3.33)으로 모두 평균 수준으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종합하면, 1~2세(반)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발달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나) 1~2세(반) 가구소득에 따른 적응행동 발달

1~2세(반) 가구소득에 따른 적응행동 발달검사 결과는 <표 V-1-9>와 같다. 적응행동의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가구소득 680만 원 이하인 가정의 영유아의 평균은 106.26(SD= 14.47), 가구소득 680만 원 이상인 가정의 영유아의 평균은 114.33(SD= 10.40)으로 가구소득 680만 원 이상인 가정의 영유아가 가구소득 680만 원 이하인 가정의 영유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 = -3.23, p = .00$ ).

<표 V-1-9> 1~2세(반) 가구소득에 따른 적응행동

구분		환산점수 <sup>1)</sup> / 발달지수 <sup>2)</sup>		t	p	effect size
		680만 원 이하 (n = 55)	680만 원 이상 (n = 45)			
하위 영역	수용	10.78(2.81)	12.54(2.35)	-3.42**	.00	-.68
	표현	11.74(2.78)	12.85(2.46)	-2.11*	.04	-.42
	개인/자조	10.80(2.76)	11.39(2.35)	-1.16	.25	-.23
	대인관계	10.93(2.63)	12.20(2.33)	-2.56*	.01	-.51
	놀이/여가	11.28(3.30)	12.50(3.02)	-1.93	.06	-.39
영역	의사소통 <sup>3)</sup>	106.56(12.99)	114.70(10.99)	-3.39**	.00	-.68
	일상생활 <sup>4)</sup>	105.54(14.16)	108.93(12.14)	-1.29	.20	-.26
	사회화 <sup>5)</sup>	106.39(14.81)	113.50(12.59)	-2.60*	.01	-.52
적응행동		106.26(14.47)	114.33(10.40)	-3.23**	.00	-.65

N=100, M,SD

\* $p < .05$ , \*\* $p < .01$

- 주: 1) 수용, 표현, 개인/자조, 대인관계, 놀이/여가는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산점으로 제시
- 2) 의사소통, 일상생활, 사회화는 평균 100, 표준편차 15로 변환된 점수로 제시
- 3) 의사소통은 수용, 표현 하위영역의 환산점수 합으로 산출됨
- 4) 일상생활은 개인/자조 하위영역의 환산점수 합으로 산출됨
- 5) 사회화는 대인관계, 놀이/여가 하위영역의 환산점수 합으로 산출됨



영역별 발달지수를 살펴보면, 의사소통, 사회화에서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의사소통 영역에서 가구소득 680만 원 이하인 가정의 영유아의 평균은 106.56(SD= 12.99)이고, 가구소득 680만 원 이상인 가정의 영유아 평균은 114.70(SD= 10.99)으로 가구소득 680만 원 이상인 가정의 영유아가 가구소득 680만 원 이하인 가정의 영유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 = -3.39, p = .00$ ). 사회화 영역에서 가구소득 680만 원 이하인 가정의 영유아의 평균은 106.39(SD= 14.81)이고, 가구소득 680만 원 이상인 가정의 영유아 평균은 113.50(SD= 12.59)으로 가구소득 680만 원 이상인 가정의 영유아가 가구소득 680만 원 이하인 가정의 영유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 = -2.60, p = .01$ ).

하위영역별 환산점수를 살펴보면, 수용, 표현, 대인관계에서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수용 하위영역에서 가구소득 680만 원 이하인 가정의 영유아의 평균은 10.78(SD= 2.81)이고, 가구소득 680만 원 이상인 가정의 영유아 평균은 12.54(SD= 2.35)로 가구소득 680만 원 이상인 가정의 영유아가 가구소득 680만 원 이하인 가정의 영유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 = -3.42, p = .00$ ). 표현 하위영역에서 가구소득 680만 원 이하인 가정의 영유아의 평균은 11.74(SD= 2.78)이고, 가구소득 680만 원 이상인 가정의 영유아 평균은 12.85(SD= 2.46)로 가구소득 680만 원 이상인 가정의 영유아가 가구소득이 680만 원 이하인 가정의 영유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 = -2.11, p = .04$ ). 대인관계 하위영역에서 가구소득 680만 원 이하인 가정의 영유아의 평균은 10.93(SD= 2.63)이고, 가구소득 680만 원 이상인 가정의 영유아 평균은 12.20(SD= 2.33)으로, 가구소득 680만 원 이상인 가정의 영유아가 가구소득 680만 원 이하인 가정의 영유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 = -2.56, p = .01$ ). 종합하면, 1~2세(반) 적응행동 전체 점수와 의사소통과 사회화 영역, 수용, 표현과 대인관계 하위영역에서 가구소득 680만 원 이상인 가정의 영유아가 680만 원 이하인 가정의 영유아보다 더 높은 발달 수준을 보였다.

## 5) 1차년도 결과와의 비교

## 가) 1~2세(반)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비교

1~2세(반) 차수에 따른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발달을 비교한 결과는 <표 V-1-10>과 같다. 척도별 발달지수를 살펴보면, 운동척도의 경우, 1차년도의 평균은 103.07(SD=12.20), 2차년도의 평균은 107.07(SD= 13.80)로 2차년도 영유아가 1차년도 영유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 = -2.16, p = .03$ ).

<표 V-1-10> 1~2세(반)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비교

구분		환산점수 <sup>1)</sup> / 발달지수 <sup>2)</sup>		<i>t</i>	<i>p</i>	<i>M,SD</i> effect size
		1차년도( <i>n</i> = 98)	2차년도( <i>n</i> = 100)			
소검사	인지	10.51(1.83)	10.91(2.61)	-1.25	.21	-.18
	수용언어	10.76(1.85)	11.71(2.57)	-2.99**	.00	-.43
	표현언어	10.46(1.86)	10.06(2.43)	1.30	.20	.19
	소근육 운동	10.67(2.58)	11.95(3.21)	-3.08**	.00	-.44
	대근육 운동	10.53(2.22)	10.96(2.49)	-1.28	.20	-.18
	사회정서	102.86(9.28)	105.48(12.97)	0.08	.93	.01
척도	인지	102.89(9.80)	104.79(12.43)	-1.63	.10	-.24
	언어 <sup>3)</sup>	102.89(9.80)	104.79(12.43)	-1.19	.23	-.17
	운동 <sup>4)</sup>	103.07(12.20)	107.07(13.80)	-2.16*	.03	-.31
	사회정서 <sup>5)</sup>	104.93(12.02)	104.60(13.19)	.18	.85	.03

\* $p < .05$ , \*\* $p < .01$

주: 1) 인지, 수용언어, 표현언어, 소근육, 대근육, 사회정서는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산점수로 제시

2)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는 평균 100, 표준편차 15로 변환된 점수로 제시

3) 언어척도는 수용언어, 표현언어 소검사 환산점수 합으로 산출됨

4) 운동척도는 소근육, 대근육 소검사 환산점수 합으로 산출됨

5) 사회정서는 사회정서 소검사 환산점수 합으로 산출됨

소검사별 환산점수를 살펴보면, 수용언어와 소근육 운동에서 차수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수용언어 소검사의 1차년도의 평균은 10.76 (SD= 1.85), 2차년도의 평균은 11.71(SD= 2.57)로 2차년도 영유아가 1차년도 영유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 = -2.99, p = .00$ ). 소근육 운동 소검사의 1차년도의 평균은 10.67(SD= 2.58), 2차년도의 평균은 11.95(SD= 3.21)로 2차년도 영유아가 1차년도 영유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 = -3.08, p = .00$ ). 종합하면, 1~2세(반) 운동척도와 수용언어, 소근육 운동 소검사에서 2차

년도 영유아가 1차년도 영유아보다 더 높은 발달 수준을 보였다.

나) 1~2세(반)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적응행동 비교

1~2세(반) 차수에 따른 적응행동 발달을 비교한 결과는 <표 V-1-11>과 같다. 적응행동의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1차년도의 평균은 108.22(SD= 10.85), 2차년도의 평균은 109.04(SD= 13.34)로 차수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1-11> 1~2세(반)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적응행동 비교

구분		환산점수 <sup>1)</sup> / 발달지수 <sup>2)</sup>		t	p	M(SD) effect size
		1차년도(n = 98)	2차년도(n = 100)			
하위 영역	수용	11.17(2.14)	11.41(2.76)	-.67	.50	-.10
	표현	11.63(2.55)	12.09(2.70)	-1.23	.22	-.17
	개인/자조	11.08(2.10)	10.99(2.64)	.27	.79	.04
	대인관계	11.41(2.00)	11.37(2.49)	.12	.91	.02
	놀이/여가	10.93(2.19)	11.67(3.21)	-1.90	.06	-.27
영역	의사소통 <sup>3)</sup>	107.62(11.57)	109.40(12.82)	-1.02	.31	-.15
	일상생활 <sup>4)</sup>	105.45(10.60)	106.69(13.58)	-.72	.47	-.10
	사회화 <sup>5)</sup>	107.76(9.76)	108.82(13.91)	-.62	.53	-.09
적응행동		108.22(10.85)	109.04(13.34)	-.47	.64	-.07

주: 1) 수용, 표현, 개인/자조, 대인관계, 놀이/여가는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산점수로 제시

2) 의사소통, 일상생활, 사회화는 평균 100, 표준편차 15로 변환된 점수로 제시

3) 의사소통은 수용, 표현 하위영역의 환산점수 합으로 산출됨

4) 일상생활은 개인/자조 하위영역의 환산점수 합으로 산출됨

5) 사회화는 대인관계, 놀이/여가 하위영역의 환산점수 합으로 산출됨

영역별 발달지수를 살펴보면, 1차년도의 평균은 105.45~108.22(SD= 9.76~11.57)이고, 2차년도 평균은 106.69~109.40(SD= 12.82~13.91)로 모두 평균 수준으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위영역별 환산점수를 살펴보면, 1차년도의 평균은 10.93~11.63(SD= 2.00~2.55)이고, 2차년도의 평균은 10.99~11.67(SD= 2.49~3.21)로 모두 평균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종합하면, 1~2세(반) 적응행동은 차수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 다. 요약 및 논의

본 장에서는 2022년 8월~2023년 7월생 영유아 100명을 대상으로 한국 영유아 베일리발달검사 4판(K-Bayley-4)의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적응행동 발달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에 참여한 1~2세(반) 영아의 평균 월령은 약 33.78개월( $SD=2.09$ )이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2세(반)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적응행동 발달검사 결과에 따르면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의 척도별 발달지수는 104.79~106.83( $SD=12.69\sim14.03$ )이고 소검사별 환산점수는 10.12~11.80( $SD=2.48\sim3.29$ )으로 1~2세(반) 발달은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적응행동 발달도 109.97( $SD=13.33$ )로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1~2세(반) 성별에 따른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발달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척도에서는 인지와 언어, 소검사에서는 인지, 수용언어, 소근육 운동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발달 수준을 보였다. 한편, 적응행동 검사 결과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영역과 하위영역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에서는 일상생활, 하위 영역에서는 개인/자조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발달 수준을 보였다.

셋째, 1~2세(반) 가구 형태에 따른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발달은 가구 형태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한편, 적응행동 검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 형태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적응행동과 영역의 의사소통, 사회화, 하위영역에서는 수용, 대인관계, 놀이/여가에서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가 외벌이 영유아보다 더 높은 발달 수준을 보였다.

넷째, 1~2세(반) 가구소득에 따른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검사결과에 따르면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발달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한편, 적응행동 검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적응행동, 영역에서는 의사소통, 사회화, 하위영역에서는 수용, 표현과 대인관계에서 가구소득 680만 원 이상인 가정의 영유아가 680만 원 이하인 가정의 영유아보다 더 높은 발달 수준을 보였다.

다섯째, 차수에 따른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인지, 언

어, 운동, 사회정서 발달은 차수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척도에서는 운동, 소검사에서는 수용언어와 소근육 운동에서 2차년도 영유아가 1차년도 영유아보다 더 높은 발달 수준을 보였다. 적응행동 검사 결과에 따르면 적응행동은 차수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코로나19 팬데믹이 종결되는 시점인 2021년 이후 출생한 1~2세반 영아들 모두 발달이나 적응행동에 있어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적응행동의 일부 하위영역에서는 성별, 가구 형태(맞벌이, 외벌이),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변화

코로나19 팬데믹은 보육·교육의 일시 중단과 축소,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으로 가정, 또래, 교실 환경 등의 미시체계와 가정-기관 연계 등의 중간체계에 함께 영향을 미치면서(정익중, 2020a, 2020b; 홍관표, 2021) 아동의 사회·정서 역량의 발달 기회를 방해하였다(황혜영, 김수윤, 2022). 특히 유아기는 사회·정서 역량이 급격히 성숙하는 민감기이므로 동일한 환경 변화와 충격에도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김리진 등, 2024; 박희현 등, 2025). 이 시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영유아에게는 다양한 사회·정서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지원하고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는 상담서비스 중 하나가 놀이치료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놀이치료 임상 현장에서는 유아의 사회·정서 영역에서의 후유증 관련 보고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놀이치료를 받는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관련 증상에 대한 경향성을 살펴보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동의 사회·정서 문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함께 겪어낸 부모의 양육 태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가 2020년 1월에 팬데믹으로 선포되었고 2023년 6월에 엔데믹으로 전환되었으므로, 본 절에서는 시점을 코로나19 전(2018~2019년), 중(2020~2021년), 후(2023~2024년 8월)로 구분하여 각 시기에 놀이치료를 받은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관련 증상의 경향성 및 부모 변인을 살펴보았다.

## 가. 임상사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 1) 분석 데이터

양적연구 및 질적분석에 활용된 데이터는 00대학교 00학과 놀이치료실 및 서울, 경기 지역에서 본 학과 협업 기관인 놀이치료실에서 코로나19 전(2018~2019년), 중(2020~2021년), 후(2023~2024년 8월)에 놀이치료를 받았던 만 3~6세 내담 아동 및 모의 검사 및 설문 결과 데이터이다. 각 시기에 표집된 아동 관련 데이터 수는 코로나19 전 55 사례, 코로나19 중 174 사례, 코로나19 후 143 사례로 총 372 사례이고, 모 관련 데이터 수도 총 372 사례이다. 데이터 표집 시 접수면 접지에 기록된 주호소가 발달 문제일 경우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V-2-1〉 임상데이터 정보

단위: 명, %

구분		코로나19 전 (2018~2019년)	코로나19 중 (2020~2021년)	코로나19 후 (2023~2024년 8월)
성별	남	34( 61.8)	95( 53.4)	68( 60.2)
	여	21( 38.2)	78( 43.8)	45( 39.8)
	전체	55(100.0)	173(100.0)	113(100.0)
연령	3세	13( 23.6)	43( 24.2)	20( 17.7)
	4세	14( 25.5)	47( 26.4)	33( 29.2)
	5세	12( 21.8)	54( 30.3)	28( 24.8)
	6세	16( 29.1)	30( 16.9)	28( 24.8)
	전체	55(100.0)	174(100.0)	109(100.0)

### 2) 분석 도구

#### 가) 접수면접지

분석 도구로는 내담 아동의 양육자가 접수면접지에 기록해 놓은 주호소 문제 및 지금 내방한 이유를 유목화하여 사용하였다.

#### 나) 아동-청소년 행동평가(CBCL 1.5-5)

내담 아동의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Achenbach와 Rescorla(2000)가 개발하고 오경자와 김영아(2009)가 표준화한 유아 행동 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

list preschool 1.5~5)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99문항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니다’(0), ‘약간 혹은 ‘때때로’(1), ‘매우 혹은 종종’(2)의 Likert식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위축, 신체증상, 수면문제, 주의집중 문제, 공격행동의 7개 하위척도와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의 2대 요인점수와 총문제행동 척도 등 모두 10개의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를 얻을 수 있다. 표준화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는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의 경우 정서적 반응성 .73, 불안/우울 .71, 신체증상 .56, 위축 .65, 수면문제 .67, 주의집중 문제 .63, 공격행동 .88, 내재화 문제 .87, 외현화 문제 .89, 총문제행동 .94였다.

#### 다) 유아의 실행기능평가(BRIEF-P)

유아의 실행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Gioia 등(2000)이 개발한 유아용 행동평정척도(Behavior Rating Inventory of Executive Function-Preschool version: BRIEF-P)를 서정은과 박혜원(2011)이 번안한 척도가 사용되었다. 본 척도는 총 63문항으로 억제(16문항), 전환(10문항), 감정조절(10문항), 작업기억(17문항), 계획 및 조직화(10문항)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4)의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실행기능에 따른 기능적 장애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억제 .93, 전환 .88, 감정조절 .88, 작업기억 .94, 계획 및 조직화 .88이었다.

#### 라) JTCI(The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3-6 유아용

유아의 기질과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 민병배 등(2007)이 표준화한 The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TCI) 3-6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인성을 이루는 두 개의 큰 구조로서 기질과 성격을 구분하여 측정한다. 총 7개의 상위 척도로 구성되는데 이 중 4개는 기질 차원으로서 자극 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이며, 3개의 척도는 성격 차원으로서 자율성, 연대감, 자기 추월이다. 이 총 7개의 성격 및 기질 척도에는 전체 24개의 하위 성격 및 기질 차

원이 포함되어 있다. 총 86문항으로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0), ‘별로 그렇지 않다’(1), ‘약간 그렇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의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에게 해당 하위영역별 기질적 성향이 많이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자율성, 연대감, 자기 초월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각각 .74, .82, .65, .69, .76, .72, .66으로 나타났다.

#### 마) 부모 양육 태도 검사(Parenting Attitude Test: PAT)

모의 양육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임호찬(2008)이 개발하고 표준화한 부모양육 태도검사(PAT)를 사용하였다. 이는 본 척도의 하위요인이 보다 일상적인 양육 태도로 세분화되어 있어 임상 현장에서 모의 양육 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척도는 지지표현, 합리적 설명, 성취압력, 간섭, 처벌, 감독, 과잉기대, 비일관성의 8영역의 총 4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양육 태도가 더 많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표준화 연구에서 보고된 각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는 .56~.85였다.

###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양적연구(군집분석, MANOVA,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와 질적 분석(놀이치료 주호소 및 지금 내방한 이유 분석)을 함께 실시하는 혼합연구를 실시하였다.

#### 가) 양적분석

코로나19 이전(55 사례), 중(174 사례)과 이후(143 사례)의 총 372 사례의 아동 및 부모 대상 검사지 및 설문지 데이터에 대해 시기별로 독립표본 t-검정, ANOVA, 군집분석, MANOVA,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내담 아동의 사회·정서문제행동 유형, 실행기능 유형 및 모 양육태도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Hair와 Black

(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하였다.

먼저 1단계로 표준화된 변인에 Ward의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군집화 일정표와 덴드로 그래를 활용하여 적합한 군집의 수를 도출하였다. 2단계로 비계층적인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통해 1단계에서 산출된 군집에 사례를 분류하였다. 둘째로 내담 아동의 사회·정서 문제행동 수준에 따른 실행기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분산의 동질성 검증 결과 사회·정서 문제행동 군집은 등분산성이 가정되지 않아 Games-Howell 사후 검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후 시기의 내담 아동의 사회·정서 문제행동과 기질, 성격 특성 및 모의 양육 태도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소프트웨어는 SPSS Statistics 26.0을 사용하였다.

#### 나) 질적분석

포집된 총 372 사례의 ‘주호소’ 및 ‘지금 내방한 이유’를 대상으로 질적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접수면접지에 기록된 주호소를 코딩한 자료에서 내용을 추출하여 이를 시기별로 분류한 다음 여러 번 읽고 범주를 구분하였다. 연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이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하여 합의점을 찾았다. 본 연구자들은 놀이치료 임상 경력 35~20년이며 관련 질적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본 분석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놀이치료 전문가 1인에게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 나. 분석 결과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는 놀이치료를 받은 만 3세~만 6세 아동의 데이터로, 아동의 평균 개월 수는 코로나19 전 60.40개월, 코로나19 중 57.81개월, 코로나19 후 59.95개월이었다.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아동의 평균 사회·정서 문제행동 총점(CBCL 총점)은 코로나19 전 시기(M= 60.63, SD= 5.90)에 가장 높았으며, 코로나19 중(M= 54.51, SD= 9.77)과 후(M= 53.27, SD= 11.00) 시기에 점수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평균 점수의 하락은 팬데믹 이후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이 완화되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표집의 한계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018~2019년은 놀이치료란 비교적 문제 양상이 심각할 때 받는 심리치료라는 인식이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가적으로도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면서 심리치료에 대한 접근이 보다 용이해졌다. 이에 코로나19 전보다 코로나19 중, 후에 수집된 데이터는 전반적으로 문제행동 수준이 낮은 데이터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사회·정서 문제행동의 총점이 하향 평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단순 평균 변화보다는 시기별로 분류된 문제행동 군집의 구성 비율, 특성 변화, 그리고 이와 연관된 기능적, 환경적 취약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행기능의 경우,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전, 후보다 코로나19 중에 평균 점수가 다소 낮은 경향이 있으나 기간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TCI의 경우에는 기질과 성격의 각 하위요인과 코로나19 이후 사회·정서 문제행동 군집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코로나19 이후의 데이터만 표집하였다. 마지막으로 모의 양육 태도의 경우, 코로나19 전에는 해당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데이터는 부재한 관계로 코로나19 중과 후의 데이터만 표집하였다. 모의 양육 태도의 경우, 코로나19 중에 비해 코로나19 후에 지지표현, 합리적 설명 등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는 증가하였고, 성취 압력, 처벌, 비밀관성 등의 부정적인 양육 태도는 감소하였다.

〈표 V-2-2〉 각 변인의 시기별 기초통계

구분		코로나19 전		코로나19 중		코로나19 후	
		N	M(SD)	N	M(SD)	N	M(SD)
연령	접수 시 개월 수	50	60.40(15.38)	173	57.81(13.42)	143	59.95(12.20)
문제행동	문제행동총점	46	60.63( 5.90)	169	54.51( 9.77)	140	53.27(11.00)
	내재화	46	60.11( 8.91)	169	53.33( 9.99)	140	52.56(10.93)
	외현화	46	58.61( 7.58)	169	53.86( 9.79)	140	52.89(10.56)
	정서적 반응성	37	60.59( 8.52)	165	56.32( 7.85)	126	56.83( 8.61)
	불안/우울	46	60.46( 8.99)	170	55.58( 7.27)	140	54.87( 7.47)
	신체증상	46	57.24( 7.23)	169	54.30( 5.96)	140	53.86( 5.33)
	위축	46	57.15( 8.15)	170	55.76( 7.56)	140	55.29( 6.78)
	수면문제	37	59.49( 8.20)	165	56.67( 8.05)	126	55.35( 7.74)
	주의집중 문제	46	55.78( 6.15)	170	55.89( 6.88)	140	56.69( 8.17)
공격행동	46	59.37( 7.22)	170	55.70( 6.98)	140	55.28( 7.27)	

구분		코로나19 전		코로나19 중		코로나19 후	
		N	M(SD)	N	M(SD)	N	M(SD)
실행기능	억제	32	30.28( 7.56)	155	26.81( 7.78)	138	30.47( 9.34)
	전환	32	20.87( 4.98)	157	17.80( 5.45)	141	18.98( 5.57)
	감정조절	31	21.74( 4.58)	157	17.99( 5.17)	141	18.93( 5.80)
	작업기억	31	30.26( 8.13)	157	30.96(11.17)	139	31.89( 9.23)
	계획조직	32	19.00( 4.36)	158	18.30( 5.15)	138	19.28( 5.23)
TCI_기질	자극추구	-	-	161	52.73( 9.82)	140	53.89(11.32)
	위험회피	-	-	161	51.87(13.28)	140	53.29(13.25)
	사회적 민감성	-	-	161	48.32(10.78)	140	47.47(11.61)
	인내력	-	-	161	44.91(10.73)	140	43.57(11.66)
TCI_성격	자율성	-	-	161	47.84(11.32)	140	46.10(11.59)
	연대감	-	-	161	48.86(10.32)	140	47.00(11.75)
	자기초월	-	-	161	49.35(10.26)	140	49.81(12.20)
모 양육태도	지지표현	-	-	170	45.42(28.91)	139	57.41(24.98)
	합리적 설명	-	-	170	49.09(29.78)	139	53.57(24.71)
	성취 압력	-	-	170	47.02(28.03)	139	44.95(22.04)
	간섭	-	-	170	45.36(25.03)	139	44.44(24.00)
	처벌	-	-	170	47.22(26.06)	139	45.39(23.77)
	감독	-	-	170	41.84(29.21)	138	46.54(24.17)
	과잉기대	-	-	170	50.66(28.62)	139	50.00(25.07)
비일관성	-	-	170	47.62(25.38)	139	45.46(24.65)	

코로나19 발생 전(2018년~2019년), 코로나19 발생 중(2020년~2021년), 코로나19 발생 후(2023년~2024년 8월)에 사회·정서 문제로 내방하여 놀이치료를 받았던 내담 아동의 사회·정서 문제행동(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수면문제, 주의집중 문제, 공격행동), 실행기능(억제, 전환, 감정조절, 작업기억, 계획조직), 모의 양육 태도(지지표현, 합리적 설명, 성취 압력, 간섭, 처벌, 감독, 과잉기대, 비일관성) 수준에 따른 군집의 수를 탐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 군집분석 중 1단계에서는 군집변인의 빈도를 표준화(M=0, SD= 1)한 후, Wards의 방법과 제곱 유클리디안 거리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화 일정표와 덴드로 그램을 고려했을 때 각각 2개, 4~5개의 군집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상적 해석의 측면에서 모두 4개의 군집일 때 군집의 개념적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4군집 해법을 채택하였다. 2단계 K-means 군집분석에서는 1단계의 결과를 토대로 4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각 군집은 서로 다른 level의 수준을 나타냈으며 각 수준의 비율에 따라 군집 이름이 결정되었다.

### 1) 사회·정서 문제행동 군집 및 질적분석

코로나19 전(2018년~2019년), 코로나19 중(2020년~2021년), 코로나19 후(2023년~2024년 8월) 시기별로 사회·정서 문제행동(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수면문제, 주의집중 문제, 공격행동) 특성에 따라 군집을 분류하였고, 이는 다음과 같다.

#### 가) 코로나19 전(2018년~2019년) 내담 아동 사회·정서 문제행동 군집

코로나19 전(2018년~2019년) 내담 아동 사회·정서 문제행동 특성에 따른 군집에서 군집 1은 15명(32%), 군집 2는 6명(12.8%), 군집 3은 22명(46.8%), 군집 4는 4명(8.5%)으로 구성되었다. 군집 1은 신체증상과 수면문제가 경미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 [경미한 신체화 및 수면 곤란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군집에 군집 2는 수면문제와 함께 주의집중 문제와 공격행동의 행동문제가 가장 높은 특성을 보여 [행동조절 및 수면 곤란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전반적으로 문제행동이 낮은 특성을 보여 [경미한 문제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4는 불안/우울과 정서적 반응성이 가장 높은 특성을 보여 [불안/우울 및 정서조절 곤란형]으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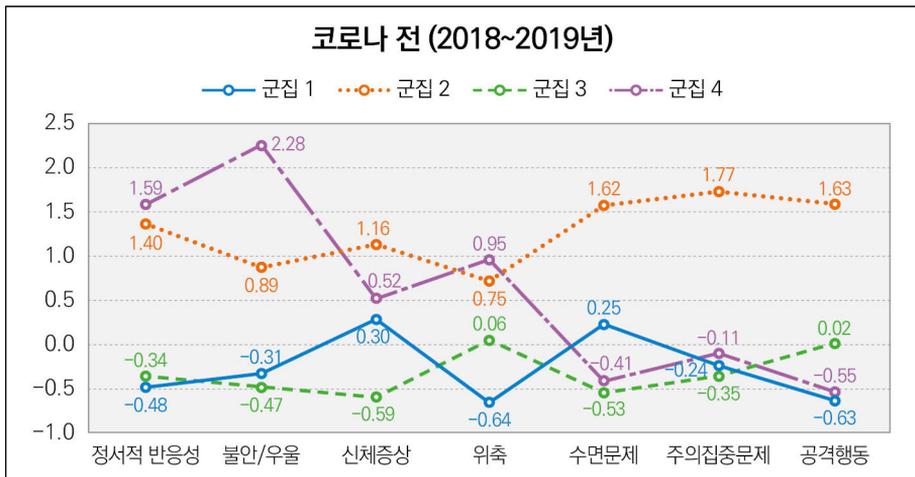
군집 1과 군집 2를 살펴보면,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자주 깨는 등의 수면과 관련된 문제는 주의산만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동반되거나 특별한 의학적 원인 없이 두통, 복통 등의 신체적 불편감을 호소하는 신체증상과 동반되었다. 군집 3의 경우에는 비교적 문제행동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군집 4의 경우에는 무서워하거나 걱정하고 우울해하는 등의 불안/우울과 급격하게 기분이 변화되고 과민반응을 보이거나 쉽게 흥분하는 정서적 반응성 문제와 동반되었다. 종합하면, 내면화 및 기타 문제 복합형, 외현화 문제형, 경미한 문제형, 내면화 문제형으로 비교적 관련 범주에 있는 하위요인들로 군집이 구분되었다(〈표 V-2-3〉, [그림 V-2-1] 참조).

〈표 V-2-3〉 코로나19 전 내담 아동의 사회·정서 문제행동 군집

단위: 점, N=47

구분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경미한 신체화 및 수면 곤란형	행동조절 및 수면 곤란형	경미한 문제형	불안/우울 및 정서조절 곤란형
N	15	6	22	4
정서적 반응성	-0.48	1.40	-0.34	1.59
불안/우울	-0.31	0.89	-0.47	2.28
신체증상	0.30	1.16	-0.59	0.52
위축	-0.64	0.75	0.06	0.95
수면문제	0.25	1.62	-0.53	-0.41
주의집중 문제	-0.24	1.77	-0.35	-0.11
공격행동	-0.63	1.63	0.02	-0.55

〈그림 V-2-1〉 코로나19 전 내담 아동의 사회·정서 문제행동 군집



나) 코로나19 전(2018년~2019년) 내담 아동 사회·정서 문제행동 관련 주호소 질적분석

코로나19 전 자녀의 사회·정서 문제행동에 대한 모의 주호소를 분석할 결과, 불안, 정서조절, 행동조절, 사회성, 관계, 자기표현, 의존성, 유능감, 틱, 자위, 수면의 11개의 유목과 22개의 범주가 추출되었다(〈표 V-2-4〉 참조).

〈표 V-2-4〉 코로나19 전 내담 아동 사회·정서 문제행동 관련 주호소

N=55

유목	범주	세부내용
불안	긴장 및 예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낯선 환경, 상황에서 많이 소극적인 모습</li> <li>• 낯선 상황, 새로운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적응 어려움</li> <li>• 규칙이나 규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부담 느낌</li> <li>• 불안감을 느낄 때 소변을 수시로 보러 감</li> <li>• 새로운 친구나 동생이 와도 놀이를 멈추고 당황함</li> <li>• 걱정이 많음</li> <li>• 선택적으로 말을 하지 않음</li> </ul>
	손발톱 물어뜯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안할 때 손톱 물어뜯음</li> <li>• 손, 발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어 멀쩡한 손가락이 별로 없음</li> </ul>
	분리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엄마와의 분리에 대해 불안해함</li> <li>• 유치원 갈 때, 수업할 때 제외하고 쓰레기 버리려도 못 감</li> </ul>
정서조절	화 조절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이 화가 많이 난다고 종종 얘기함</li> <li>• 감정이 폭발할 때 스스로 조절이 힘들고 부모도 통제하기 어려움</li> </ul>
	좌절 견디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욕함</li> <li>• 실패했을 때 화를 냄</li> <li>• 친구들보다 못할 것 같으면 시도조차 안하고 자리를 피해버림</li> <li>• 실수를 두려워함</li> <li>• 본인이 원하는 방향(결과) 등이 틀어졌을 때 극도의 분노</li> <li>• 무안하거나 속상하거나 본인이 잘못해서 훈육받을 때 말을 안 하고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음</li> <li>• 부정적인 말, 후회하는 말(예: 내가 일찍 가지 않았음 안 해도 되는건데...)</li> <li>• 게임(놀이)에서 지는 것이 싫어서 그 놀이를 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li> </ul>
행동조절	감정 조절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리 지르기</li> <li>• 때리고 악을 쓰는 등의 과격한 행동</li> <li>• 감정의 급격한 호소, 표현</li> <li>• 쉽게 빠지고 마음이 상하면 마음에 담아두고 잊지 않음</li> <li>• 사소한 것에도 짜증을 냄</li> <li>• 가끔씩 짜증이 난다고 표현함(별말 안 했는데 울거나, 이유 없이 짜증이 난다고 함)</li> </ul>
	충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한 것에 대한 겁이 없음</li> <li>• 교육기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친구들을 밀거나 때리거나 발을 밟거나 하는 행동</li> <li>• 행동이 너무 과격함</li> <li>• 말 걸다 손이 먼저 나감 때림</li> </ul>
	산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만히 있지 못함</li> <li>• 공부(학습지)에 집중 못 하고 산만함</li> <li>• 부주의함</li> </ul>
	훈육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집이 셈</li> <li>• 하지 말하는 행동 일부러 더 하고 통제가 되지 않음</li> <li>• 일부러 반대로 행동함</li> <li>• 말을 너무 듣지 않아서 엄마, 아빠가 스트레스받음</li> <li>• 훈육 시 저항</li> </ul>
	공격적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가 과격함</li> </ul>



유목	범주	세부내용
사회성	도래 관계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위기 파악 잘 못하고 눈치가 없음</li> <li>•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폭력적인 행동, 언어</li> <li>• 친구들 사이에 끼지 못하고 바깥으로 맴돌</li> <li>• 친구들에게 다 양보함</li> <li>• 친구들과 갈등 시 회피하는 성향이 큼</li> </ul>
관계	모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엄격한 부모에게 눈치를 많이 봄</li> <li>• 이혼 후 아이에게 엄격하게 하여 걱정이 됨</li> <li>• 허용적인 양육 태도가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주었을까 걱정됨</li> </ul>
	부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혼한 아버지와 같이 살고 싶다 라며 울고 속상해함</li> </ul>
	형제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과 사이가 원활하지 못함(칭찬보단 잘못을 지적)</li> <li>• 동생과의 갈등</li> </ul>
자기표현	표현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속상한 일 생기면 구석진 곳을 찾아 꾸그리고 앉아 있음</li> <li>•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함</li> <li>•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표현하기를 두려워 함</li> <li>• 속상한 일이나 부정적 감정 표현하지 않음</li> </ul>
	울음으로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현을 잘 하지 않고 울음으로 대체</li> </ul>
	자기주장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합리하거나 싫은 상황에서 눈물부터 나오고 제대로 의사표현이 나 대처를 못 함</li> <li>• 원하는 것을 부모에게도 말하기 어려워함</li> </ul>
의존성	혼자 노는 것 어려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이할 때 다른 사람에게 많이 의지함</li> </ul>
	자조행동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밥 먹기, 옷 입기 등 자조활동을 도움받아 해결하려고 함</li> </ul>
유능감	과도한 유능감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뭐든지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음. 공부나 놀이, 게임에서 지면 울고 화내고 속상해함. 공격적 성향 보임</li> <li>• 칭찬만 받길 원하고 부족한 부분을 말하면 떼쓰고 울음</li> </ul>
틱	운동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틱 장애(눈 깜빡, 얼굴 찡그림)</li> </ul>
자위	자위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식기를 만짐</li> </ul>
수면	수면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이 오면 너무 흥분하여 위험한 행동도 함</li> </ul>

코로나19 전 시기에 보고된 주호소 문제는 놀이치료 임상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문제행동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안] 유목에서는 낮은 상황 및 예측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긴장이 주로 보고되었다. 주호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정서조절] 유목으로, 모든 아동이 좌절을 견디기 어려워하고 감정조절이 잘되지 않아 울거나, 악을 쓰거나 사소한 것에도 짜증을 부리는 등 급격하게 감정이 변동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였다. 이런 내면화 문제로 인해 아동은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기보다는 참거나 울음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군집분석에서 군집 4(불안/우울 및 정서조절 곤란형)에 해당하는 주호소이다.

자녀의 충동성, 산만함 및 공격적 행동 등 같이 행동조절이 잘되지 않는 문제도 주된 주호소 문제였다. “위험한 것에 대한 겁이 없어요”, “가만있지 않고 부주의해

요”와 같은 외현화 문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친구들을 밀거나 때리거나 발을 밟아요”,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폭력적인 행동, 언어를 사용해요”와 같이 또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으로 이런 행동 조절 문제는 가정에서도 어려움을 초래한다. 부모가 훈육할 때 자녀는 “하지 말라는 행동을 일부러 더 하고 통제가 되지 않다” 보니, “말을 너무 듣지 않아서 엄마, 아빠가 스트레스를 받아요”라는 주호소도 제기되었다. 이는 군집분석에서 군집 2(행동조절 및 수면 곤란형)에 해당하는 주호소이다.

자녀의 수면 및 신체증상 문제는 군집분석에서 군집 1(경미한 신체화 및 수면 곤란형)과 군집 2(행동조절 및 수면 곤란형)로 구분되어 있으나 모는 실제 주호소 문제에서 이에 대해 별도로 분리하여 기술하지 않았다.

#### 다) 코로나19 중 (2020~2021년) 내담 아동 사회·정서 문제행동 군집

코로나19 중(2020년~2021년) 내담 아동 사회·정서 문제행동 특성에 따른 군집에서 군집 1은 15명(9.6%), 군집 2는 21명(13.5%), 군집 3은 87명(55.8%), 군집 4는 33명(8.5%)으로 구성되었다. 군집 1은 정서적 반응성, 위축과 주의집중 문제, 공격행동 문제가 높은 특징을 보여 [행동·정서조절 곤란과 위축 동반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신체증상, 불안/우울 및 정서적 반응성이 가장 높은 특징을 보여 [불안/우울·정서조절 곤란과 신체화 동반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전반적으로 문제행동이 낮은 특징을 보여 [경미한 문제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4는 수면 문제와 주의집중 문제가 가장 높은 특징을 보여 [수면 및 주의집중 곤란형]으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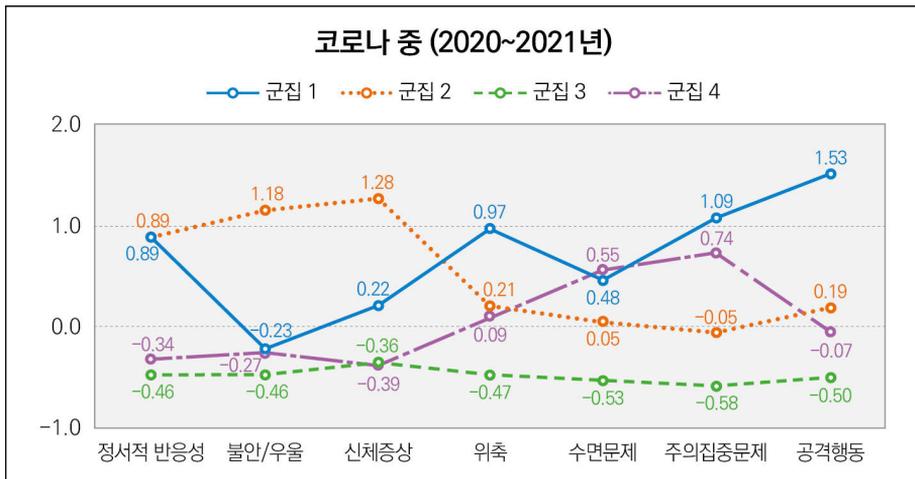
군집 1의 경우, 주의산만, 공격적 행동 등과 같은 행동조절 문제, 감정변동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정서조절 문제 및 위축 문제가 모두 높게 나타나 외현화 및 내면화 문제가 혼재된 특성이 있었다. 군집 2의 경우, 불안/우울과 정서조절 문제와 함께 신체화가 동반되어 여러 개의 내면화 문제로 혼합된 특성이 있었다. 군집 4에서는 수면 문제에 행동조절 문제 중 주의집중 문제만 동반되는 특성이 있었다. 종합하면, 코로나19 중기에는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가 혼재되거나 내면화 문제가 복합되어 군집이 구분되었고, 주의산만 문제가 단독 군집으로 구분된 점이 특징적이었다.

〈표 V-2-5〉 코로나19 중 내담 아동의 사회·정서 문제행동 군집

단위: 점, N=156

구분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행동·정서조절 곤란과 위축 동반형	불안/우울· 정서조절 곤란과 신체화 동반형	경미한 문제형	수면 및 주의집중 곤란형
N	15	21	87	33
정서적 반응성	0.89	0.89	-0.46	-0.34
불안/우울	-0.23	1.18	-0.46	-0.27
신체증상	0.22	1.28	-0.36	-0.39
위축	0.97	0.21	-0.47	0.09
수면문제	0.48	0.05	-0.53	0.55
주의집중 문제	1.09	-0.05	-0.58	0.74
공격행동	1.53	0.19	-0.50	-0.07

〈그림 V-2-2〉 코로나19 중 내담 아동의 사회·정서 문제행동 군집



라) 코로나19 중(2020년~2021년) 내담 아동 사회·정서 문제행동 관련 주호소  
질적분석

코로나19 중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모의 주호소를 분석한 결과, 불안, 정서조절, 행동조절, 사회성, 등원, 관계, 자기표현, 의존성, 유능감, 틱, 자위, 수면, 미디어 사용의 13개의 유목과 26개의 범주가 추출되었다(〈표 V-2-6〉 참조).

〈표 V-2-6〉 코로나19 중 내담 아동 사회·정서 문제행동 관련 주호소

N=174

유목	범주	세부내용
불안	긴장 및 예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낮가림</li> <li>•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 위축</li> <li>• 낯선 것에 대한 불안이 큰 성향 (입학식 날 울고 들어갔음)</li> <li>• 주변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li> <li>• 새로운 공간, 장소 사람을 만날 때 불안해함</li> <li>• 또래가 많으면 섞이지 못하고 기피함</li> <li>• 자신의 몸에 누가 손을 대거나 때리면 바로 화를 내고 때림</li> <li>• 평소 예민한 성격이어서 긴장된다거나 걱정한다는 표현을 자주 함</li> <li>• 물건 집착(젓꼭지, 이불 등)</li> <li>• 어린이집에서 안전교육 영상 등 시청 후 무서워하고 집 밖에서 소심해짐</li> <li>• 집안에서 화장실 또는 현관에 혼자 있는 것을 극도로 싫어함</li> </ul>
	손발톱 물어뜯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발톱을 잠들기 직전에 피가 날 정도로 뜯음</li> </ul>
	분리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원 시 엄마와 헤어질 때, 등원 후 울음</li> <li>• 집 또는 밖에서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 함</li> </ul>
정서조절	화 조절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리 지르기, 물건 던지기, 때리기, 자극적인 언어 사용</li> <li>• 침을 뱉음</li> <li>• 갑자기 비쳐서 말 안 하고 토라짐</li> <li>• 작은 일에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냄</li> <li>• 엄마에게 말할 때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격하게 반응</li> <li>• 쉽게 짜증을 냄</li> </ul>
	좌절 견디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절감을 크게 느낌</li> <li>•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신경질적으로 말하거나, 울거나, 행동화</li> <li>• 빠른 포기. 부정적 언어 표현(예: ~하면 안 되죠?)</li> <li>• 공부를 시작하면서 조금만 어렵다고 느끼면 포기하려고 하고 짜증 냄(숫자공부, 달력, 2-3쪽 학습지)</li> <li>• 게임에서 지는 것에 대한 수용 어려움, 화냄, 반칙</li> </ul>
	감정조절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흥분하면 소리 지르기, 위험한 행동도 함</li> <li>• 흥이 오르면 자제가 안 됨</li> </ul>
행동조절	충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한 행동</li> <li>• 친구들과 놀이 중 과격한 행동</li> <li>• 과잉행동</li> <li>• 말보다 행동이 너무 앞섬</li> </ul>
	산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중력 부족함</li> <li>• 물건 정리를 못 하고 자주 분실함</li> <li>• 집중하면 불러도 대응 없이 자기 일만 함</li> </ul>
	훈육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집이 셴</li> <li>• 본인 말이 다 맞다고 고집을 부림</li> <li>• 하기 싫은 일 해야 할 때, 혼이 날 때 화를 내거나 물건을 침</li> <li>• 지적을 받으면 혼자 방에 가서 울고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함</li> </ul>
	공격적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에게 공격적인 행동</li> <li>• 싸우고 부수는 놀이를 많이 해서 장난감이 많이 부서졌음</li> <li>• 폭력적이거나 자극적 표현 사용 증가</li> </ul>



유목	범주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력적임</li> </ul>
	떼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떼가 심함</li> <li>• 또래에 비해 떼를 쓰는 횟수가 많음</li> </ul>
사회성	언어발달 지연으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표현이 느려서 친구들과 상호작용이 어려움</li> </ul>
	또래 관계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의 아픔, 슬픔 공감 못 함</li> <li>• 또래 무서워하고 관계 맺는 것 어려워함</li> <li>• 또래가 다수인 경우, 섞이지 못하고 기피함</li> <li>• 또래와는 잘 못 어울리고 어른과는 잘 어울림</li> <li>• 친구에게 그냥 맞춤</li> <li>• 친구들과 다툼</li> <li>• 놀이 시 적절한 의사표현 어려움</li> </ul>
등원	등원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가는 것을 매우 힘들어함</li> <li>• 적응 안 되어서 계속 안 가려고 떼쓰고 울음</li> <li>• 등원거부</li> <li>• 또래 관계에서 몇 번 문제가 생긴 뒤 유치원 등원 거부</li> </ul>
관계	모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너무 혼을 많이 내서 모를 무서워하고 눈치를 살핌</li> <li>• 모 자신의 양육 태도에 자신이 없음</li> <li>• 엄마 싫다고 자주 말함</li> </ul>
	형제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제간 싸움</li> <li>• 형제간 비교하고 억울해함</li> <li>• 동생 출생 후 예민, 거부 반응</li> <li>• 남매와의 관계</li> </ul>
자기표현	표현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적 감정 표현하지 않음</li> <li>• 속으로 삭힘</li> </ul>
	울음으로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구사항이 있을 때 울면서 이야기함</li> <li>• 자신이 감정을 표현할 때 눈물이 앞섬</li> <li>• 말하지 않고 울거나 표정이 안 좋음</li> </ul>
	자기주장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소한 일도 자기 탓함</li> <li>• 감정표현에 솔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분에 맞춤</li> </ul>
의존성	엄마에게 의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 엄마 탓하며 엄마 때림</li> <li>• 집에서도 "엄마가 해줘"라는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음</li> <li>• 스스로 하지 않음</li> </ul>
유능감	과도한 유능감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함</li> <li>• 주목받으려는 욕구가 강함</li> <li>• 형제와 게임을 할 때 이기고 싶어서 지려 하면 소리 지르고 울음</li> <li>• 본인이 못하는 모습을 창피하게 생각해서 보여주기 싫어함</li> <li>• 칭찬만 좋아함</li> </ul>
틱	운동 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눈 깜빡임</li> <li>• 다양한 행동, 틱</li> </ul>
	음성 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경 소리</li> </ul>
자위	자위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위를 함</li> </ul>
수면	수면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꿈꾸는 것 무서워함</li> <li>• 악몽으로 자면서 울음</li> <li>• 자면서 돌아다님. 엄마 배꼽에 집착하며 잠을 잠</li> </ul>
미디어	과도한 영상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으로 영상 시청 요구</li> </ul>

유목	범주	세부내용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속 동영상 시청하려고 함</li> <li>• Game을 접하게 되면서 폭력적 자극적인 것에 중독</li> <li>•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시청 시간 증가</li> <li>• 가정 보육 시 휴대폰, TV 시청에만 집착함</li> </ul>
	영상 시청 금지 시 태도	• 크게 화를 내고 울음

코로나19 중(N=174)은 코로나19 전(N=55)에 비해 표집된 사례 수가 많았으므로 주호소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코로나19 전에 비해 아동의 문제행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었다. [불안] 유목에는 “자신의 몸에 누가 손을 대거나 때리면 바로 화를 내고 때려요”, “어린이집에서 안전교육 영상 등 시청 후 무서워하고 등원을 거부해요”, “또래가 많으면 섞이지 못하고 기피해요” 등과 같은 문제가 포함되었다. [정서조절] 유목에는 특히 화가 날 때 “소리 지르기, 물건 던지기, 때리기,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해요”, “침을 뱉어요”, “엄마를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격하게 반응해요” 등과 같이 공격적인 행동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문제가 포함되었다. 이처럼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가 혼재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속으로 삭혀요”, “또래가 다수인 경우, 섞이지 못하고 기피해요”와 같이 좌절 상황에서 “빨리 포기하고, '~하면 안 되죠'와 같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요” 등과 같이 불안, 정서조절 문제와 위축된 행동 등 내면화 문제들이 혼합되어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적절한 자기표현 및 또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코로나19 중기에는 군집 1(행동·정서조절 곤란과 위축 동반형)과 같은 혼재형, 군집 2(불안/우울·정서조절 곤란과 신체화 동반형)와 같은 복합형으로 군집이 구분된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 표집 수에 차이가 있음에도 코로나19 전(N=55)에 비해 코로나19 중(N=174)의 주호소에서 [사회성] 유목 중 '또래 관계 어려움'이 많이 추가되지는 않았으나, “남의 아픔, 슬픔을 공감하지 못해요”, “또래를 무서워해요”, “또래와는 잘 못 어울리고 어른과는 잘 어울려요”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코로나19 전에 비해 [사회성] 유목에서 '언어발달 지연으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이 추가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관계] 유목에서 “너무 많이 혼을 내서 엄마를 무서워해요” 뿐 아니라 형제자매 간의 관계 갈등에 대한 어려움도 보고되었다. 모에 대한 의존성도 증가하여 “원하

는 것이 되지 않을 때 엄마 탓을 하며 엄마를 때려요”, “스스로 하지 않아요”라는 주호소도 보고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중에는 [등원], [미디어 사용] 유목이 추가로 추출되었다. [등원] 유목에는 “적응이 안 되어서 계속 안 가려고 떼쓰고 울어요”, “또래 관계에서 몇 번 문제가 생긴 뒤 유치원 등원을 거부해요” 등과 같은 등원 거부의 문제가 포함되었다. [미디어 사용] 유목에는 자녀가 “계속 동영상 시청하려고 해요”, “게임을 접하게 되면서 폭력적, 자극적인 것에 중독되었어요”, “영상 시청을 못 하게 하면 크게 화를 내고 울어요” 등과 같이 자녀의 과도한 영상 시청 요구로 인한 어려움이 보고되었다.

#### 마) 코로나19 후 (2023~2024년 8월) 내담 아동 사회·정서 문제행동 군집

코로나19 후(2023년~2024년 8월) 내담 아동 사회·정서 문제행동 특성에 따른 군집에서 군집 1은 12명(9.8%), 군집 2는 74명(60.2%), 군집 3은 26명(21.1%), 군집 4는 11명(8.9%)으로 구성되었다. 군집 1은 불안/우울, 정서적 반응성이 가장 높고, 위축도 높은 특징을 보여 [불안/우울·위축 및 정서조절 곤란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전반적으로 문제행동이 낮은 특징을 보여 [경미한 문제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신체증상과 수면문제가 가장 높은 특징을 보여 [신체화 및 수면 곤란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4는 주의집중과 공격행동 문제와 더불어 위축이 가장 높은 특징을 보여 [행동조절 곤란과 위축 동반형]으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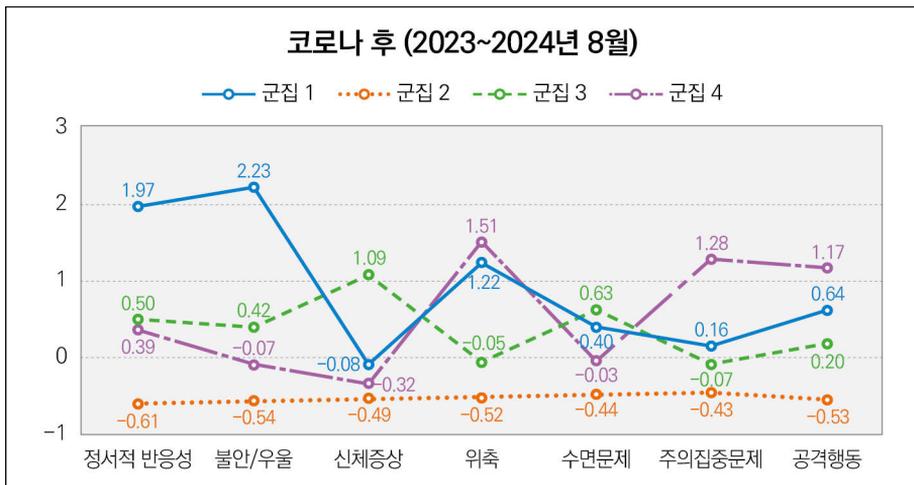
코로나19 후에도 코로나19 중과 같이 행동조절 어려움과 불안/위축 및 정서조절 어려움이 군집으로 구분되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세부적인 양상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군집 1의 경우, 내면화 문제인 불안/우울, 위축과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나타났고, 군집 4의 경우 주의산만과 공격적 행동의 외면화 문제와 위축의 내면화 문제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중에는 군집1에서 4개의 문제행동이 혼재되었던 것에서 코로나19 후에는 군집 4에서 문제행동의 수가 3개로 감소되어 혼재되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또한, 군집 3에서 [신체화 및 수면 곤란형]이 독립 군집으로 구분되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코로나 19 전에도 [신체화 및 수면 곤란형]이 단독 군집으로 구분되었으나, 이때에는 그 증상이 경미하였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표 V-2-7〉 코로나19 후 내담 아동의 사회·정서 문제행동 군집

단위: 점, N=123

구분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불안/우울·위축 및 정서조절 곤란형	경미한 문제형	신체화 및 수면 곤란형	행동조절 곤란과 위축 동반형
N	12	74	26	11
정서적 반응성	1.97	-0.61	0.50	0.39
불안/우울	2.23	-0.54	0.42	-0.07
신체증상	-0.08	-0.49	1.09	-0.32
위축	1.22	-0.52	-0.05	1.51
수면문제	0.40	-0.44	0.63	-0.03
주의집중 문제	0.16	-0.43	-0.07	1.28
공격행동	0.64	-0.53	0.20	1.17

[그림 V-2-3] 코로나19 후 내담 아동의 사회·정서 문제행동 군집



바) 코로나19 후(2023년~2024년 8월) 내담 아동 사회·정서 문제행동 관련 주호소 질적분석

코로나19 후의 자녀 문제행동에 대한 모의 주호소를 분석한 결과, 불안, 정서조절, 행동조절, 사회성, 등원, 관계, 자기표현, 의존성, 유능감, 틱, 자위, 수면, 미디어 사용의 13개의 유목과 30개의 범주가 추출되었다.



〈표 V-2-8〉 코로나19 후 내담 아동 사회·정서 문제행동 관련 주호소

N=143

유목	범주	세부내용
불안	긴장 및 예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각 기능 예민</li> <li>• 지나치게 예민함</li> <li>• 불안, 위험회피 높음</li> <li>• 똥, 화장실에 대한 두려움</li> <li>• 낮가림이 심하고 어느 곳이든 적응하는 데 오래 걸림</li> <li>•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 반응 크고 완벽주의 성향 있음</li> <li>• 새로운 상황, 환경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함</li> <li>•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불안 심하고 최근 강박이 심해졌음</li> <li>• 본인의 실수에 긴장, 당황함</li> <li>• 특정 물건(머리카락 만지기, 베개)에 집착</li> <li>• 불안할 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함</li> <li>• 무섭고 당황하면, 감정에 압도돼서 아무 말을 함</li> <li>• 긴장하면 소변을 자주 봄</li> <li>• 공포, 무서움이 심함</li> <li>• “무섭다”라는 표현이 많음</li> <li>• 함묵증</li> </ul>
	손발톱 물어뜯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톱 물어뜯기</li> <li>• 손가락 빨기(잠들고 뒤척일 때)</li> </ul>
	분리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자 있으면 무서워함</li> <li>• 분리불안 매우 심함</li> </ul>
정서조절	화 조절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절하지 못하고 울음, 소리 지르기, 물건 던지기, 때리기 등의 행동 나타남</li> <li>• 부정적인 표현 사용</li> <li>• 자기 머리를 때리거나 바지에 소변을 봄</li> </ul>
	좌절 견디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이 없는 일, 어려운 일은 미리 겁먹고 포기함</li> <li>• 한번 시도로 안 되면 다시 시도 안 함</li> <li>• 완벽하게 될 것 같지 않으면 시도조차 안 함</li> <li>• “안돼”라는 말에 심히 속상해함</li> <li>•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소리 지르기, 물건 던지기, 부모를 손으로 툭툭 치기, 심하게 화내기 등의 행동 나타남</li> <li>• 자신의 의견에 대해 거부 표현을 받으면 감정이 격해짐</li> <li>• 혼이 나면 거짓말로 상황 회피함</li> <li>•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하고 격한 반응을 보임</li> </ul>
	감정 조절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갑자기 짜증, 화내기, 울기</li> <li>• 감정이 격해질 경우 말보다는 행동이 앞섬</li> </ul>
행동조절	충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유를 알 수 없는 충동적, 공격적 행동</li> <li>• 표현이 과격함</li> <li>• 조절을 못 해 사고가 날까 봐 걱정됨</li> <li>• 놀이 전환이 빠름</li> <li>• 과잉행동 (장난이 심함)</li> <li>• 몸으로 놀아줄 때 꼭 어머니나 아버지가 다침</li> <li>• 기다리는 것에 대한 어려움, 조급함</li> </ul>
	산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이, 공부 시 집중하지 못함</li> <li>• 산만하고 부산함</li> </ul>

유목	범주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 소리, 소음에 집중이 쉽게 흐트러짐</li> <li>• 계속 움직임,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잘 듣지 않는 것 같음</li> <li>• 대집단 활동 시 멍때리는 등 주의집중이 안될 때가 있음</li> <li>•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의 얘기를 계속하려고 함</li> <li>• 전환의 어려움</li> </ul>
	훈육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집이 세고 떼쓰기가 심함</li> <li>• 청개구리 말과 행동(반대로 말하기)</li> <li>• “이건 내 마음이야”라면서 의견을 강하게 주장함</li> <li>• 항상 억울해하면서 남 핑계를 댐</li> <li>• 하기 싫은 일(정리정돈)은 그냥 무시함</li> </ul>
	공격적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짜증이 늘고, “죽어!” 등의 표현을 함</li> <li>•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언행</li> <li>• 기분에 따라 친구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임</li> </ul>
사회성	언어발달 지연으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발달 지연으로 인해 상호작용이 잘 안됨</li> <li>• 언어 지연으로 친구 관계 어려움</li> <li>• 대답을 느리게 하여 상호작용 미숙함</li> </ul>
	또래 관계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로 외부 활동 못 하면서 낮가림, 탐색 증가</li> <li>• 등원을 하지 않아 사회성이 떨어질까 봐 염려됨</li> <li>• 친구보다는 성인과 노는 것을 좋아함</li> <li>• 친구들과의 관계를 시시하게 여김</li> <li>• 상대방에 대한 이해, 배려가 부족함</li> <li>• 친구들에게 지시적인 행동</li> <li>• 또래 놀이를 관찰만 하고 놀이에 끼지 못함</li> <li>• 또래와의 갈등 상황 회피</li> <li>• 친구가 요구하면 거절을 잘 못하여 싫어도 줌</li> <li>• 친하게 지내고 좋아하는 친구에게 다가가는 법을 몰라 오히려 상대방이 싫어하는 경우가 있음</li> <li>• 대화 중 고집스럽게 하는 부분</li> <li>• 타인과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을 잘하지 못함</li> <li>• 친구들과 활동하다 본인이 하기 싫은 행동일 경우 어울리지 않음</li> <li>•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li> <li>• 자신감 결여로 친구들 사이에서 쉽게 위축됨</li> <li>• 친구들이 안 논다고 하면 아무도 안 놀아준다면 극단적인 반응 보임</li> </ul>
등원	등원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첫 등원 후부터 밤마다 오열함</li> <li>• 어린이집 가기 싫어하고 갈 때마다 눈물 보임</li> <li>• 친구가 놀아주지 않는다고 울고 등원. 등교를 거부함</li> <li>• 갑작스러운 폐원으로 원을 옮기자 잘 때 자주 울었음</li> </ul>
관계	모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의 고집을 참지 못하고 모가 분노하고 손찌검함</li> <li>• 주 양육자로서 감정적으로 지치게 되고 같이 격양됨</li> <li>• 엄마가 성격이 육하는 부분이 있고 말을 잘 안 들으면 소리를 지르는 경향이 있음</li> <li>• 엄마에 대한 반항, 적개심</li> <li>• 부모가 허용적으로 양육하여 또래보다 어리게 느껴짐</li> </ul>
	부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를 싫어함</li> <li>• 부에 대해 두려움을 느낌</li> <li>• 부의 폭력 목격</li> </ul>

유목	범주	세부내용
	형제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제간 갈등</li> <li>• 형에 비해서 소외감 느낌</li> <li>• 엄마를 두고 동생과 경쟁이 심함</li> </ul>
자기표현	표현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각과 감정, 상황을 잘 이야기하지 않음</li> <li>• 기분이 안 좋거나 화가 났을 때 숨어서 대화가 어려움</li> </ul>
	울음으로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 표현을 울음으로 함</li> <li>•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청할 때 울음, 징징거림</li> </ul>
	자기주장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쉽게 양보함</li> <li>• 원하는 놀잇감을 친구들에게 다 뺏김</li> <li>• 안 들어줄까 봐 원하는 것을 반대로 말함</li> <li>•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무조건 미안하다고 함</li> <li>• 하기 싫어도 하고 싶다고 표현함</li> <li>• 친구와 놀이할 때 본인 주장을 자신 있게 이야기 안 함</li> <li>• 자신이 감정이나 생각, 느낌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움</li> </ul>
	참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현을 안 하고 혼자 견뎌</li> <li>• 외부 눈치를 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많이 참음</li> <li>• 울음을 참음</li> </ul>
의존성	자조행동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조행동 부족</li> </ul>
	엄마 의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스로 하는 행동이 너무 낮음</li> <li>• 자기의 의견보다 엄마의 답변을 물음</li> <li>• 오직 엄마한테만 매달리고 의존함</li> </ul>
유능감	과도한 유능감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조건 1등을 해야 함</li> <li>•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함</li> <li>• 이기기 위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함</li> <li>• 의기소침, 자신감이 별로 없음</li> <li>• 게임에서 이기는 것을 좋아하고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 보임</li> </ul>
틱	운동 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눈 깜빡임</li> </ul>
	음성 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음' 소리 내는 음성 틱</li> </ul>
자위	자위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전, 일어날 때 엎드려서 성기를 만짐</li> <li>• 자위 빈도가 잦아짐</li> <li>• 자위를 함</li> </ul>
수면	수면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어려움</li> <li>• 어린이집에서 낮잠 어려워함</li> <li>• 잠들기까지 시간 많이 걸리고 악몽을 꿈</li> <li>• 늦은 수면시간</li> <li>• 수면 시 불안해함</li> <li>• 수면 각성 시간이 길고 무서워함</li> </ul>
미디어 사용	과도한 영상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V 시청 좋아함, 미디어를 많이 보려고 하는 습관이 늘어나고 바깥 활동을 잘 하지 않으려 함</li> <li>• 특정 콘텐츠를 계속 듣고 싶어 함</li> <li>• TV, 핸드폰, 스마트 태블릿 찾는 횟수 및 사용 시간 늘어남</li> <li>• 미디어 노출로 인한 폭력성 및 바르지 못한 언어 사용</li> <li>• 미디어 집착을 많이 하고 중독 염려</li> </ul>

코로나19 후, 모의 주호소 유목은 코로나19 중의 유목과 같았다. 하지만 코로나 19 중에 비해 코로나19 후의 사례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불안, 예민함(감각), 충동성, 산만함, 사회성, 모와의 관계, 수면, 미디어 사용 관련 주호소의 수가 증가하였고 심화되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안] 유목에는 “감각 기능이 예민해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불안이 심하고 최근 강박도 심해졌어요”, “공포, 무서움이 심해졌어요” 등과 같이 긴장과 불안으로 인한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감각 기능의 예민함(오감에 대한 감각적 어려움)에 대한 호소는 팬데믹 기간 동안 제한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 익숙해진 아동들이 다시 복잡한 외부 환경에 노출되면서 전환 기능의 결함(새로운 자극 필터링 및 적응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사회성] 유목에는 코로나19 중과 마찬가지로 언어발달 지연으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이 보고되었고,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못 하면서 낮가림, 탐색이 증가했어요”, “등원을 하지 않아 사회성이 떨어질까 봐 염려돼요”, “타인과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을 잘하지 못해요”, “자신감 결여로 친구들 사이에서 쉽게 위축돼요” 등과 같이 코로나19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다. [등원] 유목에는 “친구가 놀아주지 않는다고 울고 등원해요”, “등교를 거부해요”, “갑작스러운 폐원으로 원을 옮기자 잘 때 자주 울었어요” 등과 같은 등원 관련 어려움이 보고되었다. [관계] 유목에는 “자녀의 고집을 참지 못하고 분노해서 손찌검을 했어요”, “엄마에 대한 반항과 적개심이 있어요” 등 모와의 관계에서의 갈등이 구체적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중의 “엄마가 싫다는 말을 자주 해요”라는 주호소보다 다소 악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 2) 실행기능 군집

실행기능이란 개인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고, 정서, 행동을 의식적으로 관리하고 조절하는 고차원적 인지 기능을 의미한다(Zelazo & Müller, 2002). Isquith 등(2004)은 실행기능의 하위요인으로 ‘억제’, ‘전환’, ‘감정조절’, ‘작업기억’, ‘계획조직’을 제안하였는데, ‘억제’는 반항적,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제어하거나 참아내는 능력, 때와 장소를 적절하게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전환’은 어떤 상황이나 활동으로부터 유연하게 문제상황을 해결하고 바꿀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사고능력을 의미한다. ‘감정조절’은 자신의 감

정과 정서적 반응을 적절하게 다루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작업기억’은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단기기억에 필요한 정보를 수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계획조직’은 앞으로의 사건을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생각해서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만 3~5세 시기에 뇌 발달과 함께 이러한 실행기능을 기반으로 과제수행 능력이 크게 발달하므로 (Cole & Mitchell, 2000; Zelazo & Müller, 2002), 외부 생활과의 단절을 초래한 코로나19가 아동의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시기별 실행기능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므로, 코로나19 전(2018년~2019년), 코로나19 중(2020년~2021년), 코로나19 후(2023년~2024년 8월) 시기별로 실행기능 특성에 따라 군집을 분류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다.

#### 가) 코로나19 전 (2018~2019년) 내담 아동 실행기능 군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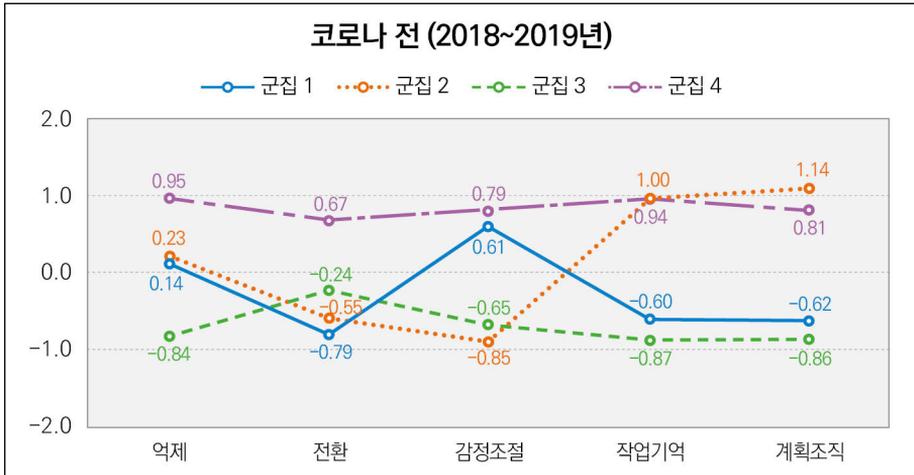
코로나19 전(2018년~2019년) 내담 아동 실행기능 특성에 따른 군집에서 군집 1은 5명(14.3%), 군집 2는 4명(11.4%), 군집 3은 14명(40.1%), 군집 4는 12명(34.3%)으로 구성되었다. 군집 1은 자신의 감정과 정서반응 조절능력인 ‘감정조절’이 취약한 특성이 있어 [감정조절 취약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필요한 정보를 수용하고 활용해서 문제를 완성하는 ‘작업기억’과 체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인 ‘계획조직’이 가장 취약한 특성을 보여 [작업기억 및 계획조직 취약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전반적으로 실행기능 발휘에 어려움이 없는 특성을 보여 [실행기능 양호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4는 전반적으로 모든 실행기능 하위요인이 취약한 특성을 보여 [전반적 실행기능 취약형]으로 명명하였다.

〈표 V-2-9〉 코로나19 전 내담 아동의 실행기능 군집

단위: 점, N=35

구분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감정조절 취약형	작업기억 및 계획조직 취약형	실행기능 양호형	전반적 실행기능 취약형
N	5	4	14	12
억제	0.14	0.23	-0.84	0.95
전환	-0.79	-0.55	-0.24	0.67
감정조절	0.61	-0.85	-0.65	0.79
작업기억	-0.60	1.00	-0.87	0.94
계획조직	-0.62	1.14	-0.86	0.81

[그림 V-2-4] 코로나19 전 내담 아동의 실행기능 군집



나) 코로나19 중 (2020년~2021년) 내담 아동 실행기능 군집

코로나19 중(2020년~2021년) 내담 아동 실행기능 특성에 따른 군집에서 군집 1은 27명(17.9%), 군집 2는 55명(36.4%), 군집 3은 27명(17.9%), 군집 4는 42명(27.8%)으로 구성되었다. 군집 1은 유연하게 문제상황을 해결하고 바꿀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사고능력인 '전환'이 가장 취약한 특성을 보여 [전환 취약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전반적으로 실행기능 발휘에 어려움이 없는 특성을 보여 [실행기능 양호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전반적으로 모든 실행기능 하위요인이 높은 특성을 보여 [전반적 실행기능 취약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4는 자신의 감정과 정서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감정조절'과 필요한 정보를 수용하고 활용해서 과제를 완성시키는 '작업기억'이 취약한 특성을 보여 [감정조절 및 작업기억 취약형]으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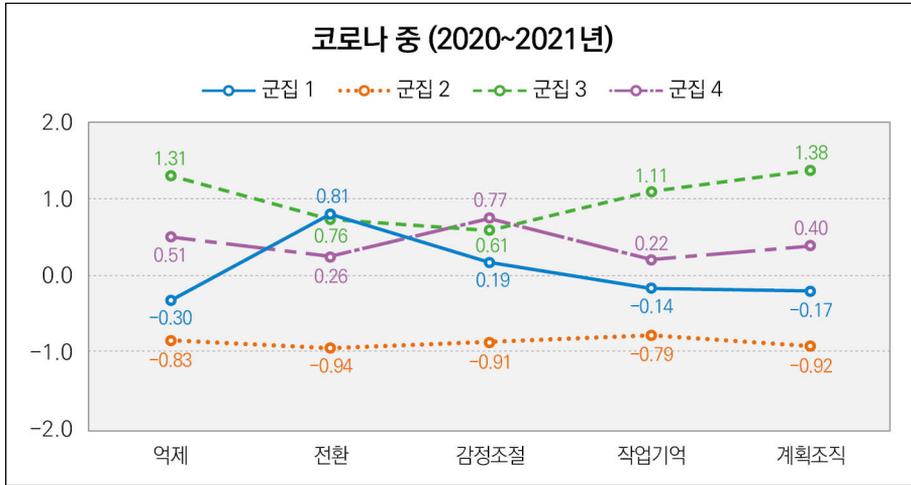
<표 V-2-10> 코로나19 중 내담 아동의 실행기능 군집

단위: 점, N=151

구분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전환 취약형	실행기능 양호형	전반적 실행기능 취약형	감정조절 및 작업기억 취약형
N	27	55	27	42
억제	-0.30	-0.83	1.31	0.51
전환	0.81	-0.94	0.76	0.26

구분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전환 취약형	실행기능 양호형	전반적 실행기능 취약형	감정조절 및 작업기억 취약형
감정조절	0.19	-0.91	0.61	0.77
작업기억	-0.14	-0.79	1.11	0.22
계획조직	-0.17	-0.92	1.38	0.40

[그림 V-2-5] 코로나19 중 내담 아동의 실행기능 군집



다) 코로나19 후 (2023~2024년 8월) 내담 아동 실행기능 군집

코로나19 후(2023년~2024년 8월) 내담 아동 실행기능 특성에 따른 군집에서 군집 1은 43명(42.6%), 군집 2는 25명(24.8%), 군집 3은 10명(9.9%), 군집 4는 23명(22.8%)으로 구성되었다. 군집 1은 실행기능의 하위요인들이 대부분 낮은 특성을 보여 [실행기능 양호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실행기능의 하위요인들이 대부분 높은 특성을 보여 [전반적 실행기능 취약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억제, 작업기억, 계획조직이 가장 취약한 특성을 보여 [억제, 작업기억, 계획조직 취약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4는 전반적으로 실행기능 발휘에 어려움이 없는 특성을 보여 [실행기능 우수형]으로 명명하였다.

코로나19 중에 비해 코로나19 후에는 군집 1의 [실행기능 양호형]과 더불어 군집 4의 [실행기능 우수형]으로도 구분되었다. 반면, 군집 2에서는 전반적으로 실행기능이 취약하였고, 군집 3에서는 충동을 조절하고, 과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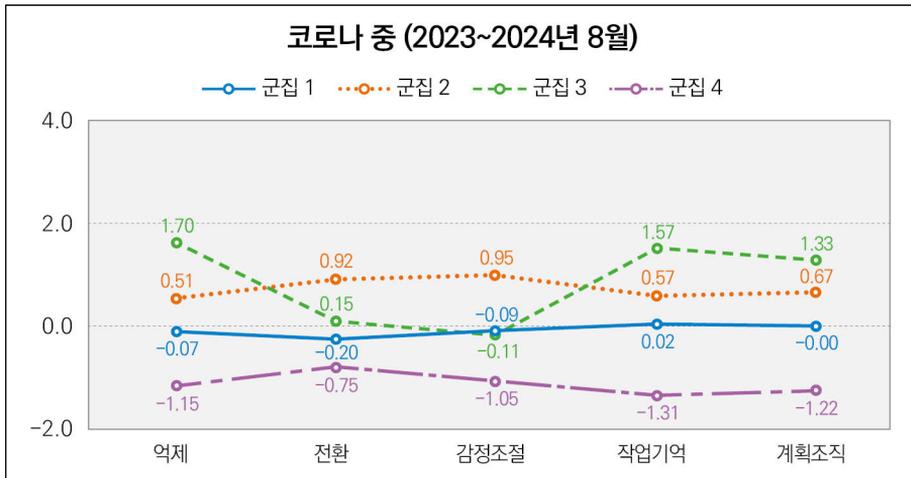
용하고 활용하는 능력과 체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이 복합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코로나19 후 실행기능은 좋거나, 복합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양분화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V-2-11] 코로나19 후 내담 아동의 실행기능 군집

단위: 점, N=101

구분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실행기능 양호형	전반적 실행기능 취약형	억제, 작업기억, 계획조직 취약형	실행기능 우수형
N	43	25	10	23
억제	-0.07	0.51	1.70	-1.15
전환	-0.20	0.92	0.15	-0.75
감정조절	-0.09	0.95	-0.11	-1.05
작업기억	0.02	0.57	1.57	-1.31
계획조직	-0.00	0.67	1.33	-1.22

[그림 V-2-6] 코로나19 후 내담 아동의 실행기능 군집



### 3) 부모 양육 태도 군집

부모 양육 태도는 지지표현, 합리적 설명, 성취 압력, 간섭, 처벌, 감독, 과잉기대, 비밀관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임호찬, 2008)되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지표현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많이 보이는 정도를 평가한다. 합리적 설명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자녀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노력의 정도를 평가한다. 성취 압력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사회적 성공을 강하게 요구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간섭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사생활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도를 평가한다. 처벌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신체적 처벌이나 심리적 위협을 가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감독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일상 스케줄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를 평가한다. 과잉기대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암묵적인 기대 정도를 평가한다. 비일관성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한 꾸지람의 기준이 비일관적인 정도를 평가한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 태도는 코로나 19 중과 후를 거치면서 그 양상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 예상된다. 이에 코로나19 중(2020년~2021년), 코로나19 후(2023년~2024년 8월) 시기별로 부모 양육 태도 특성에 따라 군집을 분류하였고, 이는 다음과 같다.

가) 코로나19 중(2020~2021년) 부모 양육 태도 군집

코로나19 중(2020년~2021년) 부모 양육 태도 특성에 따른 군집에서 군집 1은 42명(24.7%), 군집 2는 42명(24.7%), 군집 3은 54명(31.8%), 군집 4는 32명(18.8%)으로 구성되었다. 군집 1은 지지표현, 간섭과 감독이 가장 높고, 처벌도 높은 특성을 보여 [긍정적 태도와 처벌 동반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처벌과 비일관성이 가장 높은 특성을 보여 [비일관적 처벌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지지표현, 합리적 설명만 가장 높은 특성을 보여 [훈육부재 및 허용적 태도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4는 성취 압력과 과잉기대가 가장 높은 특성을 보여 [과잉기대 및 성취압력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의 특징을 살펴볼 때, 코로나19 중에는 처벌하거나 허용하거나 자녀를 부족하게 느껴 자녀가 잘하도록 강하게 압력을 주는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처벌’이 군집 1과 군집 2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표 V-2-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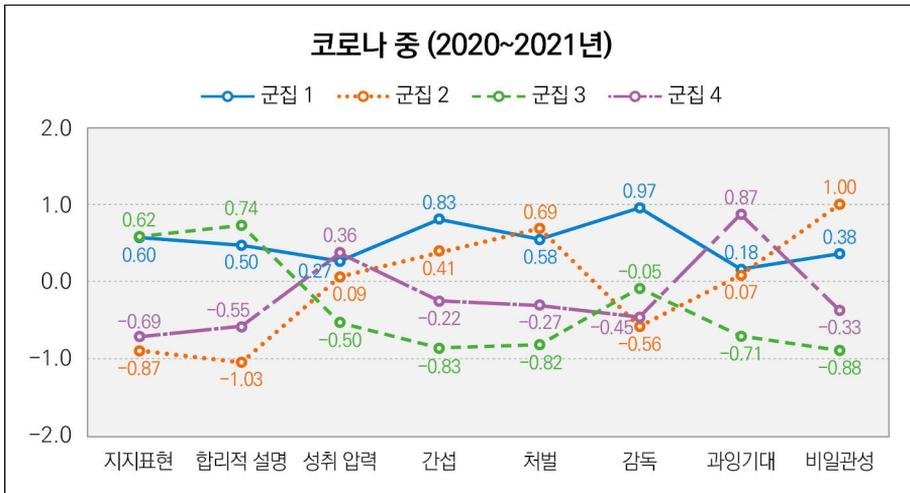
〈표 V-2-12〉 코로나19 중 내담 아동의 부모 양육 태도 군집

단위: 점, N=170

구분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긍정적 태도와 처벌 동반형	비일관적 처벌형	훈육부재 및 허용적 태도형	과잉기대 및 성취압력형
N	42	42	54	32
지지표현	0.60	-0.87	0.62	-0.69

구분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긍정적 태도와 처벌 동반형	비일관적 처벌형	훈육부재 및 허용적 태도형	과잉기대 및 성취압력형
합리적 설명	0.50	-1.03	0.74	-0.55
성취 압력	0.27	0.09	-0.50	0.36
간섭	0.83	0.41	-0.83	-0.22
처벌	0.58	0.69	-0.82	-0.27
감독	0.97	-0.56	-0.05	-0.45
과잉기대	0.18	0.07	-0.71	0.87
비일관성	0.38	1.00	-0.88	-0.33

[그림 V-2-7] 코로나19 중 내담 아동의 부모 양육 태도 군집



### 나) 코로나19 후(2023~2024년 8월) 부모 양육 태도 군집

코로나19 후(2023~2024년 8월) 부모 양육 태도 특성에 따른 군집에서 군집 1은 23명(21.3%), 군집 2는 46명(42.6%), 군집 3은 20명(18.5%), 군집 4는 19명(17.6%)으로 구성되었다. 군집 1은 지지표현, 합리적 설명과 감독이 높은 특성을 보여 [적절한 훈육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지지표현과 합리적 설명이 어느 정도 높고, 성취 압력이 높은 특성을 보여 [긍정적 태도 및 성취압력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성취 압력, 간섭, 처벌 및 과잉기대가 가장 높은 특성을 보여 [비일관·부적절한 훈육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4는 지지표현, 합리적 설명, 간섭, 감독 및 비일관성이 가장 높은 특성을 보여 [긍정적 태도와 비일관·부적절한 훈육 동반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의 특징을 살펴볼 때, 코로나19 중에 비해 코로나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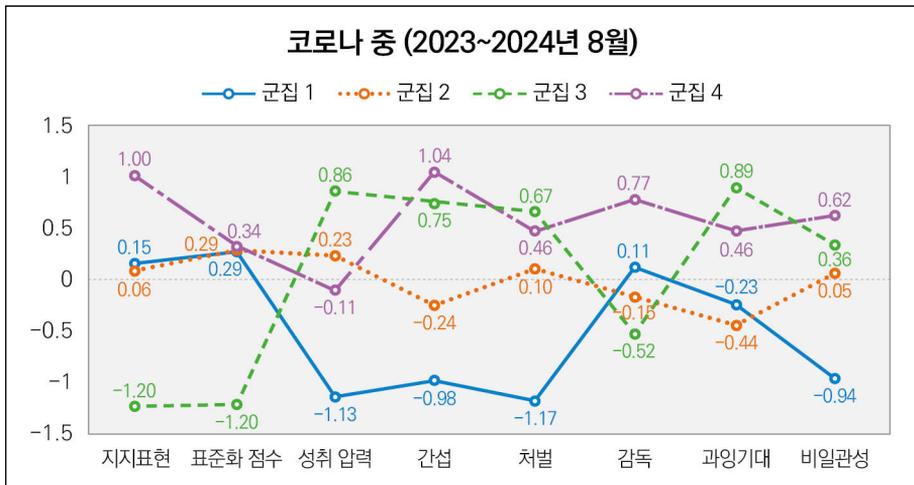
후에는 긍정적인 양육 태도가 많이 증가하였으나 부적절한 양육 태도와 동반되기도 하였다. 또한 훈육을 시도하는 태도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V-2-13〉 코로나19 후 내담 아동의 부모 양육 태도 군집

단위: 점, N=108

구분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적절한 훈육형	긍정적 태도 및 성취압력형	비일관·부적절한 훈육형	긍정적 태도와 비일관·부적절한 훈육 동반형
N	23	46	20	19
지시표현	0.15	0.06	-1.20	1.00
표준화 점수	0.29	0.29	-1.20	0.34
성취 압력	-1.13	0.23	0.86	-0.11
간섭	-0.98	-0.24	0.75	1.04
처벌	-1.17	0.10	0.67	0.46
감독	0.11	-0.15	-0.52	0.77
과잉기대	-0.23	-0.44	0.89	0.46
비일관성	-0.94	0.05	0.36	0.62

〈그림 V-2-8〉 코로나19 후 내담 아동의 부모 양육 태도 군집



#### 4) 모의 '지금 내방한 이유'에 대한 빈도분석 및 질적분석

접수 면접 시 양육자는 현재 자녀의 행동 중 걱정되는 문제인 '주호소'와 더불어 '지금 내방한 이유'에 대해서도 기록한다. 양육자는 먼저 접수면접지의 [주호소란]

에 자녀의 행동 중 걱정되는 다양한 문제행동을 1개~6개 정도로 기록한다. 그다음 접수면접지의 [지금 내방한 이유]에서는 현재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다시 정리해서 적게 된다. 그러므로, 주호소와 더불어 지금 우선순위를 두고 해결하고 싶은 내용인 '지금 내방한 이유'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양육자의 긴급한 욕구 및 양육 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에 이를 코로나19 전, 코로나19 중, 코로나19 후의 시기별로 구분하여 시기 간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질적분석을 수행하였다.

#### 가) 지금 내방한 이유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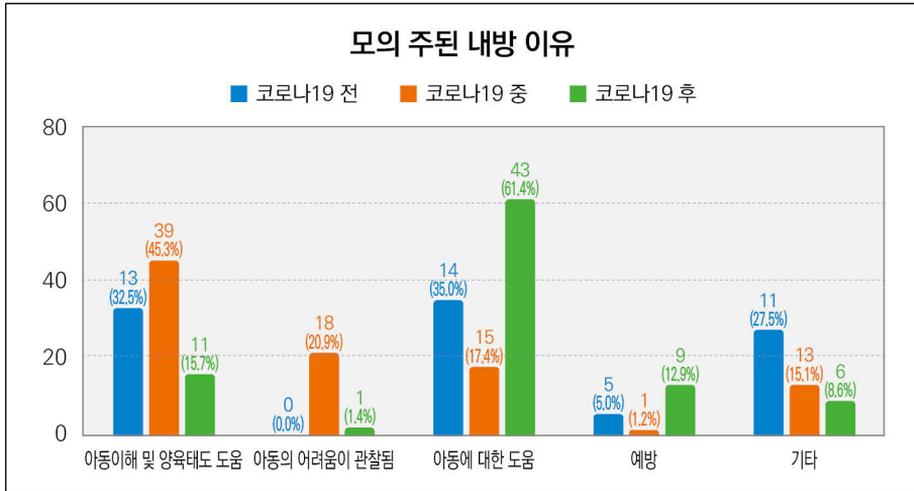
코로나19 전 시기에는 '아동 이해 및 양육 태도에 도움을 받기 위함'(32.5%)과 '아동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35.0%)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코로나19 중 시기에는 '아동 이해 및 양육 태도에 도움을 받기 위함'(45.3%)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다음 '아동의 어려움이 관찰됨'(20.9%), '아동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17.4%)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후에는 '아동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61.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아동 이해 및 양육 태도에 도움을 받기 위함'(15.7%)과 '예방'(12.9%) 순이었다.

〈표 V-2-14〉 시기별 모가 작성한 '지금 내방한 이유'에 대한 빈도분석

구분	코로나19 전 (N=40)	코로나19 중 (N=86)	코로나19 후 (N=70)
범주	n(%)	n(%)	n(%)
아동 이해 및 양육 태도에 도움을 받기 위함	13(32.5%)	39(45.3%)	11(15.7%)
아동의 어려움이 관찰됨	0( 0.0%)	18(20.9%)	1( 1.4%)
아동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	14(35.0%)	15(17.4%)	43(61.4%)
예방	2( 5.0%)	1( 1.2%)	9(12.9%)
기타	11(27.5%)	13(15.1%)	6( 8.6%)

※ '지금 내방한 이유'는 기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각 시기마다의 전체 사례 수가 다른 양적 분석과는 차이가 남.

[그림 V-2-9] 시기별 모의 '지금 내방한 이유' 범주별 백분율



‘아동 이해 및 양육 태도에 도움을 받기 위함’은 코로나19 전 32.5%에서 코로나 19 중 45.3%로 증가하였다가, 코로나19 후 15.7%로 급감하였다. 반면, ‘아동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은 코로나19 전 35.0%, 코로나19 중 17.4%에서 코로나19 후 61.4%로 급증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전에는 부모와 자녀 모두 도움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지만, 코로나19 중에는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자녀를 이해해서 모 자신의 양육 태도를 수정하려는 요구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후에는 자녀의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요구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방에 대한 요구도 코로나19 전(5.0%), 중(1.2%)에 비해 후(12.9%)에 급증하였다.

#### 나) 코로나19 전 모의 ‘지금 내방한 이유’ 질적분석

코로나19 전 모의 ‘지금 내방한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아동 이해 및 양육 태도에 도움을 받기 위함’, ‘아동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 ‘예방’, ‘기타’로 총 4개의 유목과 총 1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표 V-2-15〉 코로나19 전 모의 ‘지금 내방한 이유’에 대한 범주

유목	범주	세부 내용
아동 이해 및 양육 태도에 도움을 받기 위함	자녀 심리, 기질과 성향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의 기질과 성향을 파악하고 양육을 하기 위해</li> </ul>
	양육 및 훈육에 대한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의 양육 태도에 변화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li> <li>• 육아는 하면 할수록 어렵고 외외의 아이 행동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li> <li>•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서</li> </ul>
	증상에 대한 이해 및 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리불안이 어떤 부족으로 인한 것일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도움을 받고 싶어서</li> <li>•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li> <li>• 감정이 폭발할 때 어떻게 도와야 할지, 지도해야 할지 몰라서</li> </ul>
아동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	사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li> <li>• 단체 생활에서 아이가 타인과 잘 어울리며 지냈으면 해서</li> </ul>
	자기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해서</li> </ul>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낯선 곳에서 적응하고</li> <li>•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해가길 바라는 마음</li> </ul>
	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톱 물어뜯기와 불안함을 개선하기 위해</li> </ul>
	행동 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의력 결핍</li> </ul>
	마음 치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의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서</li> <li>•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아서</li> </ul>
예방	문제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li> <li>• 학교 들어가면 스트레스 및 친구 관계가 더 어렵고 해결이 어려울 듯해서</li> </ul>
기타	이혼 후유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혼에 대한 어려움 있는지 알고 싶어서</li> <li>• 이혼 가정으로 심리 발달 상황이 궁금해서</li> </ul>
	외부에서 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의 권유로</li> <li>• 원장님의 권유로</li> </ul>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 진단 및 상담을 원해서</li> </ul>

코로나19 전 모는 놀이치료를 받으면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자녀가 하는 행동의 이유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양육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예방] 유목을 살펴보면, 모는 초등학교 입학 시 적응 및 사회성에 대한 염려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 다) 코로나19 중 모의 ‘지금 내방한 이유’ 질적분석

코로나19 중 모의 ‘지금 내방한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아동 이해 및 양육 태도에 도움을 받기 위함’, ‘아동의 어려움 관찰됨’, ‘아동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 ‘예방’, ‘기타’ 총 5개의 유목과 총 1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유목에서 ‘아동의

어려움 관찰됨'이 포함된 것과 하위범주에서 '모의 화에 대한 후유증', '코로나19 후유증'이 포함된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표 V-2-16〉 참조).

〈표 V-2-16〉 코로나19 중 모의 '지금 내방한 이유'에 대한 범주

유목	범주	세부내용
아동 이해 및 양육 태도에 도움을 받기 위함	자녀 심리, 기질과 성향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드러나지 않은 아이의 심리 상태가 궁금해서</li> <li>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고 싶어서</li> <li>왜 이러는지 마음을 알고 싶어서</li> <li>아이가 요구할 때 자꾸 울어 말 안 하고 서로 이해 못 해서 힘들어서</li> <li>기질 예민한 아동에 대한 양육 방법을 알고 싶어서</li> </ul>
	양육 및 훈육에 대한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녀를 이해하고 부모로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서</li> <li>기질적으로 섬세하고 예민한 아이라 어떻게 감정표현, 의사표현 하는지를 알려주고 싶고, 부모로서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li> </ul>
	모의 화에 대한 후유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끔 같이 화를 내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훈육 방법</li> <li>아이를 과도하게 혼내게 되어 양육 지도를 받고 싶어서</li> <li>훈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한 걱정</li> </ul>
	증상에 대한 이해 및 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리불안이 어떤 부족으로 인한 것일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도움을 받고 싶어서</li> <li>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li> <li>감정이 폭발할 때 어떻게 도와야 할지, 지도해야 할지 몰라서</li> </ul>
	코로나19 후유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로 인해 엄마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한 걱정</li> <li>코로나19로 등원하지 못하면서 자녀의 부적 행동 강화</li> </ul>
아동의 어려움 관찰됨	문제가 있을 것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확히는 모르지만, 확실히 불안 요소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li> <li>사회성이 많이 낮아 보여서</li> </ul>
	자녀에게 문제행동이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엄마가 없을 때 울먹이고 불안해하고 떨어지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여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억압된 환경에 성격이 나빠지는 것 같아 보여서</li> <li>아이가 눈에 띄게 신경질적이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게 보여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범한 상황은 싫어하고 좀 위험한 행동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li> </ul>
아동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	사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구들과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li> </ul>
	자기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의 감정을 말로 이야기하고 상황을 풀어가게 것을 알았으면 해서</li> </ul>
	적응 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편안한 마음으로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었으면 해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안으로 인한 부적응적 문제행동을 개선하기 위해서</li> </ul>
	행동 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DHD치료 도움</li> <li>자신감 집중력 성격이 걱정됨</li> <li>물건 던지기, 동생 때리기, 과잉 행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좌절 인내력</li> </ul>
예방	문제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적응 잘할 수 있는지 걱정되어서</li> </ul>

유목	범주	세부내용
기타	이혼 후유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혼으로 떨어져 있던 시간이 충격인 듯</li> <li>• 아빠의 부재</li> </ul>
	외부에서 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임선생님이 애정을 갈구하는 마음이 크다고 추천</li> <li>• 어린이집에서 추천받음</li> </ul>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까지 잘 챙겨주거나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li> </ul>
	가족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폭력이 걱정되어서</li> </ul>

코로나19 중 모의 ‘지금 내방한 이유’는 코로나19 전과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모의 화에 대한 후유증’ 및 ‘코로나19 후유증’과 같은 범주 및 ‘아동의 어려움 관찰됨’과 같은 유목이 추가되었다. 팬데믹으로 인해 공적 돌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돌봄 역할을 온전히 가정에서 담당하게 되면서, 양육자들은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지를 의심하면서 관찰하는 태도가 나타났고, “아이를 과도하게 혼내게 되어 양육 지도를 받고 싶어서”와 같이 자신의 양육 능력에 대한 심각한 자기 의심과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이런 경험이 누적되면서 모는 자신의 통제력 상실과 분노 표출에 대해 강한 죄책감과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로 인해 모는 문제의 원인을 자녀보다는 자신에게로 귀인하면서 양육효능감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문제해결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자녀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양육 태도를 수정하려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코로나19 중에는 양육자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높았고 양육자로서 자기 의심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아동의 심리·사회 문제행동, 실행기능에 대한 이해와 함께 양육자의 심리적 지지와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 라) 코로나19 후 모의 ‘지금 내방한 이유’ 질적분석

코로나19 후 시기에 모의 ‘지금 내방한 이유’에 대해 질적분석한 결과, ‘아동 이해 및 양육 태도에 도움을 받기 위함’, ‘아동의 어려움 관찰됨’, ‘아동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 ‘예방’, ‘기타’로 총 5개의 유목과 총 17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범주에서 ‘미디어 과다시청’, ‘전반적인 변화’가 포함된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표 V-2-17〉 코로나19 후 모의 '지금 내방한 이유'에 대한 범주

유목	범주	세부 내용
아동 이해 및 양육 태도에 도움을 받기 위함	자녀 심리, 기질과 성향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가 어떤 부분에 상처받았는지 궁금해서</li> <li>• 아이의 전반적인 심리 상태나 긴장감 등 불안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li> </ul>
	양육 및 훈육에 대한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잘 대처하고 싶어서</li> <li>• 아이의 심리 상황을 엄마가 좀 더 파악해서 육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고자</li> <li>• 아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싶고 아이를 대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li> <li>• 아이와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li> <li>• 훈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li> </ul>
	증상에 대한 이해 및 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짓말이나 남 핑계 댈 때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몰라서</li> <li>• 강한 자기주장을 가진 아이라 어떤 방향으로 양육지도를 해야 할지 도움을 받고 싶어서</li> </ul>
아동의 어려움 관찰됨	자녀에게 문제행동이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의 표현이 미숙하고 잘 내켜 하지 않아서 작은 일들이 자꾸 쌓이고, 설명을 못 하고 거짓으로 말하거나 나쁜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 같아서</li> </ul>
아동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	사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들과 교우관계 개선</li> <li>• 친구들과의 사회성이 걱정되어서</li> <li>• 여자아이들 무리에서 두루두루 잘 지낼 수 있는 스킬을 키우고 싶어서</li> </ul>
	자기표현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가 본인의 감정, 의사 표현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받기를 희망해서</li> <li>• 아이가 원하는 부분을 잘 얘기했으면 해서</li> <li>• 집에서는 골목대장처럼 구는데 친구들과에게는 불편한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li> </ul>
	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양육자와의 분리불안</li> <li>• 예민함과 낮가림</li> <li>• 엄마와의 분리가 힘들어 유치원 하원 후 학원도 다니지 못하는 점을 고치고 싶음. 낯선 사람에게 경계가 심한 것도 줄이고 싶어서</li> <li>• 예민하지 않게 아이가 편안하게 생활했으면 좋겠어서</li> </ul>
	행동 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갈등 조정 능력이나 조절 능력이 필요해서</li> <li>• ADHD에 도움받으려고</li> <li>• 공격적인 행동이 친구들을 아프게 한다는 것은 알지만 충동성이 억제되지 않는 것 같아서</li> </ul>
	감정 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li> <li>• 초등 입학 전 타인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버리고 토라지는 것이 문제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li> <li>• 감정 조절의 어려움</li> <li>• 아이 마음에 후시 힘든 부분이 있으면 마음을 좀 풀고 화를 좀 가자 싶으면 좋겠어서</li> </ul>
	좌절 인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음이 튼튼해질길 자라는 마음에서</li> </ul>
	마음 치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서</li> <li>• 아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li> </ul>
	미디어 과다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디어 끊는 노력을 배우고 싶어서</li> </ul>

유목	범주	세부 내용
	전반적인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의 모습을 바꾸고 싶어서</li> <li>• 아이가 바뀌었으면 해서</li> <li>• 여러 부분 개선 요망</li> </ul>
예방	문제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 이상 늦추면 심리적인 문제까지 생길까 봐 걱정되어서</li> <li>• 아이가 유치원 초등에서 적응을 잘했으면 해서</li> <li>• 초등학교 가기 전에 교우관계, 인성이 가장 중요해서</li> <li>• 초등학교 입학 전 놀이를 통해 다양한 도전을 해보고 긍정적인 사회성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li> <li>• 사회의 건강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도움을 받고 싶어서</li> <li>• 외국 가기 전 대비 삼아서</li> </ul>
기타	이혼 후유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빠와 분리된 상태에서 아이에게 어떻게 이야기 해주는 게 좋은지 궁금해서</li> </ul>
	외부에서 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에서 심리 놀이 도움을 받으라고 해서</li> <li>• 어린이집에서 추천</li> </ul>
	즐거운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난감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해서</li> </ul>

코로나19 후 모의 ‘지금 내방한 이유’ 역시 코로나19 전, 중과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아동 이해 및 양육 태도에 도움을 받기 위함’보다는 ‘아동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 급증한 이 극적인 변화는 양육자가 더 이상 자녀의 문제를 자신의 양육 방식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고, 아동에게 내재화된, 심각하며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인 병리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예방’ 범주(12.9%)의 증가는 초등학교 입학 등 중요한 발달적 이행기 전에 문제가 고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양육자의 긴급한 불안과 대처 노력을 보여준다. 이 시기는 코로나19 중의 양육자 중심의 자기 점검에서 벗어나 아동 중심의 전문적 개입을 요구하는 임상적 위기관리 단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 5) 사회·정서 문제행동 군집에 따른 실행기능 차이

분류된 문제행동 특성 군집에 따라 유아의 실행기능(억제, 전환, 감정조절, 작업 기억, 계획조직)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제행동에 대한 4개의 군집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유아의 실행기능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이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코로나19 전 내담 아동의 사회·정서 문제행동 군집에 따른 실행기능 차이

코로나19 전 분류된 문제행동 특성 군집에 따라 유아의 실행기능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Box's M의 동일성 검정 결과, 집단이 공분산행렬의 동일성 가정은 만족하였으나( $F = 1.130, p > .05$ ),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Levene 검정에서 등분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다변량분석 결과 군집별 실행기능의 각 하위요인의 모든  $F$  값이 유의하지 않아 군집 간 실행기능에는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다.

〈표 V-2-18〉 코로나19 전 내담 아동의 사회·정서 문제행동 군집에 따른 실행기능 차이

$N=32$

구분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F (3, 32)
	경미한 신체화 및 수면 곤란형	행동조절 및 수면 곤란형	경미한 문제형	불안/우울 및 정서조절 곤란형	
n	12	2	15	3	
억제	29.67(6.26)	38.00(9.90)	32.27(8.62)	22.67(8.96)	1.89
전환	17.92(5.70)	22.00(5.66)	20.20(4.20)	24.00(2.00)	1.56
감정조절	18.75(4.81)	25.50(6.36)	21.00(6.06)	20.67(2.08)	1.03
작업기억	29.42(8.54)	42.00(4.24)	30.73(7.17)	24.33(9.24)	2.14
계획조직	19.42(5.47)	23.00(1.41)	18.93(3.77)	14.67(3.79)	1.51

나) 코로나19 중(2020~2021년) 내담 아동의 사회·정서 문제행동 군집에 따른 실행기능 차이

코로나19 중 분류된 문제행동 특성 군집에 따라 유아의 실행기능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Box's M의 동일성 검정 결과, 집단이 공분산행렬의 동일성 가정은 만족하였으나 ( $F = 1.542, p > .05$ ),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Levene 검정에서 등분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Games-Howell 방법을 사용해서 군집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사후검정 결과, 억제는 [경미한 문제형]에 비해 [행동·정서조절 곤란과 위축 동반형], [수면 및 주의집중 곤란형]에서 어려움이 나타났다. 전환과 감정조절은 [경미한 문제형]에 비해 [불안/우울·정서조절 곤란과 신체화 동반형]에서 어려움이 나타났다. 작업기억과 계획조직은 [경미한 문제형]에 비해 [수면 및 주의집중 곤란형]에서 어려움이 나타났다.

〈표 V-2-19〉 코로나19 중 내담 아동의 문제행동 군집에 따른 실행기능 차이

N=138

구분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F (3, 138)	Games- Howell
	행동·정서조절 곤란과 위축 동반형 n= 15	불안/우울· 정서조절 곤란과 신체화 동반형 n= 16	경미한 문제형 n= 78	수면 및 주의집중 곤란형 n= 29		
	M(SD)	M(SD)	M(SD)	M(SD)		
억제	34.07(11.67)	26.63(5.38)	24.19(6.51)	29.14(7.77)	9.04***	3<1,4
전환	18.20(7.14)	21.13(5.37)	15.94(4.88)	18.41(4.67)	5.32**	3<2
감정조절	19.80(6.11)	21.31(4.21)	16.17(4.84)	17.97(4.39)	6.51***	3<2
작업기억	36.60(13.34)	30.69(7.55)	27.15(7.95)	33.17(9.88)	6.45***	3<4
계획조직	21.40(7.03)	18.50(4.91)	16.45(4.37)	19.97(4.99)	6.61***	3<4

\*\* $p < .01$ , \*\*\* $p < .001$ 

군집 1[행동·정서조절 곤란과 위축 동반형]과 군집 4[수면 및 주의집중 곤란형]에서 억제 기능의 어려움이 두드러졌다. 코로나19 중에는 양육자와 아동이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의 행동에 대한 제약이 증가했다. 이에 행동 및 정서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에게는 자신의 충동적 행동을 제어하거나 참아내는 능력 부족이 더욱 두드러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면화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났던 군집 2 [불안/우울·정서조절 곤란과 신체화 동반형]에는 유연하게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융통성과 자신의 감정과 정서적 반응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였다. 이는 복합적인 내면화 문제로 인해 정서적 안정이 저해되어 적절한 인지 기능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외현화 문제인 주의집중에 취약한 군집 4의 경우 실제로 과제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여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기능이 취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 다) 코로나19 후(2023~2024년 8월) 내담 아동의 사회·정서 문제행동 군집에 따른 실행기능 차이

코로나19 후 분류된 문제행동 특성 군집에 따라 유아의 실행기능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Box's M의 동일성 검정 결과, 집단이 공분산행렬의 동일성 가정은 만족하였으나 ( $F = 1.400, p > .05$ ),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Levene 검정에서 등분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Games-Howell 방법을 사용해서 군집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사후검정 결과, 억제는 다른 유형에 비해 [행동조절 곤란과 위축 동반형]에서 어려움이 나타났다. 전환의 경우, [경미한 문제형]에 비해 [불안/우울·위축 및 정서조절 곤란형], [신체화 및 수면 곤란형]에서 어려움이 나타났다. 감정조절은 [경미한 문제형]에 비해 다른 모든 유형에서 어려움이 나타났다. 작업기억의 경우, [경미한 문제형], [신체화 및 수면 곤란형]보다 [행동조절 곤란과 위축 동반형]에서 어려움이 나타났다. 계획조직의 경우, [경미한 문제형]보다 [행동조절 곤란과 위축 동반형]에서 어려움이 나타났다.

〈표 V-2-20〉 코로나19 후 내담 아동의 사회·정서 문제행동 군집에 따른 실행기능 차이

N=114

구분	군집1 불안/우울·위축 및 정서조절 곤란형 n= 11	군집2 경미한 문제형 n= 69	군집3 신체화 및 수면 곤란형 n= 24	군집4 행동조절 곤란과 위축 동반형 n= 10	F (3, 114)	Games- Howell
	M(SD)	M(SD)	M(SD)	M(SD)		
억제	30.91( 6.95)	26.74( 8.29)	31.46	43.00(5.72)	12.70***	1,2,3/4
전환	25.73( 5.10)	16.72( 4.90)	20.79(4.04)	21.90(5.47)	14.65***	2<1,3
감정조절	25.82( 5.19)	15.70( 4.78)	21.00(4.00)	21.60(3.10)	22.18***	2<1,3,4
작업기억	35.91(10.59)	28.38( 8.12)	31.50(6.71)	44.90(9.13)	13.26***	2,3<4
계획조직	20.82( 4.47)	17.48( 4.78)	19.63(4.22)	24.70(5.12)	8.09**	2<4

\*\* $p < .01$ , \*\*\* $p < .001$

외현화 및 내면화 문제 혼재형인 군집 4[행동조절 곤란과 위축 동반형]에서는 다른 군집에 비해 억제 기능이 가장 취약하였고, 군집 2[경미한 문제형]에 비해 작업기억과 계획조직이 취약하였다. 이 군집에 속한 아동은 억제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억제하는 등의 양극단의 어려움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능력과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능력이 취약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내면화 문제 복합형인 군집 1[불안/우울·위축 및 정서조절 곤란형]과 내면화 문제와 기타 문제로 구성된 군집 3[신체화 및 수면 곤란형]에서는 [경미한 문제형]에 비해 전환의 어려움이 나타났는데, 이는 정서적 안정감 저해로 인해 융통성 있는 사고능력 발휘가 방해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6) 기질, 성격 및 부모 양육 태도와 문제행동 군집 간의 관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모든 아동에게 사회·정서 문제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 아동이 기질, 성격적으로 취약하거나 부모의 양육 태도에 어려움이 있었을 경우, 이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여 코로나19 관련 후유증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기질, 성격 및 부모 양육 태도와 사회·정서 문제행동 군집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코로나 후의 군집만을 대상으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3가지 이상 개체를 분류할 때 유용하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명목형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기법으로, 기준 범주(reference category)를 설정한 후 각 계층에 속할 확률을 예측한다(Hosmer & Lemeshow, 2000).

로지스틱회귀분석은 사건 발생 확률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때 개별 설명변인의 유의한 효과는 승산 비(odd ratio)를 통해 검증된다. 승산 비는 특정 조건이 주어질 때의 성공 승산을 다른 조건일 때의 성공 승산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처럼 설명변인이 주어졌을 때 종속변인이 1일 확률은 승산(odd)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승산의 비율이 1보다 높으면 발생 확률이 증가하고 1보다 낮으면 발생 확률이 감소한다(이민우, 2020). 따라서 종속변인에 대해 영향력이 높은 설명변인은 승산 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목미란 등, 2024), 본 연구에서는 이 승산 비를 통해 문제행동 군집과 유의한 관계를 갖는 기질, 성격 및 부모 양육 태도의 하위요인을 파악하였다.

### 가) 기질과 문제행동 군집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기준 범주를 가장 빈도가 높은 [일반 유형]으로 설정한 후, 기질의 하위요인(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민감성, 인내력)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문제행동 군집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기질의 하위요인들 간의 유의도는 Wald 통계량으로 검정하는데, 이 값이 더 크다는 것은 영향력이 더 크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 결과, [불안/우울·위축 및 정서조절 곤란형]에서는 기질 중 위험회피(21.250)가, [신체화 및 수면 곤란형]에서는 기질 중 위험회피(12.360), 자극추구(8.144)순으로, [행동조절 곤란과 위축 동반형]에서는 기질 중 자극추구(17.255)로

각 기질의 하위요인에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안/우울·위축 및 정서조절 곤란형]과 위험회피 간에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위험회피가 높을수록 [불안/우울·위축 및 정서조절 곤란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화 및 수면 곤란형]과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간에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성향이 높을수록 [신체화 및 수면 곤란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행동조절 곤란과 위축 동반형]과 자극추구 성향 간에도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자극추구 성향이 높을수록 [행동조절 곤란과 위축 동반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유아의 문제행동 군집의 기질 요인 중 자극추구와 위험회피가 위험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표 V-2-21〉 기질과 내담 아동 사회·정서 문제행동 군집 유형 간의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기준 범주: 경미한 문제형)

N=124

구분		β	표준화 오류	Wald	Exp(β) O.R	Exp(β)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불안/우울· 위축 및 정서조절 곤란형	절편	-24.656	5.871	17.638***	.	.	.
	자극추구	0.102	0.059	3.021	1.108	0.987	1.243
	위험회피	0.244	0.053	21.250***	1.276	1.151	1.416
	사회적 민감성	0.036	0.049	0.544	1.037	0.942	1.141
	인내력	0.021	0.038	0.298	1.021	0.947	1.101
신체화 및 수면 곤란형	절편	-16.394	3.717	19.448	.	.	.
	자극추구	0.113	0.039	8.144**	1.119	1.036	1.209
	위험회피	0.106	0.030	12.360***	1.111	1.048	1.179
	사회적 민감성	0.035	0.032	1.189	1.035	0.973	1.101
	인내력	0.045	0.028	2.497	1.046	0.989	1.105
행동조절 곤란과 위축 동반형	절편	-15.727	4.847	10.526	.	.	.
	자극추구	0.287	0.069	17.255***	1.333	1.164	1.527
	위험회피	0.049	0.045	1.180	1.050	0.961	1.148
	사회적 민감성	-0.083	0.051	2.636	0.921	0.833	1.017
	인내력	0.047	0.048	0.973	0.954	0.869	1.048

\*\*p < .01, \*\*\*p < .001

나) 성격과 문제행동 군집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기준 범주를 가장 빈도가 높은 [경미한 문제형]으로 설정한 후, 성격의 하위요인(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문제행동 군집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성격의 하위요인들 간의 유의도는 Wald 통계량으로 검정하는데, 이 값이 더 크다는 것은 영향력이 더 크다는 의미를 갖는다. 연구 결과, [불안/우울·위축 및 정서조절에 곤란형]에서는 성격 중 자기초월(7.637), 자율성(6.752) 순으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화 및 수면 곤란형]에서는 성격 중 자기초월(10.539)이, [행동조절 곤란과 위축 동반형]에서는 성격 중 연대감(7.594), 자율성(5.410), 자기초월(4.648) 순으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안/우울·위축 및 정서조절 곤란형]과 자율성 간에는 유의한 부적 관계가, 자기초월 간에는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자율성이 높을수록 [불안/우울·위축 및 정서조절 곤란형]보다는 [경미한 문제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고, 자기초월이 높을수록 [불안/우울·위축 및 정서조절 곤란형]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증상과 수면문제가 있는 유형과 자기초월 간에는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자기초월이 높을수록 [신체화 및 수면 곤란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동조절 곤란과 위축 동반형]과 자율성, 연대감 간에는 부적 관계가, 자기초월 간에는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자율성과 연대감이 높을수록 [행동조절 곤란과 위축 동반형]보다는 [경미한 문제형]에 속할 확률이 높고, 자기초월이 높을수록 [행동조절 곤란과 위축 동반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유아의 문제행동 군집에 성격 요인 중 자율성 및 자기초월이 위험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V-2-22〉 성격과 내담 아동 사회·정서 문제행동 군집 유형 간의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기준 범주: 경미한 문제형)

N=124

구분		β	표준오차	Wald	Exp(β)	Exp(β)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불안/우울· 위축 및	절편	-0.252	2.206	0.013			
	자율성	-0.088	0.034	6.752**	0.916	0.857	0.979

구분		$\beta$	표준오차	Wald	Exp( $\beta$ )	Exp( $\beta$ )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정서조절 곤란형	연대감	-0.047	0.034	1.881	0.954	0.892	1.020
	자기초월	0.092	0.033	7.637**	1.097	1.027	1.171
신체화 및 수면 곤란형	절편	-3.010	1.906	2.494	.	.	.
	자율성	-0.040	0.025	2.507	0.961	0.915	1.010
	연대감	-0.005	0.026	0.033	0.995	0.947	1.046
	자기초월	0.084	0.026	10.539**	1.087	1.034	1.144
행동조절 곤란과 위축 동반형	절편	2.735	2.126	1.656	.	.	.
	자율성	-0.091	0.039	5.410*	0.913	0.846	0.986
	연대감	-0.109	0.040	7.594**	0.897	0.830	0.969
	자기초월	0.081	0.038	4.648*	1.084	1.007	1.167

\* $p < .05$ , \*\* $p < .01$

#### 다) 모의 양육 태도와 문제행동 군집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기준 범주를 가장 빈도가 높은 [경미한 문제형]으로 설정한 후, 모의 양육 태도의 하위요인(지지표현, 합리적 설명, 성취 압력, 간섭, 처벌, 감독, 과잉기대, 비일관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문제행동 군집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모 양육 태도의 하위요인들 간의 유의도는 Wald 통계량으로 검정하는데, 이 값이 더 크다는 것은 영향력이 더 크다는 의미를 갖는다. 연구 결과, [불안/우울·위축 및 정서조절 곤란형]에서는 모 양육 태도 중 지지표현(9.717), 간섭(4.591) 순으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화 및 수면 곤란형]에서는 모 양육 태도 중 지지표현(5.096)이, [행동조절 곤란과 위축 동반형]에서는 성격 중 과잉기대(7.753)가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의 지지표현이 높을수록 [불안/우울·위축 및 정서조절 곤란형]보다 [경미한 문제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고, 간섭이 높을수록 [불안/우울·위축 및 정서조절 곤란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지표현이 높을수록 [신체화 및 수면 곤란형]보다 [경미한 문제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고, 과잉기대가 높을수록 [행동조절 곤란과 위축 동반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모의 양육 태도 중 지지표현은 문제행동 군집의 보호 요인으로, 간섭과 과잉기대는 위험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V-2-23〉 모의 양육 태도와 내담 아동 사회·정서 문제행동 군집 유형 간의 관계(기준 범주: 경미한 문제형)

N=123

구분		$\beta$	표준 오차	Wald	유의 확률	Exp( $\beta$ )	Exp( $\beta$ )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불안/우울· 위축 및 정서조절 곤란형	절편	-2.502	2.064	1.470	0.225	.	.	.
	지지표현	-0.059	0.019	9.717**	0.002	0.943	0.908	0.978
	합리적 설명	0.039	0.020	3.767	0.052	1.040	1.000	1.081
	성취 압력	0.016	0.019	0.694	0.405	1.016	0.979	1.055
	간섭	0.048	0.023	4.591*	0.032	1.050	1.004	1.097
	처벌	-0.031	0.023	1.764	0.184	0.970	0.926	1.015
	감독	0.009	0.016	0.333	0.564	1.010	0.978	1.043
	과잉기대	-0.004	0.018	0.052	0.820	0.996	0.961	1.032
	비일관성	-0.004	0.017	0.064	0.801	0.996	0.963	1.030
신체화 및 수면 곤란형	절편	-1.137	1.341	0.719	0.396	.	.	.
	지지표현	-0.031	0.014	5.096*	0.024	0.970	0.944	0.996
	합리적 설명	0.016	0.014	1.407	0.236	1.017	0.989	1.045
	성취 압력	-0.012	0.013	0.817	0.366	0.988	0.962	1.014
	간섭	0.028	0.015	3.333	0.068	1.029	0.998	1.060
	처벌	0.001	0.014	0.006	0.940	1.001	0.974	1.028
	감독	0.004	0.011	0.098	0.754	1.004	0.981	1.026
	과잉기대	0.013	0.012	1.212	0.271	1.013	0.990	1.036
	비일관성	-0.015	0.012	1.500	0.221	0.985	0.961	1.009
행동조절 곤란과 위축 동반형	절편	-2.136	1.860	1.318	0.251	.	.	.
	지지표현	-0.035	0.019	3.465	0.063	0.966	0.932	1.002
	합리적 설명	0.013	0.019	0.505	0.477	1.013	0.977	1.051
	성취 압력	0.003	0.020	0.018	0.892	1.003	0.964	1.043
	간섭	0.018	0.023	0.651	0.420	1.018	0.974	1.064
	처벌	-0.019	0.020	0.822	0.365	0.982	0.943	1.022
	감독	-0.012	0.016	0.588	0.443	0.988	0.958	1.019
	과잉기대	0.051	0.018	7.753**	0.005	1.052	1.015	1.090
	비일관성	-0.028	0.020	1.935	0.164	0.972	0.934	1.012

\* $p < .05$ , \*\* $p < .01$ 

#### 다. 요약 및 논의

코로나19 전(2018년~2019년), 코로나19 중(2020년~2021년), 코로나19 후(2023년~2024년 8월) 시기에 놀이치료를 받은 내담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관련 증상의 경향성 및 부모 변인에 대한 양적, 질적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정서 문제행동 군집 및 질적분석 결과, 코로나19 전의 경우, 군집 1은 [경미한 신체화 및 수면 곤란형], 군집 2는 [행동조절 및 수면 곤란형], 군집

3은 [경미한 문제형], 군집 4는 [불안/우울 및 정서조절 곤란형]으로 구분되었다. 모의 주호소에 질적분석 결과, 행동조절, 정서조절, 불안, 사회성, 관계, 자기표현, 의존성, 유능감, 틱, 자위, 수면의 11개의 유목과 22개의 범주가 추출되었다. 코로나19 중의 경우, 군집 1은 [행동·정서조절 곤란과 위축 동반형], 군집 2는 [불안/우울·정서조절 곤란과 신체화 동반형], 군집 3은 [경미한 문제형], 군집 4는 [수면 및 주의집중 곤란형]으로 구분되었다. 코로나19 중의 자녀에 문제행동에 대한 모의 주호소를 분석한 결과, 행동조절, 정서조절, 불안, 사회성, 등원, 관계, 자기표현, 의존성, 미디어 사용, 유능감, 틱, 자위, 수면의 13개의 유목과 26개의 범주가 추출되었다. 코로나19 전에 비해 모의 주호소에는 등원과 미디어 사용이 추가로 추출되었고, 사회성 유목에서는 ‘언어발달 지연으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이 추가로 추출되었다.

코로나19 후의 경우, 군집 1은 [불안/우울·위축 및 정서조절 곤란형], 군집 2는 [경미한 문제형], 군집 3은 [신체화 및 수면 곤란형], 군집 4는 [행동조절 곤란과 위축 동반형]으로 구분되었다. 코로나19 후에는 신체 증상과 수면 문제가 단독 유형으로 구분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코로나19 후의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모의 주호소를 분석한 결과, 행동조절, 정서조절, 불안, 사회성, 등원, 관계, 자기표현, 의존성, 미디어 사용, 유능감, 틱, 자위, 수면의 13개의 유목과 30개의 범주가 추출되었다. 코로나19 후의 모의 주호소의 유목은 코로나19 중의 유목과 같다. 하지만 코로나19 중에 비해 코로나19 후의 사례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불안, 예민함(감각), 사회성, 수면 관련 주호소가 급증하였다. 특히 예민함의 경우, 오감에 대한 감각적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행기능에 대해 군집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전의 경우, 군집 1은 [감정조절 취약형], 군집 2는 [작업기억 및 계획조직 취약형], 군집 3은 [실행기능 양호형], 군집 4는 [전반적 실행기능 취약형]으로 구분되었다. 코로나19 중의 경우, 군집 1은 [전환 취약형], 군집 2는 [실행기능 양호형], 군집 3은 [전반적 실행기능 취약형], 군집 4는 [감정조절 및 작업기억 취약형]으로 구분되었다. 코로나19 후의 경우, 군집 1은 [실행기능 양호형], 군집 2는 [전반적 실행기능 취약형], 군집 3은 [역제, 작업기억, 계획조직 취약형], 군집 4는 [실행기능 우수형]으로 구분되었다.

셋째, 부모 양육 태도에 대해 군집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중의 경우, 군집 1은

[긍정적 태도와 처벌 동반형], 군집 2는 [비일관적 처벌형], 군집 3은 [훈육부재 및 허용적 태도형], 군집 4는 [과잉기대 및 성취압력형]으로 구분되었다. 코로나19 후의 경우, 군집 1은 [적절한 훈육형], 군집 2는 [긍정적 태도 및 성취압력형], 군집 3은 [비일관·부적절한 훈육형], 군집 4는 [긍정적 태도와 비일관·부적절한 훈육 동반형]으로 구분되었다. 코로나19 중의 경우, 비일관적으로 혼만 많이 내는 유형이 단독 군집으로 분류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넷째, 모의 '지금 내방한 이유'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전 시기에는 '아동 이해 및 양육 태도에 도움을 받기 위함'(32.5%)과 '아동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35.0%)이 유사하게 보고되었으나, 코로나19 중 시기에는 '아동 이해 및 양육 태도에 도움을 받기 위함'(45.3%)로 가장 많이 보고되었고, 그다음 '아동의 어려움이 관찰됨'(20.9%), '아동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17.4%) 순으로 보고되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후에는 '아동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61.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 '아동 이해 및 양육 태도에 도움을 받기 위함'과 '예방'(12.9%) 순이었다. 코로나19 중에는 자녀에게 "~보여서"라는 표현이 많았던 반면, 코로나19 후에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수정하고자 하는 모의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모의 '지금 내방한 이유'에 대한 질적분석을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전의 경우, '아동 이해 및 양육 태도에 도움을 받기 위함', '아동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 '예방', '기타'로 총 4개의 유목과 총 1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코로나19 중의 경우, '아동 이해 및 양육 태도에 도움을 받기 위함', '아동의 어려움 관찰됨', '아동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 '예방', '기타'로 총 5개의 유목과 총 1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유목에서 '자녀에게 어려움 관찰됨'이 포함된 것과 하위범주에서 '모의 화에 대한 후유증', '코로나19 후유증'이 포함된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코로나19 후의 경우, '아동 이해 및 양육 태도에 도움을 받기 위함', '아동의 어려움 관찰됨', '아동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 '예방', '기타'로 총 5개의 유목과 총 17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범주에서 '미디어 과다시청', '전반적인 변화'가 포함된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다섯째, 사회·정서 문제행동 군집에 따른 실행기능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코로나19 전에는 집단 간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사례 수가 부족했던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중의 경우, 역제는 [경미한 문제형]에 비해 [행동·정서조절 곤란과 위축 동반형], [수면 및 주의집중 곤란형]에서 어려움이 나타났다. 전환과 감정조절은 [경미한 문제형]에 비해 [불안/우울·정서조절 곤란과 신체화 동반형]에서 어려움이 나타났다. 작업기억과 계획조직은 [경미한 문제형]에 비해 [수면 및 주의집중 곤란형]에서 어려움이 나타났다. 코로나19 후의 경우, 역제는 다른 유형에 비해 [행동조절 곤란과 위축 동반형]에서 어려움이 나타났다. 전환의 경우, [경미한 문제형]에 비해 [불안/우울·위축 및 정서조절 곤란형], [신체화 및 수면 곤란형]에서 어려움이 나타났다. 감정조절은 [경미한 문제형]에 비해 다른 모든 유형에서 어려움이 나타났다. 작업기억의 경우, [경미한 문제형], [신체화 및 수면 곤란형]보다 [행동조절 곤란과 위축 동반형]에서 어려움이 나타났다. 계획조직의 경우, [경미한 문제형]보다 [행동조절 곤란과 위축 동반형]에서 어려움이 나타났다.

여섯째, 기질, 성격 및 부모 양육 태도와 문제행동 군집 간의 관계를 코로나19 후 군집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기질의 경우 위험회피가 높을수록 [불안/우울·위축 및 정서조절 곤란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였고,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성향이 높을수록 [신체화 및 수면 곤란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였다. 또한 자극추구 성향이 높을수록 [행동조절 곤란과 위축 동반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였다. 이는 유아의 문제행동 군집의 기질 요인 중 자극추구와 위험회피가 위험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격의 경우, 자율성이 높을수록 [불안/우울·위축 및 정서조절 곤란형]보다는 [경미한 문제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고, 자기초월이 높을수록 [불안/우울·위축 및 정서조절 곤란형]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자기초월이 높을수록 [신체화 및 수면 곤란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였고, 자율성과 연대감이 높을수록 [행동조절 곤란과 위축 동반형]보다는 [경미한 문제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자기초월이 높을수록 [행동조절 곤란과 위축 동반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였다. 이는 유아의 문제행동 군집에 성격 요인 중 자율성 및 자기초월이 위험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곱째, 모의 양육 태도의 경우, 모의 지지 표현이 높을수록 [불안/우울·위축 및 정서조절 곤란형]보다 [경미한 문제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고, 간섭이 높을수록 [불안/우울·위축 및 정서조절 곤란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였다. 또한 지지 표현

이 높을수록 [신체화 및 수면 곤란형]보다 [경미한 문제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였고, 과잉기대가 높을수록 [행동조절 곤란과 위축 동반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다. 이는 모의 양육 태도 중 지지표현은 문제행동 군집의 보호 요인으로, 간섭과 과잉 기대는 위험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의 발달 분석

본 절에서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 중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과 그 양육자, 자립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한 자료에서 일부 대상자를 추출하였다. 이 자료는 2023년 첫 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10년 동안 1년 주기로 추적하는 국가승인 통계로서 아동권리보장원이 구축·운영하는 조사(지원·보호아동 및 자립 준비 청년 패널조사)이다. 이 자료는 원가정에서 양육자와 함께 생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원가정으로부터 분리 후 국가의 보호 체계로 진입하여 가정위탁이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에서 생활하게 되는 아동을 포함한다. 또한 이 조사는 원가정에서 양육되면서 드림스타트 또는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을 포함한다.

이 중 본 절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응답자 대부분이 드림스타트<sup>11)</sup> 서비스를 이용한 영유아의 양육자였다. 이는 드림스타트 서비스가 임신부를 포함하여 저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어린 연령대 아동에 대한 코로나의 장기적인 영향을 살펴보는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본 절에서는 드림스타트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의 영향이 아동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보다 심각할 수 있지만

11) 드림스타트는 만 0세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초등학교 졸업 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됨. 제공되는 통합서비스는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지원, 부모의 양육지도,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임(아동권리보장원, 2025. 11. 30. 인출)

국내에서 코로나는 학령기 아동에게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되었다.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교육열이 강한 국내에서 코로나 확산 시기 공교육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교육의 질과 양적인 격차는 공교육이 작동하지 못하는 시기에 소득수준에 따라 더욱 커졌다.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아 외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 학교에 가지 못하는 시간에 더욱 양질의 교육을 받았던 반면 외부 활동이 제약됨에 따라 일자리를 상실하는 가정도 증가하여 소득 상실 가정의 경우에는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여력이 더욱 없었다. 이와 더불어 공교육은 일정 부분 돌봄의 기능을 병행한다. 코로나 확산 시기 등교 제약은 가정의 돌봄 부담을 가중하였고 가정에서 아동을 지속적으로 돌볼 수 없는 상황 돌봄 공백 상황 등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방임 아동이 증가하였다.

전술한 바를 토대로 본 절에서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청년으로서 2023년 조사에 참여한 전체 4,413명의 아동과 청년의 응답 자료 중 초등학교 이하의 아동 이면서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아동 683명과 그 양육자의 응답 자료를 분석하였다. 드림스타트에 참여한 아동은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으로 구분될 수 있기에, 분석 대상을 복지서비스 이용 코로나 세대 영유아와 학령기 아동으로 구분하여 발달 결과를 제시하였다.

## 가. 분석 대상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본 절에서 분석하는 드림스타트 이용 영유아는 여아(56.3%)의 비중이 다소 더 높았고 장애가 있는 비율은 7.5%였다. 이는 드림스타트 이용 초등 저학년과 초등 고학년의 인구학적 분포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드림스타트 이용 초등 저학년과 초등 고학년의 경우 여아보다는 남아가 조금 더 많이 조사에 참여하였고 장애가 있는 비율은 각각 4%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서비스 이용 시작 시점은 2023년 조사에 참여한 시점을 기준으로 드림스타트 서비스를 이용한 지 얼마의 시간이 경과되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드림스타트 서비스 이용 시점이 5년 초과인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가족구조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양부모 가정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데 반하여 초등 저학년과 초등 고학년의 경우에는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인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의 양육자로서 본 조사에 함께 참여한 양육자는 모든 연령대의 아동에게서 여성의 비율이 단연 높았고 40~49세 사이 연령대의 양육자 분포 비율이 약 50%로 가장 높았다.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양육자는 아동의 연령대별 7% 이내로 나타났다. 최종 학력이 무학 또는 초등학교 졸업인 것으로 보고한 비율은 초등학생 아동을 둔 양육자 내에서 소수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분석 대상 아동의 가족구조 중 조손가정 등이 포함된 결과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본 절에서 분석할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의 가구 소득수준을 파악해 본 결과, 지난 1년간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양육자의 비율이 영유아와 초등학생 아동 가구에서 38.8%에서 44.0%까지로 확인되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월평균 가구소득 구간은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으로, 영유아(22.5%)와 초등저학년(25.7%), 초등고학년(21.3%) 아동을 둔 가구에서 해당 가구소득 구간에 속하는 비율이 약 25% 내외로 나타났다.

전술한 인구학적 특성에 기초하여, 본 절에서는 초등학생 아동의 발달 결과를 양부모 가정 여부에 따라 살펴보았다. 코로나 장기화 시기에 양부모 가정보다는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에서 소득 상실 및 돌봄 공백의 어려움이 더 많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려하여 초등학생 아동의 분석은 양부모 가정과 한부모·조손가정의 아동들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집단 비교 시 빈도수가 5 미만인 셀이 존재하는 경우 통계적 유의성을 제시하지 않고 n.a로 표기하였다. 영유아의 경우 발달선별검사 항목별로 4개 정도의 응답 범주가 존재하고 분석 대상의 수도 많지 않기에 별도의 집단 비교 및 통계 검증 결과는 제시하지 않고 양육자가 영유아의 대근육 및 소근육, 인지 등에 관하여 어떻게 보고하였는지의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빈도분석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표 V-3-1〉 분석 대상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구 분	영유아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전체	100.0 ( 80)	100.0 (190)	100.0 (413)
아동 성별			
남아	43.8 ( 35)	53.2 (101)	55.7 (230)
여아	56.3 ( 45)	46.8 ( 89)	44.3 (183)
아동 장애 여부			
장애	7.5 ( 6)	3.7 ( 7)	3.9 ( 16)
비장애	92.5 ( 74)	96.3 (183)	96.1 (397)
서비스 이용 기간			
5년 이하	75.0 ( 60)	63.2 (120)	47.9 (198)
5년 초과	25.0 ( 20)	36.8 ( 70)	52.1 (215)
가족 구조			
양부모가정	53.8 ( 43)	43.2 ( 82)	43.4 (178)
한부모가정	45.0 ( 36)	55.3 (105)	51.5 (211)
조손가정	1.2 ( 1)	1.6 ( 3)	5.1 ( 21)
양육자 성별			
남성	8.8 ( 7)	8.4 ( 16)	15.3 ( 63)
여성	91.3 ( 73)	91.6 (174)	84.7 (350)
양육자 장애 여부			
장애	6.3 ( 5)	3.7 ( 7)	7.0 ( 29)
비장애	93.8 ( 75)	96.3 (183)	93.0 (384)
양육자 연령대			
29세 이하	7.4 ( 6)	4.7 ( 9)	0.0 ( 0)
30 ~ 39세	35.8 ( 29)	31.4 ( 60)	20.4 ( 84)
40 ~ 49세	48.1 ( 39)	53.4 (102)	52.9 (218)
50 ~ 59세	7.4 ( 6)	8.4 ( 16)	20.6 ( 85)
60세 이상	1.2 ( 1)	2.1 ( 4)	6.1 ( 25)
양육자 최종학력			
무학	0.0 ( 0)	0.5 ( 1)	0.7 ( 3)
초등학교 졸업	1.3 ( 1)	3.1 ( 6)	3.6 ( 15)
중학교 졸업	6.3 ( 5)	5.8 ( 11)	7.7 ( 32)
고등학교 졸업	50.6 ( 40)	58.1 (111)	55.7 (230)
전문대학교 졸업	20.3 ( 16)	16.8 ( 32)	14.8 ( 61)
대학교 졸업	21.5 ( 17)	13.6 ( 26)	16.0 ( 66)
대학원 졸업	0.0 ( 0)	2.1 ( 4)	1.5 ( 6)
1년간 월평균 가구소득			
소득 없음	8.8 ( 7)	5.2 ( 10)	10.4 ( 43)
100만 원 미만	18.8 ( 15)	12.6 ( 24)	12.6 ( 52)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38.8 ( 31)	44.0 ( 84)	43.5 (180)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22.5 ( 18)	25.7 ( 49)	21.3 ( 88)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5.0 ( 4)	5.2 ( 10)	8.2 ( 34)
400만 원 미만 이상	3.8 ( 3)	4.2 ( 8)	2.9 ( 12)
모름	2.5 ( 2)	3.1 ( 6)	1.2 ( 5)

주: 본 분석자료는 표본횡단가중치가 부여되었기에, 총인원 및 백분율에서 약간의 오차가 존재함.

## 나. 분석 결과

### 1)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발달

영유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양육자가 영유아의 개월 수에 맞는 발달 선별검사(K-DST)<sup>12)</sup>의 검사지에 응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K-DST 검사지는 영유아의 월령 구간에 따라 설문 유형이 구분된다. 드림스타트 서비스를 이용한 영유아의 K-DST 설문 응답 현황을 살펴보면, 66~71개월령 영유아의 비율이 70.4%로 가장 높았고 60~65개월령(9.9%), 54~59개월령(6.2%)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본 장에서는 영유아의 발달을 발달선별검사 결과로 확인하고자 하며,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인원이 확보된 66~71개월령의 영유아 57명의 응답 자료만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표 V-3-2〉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K-DST 검사지 유형별 응답 현황

구 분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
전체	100.0(80)
K-DST 검사지 유형	
24~26개월(11차)	1.2( 1)
27~29개월(12차)	0.0( 0)
30~32개월(13차)	1.2( 1)
33~35개월(14차)	0.0( 0)
36~41개월(15차)	1.2( 1)
42~47개월(16차)	3.7( 3)
48~53개월(17차)	6.2( 5)
54~59개월(18차)	6.2( 5)
60~65개월(19차)	9.9( 8)
66~71개월(20차)	70.4(57)

단위: %(명)

K-DST는 부모 보고식 검사로 대근육 운동과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영역의 6개의 핵심 발달 영역에 대한 응답 내용을 중심으로 영유아의 발달

12)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 Korea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for Infants & Children)는 영유아의 월령 구간에 따라 총 20차수로 구분됨. 1차(생후 4~5개월)부터 10차(생후 22~23개월)까지는 2개월 간격으로 구분되고 11차(생후 24~26개월)부터 14차(생후 33~35개월)까지는 3개월 간격으로 구분되며 15차(생후 36개월~41개월)부터 20차(생후 66~71개월)까지는 6개월 간격으로 구분됨. 검사 영역은 생후 17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는 대근육 운동과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을 검사하고, 생후 18개월부터의 영유아를 대상으로는 자조 영역을 추가하여 검사함. 본 절에서는 20차에 응답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자조 영역까지 응답한 것을 분석함.

수준을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이 검사는 영유아의 발달 상황을 파악하여 발달 지연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생애 초기에 개입함으로써 영유아의 온전한 건강과 성장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총 20차까지의 K-DST 검사지 중에 본 절에서는 20차(생후 66~71개월)에 응답한 영유아의 양육자 응답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K-DST 영역별 본 분석 대상 아동의 발달 수준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하위 항목에 대한 분포 현황<sup>13)</sup>을 살펴본 뒤, 영유아의 성별과 영유아의 복지서비스 이용 기간, 영유아의 가족구조에 따라 이러한 특성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K-DST의 절단점을 적용하여 본 절에서 분석하는 영유아가 또래의 영유아가 보이는 수준 이상을 보이는 분포 비율을 확인하였고 본 절에서 분석한 영유아의 발달 수준이 영유아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총점과 지능지수 산출 기준(평균 100, 표준편차 15)으로 전환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대근육 운동 검사 영역은 해당 월령의 영유아가 발달단계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목 가누기와 기기, 걷기, 달리기, 차기 등 팔·다리와 고개, 몸통 등을 움직이는 행동이 가능한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으로,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대근육 운동 영역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표 V-3-3>과 같다.

대근육 관련 운동을 ‘전혀 할 수 없’거나 ‘하지 못하는 편’인 비율은 최소 2.5%에서 최대 20.5%로 나타나, 본 조사에 참여한 드림스타트 이용 영유아의 대근육 운동 수준이 나쁘지만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굴러오는 공을 발로 찰 수 있’는 영유아의 비율(97.5%)과 ‘굴러가는 공을 발로 세울’ 수 있는 영유아 비율(97.5%), ‘공을 바닥에 한 번 튕길 수 있’는 영유아 비율(96.3%)이 상대적으로 높아, 발달선별검사 참여 영유아는 공을 활용한 대근육 운동의 발달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줄넘기를 1회’ 하거나, ‘손이나 다리를 동시에 활용하여 닭싸움 자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율은 약 80%~85%로 대근육 운동 영역 중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표 V-3-3> 참조).

13) 분포 현황 분석 시에는 항목별 분포가 5미만인 셀이 다수이기에, 통계검증은 생략함.

〈표 V-3-3〉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K-DST(대근육 운동) 하위영역별 분포 현황

단위: %

대근육 운동	전혀 할 수 없다	하지 못하는 편이다	할 수 있는 편이다	잘할 수 있다
1) 굴러가는 공을 발로 세운다	0.0	2.5	25.2	72.3
2) 2미터 거리에서 테니스공 크기의 공을 던지면 두 손으로 잡는다	1.4	6.6	26.6	65.5
3) 공을 바닥에 한 번 튕길 수 있다	0.0	3.7	12.2	84.1
4) 무릎 아래 높이로 매어져 있는 줄을 뛰어넘을 수 있다	0.0	3.7	21.4	74.9
5) 깨금발로 좌우 한발씩 번갈아 뛴다	0.0	4.9	23.6	71.5
6) 줄넘기를 1회 한다	1.2	19.3	13.1	66.3
7) 두 손으로 한 발을 잡고, 닭싸움 자세로 세 번 이상 점프한다	2.5	12.6	22.3	62.6
8) 굴러오는 공을 발로 칠 수 있다	0.0	2.5	25.1	72.4

주: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양육자 중 66~71개월령 영유아 57명에 대한 응답 자료를 분석함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64개월~71개월 영유아의 대근육 운동 수준이 또래와 비교하여 어떠한 수준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K-DST 대근육 운동 절단점을 적용해 본 결과, 또래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을 보이는 영유아의 비율이 80.7%였다(〈표 V-3-4〉). 이 비율은 남아이거나 복지서비스 이용 기간이 5년 초과인 영유아이거나 양부모 가정의 영유아에게서 다소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본 절에서 분석한 영유아의 대근육 운동 수준은 총점 21.04점으로 이 점수를 지능 산출법(평균 100, 표준편차 15)을 적용하여 환산해 보면 평균(100점)보다 다소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수준은 영유아의 성별이나 가족구조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기간에 따라서는 다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기간이 5년 초과인 영유아의 대근육 운동 수준은 서비스 이용 기간이 5년 이하인 영유아의 대근육 운동 수준보다 더 양호하였다(22.57점 vs. 20.21점). 이러한 결과는 장기적인 복지서비스 이용이 영유아의 대근육 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써 생애 초기 복지서비스 개입이 중요함을 보여준다(〈표 V-3-4〉 참조).

〈표 V-3-4〉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K-DST(대근육 운동) 수준

단위: %, 점

구 분	절단점 적용		$\chi^2(p)$	총점 적용		$t(p)$	지능 산출법 적용		$t(p)$
	도래 미만	도래 이상		M	SD		M	SD	
전체	19.3	80.7		21.04	4.05		101.08	14.55	
영유아 성별									
남(n=24)	16.7	83.3	.184 (.668)	21.42	4.11	.597 (.553)	102.44	14.78	.597 (.553)
여(n=33)	21.2	78.8		20.76	4.04		100.09	14.53	
서비스 이용 기간									
5년 이하(n=37)	24.3	75.7	1.710 (.191)	20.21	4.56	-2.616**	98.10	16.39	-2.616**
5년 초과(n=20)	10.0	90.0		22.57	2.25		106.59	8.09	
가족구조									
양부모(n=28)	17.9	82.1	.113 (.737)	21.24	4.08	-.373 (.711)	101.81	14.67	-.373 (.711)
한부모·조손(n=29)	21.4	78.6		20.84	4.07		100.36	14.65	

\*\* $p < .01$

주: 1) K-DST 대근육 운동의 절단점을 적용하여 17점 이상을 '도래이상'으로 정의하였음  
2) 지능산출 시 적용하는 평균(100점)과 표준편차(15)로 전환한 것임

둘째, 소근육 운동은 팔과 손, 손가락을 사용한 미세한 운동과 사물의 조작 능력을 비롯하여 잡기, 블록 쌓기, 쓰기, 그리기, 자르기 등에 관한 운동 능력을 발달단계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영유아가 잘 해낼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소근육 운동 관련 수준은 다음의 〈표 V-3-5〉에 제시하였다. 이 소근육 운동은 8가지 활동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본 분석 대상 영유아 중 이 소근육 운동을 '전혀 할 수 없'거나 '하지 못하는 편'인 비율은 최소 3.7%에서 최대 47.6%로 나타나, 소근육 운동 종류에 따라 영유아 간 다소의 발달 편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리본 묶기를 하는' 소근육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영유아의 비율(52.4%)이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66~71개월 영유아의 약 절반 정도로 높지 않았던 데 반해, 그 외의 소근육 관련 운동 영역에 대해서는 '할 수 있'거나 '잘 할 수 있'는 영유아의 비율이 90%를 넘었다. 이를 통해 다른 소근육 활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난도의 작업을 요구하는 '리본 묶기'의 활동을 제외한 소근육 영역의 활동 수준은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표 V-3-5〉 참조).

〈표 V-3-5〉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K-DST(소근육 운동) 하위영역별 분포 현황

단위: %(명)

소근육 운동	전혀 할 수 없다	하지 못하는 편이다	할 수 있는 편이다	잘할 수 있다
1) 엄지손가락과 다른 네 손가락을 차례로 맞닿게 한다 (반대편 네 손가락이 아니고 같은 손이어야 한다)	0.0	6.1	13.9	80.0
2) 삼각형이 그려진 것을 보여주면 삼각형을 그린다(그리는 과정의 시범을 보지 않고도 그려야 한다)	0.0	3.7	11.1	85.2
3) 종이에 그려진 동그라미를 가위로 오린다	0.0	6.3	7.9	85.9
4) 간단한 자동차 모양을 흉내 내어 그린다	0.0	6.1	12.2	81.7
5) 주전자나 물병의 물을 거의 흘리지 않고 컵에 붓는다	0.0	4.5	17.8	77.7
6) 마름모가 그려진 것을 보여주면 마름모를 그린다 (그리는 과정의 시범을 보지 않고도 그려야 한다)	0.0	9.6	22.5	67.9
7) 집, 나무, 동물 같은 사물을 알아 볼 수 있게 그린다	0.0	6.1	16.6	77.3
8) 리본 묶기를 한다(예: 운동화끈)	10.7	36.9	12.5	39.8

주: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양육자 중 66-71개월령 영유아 57명에 대한 응답 자료를 분석함

소근육 운동 절단점을 적용하여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영유아의 소근육 운동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 결과(〈표 V-3-6〉), 또래와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소근육 운동 수준을 보이는 영유아의 비율은 87.7%였고, 이 비율은 여아이거나 서비스 이용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양부모 가정인 경우에 다소 높았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에 한정하여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소근육 운동 수준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분석 대상 영유아는 평균적으로 20.95점 수준의 소근육 운동 수준을 나타냈고 이 수준은 지능 산출법을 적용했을 때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K-DST의 소근육 운동 절단점을 적용하였을 때 또래 이상의 소근육 운동 수준을 보이는 영유아의 비율은 복지서비스 이용 기간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소근육 운동 수준의 총점으로 비교해 보면 서비스 이용 기간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복지서비스를 5년 넘게 이용한 영유아의 소근육 운동 수준이 서비스를 5년 이하로 이용한 영유아의 소근육 운동 수준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의 긍정적 영향을 추측해 볼 수 있다(〈표 V-3-6〉 참조).

〈표 V-3-6〉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K-DST(소근육 운동) 수준

단위: %, 점

구 분	절단점 적용		X <sup>2</sup> (p)	총점 적용		t (p)	지능 산출법 적용		t (p)
	도래 미만	도래 이상		M	SD		M	SD	
전체	12.3	87.7		20.95	4.19		102.59	13.66	
영유아 성별									
남(n=24)	16.7	83.3	.740 (.390)	20.60	4.73	-.529 (.299)	101.45	15.41	-.529 (.299)
여(n=33)	9.1	90.9		21.20	3.81		103.41	12.43	
서비스 이용 기간									
5년 이하(n=37)	18.9	81.1	4.314 (n.a)	19.94	4.76	-3.239**	99.32	15.52	-3.239**
5년 초과(n=20)	0.0	100.0		22.80	1.80		108.62	5.88	
가족구조									
양부모(n=28)	10.7	89.3	.125 (.723)	20.99	4.28	-.072 (.943)	102.72	13.95	-.072 (.943)
한부모·조손(n=29)	13.8	86.2		20.91	4.18		102.46	13.62	

\*\*p < .01

주: 1) K-DST 소근육 운동의 절단점을 적용하여 15점 이상을 '도래이상'으로 정의하였음  
 2) 지능산출 시 적용하는 평균(100점)과 표준편차(15)로 전환한 것임

셋째, K-DST 검사 영역 중 인지 영역은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 시청각적, 통합적 지각, 사고, 추리, 비교와 분류, 기억 및 모방, 수 개념, 공간 개념, 문제해결 등과 관련된 행동을 확인하는 것으로 놀이와 학습 영역의 상당 부분이 이 영역에 포함된다. 본 절의 분석 대상 영유아의 인지 결과는 다음의 〈표 V-3-7〉와 〈표 V-3-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근육 운동 영역의 하위 항목이나 소근육 운동 영역의 하위 항목에 대해서는 '전혀 할 수 없다'라는 비율이 거의 없었던 데 반해 인지 영역 하위 항목의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전혀 할 수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최소 0.0%에서 최대 7.9%였다. 인지 영역의 총 8개 하위 항목 중 전혀 할 수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항목은 '한 자리의 숫자 빨셈(7.9%)'을 하는 것 또는 '전화번호를 기억(7.8%)'하는 것이었다. '달력에서 날짜를 가리키는 것(6.6%)'이나 '11부터 20까지 중 불러주는 숫자를 받아 쓸 수(5.3%)' 있는 행위를 전혀 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그다음으로 높았는데, 그 비율이 각각 5%를 넘었다(〈표 V-3-7〉 참조).

〈표 V-3-7〉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K-DST(인지) 하위영역별 분포 현황

단위: %

인지	전혀 할 수 없다	하지 못하는 편이다	할 수 있는 편이다	잘할 수 있다
1) 자신의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할 수 있다	0.0	5.9	36.7	57.3
2) 요일을 순서대로 알고 있다	0.0	24.8	26.0	49.3
3) 100원보다 500원짜리 동전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안다	1.2	17.9	24.3	56.6
4) 자기 생일을 알고 있다	0.0	20.9	26.2	52.9
5) 11부터 20까지 숫자 중에서 하나를 불러주면 받아 쓴다	5.3	14.9	19.9	59.8
6) 한 자리 숫자 뺄셈을 한다(예: 5-2=3)	7.9	22.6	16.9	52.6
7) 엄마, 아빠, 혹은 보호자의 전화번호를 기억한다	7.8	35.0	20.7	36.6
8) 달력에서 오늘 날짜(월, 일)를 바르게 가리킨다	6.6	24.2	34.3	34.9

주: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양육자 중 66~71개월령 영유아 57명에 대한 응답 자료를 분석함

K-DST의 절단점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인지 수준이 또래 이상을 보이는 비율은 73.7%였고, 지능 산출법을 적용했을 때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 인지 수준은 영유아의 성별이나 서비스 이용 기간, 가족구조에 따른 특성의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표 V-3-8〉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K-DST(인지) 수준

단위: %, 점

구 분	절단점 적용		$\chi^2(p)$	총점 적용		$t(p)$	지능 산출법 적용		$t(p)$
	또래 미만	또래 이상		M	SD		M	SD	
전체	26.3	73.7		17.76	5.72		100.28	14.69	
영유아 성별									
남(n=24)	16.7	83.3	1.990 (.158)	17.94	5.14	.199 (.843)	100.74	13.19	.199 (.843)
여(n=33)	33.3	66.7		17.63	6.19		99.94	15.88	
서비스 이용 기간									
5년 이하(n=37)	27.0	73.0	.028 (.868)	17.25	5.51	-.922 (.360)	98.96	14.14	-.922 (.360)
5년 초과(n=20)	25.0	75.0		18.71	6.13		102.72	15.74	
가족구조									
양부모(n=28)	31.0	69.0	.678 (.410)	17.26	4.93	.645 (.522)	99.00	14.61	.645 (.522)
한부모·조손(n=29)	21.4	78.6		18.25	6.46		101.53	17.27	

주: 1) K-DST 인지의 절단점을 적용하여 14점 이상을 '또래이상'으로 정의하였음

2) 지능산출 시 적용하는 평균(100점)과 표준편차(15)로 전환한 것임

넷째, 연령에 기대되는 수준의 용알이를 비롯하여 말하기, 듣기 등 언어발달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포괄적 평가를 하는 영역이 K-DST의 언어 영역으로, 본 분석

영유아 양육자의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표 V-3-9〉)과 같다. 하위 항목 중 ‘간단한 속담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을 ‘전혀 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9.2%로, K-DST 모든 영역의 하위 항목을 통틀어 ‘전혀 할 수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이었다. ‘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까지 합산하면 ‘간단한 속담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영유아의 비율은 52.8%로 분석 영유아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 외에도 ‘끝말잇기’를 하지 못하는 영유아의 비율(25.9%)과 ‘자기 이름이나 2~4개의 글자로 된 단어를 보지 않고 쓸 수 있’지 못한 영유아의 비율(24.5%)이 언어 영역의 하위 항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언어 영역의 하위 항목에 대해 ‘전혀 할 수 없다’라는 비율 역시 대근육 운동 또는 소근육 운동 영역의 하위 항목별로 확인된 ‘전혀 할 수 없다’라는 비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조사에 참여한 복지서비스 영유아의 발달은 인지 및 언어에 비하여 대근육이나 소근육 발달이 ‘기대되는 발달단계’에 맞춰 조금 더 원활하게 성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V-3-9〉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K-DST(언어) 하위영역별 분포 현황

단위: %

언어	전혀 할 수 없다	하지 못하는 편이다	할 수 있는 편이다	잘할 수 있다
1) 친숙한 단어의 반대말을 말한다(예: 덩다 ↔ 춤다, 크다 ↔ 작다)	2.5	6.4	32.0	59.2
2) 간단한 농담이나 빗대어서 하는 말의 뜻을 알아차린다	2.5	18.9	29.2	49.5
3) 단어의 뜻을 물어보면 설명한다(예: “신발이 뭐야?”라는 질문에 “밖에 나갈 때 신는 거요”와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다)	1.4	9.0	26.0	63.7
4) “만약~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와 같이 가상의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답한다(예: 동생이 있으면 어떻게?)	0.0	13.6	25.5	60.9
5) 끝말잇기를 한다	1.2	24.7	23.3	50.7
6) 자기 이름이나 2~4개의 글자로 된 단어를 보지 않고 쓸 수 있다(예: 동생, 신호등, 대한민국)	5.0	19.5	31.9	43.6
7) 간단한 농담을 말한다	2.5	20.3	30.1	47.1
8) 간단한 속담을 이해하고 사용한다(예: “누워서 떡 먹기”와 같은 속담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9.2	43.5	15.4	31.9

주: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양육자 중 66~71개월령 영유아 57명에 대한 응답 자료를 분석함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인지 수준이 또래와 비교하여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절단점을 적용하여 살펴본 결과(〈표 V-3-10〉), 또래 이상의 수준을 보이는 비율은 본 절의 분석 대상 아동 중 약 절반 정도가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대근육 운동과 소근육 운동, 인지 수준이 또래 이상을 보인 비율이 70~80%대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할 때 언어 영역에서 또래 이상의 수준을 보이는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비율은 다소 낮은 특성이 있었다.

한편,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언어 수준은 평균 18.02점으로, K-DST 언어 영역의 절단점(19점) 수준보다 다소 낮은 특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아이거나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영유아 중 또래 이상의 언어 수준을 보이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이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3-10〉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K-DST(언어) 수준

단위: %, 점

구 분	절단점 적용		$\chi^2(p)$	총점 적용		$t(p)$	지능 산출법 적용		$t(p)$
	또래 미만	또래 이상		M	SD		M	SD	
전체	50.9	49.1		18.02	5.31		100.18	15.88	
영유아 성별									
남(n=24)	58.3	41.7	.922	17.04	5.51	-1.196	97.23	16.49	-1.196
여(n=33)	45.5	54.5	(.337)	18.73	5.12	(.237)	102.69	15.33	(.237)
서비스 이용 기간									
5년 이하(n=37)	51.4	48.6	.009	17.50	5.48	-1.021	98.60	16.41	-1.021
5년 초과(n=20)	50.0	50.0	(.922)	19.00	4.95	(.312)	103.09	14.82	(.312)
가족구조									
양부모(n=28)	53.6	46.4	.160	17.79	4.88	.324	99.48	14.61	.324
한부모·조손(n=29)	48.3	51.7	(.689)	18.25	5.77	(.747)	100.86	17.27	(.747)

주: 1) K-DST 언어의 절단점을 적용하여 19점 이상을 '또래이상'으로 정의하였음

2) 지능산출 시 적용하는 평균(100점)과 표준편차(15)로 전환한 것임

다섯째, K-DST에서 66개월에서부터 71개월 영유아에게 기대되는 사회성은 타 인과의 상호작용 시 눈맞춤, 타인의 감정 파악, 공동주시(joint attention), 모방행동, 규칙이 있는 놀이 및 상상놀이 등에 대한 행위로 파악한다.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의 사회성 수준의 결과는 다음의 〈표 V-3-11〉와 〈표 V-3-12〉에 제시하였다. 사회성 영역의 8개 하위 항목 중 '하지 못하는 편'이거나 '전혀 할 수 없다'라는 비율이 가장 높은 행위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다른 아이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22.8%)’이었고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를 거는 것(21.2%)’과 ‘친구에게 집으로 와서 같이 놀자고 하거나 놀이를 제안하는 것(17.0%)’을 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그 뒤를 이었다. 본 조사에 참여한 드림스타트 서비스 이용 영유아 양육자의 경우 자녀가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타인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관련된 행위를 다른 사회성 행위보다도 상대적으로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표 V-3-11〉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K-DST(사회성) 하위영역별 분포 현황

단위: %

사회성	전혀 할 수 없다	하지 못하는 편이다	할 수 있는 편이다	잘할 수 있다
1) 처음 만난 또래와 쉽게 어울린다	0.0	12.5	43.5	44.0
2) 또래와 함께 차례나 규칙을 알아야 할 수 있는 놀이를 한다(예: 윷놀이, 보드게임)	0.0	10.1	42.2	47.7
3)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다른 아이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	0.0	22.8	22.1	55.1
4) 게임을 하는 방법에 대해 다른 아이와 이야기를 나눈다	1.2	15.8	27.7	55.3
5) 다른 아이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려고 한다	0.0	9.6	43.6	46.8
6) 시키지 않아도 아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다	0.0	14.3	47.3	38.5
7) 친구에게 자기 집으로 와서 같이 놀자고 하거나, 무슨 놀이를 하자고 제안한다	4.1	12.9	36.8	46.3
8)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를 건다(집 전화나 휴대전화 모두 해당)	1.2	20.0	41.8	37.0

주: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양육자 중 66~71개월령 영유아 57명에 대한 응답 자료를 분석함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 중 K-DST의 사회성 수준이 또래 이상을 보인 비율은 71.9%였고, 지능 산출법을 적용하여 변환해서 살펴보면 사회성 수준은 평균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수준이 영유아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면, 남아보다는 여아에게서 사회성 수준이 다소 높았고 서비스 이용 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 또는 양부모 가정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사회성 수준이 다소 높았으나 이러한 편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V-3-12〉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K-DST(사회성) 수준

단위: %, 점

구 분	절단점 적용		$\chi^2(p)$	총점 적용		$t(p)$	지능 산출법 적용		$t(p)$
	또래 미만	또래 이상		M	SD		M	SD	
전체	28.1	71.9		18.39	4.88		101.35	16.22	
영유아 성별									
남(n=24)	37.5	62.5	1.826 (.177)	17.84	5.02	-.729 (.469)	99.50	16.71	-.729 (.469)
여(n=33)	21.2	78.8		18.80	4.80		102.69	15.98	
서비스 이용 기간									
5년 이하(n=37)	24.3	75.7	.733 (.392)	18.23	4.78	-.354 (.725)	100.79	15.89	-.354 (.725)
5년 초과(n=20)	35.0	65.0		18.71	5.17		102.39	17.18	
가족구조									
양부모(n=28)	32.1	67.9	.452 (.501)	18.52	4.68	-.182 (.856)	101.75	15.57	-.182 (.856)
한부모·조손(n=29)	24.1	75.9		18.28	5.14		100.96	17.09	

주: 1) K-DST 사회성의 절단점을 적용하여 15점 이상을 '또래이상'으로 정의하였음

2) 지능산출 시 적용하는 평균(100점)과 표준편차(15)로 전환한 것임

여섯째, K-DST에서 검사하는 자조능력은 18개월 이후 월령부터 검사를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자조 능력이 일정 발달 기술이 획득한 후 계발되는 특성에서 비롯된다. 식사하기나 대소변 가리기, 옷 입고 벗기, 청결과 위생 관련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는 자조 영역은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하며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발달을 잘해 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즉, K-DST의 자조 영역은 영유아가 성인의 도움 없이 의식주에 관련된 기초적인 생활을 적절하게 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총 8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V-3-13〉).

자조 영역의 행위 중 '전혀 하지 못'하거나 '하지 못하는 편'인 비율은 최소 4.8%에서부터 최대 34.7%로 분포하여, 행위 간 다소 발달 편차가 확인되었다. 가장 원활하게 해내는 자조 행위는 '숟가락 등을 사용하여 빵에 버터나 잼을 바르는' 행위였다. 자조 영역 응답 양육자의 95.2%가 영유아인 자녀가 해당 행위를 '할 수 있'거나 '잘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머리 감기를 제외하면 혼자서 목욕을 하'는 행위를 영유아 자녀가 잘할 수 있다고 응답한 양육자의 비율(65.3%)은 다소 낮았다. 그 외에도 영유아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지 않거나 감정이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고 평가한 양육자의 비율이 15% 내외였다.

〈표 V-3-13〉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K-DST(자조) 하위영역별 분포 현황

단위: %

자조	전혀 할 수 없다	하지 못하는 편이다	할 수 있는 편이다	잘할 수 있다
1) 손가락 등을 사용하여 빵에 버터나 잼을 바른다	0.0	4.8	29.1	66.1
2) 목욕한 후에 혼자서 몸을 수건으로 닦는다	0.0	16.6	24.1	59.3
3) 옷의 지퍼를 혼자 끼워 올린다	1.2	4.8	31.6	62.4
4) 옷이 더러워지면 스스로 알아서 갈아입는다	2.5	10.3	20.4	66.9
5) 우유갑을 어른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연다	2.5	24.1	20.4	53.1
6) 일정 기간(일주일 정도) 동안 집안일 하나를 맡아서 한다 (예: 수저 놓기, 장난감 정리등)	2.5	14.0	34.4	49.1
7) 머리 감기를 제외하면 혼자서 목욕을 한다	2.5	32.2	33.9	31.5
8) 대변을 본 뒤 휴지를 사용하여 혼자서 뒤처리를 할 수 있다(비데 사용도 포함)	1.2	17.3	33.2	48.3

주: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양육자 중 66~71개월령 영유아 57명에 대한 응답 자료를 분석함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자조 수준을 절단점을 적용하여 또래의 수준과 비교해 본 결과, 또래 이상의 수준을 보이는 비율이 80.7%였다(〈표 V-3-14〉). 다만, 자조 수준을 지능 산출법을 적용하여 살펴보면 평균(100점)보다 약간 낮은 99.22 점이었다. 절단점을 적용하였을 때는 또래 이상의 자조 수준을 보이는 영유아의 비율이 영유아의 성별이나 서비스 이용 기간, 가족구조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던 데 반해,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영유아의 성별에 따라 자조 수준이 차이를 보였다.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 내에서는 남아보다도 여아의 자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조 수준은 가족구조가 한부모거나 조손가정인 영유아가 양부모 가정의 영유아에 비하여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앞서 살펴본 K-DST의 다른 발달 영역의 수준이 양부모 가정에서 다소 높았던 특징과는 다소 이질적인 결과이다. 다만, 가족구조에 따른 모든 발달 영역의 편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일 정도의 편차가 아니었다.

〈표 V-3-14〉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K-DST(자조) 수준

단위: %, 점

구 분	절단점 적용		$\chi^2(p)$	총점 적용		$t(p)$	지능 산출법 적용		$t(p)$
	또래 미만	또래 이상		M	SD		M	SD	
전체	19.3	80.7		18.88	4.85		99.22	15.60	
영유아 성별			8.819			-2.598*			-2.598*

구 분	절단점 적용		$X^2(p)$	총점 적용		$t(p)$	지능 산출법 적용		$t(p)$
	또래 미만	또래 이상		M	SD		M	SD	
남(n=24)	37.5	62.5	(n.a)	16.96	5.07		93.05	16.31	
여(n=33)	6.1	93.9		20.27	4.24		103.68	13.64	
서비스 이용 기간									
5년 이하(n=37)	21.6	78.4	1.212 (.271)	18.26	5.45	-1.318 (.193)	99.23	17.53	-1.318 (.193)
5년 초과(n=20)	10.0	90.0		20.03	3.31		102.90	10.65	
가족구조									
양부모(n=28)	21.4	78.6	.160 (.689)	18.73	4.78	.225 (.823)	98.74	15.38	.225 (.823)
한부모·조손(n=29)	17.2	82.8		19.03	5.00		99.68	16.08	

\*  $p < .05$

주: 1) K-DST 자조의 절단점을 적용하여 15점 이상을 '또래이상'으로 정의하였음

2) 지능산출 시 적용하는 평균(100점)과 표준편차(15)로 전환한 것임

## 2) 복지서비스 이용 학령기 아동의 발달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령기 아동의 발달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 응답 문항을 건강, 돌봄, 일상 및 심리·정서, 안전·보호 및 웰빙의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가) 건강 영역

적정량의 신체활동은 아동의 몸과 마음 건강에 중요하다. 이에 건강 영역에서는 아동의 신체활동 수준과 건강 상태를 살펴보았다. 먼저, 신체활동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운동 활동에 대해 살펴본 결과(<표 V-3-15>), 지난 1주일간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한 시간이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아동들에게서 그 비율이 대체로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특히 초등 저학년 아동들 내에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지난 1주일 동안 운동한 시간의 분포가 차이를 보였던 데 반해 초등 고학년 아동은 성별과 서비스 이용 기간, 가족구조에 따라 운동한 시간의 분포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먼저, 초등 저학년 아동들 내에서는 지난 1주일 동안 운동한 시간이 4시간 이상인 비율이 아동의 성별이나 서비스 이용 기간, 가족구조와 무관하게 대체로 가장 높았다. 이 비율이 여아보다는 남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 경향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운동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아동은 서비스 기간이 5년 초과인 아동들의

32.9%에 해당하였고 양부모 가정(29.3%)보다는 한부모·조손가정(34.3%)에서 그 비율이 더 높은 특징을 보였으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초등 고학년 아동 중에서는 아동의 성별과 서비스 이용 기간, 가족구조에 따라 지난 1주일간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한 시간이 다소 차이를 보였다. 지난 1주일 동안 4시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한 아동의 비율은 여아보다도 남아에게서 더 높았고 서비스 이용 기간이 5년 이하인 아동들 내에서 더 높았다. 한편, 가족구조에 따라서는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 양부모 가정의 초등 고학년 중에서는 ‘1시간(33.5%)’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한부모·조손가정의 초등 고학년 중에서는 ‘4시간 이상(32.3%)’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V-3-15〉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의 운동 시간

단위: %(명)

구 분		아동 성별		서비스 이용 기간		가족구조	
		남	여	5년 이하	5년 초과	양부모	한부모·조손
초 등 저 학 년	전체	100.0(102)	100.0( 89)	100.0(121)	100.0( 70)	100.0( 82)	100.0(108)
		$\chi^2(p) = 20.280^{***}$		$\chi^2(p) = 2.349(.672)$		$\chi^2(p) = 1.806(.771)$	
	1주일 동안 운동한 시간						
	없음	12.7( 13)	19.1( 17)	15.7( 19)	15.7( 11)	17.1( 14)	14.8( 16)
	1시간	22.5( 23)	28.1( 25)	26.4( 32)	22.9( 16)	29.3( 24)	22.2( 24)
	2시간	18.6( 19)	9.0( 8)	11.6( 14)	18.6( 13)	13.4( 11)	14.8( 16)
3시간	4.9( 5)	21.3( 19)	14.0( 17)	10.0( 7)	11.0( 9)	13.9( 15)	
4시간 이상	41.2( 42)	22.5( 20)	32.2( 39)	32.9( 23)	29.3( 24)	34.3( 37)	
초 등 고 학 년	전체	100.0(230)	100.0(182)	100.0(196)	100.0(215)	100.0(179)	100.0(232)
		$\chi^2(p) = 35.050^{***}$		$\chi^2(p) = 11.685^*$		$\chi^2(p) = 9.644^*$	
	1주일 동안 운동한 시간						
	없음	8.7( 20)	26.9( 49)	20.9( 41)	13.0( 28)	16.2( 29)	17.2( 40)
	1시간	27.8( 64)	30.2( 55)	25.5( 50)	32.1( 69)	33.5( 60)	24.6( 57)
	2시간	13.0( 30)	12.6( 23)	14.3( 28)	11.2( 24)	12.3( 22)	13.4( 31)
3시간	14.8( 34)	14.3( 26)	10.2( 20)	18.6( 40)	17.3( 31)	12.5( 29)	
4시간 이상	35.7( 82)	15.9( 29)	29.1( 57)	25.1( 54)	20.7( 37)	32.3( 75)	

주: 1) 초등 저학년 아동의 응답은 양육자가 응답한 것임  
 2) 본 분석 자료는 표본횡단가중치가 부여되었기에, 총인원 및 백분율에서 약간의 오차가 존재함  
 3) \* $p < .05$ , \*\*\* $p < .001$

평소 건강 상태에 대한 아동의 평가는 초등 저학년과 초등 고학년 아동 모두 자가 보고 형식으로 조사된 응답 결과(〈표 V-3-16〉)로, 평소 건강 상태에 대해 ‘매우 건강’ 또는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동의 성별이나 서비스 이용 기간, 가족구조와 무관하게 대체로 초등 저학년 아동 중에서는 90% 이상이었고 초등

고학년 아동 중에서는 8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대체로 평소 건강 상태를 양호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sup>14)</sup> 결과에 따르면, 전체 아동의 92.9%의 아동이 건강 상태에 대하여 ‘매우 좋다’ 또는 ‘좋다’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이상정 등, 2023), 우리나라 아동들 대부분은 건강 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건강이 좋지 않다고 보고(‘건강이 좋지 않은 편’ 또는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음’으로 응답)한 아동의 비율은 초등 저학년과 초등 고학년 모두 양부모 가정의 아동보다는 한부모·조손가정의 아동 내에서 그 비율이 더 높았고, 초등 고학년 아동 내에서 14.6%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하여 연령대 및 가족구조 등의 특성을 고려한 면밀한 파악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평소 건강 상태에 대한 부정적 보고가 한부모·조손가정의 생활환경의 어떠한 특성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파악하여 아동의 건강 상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V-3-16〉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의 평소 건강 상태

단위: %(명)

구 분	아동 성별		서비스 이용 기간		가족구조		
	남	여	5년 이하	5년 초과	양부모	한부모·조손	
초 등 저 학 년	전체	100.0(102)	100.0( 89)	100.0(121)	100.0( 70)	100.0( 82)	100.0(108)
	평소의 건강상태	$X^2(p) = 1.239(n.a)$		$X^2(p) = 3.632(n.a)$		$X^2(p) = 2.625(n.a)$	
	매우 건강	35.0( 35)	32.6( 29)	30.3( 36)	40.0( 28)	29.3( 24)	37.0( 40)
	건강한 편	59.0( 59)	60.7( 54)	61.3( 73)	57.1( 40)	65.9( 54)	55.6( 60)
	건강이 좋지 않은 편	5.0( 5)	6.7( 6)	7.6( 9)	2.9( 2)	4.9( 4)	6.5( 7)
	건강이 매우 좋지않음	1.0( 1)	0.0( 0)	0.8( 1)	0.0( 0)	0.0( 0)	0.9( 1)
초 등 고 학 년	전체	100.0(230)	100.0(182)	100.0(196)	100.0(215)	100.0(179)	100.0(232)
	평소의 건강상태	$X^2(p) = 2.544(n.a)$		$X^2(p) = 18.904(n.a)$		$X^2(p) = 9.443(n.a)$	
	매우 건강	21.3( 49)	16.9( 31)	28.3( 56)	11.6( 25)	14.6( 26)	23.3( 54)
	건강한 편	64.8(149)	71.6(131)	61.1(121)	73.1(158)	75.3(134)	62.1(144)
	건강이 좋지 않은 편	12.6( 29)	10.9( 20)	9.6( 19)	14.4( 31)	9.0( 16)	14.2( 33)
	건강이 매우 좋지않음	1.3( 3)	0.5( 1)	1.0( 2)	0.9( 2)	1.1( 2)	0.4( 1)

- 주: 1) 초등 저학년 아동의 응답은 양육자가 응답한 것임  
 2) 본 분석 자료는 표본횡단가중치가 부여되었기에, 총인원 및 백분율에서 약간의 오차가 존재함  
 3) 빈도수가 5 미만인 셀이 존재할 때 통계적 유의성은 n.a로 제시함

14)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는 0세부터 8세까지의 아동은 양육자가 응답하며, 9세부터 17세의 아동은 아동이 직접 보고하는 형태로 설문이 이루어짐.

나) 돌봄 영역

학교나 학원이 끝난 방과 후 집에 돌아가면 있는 사람의 부재 여부는 아동의 평소 돌봄 공백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요소이다. 방과 후 아동과 함께 있는 사람을 확인한 결과,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의 80% 내외는 방과 후 ‘어른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V-3-17〉). 초등 저학년 아동의 경우 방과 후 집에 아무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 이내로 나타난 데 반해, 초등 고학년 아동의 경우 15% 내외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초등 고학년 아동의 가족구조에 따라서 다소 차이를 나타냈는데, 양부모 가정(11.8%) 아동보다도 한부모·조손가정(16.0%) 아동에게서 방과 후 아무도 없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V-3-17〉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의 (학교나 학원이 끝난) 방과 후 돌봄

단위: %(명)

구 분	아동 성별		서비스 이용 기간		가족구조			
	남	여	5년 이하	5년 초과	양부모	한부모·조손		
초 등 저 학 년	전체		100.0(102)	100.0( 89)	100.0(121)	100.0( 70)	100.0( 82)	100.0(108)
			$X^2(p) = 4.239(n.a)$		$X^2(p) = 2.202(n.a)$		$X^2(p) = 2.666(n.a)$	
	방과 후 집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0.0( 0)	1.1( 1)	0.8( 1)	0.0( 0)	1.2( 1)	0.0( 0)
	형제(18세 이하)		5.9( 6)	10.0( 9)	6.7( 8)	10.0( 7)	7.1( 6)	8.4( 9)
	어른 보호자		10.9( 11)	10.0( 9)	11.7( 14)	8.6( 6)	10.7( 9)	10.3( 11)
	기타	83.2( 94)	77.8( 70)	80.0( 96)	81.4( 57)	79.8( 67)	81.3( 87)	
초 등 고 학 년	전체		100.0(230)	100.0(182)	100.0(196)	100.0(215)	100.0(179)	100.0(232)
			$X^2(p) = 5.660(n.a)$		$X^2(p) = 8.756(n.a)$		$X^2(p) = 2.666(n.a)$	
	방과 후 집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17.4( 40)	9.9( 18)	15.2( 30)	13.0( 28)	11.8( 21)	16.0( 37)
	형제(18세 이하)		6.5( 15)	8.8( 16)	10.7( 21)	4.7( 10)	4.5( 8)	10.0( 23)
	어른 보호자		75.2(173)	79.7(145)	72.6(143)	81.4(175)	83.1(148)	73.2(169)
	기타	0.9( 2)	1.6( 3)	1.5( 3)	0.9( 2)	0.6( 1)	0.8( 2)	

주: 1) 본 분석자료는 표본횡단가중치가 부여되었기에, 총인원 및 백분율에서 약간의 오차가 존재함  
 2) 빈도수가 5 미만인 셀이 존재할 때 통계적 유의성은 n.a로 제시함

평소 아동의 주양육자에 대해 분석 아동 10명 중 8~9명 정도가 부모라고 응답하여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코로나 세대 아동은 대체로 부모가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아동 모두에게서 주양육자가 ‘조부모’인 비율이 양부모 가정보다는 한부모·조손 가정에서 더 높았고, 이 비율은 약 11.1%에서 14.3%까지 나타났다.



다) 일상 및 심리·정서 영역

일상 및 심리·정서 영역에서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학교·동네에 대한 인식과 교우관계 및 스마트폰, 스트레스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가정형편 인식 수준은 초등 고학년 아동은 5점대였던 데 반해 초등 저학년 아동은 6점대로 확인되어 아동 연령대가 더 어린 경우 가정형편을 좀 더 양호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V-3-20〉). 초등 저학년 아동 중에서는 성별이 남아(6.12점)인 경우보다 여아(6.48점)인 경우에 가정형편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복지서비스 이용 기간이 5년 초과(6.60점)인 아동과 가족구조가 한부모·조손 가정(6.40점)인 아동이 가정형편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초등 고학년 아동의 경우 아동의 성별이나 서비스 이용 기간, 가족구조에 따른 가정형편 인식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초등 저학년에서 보여준 특성과는 다르게 여아보다 남아가 가정형편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교생활 만족도와 동네 만족도 역시 초등 고학년 아동보다는 초등 저학년 아동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초등 저학년과 초등 고학년 아동의 성별이나 서비스 이용 기간, 가족구조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동네 만족도의 경우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다소 두드러졌다. 초등 고학년 아동의 동네 만족도는 여아(6.90점)보다 남아(7.42점)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표 V-3-20〉 참조).

〈표 V-3-20〉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의 가정·학교·동네 인식도

단위: 점

구 분		아동 성별				서비스 이용 기간				가족구조			
		남		여		5년 이하		5년 초과		양부모		한부모·조손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가정 형편 인식	초등 저학년	6.12 (2.24)	6.48 (2.43)	6.10 (2.46)	6.60 (2.09)	6.15 (2.26)	6.40 (2.40)	t(p) = -1.065(.288)      t(p) = -1.431(.154)      t(p) = .735(.463)					
	초등 고학년	5.48 (2.03)	5.30 (1.80)	5.39 (2.07)	5.40 (1.80)	5.35 (1.83)	5.44 (2.02)						
학교 생활 만족도	초등 저학년	3.34 (0.58)	3.38 (0.58)	3.34 (0.63)	3.39 (0.49)	3.40 (0.58)	3.33 (0.58)	t(p) = -.483(.630)      t(p) = -.496(.620)      t(p) = -.802(.423)					
	초등 고학년	3.27 (0.63)	3.17 (0.62)	3.21 (0.62)	3.23 (0.63)	3.17 (0.62)	3.27 (0.63)						
		t(p) = 1.526(.128)		t(p) = -.372(.710)		t(p) = 1.562(.119)							

구 분		아동 성별				서비스 이용 기간				가족구조			
		남		여		5년 이하		5년 초과		양부모		한부모·조손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동네 만족도	초등	7.91	(1.91)	7.78	(2.39)	7.80	(2.10)	7.94	(2.22)	8.04	(1.91)	7.71	(2.30)
	저학년	t(p) = -.483(.630)				t(p) = -.438(.662)				t(p) = -1.069(.286)			
	초등	7.42	(2.18)	6.90	(2.22)	7.18	(2.28)	7.20	(2.16)	7.19	(2.17)	7.21	(2.25)
	고학년	t(p) = 2.344*				t(p) = -.090(.928)				t(p) = .084(.933)			

주: 1) 가정형편 인식과 동네 만족도는 1개 문항의 11점(0점-10점) 척도로 조사되었고 학교생활만족도 역시 1개 문항의 4점('매우불만족'=1)에서부터 '매우 만족'=4)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2) \*p < .05

아동의 일상은 교우관계와 스마트폰 의존도를 살펴보았는데, 해당 설문은 초등 고학년 이상의 아동에게 조사되었다. 교우관계는 아동의 성별이나 서비스 이용 기간, 가족구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스마트폰 의존도는 가족구조에 따라 통계적으로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표 V-3-21>). 스마트폰 의존도 비율은 한부모·조손 가정(9.01점)보다 양부모 가정(10.04점)의 아동에서 다소 더 높았다.

<표 V-3-21>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의 일상 (초등 고학년)

단위: 점

구 분		아동 성별				서비스 이용 기간				가족구조			
		남		여		5년 이하		5년 초과		양부모		한부모·조손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교우관계		26.14	(5.84)	26.86	(6.54)	26.72	(5.86)	26.22	(6.43)	26.33	(6.17)	26.59	(6.20)
		t(p) = -1.186(.236)				t(p) = .824(.411)				t(p) = .424(.672)			
스마트폰 의존도		9.52	(6.15)	9.37	(5.76)	9.71	(6.23)	9.21	(5.73)	10.04	(5.64)	9.01	(6.22)
		t(p) = .247(.805)				t(p) = .837(.403)				t(p) = -1.742 <sup>†</sup>			

주: 1) 교우관계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를 비롯하여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0점)부터 '매우 그렇다'(=3점)의 13개 문항을 합산한 것으로 측정되어 총 39점이 만점이며 스마트폰 의존도는 '스마트폰을 이용 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를 비롯하여 10개 문항을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0점)부터 '매우 그렇다'(=3점)로 합산한 것으로 측정되어 총 30점 만점임  
 2) 스마트폰 과의존도는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4점)를 기준으로 고위험(31점 이상)과 잠재적 위험(23점 ~ 30점), 일반(0점~22점)으로 구분됨.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아동은 이 기준을 따랐을 때 일반(71.6%)과 잠재적 위험(26.1%), 고위험(2.3%)으로 확인되어, 2023년 기준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의 위험군(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40.1%보다 낮음(장희선, 2025)  
 3) <sup>†</sup> p < .10

학령기 아동에게 스트레스는 긍정적 발달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본 절에서 분석한 자료에서 스트레스는 초등 고학년 아동만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기에, 드림스타트 서비스를 이용한 초등 고학년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 중 주요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V-3-22>와 같다.

가장 많은 아동이 보고한 스트레스 요인은 ‘숙제나 시험’ 또는 ‘몸무게’, ‘보호자와의 의견 충돌’로 인한 스트레스였다.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숙제나 시험’과 ‘성적’, ‘부모님과 의견충돌’ 순으로 스트레스를 보고하고 있어(이상정 등, 2023), 우리나라 아동의 경우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들 모두 대체로 ‘숙제나 시험’이나 ‘보호자와의 의견충돌’로 인한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복지서비스 아동의 스트레스 중 숙제나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 비율은 한부모·조손가정 아동(40.1%)보다 양부모 가정 아동(46.6%)에서 조금 더 높게 보고되었고, 몸무게로 인한 스트레스 역시 한부모·조손가정 아동(23.8%)보다 양부모 가정 아동(31.3%)에서 더 높게 보고되었다. ‘친구들로부터의 인정’에 관한 스트레스 비율은 양부모 가정 아동(15.8%)과 한부모·조손가정 아동(16.4%)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데 반하여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함’에 따른 스트레스는 양부모 가정 아동(15.2%)보다 한부모·조손가정 아동(23.4%)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갖고 싶은 물건을 가지지 못할 때의 박탈감이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 정서나 낙인감 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한 현물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표 V-3-22>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의 스트레스 이유 (초등 고학년)

단위: 점

구 분	아동 성별				서비스 이용 기간				가족구조			
	남		여		5년 이하		5년 초과		양부모		한부모·조손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1) 숙제·시험	2.37 (0.88)	2.26 (0.88)	2.22 (0.86)	2.41 (0.89)	2.37 (0.85)	2.28 (0.91)	t(ρ) = -1.004					
	t(ρ) = 1.259(.209)				t(ρ) = -2.203*							
2) 친구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함	1.76 (0.73)	1.90 (0.82)	1.76 (0.72)	1.88 (0.82)	1.90 (0.78)	1.76 (0.77)	t(ρ) = -1.895†					
	t(ρ) = -1.819†				t(ρ) = -1.515(.131)							
3) 성적	1.61 (0.73)	1.62 (0.87)	1.59 (0.67)	1.64 (0.71)	1.65 (0.69)	1.58 (0.69)	t(ρ) = -1.036(.301)					
	t(ρ) = -0.142(.444)				t(ρ) = -0.845(.399)							
4) 보호자와의 의견충돌	2.03 (0.87)	1.90 (0.79)	1.89 (0.79)	2.05 (0.87)	2.01 (0.81)	1.94 (0.86)	t(ρ) = -0.749(.454)					
	t(ρ) = 1.584(.114)				t(ρ) = -1.929†							
5) 보호자의 간섭	1.83 (0.80)	1.71 (0.72)	1.73 (0.75)	1.82 (0.78)	1.79 (0.71)	1.77 (0.81)	t(ρ) = -0.268(.789)					
	t(ρ) = 1.607(.109)				t(ρ) = -1.225(.221)							
6) 친구에 대한 열등감	1.72 (0.70)	1.84 (0.82)	1.74 (0.72)	1.81 (0.79)	1.86 (0.79)	1.71 (0.73)	t(ρ) = -2.012*					
	t(ρ) = -1.636(.103)				t(ρ) = -1.020(.308)							

구 분	아동 성별				서비스 이용 기간				가족구조			
	남		여		5년 이하		5년 초과		양부모		한부모·조손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7) 몸무게	2.00 (0.86)	2.06 (0.85)	1.93 (0.90)	2.06 (0.81)	2.09 (0.78)	1.98 (0.91)	t(p) = -0.0693(.489)      t(p) = -0.913(.362)      t(p) = -1.350(.178)					
8) 키	1.83 (0.81)	1.82 (0.79)	1.79 (0.76)	1.86 (0.84)	1.85 (0.81)	1.81 (0.81)	t(p) = 0.059(.953)      t(p) = -0.889(.375)      t(p) = -0.463(.643)					
9) 갖고 싶은 물건 갖지 못함	1.90 (0.91)	1.88 (0.85)	1.85 (0.82)	1.93 (0.93)	1.81 (0.76)	1.95 (0.97)	t(p) = 0.289(.773)      t(p) = -0.926(.355)      t(p) = 1.587(.113)					

주: 1) 스트레스는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로 조사된 문항의 결과임  
 2) \*p < .05, †p < .10

라) 안전·보호 영역

피해와 차별 경험은 안전·보호의 중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본 절에서 초등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교폭력 및 사이버 폭력의 피·가해 경험과 폭력의 피·가해 경험에 대한 응답 값을 분석한 결과(<표 V-3-23>), 아동의 폭력 및 차별 피·가해 경험은 높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가해 경험보다는 피해 경험 수준이 더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표 V-3-23>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의 피·가해 경험 (초등 고학년)

단위: 점

구 분	아동 성별				서비스 이용 기간				가족구조			
	남		여		5년 이하		5년 초과		양부모		한부모·조손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 학교폭력 피해	1.23 (1.72)	1.13 (1.58)	1.09 (1.48)	1.28 (1.81)	1.15 (1.62)	1.22 (1.70)	t(p) = .607(.544)      t(p) = -1.149(.251)      t(p) = 0.455(.650)					
2) 학교폭력 가해	0.74 (1.34)	0.60 (1.22)	0.69 (1.26)	0.67 (1.32)	0.73 (1.33)	0.64 (1.26)	t(p) = 1.081(.280)      t(p) = 0.165(.869)      t(p) = -0.727(.467)					
3) 사이버폭력 피해	0.10 (0.35)	0.16 (0.43)	0.10 (0.33)	0.15 (0.43)	0.16 (0.41)	0.10 (0.36)	t(p) = -1.628(.104)      t(p) = -1.379(.169)      t(p) = -1.532(.126)					
4) 사이버폭력 가해	0.04 (0.23)	0.04 (0.20)	0.04 (0.22)	0.95 (0.21)	0.06 (0.27)	0.02 (0.15)	t(p) = -0.050(.960)      t(p) = -0.369(.712)      t(p) = -1.759 <sup>†</sup>					
5) 차별당한 경험	0.28 (0.78)	0.31 (0.85)	0.33 (0.91)	0.27 (0.71)	0.27 (0.80)	0.31 (0.82)	t(p) = -0.338(.368)      t(p) = 0.759(.449)      t(p) = 0.496(.620)					
6) 차별한 경험	0.32 (1.19)	0.20 (0.67)	0.18 (0.67)	0.35 (1.21)	0.25 (0.77)	0.29 (1.14)	t(p) = 1.171(.242)      t(p) = -1.719 <sup>†</sup> t(p) = 0.424(.672)					

주: 1) 학교폭력은 지난 1년간 학교에서 '듣기 싫은 별명을 부르며 놀리거나 조롱'을 포함한 7개 항목을, 사이버폭력은 '인터넷, 휴대폰(스마트폰), SNS(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등), 블로그, 카페 등에 원하지 않는 문자, 사진 등을 올린 적 있음'을 포함한 2개 문항에 대해 6점 척도('전혀 없다'=0점)부터 '1주일에 여러 번(=5점)'로 피해 및 경험 수준을 산출한 것이며, 차별 경험은 성별, 성적, 연령, 가정형편, 외모, 종교, 가족구조, 장애, 다문화가정 관련 9개 항목에 대한 차별 경험을 5점 척도('한 번도 차별한 적 없음'=0점)부터 '1주일에 3회 이상 차별했음(=4점)'로 산출한 것임  
 2) †p < .10



또한 사이버폭력 피·가해 경험 수준보다는 학교폭력 피·가해 경험 수준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된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학교 안과 밖에서 발생한 또래 폭력 피해 경험률은 22.6%로 언어(16.0%)와 신체(7.5%) 폭력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온라인 공간에서는 언어(9.1%)와 갈취(2.4%) 관련 폭력 피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성평등가족부, 2025), 사이버폭력보다는 또래 폭력 비율이 높고 언어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아동의 피·가해 경험 중 사이버폭력 가해 수준과 차별한 경험은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이버폭력 가해 수준은 한부모·조손 가정(0.02점)의 아동보다도 양부모(0.06점) 가정의 아동에게서 더 높았고 차별한 경험은 서비스 이용 기간이 5년 이하(0.18점)인 아동보다도 5년 초과(0.35점)인 아동에게서 더 높았다.

#### 마) 웰빙 영역

아동의 웰빙 영역은 주로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를 중요한 요인으로 측정하기에 본 조사에 참여한 복지서비스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를 살펴본 결과(〈표 V-3-24〉),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는 초등 고학년 아동보다 초등 저학년 아동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초등 저학년 아동의 경우 7점대 이상을 보였고 초등 고학년 아동의 경우 7점 내외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경향은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이상정 등, 2023)의 삶의 만족도(7.1점)와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 중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입양(7.4점)이나 공동생활 가정(7.3점) 서비스 경험 아동에 비하여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장희선, 2025), 본 절에서 분석한 드림스타트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동의 연령대가 더 높거나 아동의 성별이 여아인 경우, 또는 서비스 이용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와 양부모 가정의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더 낮은 경향을 보여주는 〈표 V-3-24〉의 결과를 참조하여,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의 특징을 고려한 집중 지원 이뤄져야 한다.

한편, 아동의 행복도는 초등 저학년 아동 중에서 서비스 이용 기간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는데, 서비스 이용 기간이 5년 이하(7.58점)인 아동보다도 5년 초과

(8.09점)인 아동의 행복도가 더 높았다. 초등 저학년 아동 중에서는 양부모 가정 아동에 비하여 한부모·조손가정 아동에게서 행복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초등 고학년 아동 중에서는 성별에 따라 행복도 수준이 차이를 나타냈다. 여아(6.81점)보다 남아(7.53점)의 행복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의 웰빙은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아동의 인구학적인 특성이나 서비스 이용 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표 V-3-24〉 참조).

〈표 V-3-24〉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의 웰빙

단위: 점

구 분		아동 성별				서비스 이용 기간				가족구조			
		남		여		5년 이하		5년 초과		양부모		한부모·조손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삶의 만족도	초등 저학년	7.11	(1.97)	7.36	(2.00)	7.12	(2.12)	7.42	(1.73)	7.27	(2.02)	7.20	(1.97)
		t(p) = -.852(.395)				t(p) = -1.024(.307)				t(p) = -.260(.795)			
	초등 고학년	7.00	(1.92)	6.68	(1.87)	6.83	(1.93)	6.88	(1.88)	6.78	(1.79)	6.93	(1.99)
		t(p) = 1.727 <sup>†</sup>				t(p) = -.267(.789)				t(p) = .798(.426)			
행복도	초등 저학년	7.78	(1.84)	7.76	(1.95)	7.58	(2.03)	8.09	(1.57)	7.59	(1.97)	7.91	(1.82)
		t(p) = .058(.954)				t(p) = -1.939 <sup>†</sup>				t(p) = 1.184(.238)			
	초등 고학년	7.53	(1.80)	6.81	(1.84)	7.31	(1.87)	7.12	(1.83)	7.20	(1.90)	7.24	(1.81)
		t(p) = 4.000 <sup>***</sup>				t(p) = 1.001(.318)				t(p) = .207(.836)			

주: 1)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는 11점 척도(0~10점)의 1개 문항으로 조사된 것임

2) \*\*\*p < .001, <sup>†</sup>p < .10

## 다. 요약 및 논의

본 절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발달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드림스타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발달 수준과 생활환경을 분석하였다. 조사 자료는 아동권리보장원의 국가승인 통계(제468001호)인 「지원·보호아동 및 자립 준비 청년 패널조사(2023~2033)」의 1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패널조사의 대상은 여러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과 그 양육자, 자립 준비 청년으로, 본 연구는 저연령대 아동에 대한 코로나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기에 여러 복지서비스 중 상대적으로 어린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최종적으로 영유아 80명(57명<sup>15</sup>)과 초등 저학년 아동 190명, 초등 고학년 아동 413명 등 총

683명 아동 자료를 본 절에서 분석하였다.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와 학령기 아동의 주요 발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발달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또래 수준의 발달 양상을 보였다. 특히 대근육과 소근육 발달, 그리고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같은 신체 관련 영역에서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대다수의 아동이 또래와 비교하여 기능적 지연을 보이지 않았다. 소근육 운동 영역에서는 그림 그리기, 물 따르기, 가위질하기 등 세밀한 조작 능력과 관련된 과제의 수행률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손의 협응력과 계획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리본 묶기’ 과제에서는 수행률이 절반 정도에 머물러 세밀한 조작과 순차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활동에서의 발달 편차가 다소 확인되었다. 인지발달 영역에서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지만 한 자리 숫자의 뺄셈이나 달력의 날짜 지시, 전화번호 기억하기 등 기억력과 상징적 사고가 필요한 항목에서는 수행률이 다소 낮은 경향도 보였다.

한편, 본 절에서 분석한 복지서비스 영유아의 경우 언어발달이 다른 발달 영역에 비해 또래 이상을 보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간단한 속담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항목에 대한 수행 비율이 낮았고, 끝말잇기나 단어 쓰기 등의 언어 확장 과제에서도 수행률이 다소 낮았다. 사회성 발달에서는 또래와 어울리고 놀이 규칙을 따르는 기본적 사회성이 잘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표현하거나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능력과 같이 의사소통의 질적 측면에서는 약 20%의 아동이 하지 못하는 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놀이를 제안하거나 친구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등 사회적 의사 표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수행률이 낮았다. 자조 발달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음식에 잼을 바르거나 옷을 갈아입는 등 기초적인 생활 행동은 대부분 수행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인 사회적 반응성에서도 대부분의 아동이 정서적 안정과 또래 관심을 보였으나, 약 10~15%의 아동은 타인의 감정이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미흡하거나 주변의 관심을 끌지 않는 행동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복지서비스 내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정서 표현을 촉진하는 놀이 및 대면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복지서비스 이용 학령기 아동의 신체활동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다.

---

15) 발달선별검사(K-DST)에 참여한 아동은 80명이나, 실제로 본 절에서는 66개월~71개월(20차)의 발달선별 검사에 응답한 57명 영유아에 대한 응답 자료만을 분석함.

주 4시간 이상 운동한다고 응답한 아동이 약 30% 내외로 나타났으며, 가족구조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비율은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와도 유사한 수준이었다. 다만, 한부모·조손가정의 아동은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양부모 가정 보다 높게 나타나, 이들 아동의 건강 상태를 저해하는 제반 환경을 파악하여 이를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의 돌봄 공백은 초등 저학년 아동보다도 초등 고학년 아동 내에서 다소 더 높게 확인되었고 양부모 가정보다도 한부모·조손가정 아동 내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돌봄 공백에 대한 지원은 아동의 연령대와 가족구조를 고려하여 해소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아동의 평소 주 양육자의 대부분이 부모이지만 한부모·조손가정의 주 양육자가 (외)조부모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아 고연령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양육 지원 서비스도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한편,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이 스마트폰 의존도는 양부모 가정 아동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이 수준이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의 위험군 비율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긍정적이다. 다만, ‘숙제·시험’이나 ‘보호자와의 의견 충돌’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만큼 학습 지원이나 보호자와 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여 아동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 절에서 분석한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의 경우 폭력을 행한 경험보다는 폭력을 당한 경험이 더 높은 경향이 있었고 사이버 폭력보다는 학교폭력을 더 많이 경험한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의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결과로, 이 조사에 따르면 아동은 학교 안과 밖에서 그리고 사이버상에서 주로 언어폭력에 노출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아동에게는 언어폭력을 포함하여 모든 환경에서 모든 폭력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폭력 예방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초등 고학년 아동 중 서비스 이용 기간이 5년 이하인 아동보다도 5년 초과인 아동의 차별 경험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 결과는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경과 이러한 차별 경험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파악한 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시 적용하여 다양성을 더 존중하는 형태로 교육 내용이 구성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7점대 내외로 나타나, 최근의 국내외 조사에서 발표한 아동의 삶의 만족도 7점대 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아동의 행복도는 삶의 만족도보다는 다소 높은 7점대 중후반으로 나타나는데, 행복도는 초등 고학년 아동 중에서는 여아보다는 남아가 더 높고 초등 저학년 아동 중에서는 서비스 이용 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가 더 높아 아동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아동이 처한 다양한 환경을 포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 VI

## 요약 및 제언

- 01 요약 및 논의
- 02 정책 제언
- 03 후속 연구 추진 방향



## VI. 요약 및 제언

###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태내기부터 팬데믹을 경험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성장·발달, 가구의 돌봄, 교육·보육 현황과 변화를 다중 코호트 방식의 종단 추적을 토대로 실증 데이터를 누적하여 구축(5개년)함으로써 팬데믹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 수집된 데이터를 심층분석하고, 연령 변화에 따른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2차년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자기보고식 조사를 활용하여 수집되는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영유아발달 수행검사를 실시하고, 코로나 전/중/후의 임상데이터 분석하였으며,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 데이터를 재분석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정리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가. 1차년도(2024) 데이터 심층분석 결과

1차년도 데이터를 아동 특성, 가구 특성, 교사 특성, 기관 및 지역사회 특성으로 구분하여 심층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영역에서 높은 발달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언어와 정서 영역의 격차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의 언어적 표현력과 공감 능력이 남아보다 조기 발달한다는 일반적 발달 경향으로 최혜영 등(2021)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 여아의 언어 이해력과 정서표현 점수가 남아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2세 전후의 아동이 언어·정서 발달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였고, 이후 안정화되는 양상이 발견되었다. 이는 생애 초기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정서조절능력 발달의 기초가 된다는 기존 연구 결과(채영란, 장문영, 2022; Eisenberg, Spinrad, 2019)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2세 전후 시기의 언어·정서 통합교육과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는 개입이 중요 시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가구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아동의 전반적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고소득 가구 아동이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저소득 가구 아동은 발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언어와 인지 영역의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비대면 학습의 접근성이 사회계층별로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OECD(2021)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교육격차가 심화되었으며, 저소득층 아동은 언어적 상호작용 감소와 정서적 불안 증가를 동시에 경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팬데믹 시기 교육 및 돌봄 불평등이 아동의 발달 지연으로 전이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추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교사의 연령과 경력은 아동 발달의 질적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력 10년 이상 교사가 담당한 반의 아동이 전 영역에서 높은 발달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인식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교령(2024)의 연구와도 일치하는데, 이는 교사의 민감한 반응성과 피드백 능력이 아동의 정서·사회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사 변인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월령이 낮을수록 부모의 근로 시간 단축과 주중 돌봄 참여에 다른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월령이 높아질수록 제도 이용 효과가 감소하고 주말 중심의 가족 상호작용이 발달의 주요 요인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가정 내 상호작용의 정서적 친밀성이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임현주, 2017; Prime et al., 2020)와도 일치한다. 특히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는 부모의 양육 참여를 확대했으나 일부 신체발달 영역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물리적 '시간의 양'도 중요하지만 돌봄의 질적 경험도 간과하지 말아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 나. 2차년도(2025) 일반조사 결과

2차년도 조사의 부모 응답을 바탕으로 아동의 발달·생활·건강·양육환경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돌봄시간은 주중보다 주말에 길었으며, 평일 어머니의 돌봄시간은

하루 평균 6.58시간, 아버지가 2.66시간이었고, 주말에는 각각 10.79시간과 7.58시간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에서는 어머니의 돌봄시간이 적은 반면, 아버지의 참여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 돌봄 책임이 점차 분담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소득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돌봄시간이 길게 나타나, 경제적 제약이 클수록 양육노동의 부담이 어머니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보여준다. Prime 등(2020)은 팬데믹 시기 부모의 근로유형 변화가 돌봄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시간을 확대하는 것보다 상호작용의 질이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은 ‘돌봄시간 확대’와 ‘돌봄의 질 향상’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가 인식한 자녀의 발달은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이였으며, 인지·정서 영역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회성 발달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여아의 점수가 남아보다 전반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언어적 자극과 상호작용의 질이 높다는 선행 연구(Bradley & Corwyn, 2002)와 맥을 같이하며, 여아가 초기 언어·인지 발달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인다는 기존 연구(윤혜련, 김영태, 2004)와도 유사하다. 한편,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발달 수준이 높게 평가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아동 발달의 질적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장영은, 2015; Brooks et al., 2020)와도 맥을 같이 하는데, 특히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에서의 적응과 또래 관계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학업능력을 조사한 결과, 언어·문해력이 수리적 사고보다 높았고, 자기조절 능력은 안정적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서 발달을 반영하는 실행기능(억제, 주의전환, 감정조절, 작업기억, 계획·조직) 중에서는 주의전환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초등학교 1학년의 문제행동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다. 다만 실행기능 하위요인 중 주의전환과 감정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Domínguez-Álvarez 등(2020)은 불안과 주의 결핍이 병행될 때 실행기능 저하가 심화된다고 분석하였는데, 코로나 이후 환경 변화가 인지적 통제력과 정서조절 능력 간 상호작용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넷째, 부모의 양육 어려움은 평균 2.32점으로 낮은 편이었고, 양육 태도는 3.98

점으로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가구소득이 높고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적 양육 태도를 보였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인식은 '중간 이상'이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정서적 안정은 양육효능감과 직결되는데, 박진영과 부성숙(2014)은 부모의 정서조절 능력이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며 긍정적 상호작용 빈도를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부모 지원 정책은 시간지원과 더불어 정서적 회복, 효능감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2세~4세만 아동의 K-DST 결과, 대근육·소근육·인지·언어·사회성·자조 등 여섯 영역 모두 정상범위에 속했다. 월령 구간별로 살펴보면 '또래 수준'과 '빠른 수준'의 합이 약 80% 내외였고, '심화평가 권고' 비율은 5% 미만이었다. 일부 월령대와 영역에서 '추적검사 요망' 비율이 두 자릿수 초반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정상 발달 범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팬데믹 이후에도 아동 발달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언어와 사회성 영역에서 일부 지연 가능성이 보고된 국제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Pejovic et al., 2024; Zuniga-Montanez et al., 2024).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장기적인 추적을 통해 종합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 다. 2차년도(2025) 심층조사 결과

### 1) 영유아 발달검사 결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코로나 세대 영유아의 발달 수준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 사이에 출생한 영유아 중 조사 참여를 희망한 아동을 대상으로 베일리 발달검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베일리 발달검사 결과는 영유아의 발달이 평균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아가 인지, 언어, 일상생활, 자조능력 등에서 남아보다 높은 발달을 보였으며, 가구 형태는 발달에 유의한 차이를 주지 않았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의 아동이 의사소통과 일상생활, 수용 능력 등 적응행동의 일부 영역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전체적인 발달 수준은 모든 집단이 정상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에 따른 발달 차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에 기인한 차이보다는 영유아기 동안 여아의 발달이 남아보다 빠르다는 다수의 보고(박영아, 2013; 이윤아, 2020; 홍은주 등, 2023)와 같이 영유아기 발달에서 보이는 성별에 따른

일반적인 차이로 볼 수 있다.

한편, 1~2세(반) 가구 형태와 소득이 영유아의 적응행동, 의사소통, 사회성 발달에 차이가 있었음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22년과 2023년 수행된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격차 해소 방안 연구(최은영 등, 2022, 2023)와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 연구 결과(최윤경 등, 2024)에 비해 적응행동의 일부 하위영역에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으나 단기적인 차이에 주목하지 않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2) 임상데이터 분석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이전(2018~2019년), 팬데믹 기간(2020~2021년), 팬데믹 이후(2023~2024년)의 놀이치료 내담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정서 문제행동, 실행기능, 부모 양육 태도 및 아동의 기질·성격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정서 문제행동의 양상은 시기별로 질적 변화를 보였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불안, 우울,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개별적으로 나타났으나, 팬데믹 시기에는 행동조절과 정서조절의 동시적 어려움이 증가하며 위축적 특성이 함께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에는 신체 증상과 수면 문제가 독립적 유형으로 분리될 정도로 발달 양상이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최혜영 등(2021)의 연구에서 보고된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코로나19 시기 유아의 불안과 수면 문제가 팬데믹 전보다 유의하게 증가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핍이 불안 수준을 증폭시킨다고 분석하였다. Jing 등(2024) 또한 팬데믹 기간 동안 유아의 불안, 우울, 공격성이 통계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사회적 고립과 가정 내 스트레스가 정서조절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이들 연구의 결과와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실행기능의 변화에서도 시기별 차이가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코로나 중·후 시기 아동은 억제, 전환, 작업기억, 계획조직 등 주요 실행기능 영역에서 전반적인 저하를 보였다. Domínguez-Álvarez 등(2020)은 정서조절 능력의 저하가 전환과 계획 기능의 손상으로 이어지며,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불안과 주의결핍이 병행될 때 작업기억이 현저히 약화된다고 분석하였다. Chichinina와 Gavrilova

(2022)는 코로나19 봉쇄 기간 동안 아동의 실행기능 발달 속도가 둔화하였으며, 팬데믹 이후에도 회복이 지연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정서조절과 실행기능은 상호 의존적 발달 체계로서 향후 두 영역을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접근도 필요하다.

셋째, 부모 양육 태도의 변화는 아동의 정서적 불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코로나 시기 부모는 ‘비일관적으로 혼만 많이 내는 유형’으로 분류되었고, 코로나 이후에도 과잉기대와 간섭이 높은 양육 태도가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불안이 아동의 문제행동을 악화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문영숙과 한진숙(2002)은 부모가 비일관적 훈육과 통제 중심 양육을 유지할수록 아동의 공격성과 내면화 행동이 증가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분석된 코로나 이후 양육 불안정성과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즉, 부모의 정서적 불안과 피로감이 양육 일관성 결여로 이어지고, 그 결과 아동의 정서조절 어려움이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사회정서 문제행동과 실행기능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팬데믹 시기에는 정서조절과 주의집중, 작업기억 등 대부분의 실행기능 영역에서 ‘불안·위축형’과 ‘주의결핍·수면문제형’ 아동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정서적 문제와 인지적 조절능력이 상호 영향을 주며, 특히 불안·우울 증상과 감정조절의 어려움이 실행기능 결함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팬데믹 이후에도 이러한 상관관계는 유지되었으며, ‘행동조절 곤란과 위축 동반형’이 억제, 작업기억, 계획조직 영역에서 가장 높은 어려움을 보였다. 정서조절이 어려운 아동일수록 억제·작업기억·계획조직 등 실행기능 영역에서 결함이 관찰되었다. 이는 사회·정서적 문제와 인지적 조절 능력이 상호작용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Domínguez-Álvarez 등(2020)은 정서조절 능력의 손상이 실행기능 결함으로 이어지는 인과 경로를 검증하였다. 따라서 향후 정서·인지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정서조절과 실행기능을 상호 순환적 구조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위험회피 성향이 높은 아동이 ‘불안·우울·위축형’ 군집에,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아동이 ‘행동문제형’ 군집에 포함될 확률이 높았다. 이는 기질이 정서 및 행동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임을 시사한다. Eisenberg와 Spinrad(2019)는 유아의 정서 반응성과 조절 능력이 공격성과 위축의 양극단 행동 패턴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김슬기와 김은영(2021)도 아동의 자극추구 성향이

충동성과 공격성을 높이는 반면, 자율성이 높은 아동은 사회적 적응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자기초월 성향이 높은 아동이 신체증상형으로 분류된 결과와 일치한다. 즉, 기질과 성격 요인은 팬데믹이라는 환경적 스트레스 하에서 문제행동의 취약성을 결정짓는 변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 3)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의 발달분석 결과

코로나19 팬데믹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발달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드림스타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초등학생 이하 아동(총 683명, 영유아 80명, 초등 저학년 190명, 초등 고학년 413명)을 대상으로 발달 수준과 생활환경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의 전반적 발달 수준은 정상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대근육·소근육 운동과 자조 등 신체 관련 영역은 비교적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근육 운동 영역에서는 그림 그리기, 물 따르기, 가위질하기 등 기본적인 조작 능력이 잘 형성되어 있었으나, 리본 묶기와 같이 협응력과 계획성을 요구하는 세밀한 조작 과제에서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한편, 인지 발달은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이었으나, 기억력과 상징적 사고를 요하는 한 자리 뺄셈, 달력 날짜 지시, 전화번호 기억하기 등의 수행이 상대적으로 낮았음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언어 발달은 다른 발달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특히 ‘속담 이해’, ‘끝말잇기’, ‘단어 쓰기’ 등 고차적 언어 확장 과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최혜영 등(2021)은 코로나19 시기 유아의 언어 이해력과 표현력 저하가 명확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 부족과 디지털 미디어 의존도의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하였다. 사회성 발달 영역에서는 또래와의 기본적 상호작용(놀이 규칙 지키기, 역할놀이 참여)은 양호하였으나, 자기 표현력과 타인 경청 등 의사소통의 질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대면 활동의 확대가 아동의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을 제한했다는 선행 연구(김지연, 신태섭, 2023; Prime et al., 2020)와도 일치한다.

둘째,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의 신체활동 수준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 4시간 이상 격렬한 운동을 하는 아동이 약 30% 수준이었으며, 가족구조에 따른 신체활동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한부모, 조손가정 아동

의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응답 비율이 양부모 가정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높았으나 학습 주도성에서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초등 저학년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숙제·시험'(40%), '체중'(25~30%), '물질적 결핍'(20%) 등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제약이 정서적 안정감을 약화하고,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장영은, 2015; Brooks et al., 2020)와 맥을 같이 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코로나 세대 영유아의 발달은 전반적으로 또래 수준을 보였으나 언어 영역에서 또래 미만의 수준을 보이는 아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언어활동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영유아의 발달 중 대근육과 소근육 운동이 또래 이상인 비율이 높고 총점과 지능 산출법을 적용 시 서비스 이용이 5년 이상인 아동에게서 소근육과 대근육 운동 수준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장기적인 서비스 제공이 영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영유아 대상의 복지서비스에 언어활동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근거가 된다.

한편 학령기 아동의 발달은 기존의 다른 조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유사한 발달을 형성하고 있지만 초등 저학년 아동보다 초등 고학년 아동의 발달이 다소 부정적이고, 남아보다 여아의 발달이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 역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지만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과 발달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부모·조손가정 아동의 경우 양부모 가정 아동보다 방과 후 돌봄 공백에 놓이는 비율이 높기에 가구의 특성에 따른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본 분석을 통해서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의 발달은 전반적으로 정상범위로 나타났으나 언어와 사회성 영역에서 상대적 취약성이 존재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특히 팬데믹 이후 가정 내 언어 상호작용의 감소, 경제적 격차, 돌봄 공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언어·사회정서 발달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속적인 추적이 필요하다.

## 2. 정책 제언

### 가. 언어 및 인지발달 다중 지원체계 구축

본 연구의 결과, 정서조절이 어려운 아동일수록 억제·작업기억·계획조직 등 실행기능 영역에서 어려움이 발견되었다. 이는 사회·정서적 문제와 인지적 조절능력이 상호작용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Domínguez-Álvarez 등(2020)은 정서조절 능력의 손상이 실행기능 결함으로 이어지는 인과 경로를 검증하였다. 따라서 언어 및 사회성 발달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신체·인지·정서 영역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다차원적 개입이 필요하다. 최혜영 등(2021)은 코로나19 시기 유아의 언어 이해력과 표현력 저하가 명확하게 나타났다으며,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 부족과 디지털 미디어 의존도의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언어이해 및 표현능력 저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제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김지연과 신태섭(2023)도 코로나 시기 유아의 사회정서 역량이 또래 관계를 매개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언어자극 결핍이 사회정서 발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언어치료와 사회정서 학습을 결합한 상호작용 기반 언어·사회성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 나. 사회·정서 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본 연구의 결과, 사회성 발달 영역에서는 또래와의 기본적 상호작용(놀이 규칙 지키기, 역할놀이 참여)은 양호하였으나, 자기표현력과 타인 경청 등 의사소통의 질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발견되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아동의 임상 양상에서 불안, 수면 문제, 감각과민이 뚜렷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서적 조절 실패와 실행기능 저하가 상호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Domínguez-Álvarez 등(2020)은 정서조절 능력의 약화가 아동의 전환 및 계획조직 기능을 직접적으로 저해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감정인식-충동억제-작업기억-문제해결을 단계적으로 연결하는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

## 다. 부모의 양육 태도 및 정서적 지지 강화

코로나 시기 부모의 양육 태도는 ‘비일관적으로 혼만 많이 내는 유형’이 증가하였으며, 이후에도 과잉기대와 간섭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Morelli 등(2021)은 팬데믹 중 부모의 감정조절 능력이 낮을수록 아동의 불안과 행동문제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부모의 정서적 불안과 피로감이 양육 일관성 결여로 이어지고, 그 결과 아동의 정서조절 어려움이 강화되는 순환적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부모교육은 부모의 정서조절과 공감적 양육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부모 감정코칭, 스트레스 관리, 일관성 유지 등을 포함한 부모 지원이 필요하다.

## 라. 발달검사의 정례화 및 통합 관리

본 연구와 선행 연구에서는 코로나 이후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와 인지적 조절 능력의 변화를 단기적 현상이 아닌 발달 궤적의 지연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Chichinina와 Gavrilova(2022)는 팬데믹 기간 동안 실행기능의 성장곡선이 평상시보다 완만하게 나타나며, 회복에도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을 중단 추적하고, 결과를 통합 관리하는 아동 발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요구된다. 이 체계를 통해 사회적 위기 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과 사후관리 모두 가능하도록 예방적 인프라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4년부터 영국 정부는 HCP 2~2½세 검진(보건)과 EYFS 2세 점검(교육)을 통합 2세 검토(integrated review at age two)로 연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 Department of Health, 2015; Public Health England, 2015). 점검 결과, 발달 지연, 언어·사회정서 문제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관은 부모와 논의 후 지자체의 ‘조기 개입(early help)’ 절차나 특수교육필요(SEND) 지원 절차로 연계하며, 필요시 보건방문사(health visitor), 언어치료사(speech and language therapist) 또는 지역 조기개입팀(early years inclusion team)에 의뢰한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23; Department for Education & Department of Health, 2015).

본 연구의 결과, 2세 전후의 아동이 언어·정서 발달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인 것

으로 나타나 생애 초기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정서조절 능력 발달의 기초가 된다는 기존 연구 결과(채영란, 장문영, 2022; Eisenberg & Spinrad, 2019)와도 맥을 같이 하며, 2세 전후 시기의 언어·정서 통합교육과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는 개입이 중요 시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영유아기 발달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 2~3세 시기의 표준화된 발달선별검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복지·보건·교육 데이터와 연계하여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마. 종단연구를 위한 충분한 예산의 확보

최인희(2020)는 종단조사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 세대의 발달을 추적하는 패널 연구로 동일 대상을 계속 추적하여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총 5개년의 계획을 갖고 추진하므로, 지속적인 자료 수집을 위한 안정성이 필수적이다. 연구 수행을 위한 안정성은 크게 전문 인력, 행·재정, 자료 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최인희, 2020). 연구 대상을 추적하고 관리해야 하는 패널 연구의 특성상, 자료 수집의 성패는 예산이 관건이 된다. 종단연구는 여러 시점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동일하거나 비교가 가능한 대상을 가져야 하며, 여러 시점에 걸쳐 수집된 자료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정종원 등, 2019; Menard, 1991). 즉, 종단연구의 가장 핵심은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종단연구의 예산 삭감은 연구 자체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데이터 수집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가장 큰 장애가 된다. 팬데믹 세대의 발달 격차는 단기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종단연구를 통해 연령, 지역, 계층별 발달 변화 양상을 추적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 바. 기관 미이용 및 취약 가구 코호트 구축

최근 근거 기반 정책이 강조되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축적하고 분석하는 종단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사회적 단절로 인한 생애 초기 발달의 영향 요인을 찾고, 코로나 기간 동안의

기관과 학교의 폐쇄 등의 경험이 아동의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팬데믹으로 인해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종단 데이터를 구축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표집함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집단은 포괄하지 못한다. 또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거치고 있다. 이에 전국 단위의 표집을 거치긴 했으나 자녀의 발달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인 대상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조사 참여자의 소득수준도 소득이 높은 가구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여준다.

OECD(2021)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교육격차가 심화되었으며, 저소득층 아동은 언어적 상호작용 감소와 정서적 불안 증가를 동시에 경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팬데믹 시기 교육 및 돌봄 불평등이 아동의 발달 지연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심층분석 결과에서도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의 발달은 전반적으로 정상범위로 나타났으나 언어와 사회성 영역에서 상대적 어려움이 발견되었다. 특히 팬데믹 이후 가정 내 언어 상호작용의 감소, 경제적 격차, 돌봄 공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언어·사회정서 발달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기간의 지속적인 추적을 위한 별도의 코호트 구축이 요구된다.

### 3. 후속 연구 추진 방향

생애 초기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종단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 수행된다는 점에서 조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 가. 표본 유지

종단연구에서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 참여자를 확보하여 패널을 구축하는 것은 조사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최인희, 2020). 따라서 표본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조사

시행 후에 결과가 어떻게 분석되었으며, 연구 결과가 실제 연구와 정책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환류되었는지를 조사 대상자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패널 이탈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조사 참여에 대한 문의 응대(1:1), 조사 결과 중심의 소식지 배포, 본 조사 실시 경품 이벤트 등의 다양한 접근으로 패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나. 표본 추가

패널 이탈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중치를 부여하고 추가적인 표집을 하는 것은 사후, 즉 패널 이탈 이후의 대응이다. 안정적인 자료의 확보를 위해 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패널 이탈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단조사는 장기간 동일한 표본을 추적 조사하기 때문에 표본 이탈을 피할 수 없는데, 표본 이탈은 표본의 모집단 대표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김재광, 2009). 즉, 조사 자료를 가지고 추정된 값이 모집단의 모수와 다를 개연성이 있는데, 향후 본 연구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 다. 가중치 적용

본 연구가 패널조사라는 점에서 패널 이탈 방지 및 패널 이탈에 대한 분석을 통한 가중치 적용 등이 필요하다. 가중치는 횡단면 가중치와 종단면 가중치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횡단면 가중치는 연도별 모수에 관심이 있거나 연도별 동일 변수의 변화 추세를 알고 싶은 경우, 종단면 가중치는 어떤 집단이 전 연도에 비해 얼마나 변했는지 등과 같은 종단면 분석에 활용된다(홍세희 등, 2010). 횡단면 가중치와 종단면 가중치를 본 연구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3개년 또는 4개년의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종단면 가중치를 산출할 수 있는 것이며, 패널 이탈을 분석하여 추가적인 표집도 고려할 수 있다.

## 라. 영유아건강검진 DB 연계 및 유관 기관의 협업

본 연구에서는 K-DST 문항에 대한 부모 응답을 통해 발달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는 영유아건강검진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크기 때문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영유

아 건강검진 DB 연계하여 응답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종단 추적율의 제고를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도 교육청 등 유관 기관의 협업을 통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조사 관련 지원과 협력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4). 교육통계연보.
- 교육부(2025). 2024 보육통계: 2024년 12월 말 기준.
- 권혜진(2021). 코로나 19 (COVID-19) 감염증에 대응하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건  
물관리직무와 수행 경험. *어린이미디어연구*, 20(1), 57-74.
- 김교령(2024). 유아교사의 교사-유아 상호작용 실행 수준 분석. *한국영유아보육  
학*, 146, 57-81. <http://doi.org/10.37918/kce.2024.5.146.57>
- 김리진, 조선희, 채은영, 홍서은(2024). 포스트 코로나에서 유아 및 아동의 발달  
문제와 적응문제의 변화에 대한 연구: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놀이  
치료학회지*, 27(3), 371-392. <http://doi.org/10.17641/KAPT.27.3.4>
- 김슬기, 김은영(2021). 유아기 감각처리가 기질 및 성격 특성에 미치는 영향. *대  
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19(3), 13-21. <http://doi.org/10.18064/JKASI.2021.19.3.13>
- 김재광(2009). 표본 추가 연구(연구보고서 2009-01). 한국노동연구원.
- 김지연, 신태섭(2023).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의 사회정서역량이 또래관계를 매  
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14(1), 1621-1635. <http://doi.org/10.22143/HSS21.14.1.114>
- 김지우, 김나영, 남재현(2021). 코로나19와 불평등: 코로나19가 아동의 인적자본  
투자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70(2), 167-195.
- 목미란, 김영자, 박지해, 성재숙, 김금환(2024). 웰에이징 관점에서 죽음 인식 준  
비의 결정요인 연구: 노인실태조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한국복지실  
천학회지*, 15(1), 111-137.
- 문영숙, 한진숙(2002). 어머니의 자녀양육행동이 아동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부  
모자녀건강학회지*, 5(2), 161-176.
- 민병배, 오현숙, 이주영(2007). 기질 및 성격검사 매뉴얼. 서울:(주) 마음사랑, 6,  
15-33.
- 박미희(2020). 코로나19 시대의 교육격차 실태와 교육의 과제: 경기 지역을 중심  
으로. *교육사회학연구*, 30(4), 113-145. <http://doi.org/10.32465/kso cio.2020.30.4.005>

- 박영아(2013). 유아의 사회적 자아개념과 교사-유아 관계가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성별 차이. *한국영유아보육학회*, 76, 1-24.
- 박진영, 부성숙(2014). 어머니의 정서지능이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1), 995-1007. <http://doi.org/10.5392/JKCA.2014.14.11.995>
- 박희현, 최은영, 이영애(2025). 코로나19 이후 아동 임상 사례에서 나타난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의 언어 및 인지발달의 변화. *한국놀이치료학회지*, 28(1), 21-45. <http://doi.org/10.17641/KAPT.28.1.2>
- 서정은, 박혜원(2011). 아동의 정서지능이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일반 아동과 주의문제 아동의 비교. *인지발달장애학회지*, 2(1), 99-127.
- 오경자, 김영아(2009). CBCL 1.5-5 매뉴얼 개정판. 서울: 휴노컨설팅.
- 윤혜련, 김영태(2004). 성별에 따른 영유아 언어발달의 특성 연구: SELSI를 중심으로. *언어청각장애연구*, 9(1), 30-44.
- 이민우(2020).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권별 오류 분석. *이중언어학*, 79, 135-160. <http://doi.org/10.17296/korbil.2020..79.135>
- 이상정, 이주연, 전진아, 김수진, 임성은, 신영규, 류정희, 하태정, 권영지, 김시아, 김지현, 유민상(2023).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용역보고서 2023-130).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아(2020). 유아의 감각 처리 특성, 운동 능력, 언어 발달 및 사회적 유능성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현주(2017). 가족 상호작용 및 가정환경과 유아의 심리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7(6), 269-291. <http://doi.org/10.18023/kjece.2017.37.6.012>
- 임호찬(2008). 유아의 사고능력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의 영향. *영재교육연구*, 18(3), 613-634.
- 장영은(201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및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모 온정성과 교육적 가정환경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6(6), 1-21.
- 장희선(2025). 아동정책 및 서비스 대상 아동·청년의 4대 권리: 지원·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패널조사 데이터를 중심으로[구두 발표]. 2025 한국사회

- 복지학회 공동학술대회, 서울.
- 정익중(2020a). 코로나19와 아동기 정신건강[구두 발표]. 제10차 한국생애학회 추계학술대회, ZOOM.
- 정익중(2020b).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 문제에 대한 해외 대응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13, 47-59.
- 정종원, 김명량, 주경필, 이용민(2019). 교육 ODA 사업평가의 중단설계 가능성 탐색 : 첨단 ICT활용 시범교실을 중심으로(2019 KERIS 이슈리포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질병관리본부(2017).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 채영란, 장문영(2022).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3(3), 1559-1574. <http://doi.org/10.22143/HSS21.13.3.109>
- 최윤경, 김근진, 정익중, 최영, 송신영(2021). 포스트코로나 시대 양육지원 체계 재구조화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최윤경, 조숙인, 박진아, 배윤진, 정윤경, 이기재, 김영민(2024). 코로나 세대 (Covid-Generation) 아동의 발달 추적 연구(I)(연구보고서 2024-18). 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 김은영, 구자연, 조혜주, 정윤경, 심영규(2022).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 방안 연구(I)(연구보고서 2022-24). 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 김은영, 김태우, 윤정환, 이영애, 박희현, 최윤경(2023).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 방안 연구(II)(연구보고서 2023-23). 육아정책연구소.
- 최인희(2020). 교원중단연구 설계 방안(II)(RR2020-28). 한국교육개발원 공개가능보고서 - 연구보고서, 2020(0), 1-306.
- 최혜영, 유준호, 권수정, 장경은(2021). 코로나19 시대의 보육환경 내 영유아의 사회적 경험.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7(2), 29-46. <http://doi.org/10.14698/jkcce.2021.17.02.029>
- 홍관표(2021).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과 아동의 권리. 인권법평론, 27, 239-309. <http://doi.org/10.38135/hrir.2021.27.239>

- 홍세희, 정상아, 노연경(2010).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 (VI) 종단적 가중치 및 무응답 대체법 연구(연구보고서 RR-2010-24-1). 한국교육개발원.
- 홍은주, 김세영, 박혜원, 박연주(2023). 코로나 시기 영유아의 성별 및 부모의 부모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발달의 차이.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8(4) 15-35. <http://doi.org/10.23931/kacp.2023.18.4.15>
- 황혜영, 김수윤(2022). 포스트코로나시대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을 위한 우리의 과제: 초등교사의 관점에서[구두 발표].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2022년 추계 학술대회*, 안동.
- Achenbach, T. M., & Rescorla, L. (2000). *Child behavior checklist*. Burlington.
- Bayley, N., & Aylward, G. P. (2023). Bayley 영유아발달검사 제4판: 실시지침서 (박혜원, 이경옥, 이순행, 심혜진, 윤희진, 역). 인사이트. (Original work published 2019)
- Bradley, R. H & Corwyn, R. F. (2002).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 371-399.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53.100901.135233>.
- Brooks, S. K., Smith, L. E., Webster, R. K., Weston, D., Woodland, L., Hall, I., & Rubin, G. J. (2020). The impact of unplanned school closure on children's social contact: rapid evidence review. *Euro surveillance : bulletin European sur les maladies transmissibles = European communicable disease bulletin*, 25(13), 2000188. <https://doi.org/10.2807/1560-7917.ES.2020.25.13.2000188>
- Chichinina, E. & Gavrilova, M. (2022). Growth of executive functions in preschool-age children during the COVID-19 lockdown: Empirical evidence. *Psychology in Russia : state of the art*, 15(2), 124-136. <https://doi.org/10.11621/pir.2022.0209>
- Cole, K. & Mitchell, P. (2000). Siblings in the development of executive control and a theory of mind.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279-295. <https://doi.org/10.1348/026151000165698>

- Deoni, S. C., Beauchemin, J., Volpe, A., & D'Sa, V. (2021).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early child cognitive development: Initial findings in a longitudinal observational study of child health. medRxiv. <https://doi.org/10.1101/2021.08.10.21261846>
- Department for Education. (2023). Statutory framework for the Early Years Foundation Stage: Setting the standards for learning, development and care for children from birth to five. UK Government. <https://dera.ioe.ac.uk/id/eprint/39980>
- Department for Education, & Department of Health. (2015). Integrated review at age two: A review of progres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tegrated-review-at-age-two-review-of-progress>
- Domínguez-Álvarez, Beatriz., López-Romero., Laura., Gómez Fragueta., Xose., Romero & Estrella. (2020). Emotion regulation skills in childre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fluences on specific parenting and child adjustment. *Revista de Psicología Clínica con Niños y Adolescentes*, 7(3), 81-87. <https://doi.org/10.21134/rpcna.2020.mon.2042>
- Eisenberg, N., & Spinrad, T. L. (2019). Emotion-related self-regulation and its relation to children's maladjustment.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6, 495-525. <https://doi.org/10.1146/annurev.clinpsy.121208.131208>
- Fegert, J. M., Vitiello, B., Plener, P. L., & Clemens, V. (2020). Challenges and burden of the coronavirus 2019 (COVID-19) pandemic for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A narrative review to highlight clinical and research needs in the acute phase and the long return to normality.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nd Mental Health*, 14, 20. <https://doi.org/10.1186/s13034-020-00329-3>
- Gioia, G. A., Isquith, P. K., Guy, S. C., & Kenworthy, L. (2000). Test review behavior rating inventory of executive function. *Child neuropsychology*, 6(3), 235-238.

- Hair, J. F., Jr.,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m & P. R. Yarn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pp. 147-205).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Reprinted from J. F. Hair, Jr., R. E. Anderson, R. L. Tatham, and W. C. Black, *Multivariate data analysis*, Upper Saddle River, NJ, US: Prentice-Hall Inc., pp. 469-518)
- Hosmer, D. W., & Lemeshow, S. (2000). *Applied logistic regression* (2nd ed.). Wiley-Interscience.
- Isquith, P. K., Gioia, G. A. & Espy, K. A. (2004). Executive function in preschool children: Examination through everyday behavior. *Developmental Neuropsychology*, 26(1), 403-422. [https://doi.org/10.1207/s15326942dn2601\\_3](https://doi.org/10.1207/s15326942dn2601_3)
- Jing, J. Q., Yang, C. J., Wang, Y., Su, X. Y., & Du, Y. J. (2024). Impact of COVID-19 on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mong preschool children: a meta-analysis. *BMC pediatrics*, 24(1), 455. <https://doi.org/10.1186/s12887-024-04931-8>
- Menard, S. (1991). *Longitudinal research*. Sage.
- Morelli, M., Cattelino, E., Baiocco, R., Longobardi, E., Trumello, C., Babore, A., Candelori, C., & Chirumbolo, A. (2021). Parents' psychological factors promoting children's mental health and emotional regulation during the COVID-19 lockdown. *Maltrattamento e Abuso All'Infanzia: Rivista Interdisciplinare*, 23(1), 47-63. <https://doi.org/10.3280/MAL2021-001004>
- OECD (2021). *Covid-19 and well-being: Life in the pandemic*.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1e1ecb53-en>.
- Pejovic, J., Severino, C., Vigário, M., & Frota, S. (2024). Prolonged COVID-19 related effects on early language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Early human development*, 195, 106081. <https://doi.org/10.1016/j.earlhumdev.2024.106081>
- Prime, H., Wade, M., & Browne, D. T. (2020). Risk and resilience in family well-be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merican Psychologist*, 75(5), 631-643. <https://doi.org/10.1037/amp0000660>

- Public Health England. (2015). Public Health England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4-2015. UK Government.
- Shook, L. L., Sullivan, E. L., Lo, J. O., Perlis, R. H., & Edlow, A. G. (2022). COVID-19 in pregnancy: Implications for fetal brain development. *Trends in Molecular Medicine*, 28(4), 319-330. <https://doi.org/10.1016/j.molmed.2022.02.004>
- Shuffrey, L. C., Firestein, M. R., Kyle, M. H., Fields, A., Alcántara, C., Amso, D., Austin, J., Bain, J. M., Barbosa, J., Bence, M., Bianco, C., Fernández, C. R., Goldman, S., Gyamfi-Bannerman, C., Hott, V., Hu, Y., Hussain, M., Factor-Litvak, P., Lucchini, M., Mandel, A., ... Dumitriu, D. (2022). Association of Birth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ith Neurodevelopmental Status at 6 Months in Infants With and Without In Utero Exposure to Maternal SARS-CoV-2 Infection. *JAMA pediatrics*, 176(6). <https://doi.org/10.1001/jamapediatrics.2021.5563>
- Sparrow, S. S., Cicchetti, D. V., & Saulnier, C. A. (2016). *Vineland Adaptive Behavior Scales* (3rd ed.). Pearson.
- Yockey, L. J., Lucas, C., & Iwasaki, A. (2020). Contributions of maternal and fetal antiviral immunity in congenital disease. *Science*, 368(6491), 608-612. <https://doi.org/10.1126/science.aaz1960>
- Zelazo, P. D. & Müller, U. (2002). Executive function in typical and atypical development. In U. Goswami (Ed.), *Blackwell handbook of childhood cognitive development*(pp. 445-469). Blackwell Publishing. <https://doi.org/10.1002/9780470996652.ch20>
- Zuniga-Montanez., Cecilia., Davies, Catherine., Ligoxygakis., Laurie., Kašćelan., Draško., Gonzalez-Gomez & Nayeli. (2024). Annual Research Review: How did COVID-19 affect young children's language environment and language development? A scoping review.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66(4), 569-587. <https://doi.org/10.1111/jcpp.14102>

**[웹사이트]**

국가데이터처(2024). 인구총조사 인구(시도/시/군/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conn\\_path%3DI3%26tblId%3DINH\\_1IN1503\\_01%26orgId%3D101%26](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conn_path%3DI3%26tblId%3DINH_1IN1503_01%26orgId%3D101%26)

국가데이터처(2025). 시군구별 성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및 수검인원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mode%3D%26conn\\_path%3DI4%26list\\_id%3D350\\_35007\\_A004%26dbUser%3DNSI.%26tblId%3DDT\\_35007\\_N032%26vw\\_cd%3DMT\\_ZTITLE%26itm\\_id%3D%26language%3Dko%26pub%3D%26orgId%3D350%26](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mode%3D%26conn_path%3DI4%26list_id%3D350_35007_A004%26dbUser%3DNSI.%26tblId%3DDT_35007_N032%26vw_cd%3DMT_ZTITLE%26itm_id%3D%26language%3Dko%26pub%3D%26orgId%3D350%26)

성평등가족부, 정책정보, 정책 자료실, 주제별 정책자료, 2024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704853](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704853)에서 2025. 11. 30. 인출.

아동권리보장원, 사업소개, 아동성장·돌봄,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27&cntntsId=1055>에서 2025. 11. 30. 인출.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main.jsp](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main.jsp)

유치원알리미.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 A Study on the Tracking of the Development of Covid19-Generation Children(II)

Eun-Young Choi, Eunyong Kim, Jinah Park, Heesun Jang,  
Young-ae Lee, Yujin Park

This study aims to cumulatively build the second-year empirical dataset of a multi-cohort longitudinal investigation that follows children who experienced the COVID-19 pandemic from the prenatal period onward across five age groups over five years. By doing so, the study seeks to analyze the long-term and continued effects of the pandemic using accumulated longitudinal data and to identify developmental risks that emerged during this period in order to propose relevant support strategies.

The research procedures and methods are as follows. First, the first-year study (2024) primarily provided descriptive statistics on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al status by age among children of the “COVID generation.” Building on this, the second-year study conducted more in-depth analyses by age and by household characteristics. Second, survey items requiring continuity for developmental tracking were examined and revised; unnecessary items were removed to reduce respondent fatigue, while items relevant to first-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were added. Third, to supplement limitations of self-report surveys and to conduct a more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the pandemic’s effects, three additional data sources were incorporated: (1) Bayley Scales of Infant and Toddler Development, (2) clinical data from before, during, and after the pandemic, and (3) data on children receiving welfare services. Fourth, based on the results, policy implic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proposed.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n in-depth analysis

of the 2024 data revealed clear patterns in perceptions of children's development depending on gender, age, type of institution attended, and participation in private education. Girls demonstrated higher perceived development in language, cognition, emotion, and sociality than boys, with the largest gaps observed in language and emotional development. Children from high-income households (monthly income  $\geq$  6.81 million KRW) showed the highest average developmental scores across all domains, while those from low-income households ( $\leq$  3.07 million KRW) exhibited lower overall developmental levels and higher rates of parents reporting developmental concerns. Second, the general survey included 2,835 respondents. Dual-earner households comprised 60.9% of the sample, while single-earner households accounted for 39.1%. Household incomes were concentrated in the upper-middle and upper levels. Among participating children, boys accounted for 51.2% and girls for 48.8%. Participation was highest among children aged four and five. Overall, children displayed development within the normal range; however, differences emerged by income, caregiving environment, and region. Higher income correlated with higher language, cognitive, and emotional scores, and girls consistently showed higher developmental scores than boys. Third, results from the Bayley developmental assessment indicated that infants and toddlers generally maintained developmental levels at or above the average. Girls outperformed boys in cognition, language, daily living, and self-help skills, whil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ppeared by household typ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of clinical records from children undergoing play therapy before (2018-2019), during (2020-2021), and after COVID-19 (2023-2024) showed that children exhibited more complex internalizing and mixed behavioral problems during the pandemic. Although these issues persisted after the pandemic, their severity decreased. Children using welfare services generally showed development at peer levels, but a relatively higher proportion demonstrated below-average language development. Among school-age children, older elementary students presented more negative developmental patterns than younger students, and girls demonstrated somewhat more negative

developmental outcomes than boys.

The major implications drawn from thes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hildren with greater difficulty in emotional regulation also showed challenges in executive functions such as inhibition, working memory, and planning/organization. This highlights the interaction between socio-emotional difficulties and cognitive regulation and indicates the need for tailored interventions that strengthen language and social development through integrated, multi-dimensional approaches targeting physical, cognitive, and emotional domains. Second, although children demonstrated adequate basic social interaction skills (e.g., following play rules, participating in role play), difficulties emerged in qualitative aspects of communication such as self-expression and attentive listening. For children with emotional regulation challenges, it is essential to develop and disseminate programs that sequentially strengthen emotional awareness, impulse control, working memory, and problem solving. Third, parental parenting styles during the pandemic shifted toward inconsistent discipline and high expectations or interference, trends that persisted even afterward. Parent education must therefore focus on supporting parents' emotional regulation and empathetic parenting capacities, including emotional coaching, stress management, and maintaining consistency. Fourth, the study findings and existing literature raise concerns that children's socio-emotional and cognitive regulatory difficulties following COVID-19 may not be short-term phenomena but rather delayed developmental trajectories. This underscores the need for a national big-data platform to longitudinally monitor and integrate children's developmental outcomes. Fifth, reductions in funding for longitudinal research jeopardize continuity and data reliability. Because developmental gaps among pandemic-generation children are likely to remain as structural issues rather than temporary disruptions, stable support is essential for track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across age, region, and socioeconomic groups and for informing policy. Sixth, although children using welfare services generally fell within the normal developmental range, they showed relative difficulties in language and social-emotional areas.

Given that post-pandemic decreases in home language interaction, economic disparities, and caregiving gaps may deepen imbalances in these domains, a separate long-term cohort should be established for sustained tracking.

Keywords: COVID generation, multi-cohort, developmental risks, Bayley Scales of Infant and Toddler Development

# 부록

부록 1. 1차년도 설문 문항 구성

부록 2. 2차년도 설문 문항 구성

부록 3. 2차년도 설문지

부록 4. 심층조사 모집 안내문 및 설문



## 부록 1. 1차년도 설문 문항 구성

〈부표 1〉 1차년도 부모 설문 문항

대분류	중분류	부모	비고
선문	주양육자 여부	선문1	
	아동과의 관계	선문2	
	자녀 동거 여부	선문3	삭제
	아동 성별	선문4	
	가구 구성원 수	선문5	삭제
	가구원 구성	선문5-1	삭제
	다문화 가정 여부	선문6	삭제
	생년월일	선문7	
	아동 월령	선문7-1	삭제
아동발달 특성	아동발달에 관한 질문		
	항목별 아동발달 상황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신체)	문1	
	전반적 아동발달 상황	문2-1, 2-2	삭제
	K-DST / 학업 능력		
	K-DST (2019~2022년생)	o	
	학업능력 (2018년생)	o	
	연령별 발달 특성에 대한 질문 - 일상생활 특성		
	기상/취침 시간	문3	삭제
	식습관 특성	문4	삭제
	연령별 발달 특성에 대한 질문 - 생활시간 특성		
	주중/주말 양육시간(부모 구분)	문5-1, 문5-2	
	일과 활동 시간(주중)	문6	
	미디어 이용 경험	문7	
	미디어 접촉 시작 월령	문7-1	
	미디어 이용 시간(주중/주말)	문7-2	
	미디어 상호 작용	문8	삭제
	스마트폰 과의존	문9	삭제
	시간대별 돌봄 주체(최근)	문10	삭제
	긴급상황 시 돌봄	문11	삭제
	시간대별 돌봄 주체(코로나 기간)	문12	삭제
사회정서			
놀이 및 사회적 활동 특성(2022년생)	문13	삭제	
기질	문14	삭제	
문제 행동(부모 시각)	문15-1		
모래 상호작용(2018~2021년생)	문16	삭제	
유아실행 기능(2018~2021년생)	문17		
아동 스트레스 정도	문18		
아동 행복도	문19		

대분류	중분류	부모	비고
부모 특성	부부 갈등	문20	삭제
	배우자 역할	문21	삭제
	양육 어려움	문22	
	양육방식	문23	
	육아지원정책 이용 및 코로나 시기 이용	문24-1, 24-2	삭제
기관 이용 특성	기관 다니기 시작한 연령	문25	
	기관 이용 만족도	문26	삭제
	기관 행사 참여도	문27	삭제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여부 및 개수	문28	
동네 특성	가정이 위치한 동네 환경 만족도	문29	
아동 건강 특성	몸무게	문30	
	신장	문31	
	안경 착용 여부	문32	
	최초 안경 착용 시기	문32-1	
	건강상태	문33	
	장애/질환 여부	문34	
	장애 정도	문34-1	
	부모 장애/질환 여부	문35	
응답자 및 가구 특성	응답자 성별	배문1	삭제
	응답자 연령	배문2	
	응답자 최종 학력	배문3	
	응답자 취업 상태	배문4	
	맞벌이 가구 여부	배문4-1	삭제
	응답자 주당 평균 근로 시간	배문5	
	배우자 연령	배문6	
	배우자 학력	배문7	
	배우자 취업상태	배문8	
	배우자 주당 평균 근로 시간	배문8-1	
	가구 월평균 소득	배문9	
	주소지	배문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	배문11	
차상위계층 여부	배문12		

자료: 최윤경 외(2024). 코로나세대 아동 발달 종단추적 연구(Ⅰ). p. 267

## 부록 2. 2차년도 설문 문항 구성

### 〈부표 2〉 2차년도 부모 설문 문항

대분류	중분류	문항	문항 출처	원 도구
선문	선문			
	아동 생년월일	선문1	1차년도 연구	-
	아동 재원 기관 종류	선문2	1차년도 연구	-
	아동 재원 기관 도시 규모	선문2-1	1차년도 연구	-
	아동 재원 기관 소재지 및 기관명	선문3, 선문 3-1, 선문 3-2, 선문 3-3	1차년도 연구	-
	주양육자 여부	선문4	1차년도 연구	-
	아동과의 관계	선문5	1차년도 연구	-
아동발달에 관한 질문	아동 성별	선문6	1차년도 연구	-
	아동발달에 관한 질문			
	항목별 아동발달 상황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신체)	I-1	한국아동패널 7차(2014), 어머니대상 설문지_20	-
	K-DST / 학업 능력			
	K-DST (2019~2022년생)	I-1-1	질병관리본부. (2017). 영유아발달선별검사(K-DST).	질병관리본부. (2017). 영유아발달선별검사(K-DST).
	아동 발달 특성 학업능력 (2018년생)	I-2-1	한국아동패널 7차(2014년), 보호자대상 설문지_42	-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5). <i>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 (SECCYD), Phase II, 1996-2001</i> [United States] [Data collection instruments].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ICPSR) [distributor].
자기조절 학습능력 (2021~2019년생)	I-2-2	한국영유아교육·보육패널 기초조사(2021년)	웹기반 설문지 (Children's Independent	

대분류	중분류	문항	문항 출처	원 도구
				Learning Development (CHILD 3-5) checklist)
사회정서				
	유아실행 기능(2018년생)	I-3-1	한국영유아교육·보육패널기초조사(2021년)	-
	문제 행동(부모 시각)(2018년생)	I-3-2	1차년도 연구	-
	아동 스트레스 정도	I-3-3	한국아동패널 7차(2014년), 어머니대상 질문지_18	-
	아동 행복도	I-3-4	한국아동패널 7차(2014년), 어머니대상 질문지_19	-
연령별 발달 특성에 대한 질문 - 생활시간 특성				
	주중/주말 양육시간(부모 구분)	I-4-1, I-4-1-1, I-4-1-2	한국아동패널 3차(2010년), 보호자대상 질문지_33(모), 38(부)	-
	일과 활동 여부 및 시간(주중)	I-4-2	한국아동패널 3차(2010년), 어머니대상 질문지_43	-
	미디어 이용 경험	I-4-3	한국아동패널 5차(2012년), 보호자용 질문지_24-1	-
	미디어 접촉 시작 월령	I-4-3-1	한국아동패널 5차(2012년), 보호자용 질문지_24-1-2	-
	미디어 이용 시간(주중/주말)	I-4-3-2	1차년도 연구	-
아동 건강 특성				
	몸무게	II-1	한국아동패널 7차(2014년), 아동용 질문지_1-1	-
	키	II-2	한국아동패널 7차(2014년), 아동용 질문지_1-2	-
	안경 착용 여부	II-3	한국아동패널 7차(2014년), 보호자용 질문지_33	-
	안경 착용 시작 시기	II-3-1	한국아동패널 7차(2014년), 보호자용 질문지_33-1	-
	평소 건강 상태	II-4	1차년도 연구	-
	장애 및 만성질환 여부	II-5	한국아동패널 7차(2014년), 보호자용 질문지_30	-

대분류	중분류	문항	문항 출처	원 도구
	장애 정도	II-5-1	1차년도 연구	-
	부모의 장애 및 만성질환 여부	II-6	한국아동패널 7차(2014년), 보호자용 질문지_30	-
부모 특성				
부모 특성	양육 어려움	III-1	한국아동패널 1차(2008년), 어머니대상 질문지_28	김기현, 강희경. (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b>대한가정학회지</b> , <b>35</b> (5), 141-150.
	양육방식	III-2	한국아동패널 1차(2008년), 어머니대상 질문지_25, 한국아동패널 3차(2010년), 어머니대상 질문지_26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M. O., Painter, K. M., Galperin, C. Z., & Pecheux, M. G. (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i> , <i>19</i> (2), 347-367.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III-3	한국아동패널 7차(2014년), 어머니용 질문지_9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III-4, III-4-1, III-4-2	아동권리보장원. (2023). 아동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	-
기관 이용 특성	기관 다니기 시작한 시점	IV-1, IV-1-1, IV-1-2	한국아동패널 4차(2011년), 보호자대상 질문지_75	-
	현재 이용 기관	IV-2, IV-2-1, IV-2-2	-	-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여부 및 개수	IV-3	한국아동패널 5차(2012년), 보호자대상 질문지_48	-
동네 특성	가정이 위치한 동네 환경 만족도	V-1	1차년도 연구	-
응답자 및 가구 특성	응답자 연령	배문 1	1차년도 연구	-
	응답자 최종 학력	배문 2	1차년도 연구	-
	응답자 취업 상태	배문 3	1차년도 연구	-
	응답자 주당 평균 근로 시간	배문 4	1차년도 연구	-
	배우자 연령	배문 5	1차년도 연구	-

코로나 세대(Covid-Generation) 아동의 발달 추적 연구(II)

대분류	중분류	문항	문항 출처	원 도구
	배우자 학력	배문 6	1차년도 연구	-
	배우자 취업상태	배문 7	1차년도 연구	-
	배우자 주당 평균 근로 시간	배문 7-1	1차년도 연구	-
	가구 월평균 소득	배문 8	1차년도 연구	-
	주소지	배문 9	1차년도 연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	배문 10	1차년도 연구	-
	차상위계층 여부	배문 11	1차년도 연구	-
	다문화가정 여부	배문 12	1차년도 연구	-
	부모 이주민 여부	배문 12-1	1차년도 연구	-

### 부록 3. 2차년도 설문지

## 코로나 세대 아동 발달 추적 연구에 대한 설명문 (온라인 조사: 부모용)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아동의 발달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연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2025년도 일반과제인 「코로나 세대 아동발달 추적연구(II)」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경험 이후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의 양상과 양육환경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조사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윤리 및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이외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코로나를 태내기부터 경험한 2018~2022년생 아동의 발달 경향을 5개년에 걸쳐 동일한 대상(패널)을 추적조사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의 누적적인 영향과 발달의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대상: 2018~2022년생 아동의 부모
- 연구의 참여 절차: 조사원이 발송한 온라인 링크로 접속하시어 질문지를 읽고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조사는 약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 연구참여에 따른 보상: 조사를 완료하신 경우 사례비(10,000원 상품권)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상품권은 기재하신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됩니다.

---

나는 이 설명문을 읽었고, 조사 참여에 동의합니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 선문

선문1. 자녀가 태어난 시기를 응답해 주십시오.

※ 아동의 월령에 맞는 발달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아동의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    )년 (    )월 (    )일 → 2018~2022년생 외 설문 종료

선문2. 현재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은 무엇입니까?

-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학교

선문2-1. 현재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의 도시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농어촌

선문3. 현재 귀하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기관의 소재지와 기관명은 어떻게 됩니까?

선문3-1. 시도                      (            )

선문3-2. 시군구                      (            )

선문3-3. 기관 이름                      (            )

선문4. 귀하는 『코로나 세대 아동 발달 추적 연구』의 조사 아동으로 선정된 자녀를 돌보는 주양육자이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설문 종료

선문5. 『코로나 세대 아동 발달 추적 연구』의 조사 아동으로 선정된 자녀와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아동의 어머니  
② 아동의 아버지  
③ 그 외 관계                      → 설문 종료

선문6. 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자                      ② 남자

# I. 아동 발달

## I-1. 전반적인 발달 현황

대상(2018~2022년생)	2세반	<input type="radio"/>	3세반	<input type="radio"/>	4세반	<input type="radio"/>	5세반	<input type="radio"/>	초1	<input type="radio"/>
-----------------	-----	-----------------------	-----	-----------------------	-----	-----------------------	-----	-----------------------	----	-----------------------

다음은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 상황을 묻는 질문입니다.

1. 또래들과 비교하여 자녀의 발달 상황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해당하는 보기에 응답해 주십시오.

<i>전체적으로.</i>	①	②	③	④	⑤
	매우 늦음	약간 늦음	보통	약간 빠름	매우 빠름
1) 언어 발달					
2) 인지 발달					
3) 정서 발달(감정표현, 정서조절 등)					
4) 사회성 발달(또래관계)					
5) 신체 발달					

## I-1-1.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상세 문항 생략)

대상(2020~2022년생)	2세반	<input type="radio"/>	3세반	<input type="radio"/>	4세반	<input type="radio"/>	5세반	<input checked="" type="radio"/>	초1	<input checked="" type="radio"/>
-----------------	-----	-----------------------	-----	-----------------------	-----	-----------------------	-----	----------------------------------	----	----------------------------------

이 발달선별검사 도구는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후원 하에 대한소아과학회와 대한소아신경학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심리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 영유아의 특성에 맞게 개발한 것입니다. []

1. 각 질문 항목에 대하여 다음 네 가지 중 하나에 표기해 주십시오. 만약 자녀가 질문 내용 속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 직접 시켜보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문항들은 '아이가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해당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로 잘 하지 않았던 경우들

예) 아이가 가위질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손기능을 보이지만, 평소 가위를 주지 않았다. 블록 쌓기가 가능하지만 집에 해당 장난감(블록)이 없거나 그 놀이를 즐겨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할 수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잘 할 수 있다 ③	할 수 있는 편이다 ②	하지 못하는 편이다 ①	전혀 할 수 없다 ①
------------	--------------	--------------	-------------

## I -2. 학업 능력

대상(2018~2019년생)	2세반	X	3세반	X	4세반	X	5세반	O	초1	O
-----------------	-----	---	-----	---	-----	---	-----	---	----	---

1. 다음은 유아의 언어·수학 능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녀의 평소 모습에 기초하여 해당되는 보기에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범주					
①	②	③	④	⑤	⑥
아직 하지 않음	하기 시작함	어느 정도 해냄	잘하는 편임	능숙함	해당 없음
아직 하지 않음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일관적이지 않음	다소 규칙적으로 할 수 있지만 때에 따라 다름	규칙적이고 평균 수준으로 할 수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음	완벽하고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음	그 상황을 보거나 다른 적이 없음

문 항 내 용	
언어 및 문해 능력	1) 몇 가지 행동의 연결된 지시를 따를 수 있다. 예) 이 크레파스를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을 그리세요. 그리고 크레파스는 노란 색 통에 정리하고, 그린 그림은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친구들에게 보여주세요.
	2) 다소 복잡한 문장 구조를 사용한다. 예) '○○가 우산을 가져왔더라면, 비를 맞지 않았을 텐데', '우리 1학년 올라가자마자 현장 학습 갈 수 있겠지?'와 같은 말을 한다.
	3) 누군가 읽어준 글이나 이야기를 이해하고 해석한다. 예) 들려준 이야기를 다시 말하거나, 이야기가 왜 그렇게 끝났는지 설명하거나, 이야기의 일부를 자신의 상황과 연결 지을 수 있다.
	4) 한글의 모든 자음과 모음을 쉽고 빠르게 말할 수 있다.
	5) 음조가 비슷한 단어(운율 맞추기)를 만들 수 있다. 예) '리'자로 끝나는 말(개나리, 오리, 유리, 향아리)을 말할 수 있다.
	6) 읽기 활동을 자주 선택하며 어려워하지 않는다. 예) 친숙한 책을 반복해서 읽거나, 교실에서의 책임기 활동을 자주 선택하거나, 도서관에 가자고 한다.
	7) 줄거리의 단서나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
	8) 간단한 책을 스스로 읽는다. 예) 언어의 패턴이 반복되는 책을 읽는다.
	9) 초기 쓰기 행동을 나타낸다. 예) 단어를 적기 위해 서두의 자음을 사용하거나(과자→ㄱ),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철자를 그대로 적거나(미음→ㅁ), 말과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발음 나는 대로 적는다(닭→닥, 갔다→가따).
	10) '엄마', '아빠', '너', '안녕'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단어를 기억해서 쓴다.
	11) '대한민국', '좋아한다', '웃는다'와 같은 비교적 복잡한 단어를 기억해서 쓴다.
	12) 쓰기 규칙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예) 단어 간 띄어쓰기를 하고 문장 끝에 마침표를 찍는다.
	13) 쓰기 관련 활동을 자주 선택하며 어려워하지 않는다. 예)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쓰기 활동을 자주 선택하거나, 활동 및 놀이를 위해 기호를 표시하거나 메모를 한다.
	14) 컴퓨터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한다.

문항 내용	
	예) 그림을 그리거나, 물건을 세거나, 숫자, 글자, 단어를 타이핑한다.
수리적 사고	15) 동작, 사물, 단어의 패턴을 만들거나 모방하거나 확장할 수 있다. 예) 구슬, 블록, 몸동작의 패턴을 만들거나(예: ○○☆○○☆) '40, 50, 60, 70...'과 같이 배수의 패턴을 확장한다.
	16) 다양한 규칙이나 특징에 근거하여 수학적 자료를 나열하고, 분류하고, 비교한다. 예) 열쇠를 분류할 때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어 '숫자가 있는 열쇠'와 '숫자가 없는 열쇠'로 분류하거나, '커다란 플라스틱 모양'과 '작은 나무 모양'과 같이 다양한 특징에 따라 모양을 분류한다.
	17) 어떠한 대상에 순서를 부여한다. 예) 길이에 따라 막대를 순서 짓거나, 밝고 어두운 정도에 따라 물감을 배열하거나, 부드러운 소리부터 강한 소리까지의 악기를 배열한다.
	18) 사물을 셀 때 양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며 일대일 대응의 개념을 활용한다(물건의 수를 하나씩 센다). 예) 10개 이상의 나무 블록을 셀 때 각각의 블록을 한 번씩만 집어가며 수를 센다(어떠한 블록도 두 번 세지 않는다).
	19) 수량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 10개의 작은 돌멩이와 10개의 큰 블록의 갯수가 같음을 안다.
	20) 쓰여 있는 숫자와 실제 사물을 연결한다. 예) 8개의 블록과 숫자 8을 연결한다.
	21) 형태(모양)의 속성을 인식한다. 예) 삼각형이나 직사각형의 변의 수, 정사각형 모서리 수를 안다.
	22) 실제 물건(막대기, 구슬 등)을 사용하여 수가 포함된 문제를 푼다. 예) '순이는 6개의 연필을 가지고 있고 철수는 3개를 가지고 있어. 둘이 합쳐서 몇 개를 가지고 있니?', 또는 '철수가 순이와 같은 양의 연필을 가지려면 내가 철수에게 몇 개를 주어야 하니?'와 같은 문제를 푼다.
	23) 수 관련 활동을 자주 선택한다. 예)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수리 영역 활동을 자주 선택하거나, 작업 및 놀이를 할 때 숫자 세기, 셈하기, 패턴책 보기 등을 자주 한다.
	24) 동전이나 지폐의 가치를 구별할 수 있다. 예) 100원 동전, 500원 동전, 그리고 1000원 지폐를 안다.
	25) 그래프 활동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예) '학교 가는 방법'이라는 그래프에서 '버스 이용'은 노란색, '자가용 이용'은 하얀색, '도보'는 파란색 사각형으로 표시한다.
	26) 시간을 이해하는 것 같다. 예) 달력에서 어제, 오늘, 내일의 개념을 표시하거나, 계절의 순서를 말하거나, 개구리의 변화(일생)를 그림으로 그린다.
	27)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한다. 예) 두 물건의 무게를 비교하기 위해 저울을 사용하거나, 요리 활동 시간에 티스푼을 사용하거나, 서로 다른 물건의 길이를 재기 위해 줄자를 사용한다.
	28) 일상 생활 속의 수학 문제를 푼다. 예) 4개의 식탁에 앉아있는 친구들에게 24개의 컵케이크를 똑같이 나누어주는 방법을 생각한다.
	29)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한다. 예) 조작 가능한 사물을 활용하거나,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내거나, 문제 상황을 직접 해본다.

대상(2019~2021년생)	2세반	X	3세반	O	4세반	O	5세반	O	초1	X
-----------------	-----	---	-----	---	-----	---	-----	---	----	---

2. 다음은 유아의 자기조절 학습능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녀의 평소 모습에 기초하여 해당되는 보기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신과 타인의 행동 및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해결하는 과정을 즐긴다.					
2) 새로운 과제를 자신감 있게 다룬다.					
3)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인들을 견뎌내며 주의 집중할 수 있다.					
4) 진행과정을 인지하고 필요한 도움을 적절히 구한다.					
5) 문제에 직면해도 과제를 지속한다.					
6) 과제 수행시기 및 방법에 대해 협상한다.					
7) 또래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8) 나눠쓰기 및 순서 지키기를 스스로 할 수 있다.					
9) 또래와 함께 독립적이며 협력적인 활동들에 참가한다.					
10) 타인의 감정을 의식하며 타인을 돕고 위로 한다.					
11) 자신의 감정 및 약점을 안다.					
12) 자신이 학습한 것 또는 특정 과제를 수행한 방식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13) 계획된 미래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14) 합리적 선택 및 결정을 할 수 있다.					
15) 질문을 하고 답변을 제시한다.					
16) 학습한 전략을 사용한다.					
17)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전에 들은 언어를 사용한다.					
18) 성인의 도움 없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찾는다.					
19) 과제 수행을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한다.					
20) 활동을 주도한다.					
21) 자신의 과제, 목적 및 목표를 계획한다.					
22)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즐긴다.					

### I-3. 사회 및 정서 발달

대상(2018~2022년생)	2세반	O	3세반	O	4세반	O	5세반	O	초1	X
-----------------	-----	---	-----	---	-----	---	-----	---	----	---

1. 다음 문항들은 일상생활에서 아이가 보이는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평소 자녀의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보기에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②	③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구분	①	②	③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지 못한다.				
2) (재미있는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웃음을 멈춘 후에도 멈추지 못한다.				
3) 또래 아이들보다 더 주의깊게 관찰하고 지도해야 한다.				
4) 생일파티, 놀이상황 등의 모임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활동이 과격하거나 행동을 주체하지 못한다.				
5)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				
6) 충동적인 행동을 자주 보인다.				
7) 자신의 행동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8) 어떤 활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성가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9) 또래 아이들보다 더 통제가 안 된다.				
10) 대화나 놀이를 할 때 너무 시끄럽다.				
11) 행동이 너무 과격해서 통제가 안 된다.				
12) 지시에 따라 행동을 억제하기 어렵다.				
13) 과제 또는 활동을 너무 빨리 끝낸다.				
14) 활동하는 동안 쉽게 이탈한다.				
15) 너무 주책없을 때가 있다.				
16) 다칠 수도 있는 상황(놀이터, 수영장과 같은)에서 부주의하거나 무모하게 놀이를 한다.				
17) 새로운 상황에 접하면 혼란스러워 한다.				
18) 새로운 사람들(부모, 교사, 친구 또는 어린이집 직원 등)과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9) 계획 또는 일과의 변화(일상 활동의 순서, 갑자기 추가되는 일, 스케줄 변경, 시장가는 길을 바꾸는 것 등)에 불쾌해진다.				
20) 새로운 장소나 상황(먼 친척이나, 새로운 친구의 방문 등)에서 편안함을 느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21) 큰 소음, 밝은 빛 또는 특정 냄새에 민감하다.				
22) 환경(새로운 가구, 방안에 있는 물건의 이동, 새로운 옷 등)의 변화에 불안해한다.				
23) 활동이나 과제를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24) 낯선 사회적 행사(생일파티, 소풍, 명절 행사 등)에 "어울리는 것"을 어렵다.				
25) 하루 일과, 음식, 장소 등의 변화를 거부한다.				
26) 사람이 많고 바쁜 상황(많은 소음, 활동 또는 사람들 같은)에서 쉽게 압도되거나 과도하게 흥분한다.				
27) 작은 문제에 과잉반응을 보인다.				
28) 화가 나면 폭발적으로 감정을 분출한다.				
29) 너무 쉽게 화를 낸다.				

구분	①	②	③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30) 별 이유 없이 화를 낸다.				
31) 기분이 자주 변한다.				
32)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한다.				
33) 울음 또는 폭발적인 분노를 갑자기 멈춘다.				
34) 다른 아이들보다 상황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				
35) 일상적으로 매일하는 활동에서 과도하게 흥분한다.				
36) 문제가 발생하면, 오랫동안 실망감을 느낀다.				
37) 두 가지 일을 주면, 한 가지만 기억한다.				
38) 과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행동들(한 번에 한 조각씩 맞추기, 보상을 받기 위해 정리하기 등)을 실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39) 게임, 퍼즐, 놀이 활동 등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40) 도움을 받아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41)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서도 실수를 자주 한다.				
42) 1단계 이상의 활동이나 과제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43) 과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44) 활동 도중에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잊는다.				
45) 과제(게임, 퍼즐, 가장놀이 활동 등)를 끝내는 것이 어렵다.				
46) 같은 주제로 대화를 지속하기 어렵다.				
47) 지시를 해도 활동이나 과제를 시작하기 어려워한다.				
48) 활동 시 자신의 노력을 최대한으로 기울이지 않는다.				
49) 사건, 사람 또는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끝내지 못한다.				
50) 자신이 잘 한 것과 못한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51) 잠시만 지나도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52) 주의 지속 시간이 짧다.				
53) 과제를 할 때 자신의 수행이 맞는지 틀린지 인식하지 못한다.				
54) 청소를 하자라고 지시하면, 물건들을 두서없이 비조직적으로 치운다.				
55)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에도 과제를 시작하라고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56) 무언가를 가져오라고 보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와야 하는 것을 잊는다.				
57) 구체적인 지시를 주어도, 옷, 신발, 장난감, 책 등을 찾지 못한다.				
58) 잠, 식사, 놀이 활동 등의 정해진 일과를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다.				
59)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를 수행할 때 대안을 생각해내는 것을 어려워한다.				

구분	①	②	③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60) 어지럽힌 것을 치우라고 지시를 한 이후에도 치우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치워야 한다.				
61) 과제를 수행하면서 주변의 사소한 일에 주의를 빼앗긴다.				
62) 명확한 지시를 주어도 방이나 놀이공간에서 물건을 찾지 못한다.				
63) 지시를 해도 과제를 완성하지 않는다.				
64) 주변 모든 환경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한다.				

대상(2018~2019년생) 2세반 X 3세반 X 4세반 X 5세반 X 초1 O

2. 다음의 문장을 읽고 지난 6개월 동안 자녀의 모습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각 문항에 해당하는 자녀의 모습과 행동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해당 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1)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를 힘들어 한다.	①	②	③
2) 해야 할 일(숙제, 공부 혹은 심부름 등)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한다.	①	②	③
3) 해야 할 일(숙제, 공부, 혹은 심부름 등)이 있을 때 거의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4)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①	②	③
5)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그 일을 끝까지 하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미리 예측하지 못한다.	①	②	③
6) 머릿속으로 생각은 잘 하는데(나름대로 계획은 하는데) 실천은 하지 못한다.	①	②	③
7)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 행동을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①	②	③
8) 어떤 내용을 이해할 때 부분적으로는 이해하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다.	①	②	③
9) 스스로 알아서 앞장서서 하지 못한다.	①	②	③
10) 어떤 활동이든 순서대로 차근차근 계획해서 행동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①	②	③
11) 숙제나 공부 혹은 심부름 등 일을 할 때 집중해서 하지 못한다.	①	②	③
12) 또래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13)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14) 너무 거칠게 행동한다.	①	②	③
15) 어른이 곁에서 지켜보면서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 숙제, 공부 혹은 심부름 등을 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16) 글쓰기를 어려워한다.	①	②	③
17) 다른 사람을 방해한다.	①	②	③
18) 앉아서 집중해야 할 때 자리에 잘 앉아 있지 못한다.	①	②	③
19) 줄서서 있어야 할 때 서 있지 않고 잘 벗어난다.	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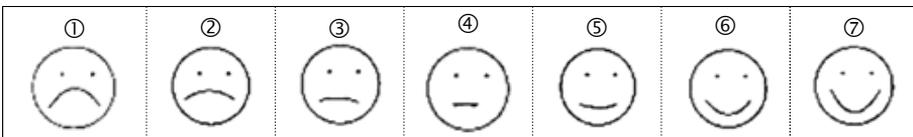
문항내용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20) 자신의 행동이 남을 귀찮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잘 알아채지 못한다.	①	②	③
21) 누가 옆에서 지키지 않으면 숙제나 공부를 꾸준히 앉아서 하지 못한다.	①	②	③
22)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주변 사람이 야단을 치거나 핀잔을 주어도 별 상관하지 않는다.	①	②	③
23) 사소한 일에도 화를 쉽게 폭발한다.	①	②	③
24) 상황에 따라 기분 변화가 심하다.	①	②	③
25) 잘 참지 못하고 성질을 낸다.	①	②	③
26) 자주 울컥한다.	①	②	③
27) 그럴 일이 아닌데도 잘 투덜거린다.	①	②	③
28) 사소한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한다.	①	②	③
29) 원래 계획한 일에 변화가 생기면(원래 생각했던 것과 달라지면) 순간 화를 벌컥 낸다.	①	②	③
30) 기분 변화가 심하다.	①	②	③
31) 자신의 물건을 챙기지 못해 여기저기 흘리고 다닌다.	①	②	③
32) 옷, 안경, 양말, 장난감, 책, 연필 등 물건을 잘 찾지 못한다.	①	②	③
33) 방의 정리정돈을 못한다.	①	②	③
34) 숙제를 다 해가도 선생님께 제출하는 것을 잊고 온다.	①	②	③
35) 소지품이나 숙제 등을 잘 잃어버린다.	①	②	③
36) 잘 잊어버린다.	①	②	③
37) 해야 할 일을 잘 잊는다.	①	②	③
38) 방이 늘 어질러져 있다.	①	②	③
39) 방안이나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을 잘 찾지 못한다.	①	②	③
40) 물건이나 방을 잘 어질러서 다른 사람이 치워야 한다.	①	②	③

대상(2018~2022년생)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초1

3. 자녀의 스트레스 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다.
- ②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다.
- ③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
- ④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

4. 자녀의 평소 모습(행복도)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I -4. 생활 시간

대상(2018~2022년생)	2세반	<input type="radio"/>	3세반	<input type="radio"/>	4세반	<input type="radio"/>	5세반	<input type="radio"/>	초1	<input type="radio"/>
-----------------	-----	-----------------------	-----	-----------------------	-----	-----------------------	-----	-----------------------	----	-----------------------

1. 자녀를 돌보는 주 양육자는 누구입니까?

- ① 아동의 어머니      ② 아동의 아버지      ③ 그 외 관계

1-1. 귀 댁에서는 지난주 주중(평일)을 기준으로 자녀를 돌보는데 하루 평균 몇 시간을 할애하십니까?

항목	주중 기준
아버지	주중 1일 평균 ( )시간
어머니	주중 1일 평균 ( )시간
그 외 관계(적어주세요. )	주중 1일 평균 ( )시간

1-2. 귀 댁에서는 지난주 주말을 기준으로 자녀를 돌보는데 하루 평균 몇 시간을 할애하십니까?

항목	주말 기준
아버지	주말 1일 평균 ( )시간
어머니	주말 1일 평균 ( )시간
그 외 관계(적어주세요. )	주말 1일 평균 ( )시간

2. 자녀가 평일을 기준으로 하루에 하는 활동과 시간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활동 여부		활동 시간
	활동함	활동하지 않음	
1. 교육 및 학습 시간(학원·복지관, 학습지, 책임기 등; 어린이집·유치원 기관 이용시간은 제외)			주중 일 평균( )분
2. 놀이 시간(밖에서 놀기, 성인과의 외출, 실내외 놀이시간 등)			주중 일 평균( )분

3. 다음은 아이의 미디어 이용에 관한 문항입니다. 최근 한달을 기준으로 자녀의 미디어 이용 여부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 미디어 이용 예: 동영상상 시청, 애니메이션, 유튜브, 게임·놀이, 교육용 앱 활동/ TV, 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 기기 사용 등

- ① 이용한 적 있음(3-1번 문항으로)  
 ② 한 번도 이용한 적 없음(1번 문항으로)

3-1. 자녀의 미디어 이용 시작 월령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생후 ( ) 개월부터

3-2. 자녀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시간
주중	1일 평균 ( )분
주말	1일 평균 ( )분

## II. 아동의 건강 특성

대상(2018~2022년생)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초1

1. 자녀의 현재 몸무게는 몇 kg입니까? \_\_\_\_\_ kg

2. 자녀의 현재 키는 몇 cm입니까? \_\_\_\_\_ cm

3. 자녀는 현재 안경을 낄까요?

- ① 예, 안경을 낄니다(3-1번 문항으로)  
 ② 아니요, 안경을 끼지 않습니다(4번 문항으로)

3-1. 자녀는 언제부터 안경을 썼습니까?

( )년부터 안경을 낄

4. 자녀의 평소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나쁨    ② 대체로 나쁨    ③ 보통    ④ 대체로 좋음    ⑤ 매우 좋음

5. 자녀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장애나 만성질환이 있습니까? 단, 일시적인 감기/중이염 등의 질환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복수]

※ 질환 예시 : 선천성 심장질환, 신장질환, 소아 당뇨, 천식, 주의력 결핍 장애, 아토피 피부염, 만성 부비동염, 만성 중이염, 만성 요로감염, 간질 등  
 ※ 장애 예시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그 외 발달지체

- ① 장애 진단을 받은 적 있음(5-1번 문항으로)

- ② 질환 진단을 받은 적 있음
- ③ 장애/질환 진단 둘 다 받은 적 없음(6번 문항으로)

5-1. 귀하의 아이가 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장애 정도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중증
- ② 경증

6. 자녀의 부모님께서서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장애나 만성질환이 있습니까? 단, 일시적인 감기/중이염 등의 질환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복수]

※ 질환 예시 : 선천성 심장질환, 신장질환, 소아 당뇨, 천식, 주의력 결핍 장애, 아토피 피부염, 만성 부비동염, 만성 중이염, 만성 요로감염, 간질 등  
 ※ 장애 예시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그 외 발달지체

- ① 장애 진단을 받은 적 있음
- ② 질환 진단을 받은 적 있음
- ③ 장애/질환 진단 둘 다 받은 적 없음

### III. 부모 특성

1. 다음은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별로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 보기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2)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3)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진다고 느낀 적이 있다.					
4)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5)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6)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혼란스럽다.					
7) 아이 때문에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8)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9)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1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게 느껴진다.					
11) 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다음은 자녀에 대한 귀하의 양육 방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아이와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2) 나는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면 즉시 적절하게 반응한다.					
3) 나는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일들(예: 먹이기, 목욕시키기, 옷 입히기 등)을 잘 만족시켜준다.					
4) 나는 우리 아이에게 긍정적이고 애정적이며 따뜻한 관심을 보인다.					
5) 나는 우리 아이에게 기대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6) 나는 우리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다.					
7) 나는 내 아이가 놀이 집단이나 모임 등을 통하여 같은 또래 친구들과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준다.					
8) 나는 내 아이에게 말을 건네거나 대화하며 시간을 보낸다.					
9) 나는 내 아이가 관심이나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을 할 때, 즉시 긍정적으로 반응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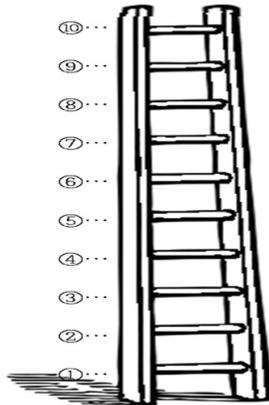
3. 다음은 자녀가 귀하와 함께 하는 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해 활동하시는 정도를 선택해주십시오.

구분	①	②	③	④
	전혀 하지 않음	1~2회	3~6회	매일 함
1)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				
2)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준다.				
3) 아이와 함께 노래를 부른다.				
4) 아이가 미술이나 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5) 요리, 청소, 상 차리기, 애완동물 돌보기와 같은 집안일을 아이와 함께 한다.				
6) 아이와 함께 퍼즐이나 게임을 한다.				
7) 아이와 함께 자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과학 놀이를 한다.				
8) 아이와 함께 무엇을 만들거나 조립용 완구를 가지고 논다.				

구분	①	②	③	④
	전혀 하지 않음	1~2회	3~6회	매일 함
9) 아이와 함께 스포츠 또는 운동을 한다.				
10) 아이와 읽기, 쓰기와 숫자를 익힌다.				

4. 다음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의 사다리가 우리사회의 구조를 나타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다리의 꼭대기에는 최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재산이 많고, 교육을 많이 받았으며,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사다리의 맨 밑에는 최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재산이 거의 없고, 교육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했으며, 누구도 원치 않거나,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4-1. 이 사다리가 대한민국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면, 귀하는 이 사다리의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2. 이 사다리가 귀하가 속해있는 지역사회나 공동체(직장, 교회, 친인척 일가, 친구, 동호회 등)를 나타내고 있다면, 귀하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나 공동체는 이 사다리의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비취업

배문4. 귀하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주 5일 평균 8시간 근무면, 주 40시간

주 총 ( ) 시간

배문5. 배우자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만 ( )세

배문6. 배우자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 ② 전문대 졸업(2년제 혹은 3년제)
- ③ 대학교 졸업(4년제 이상)
- ④ 대학원 석사 졸업
- ⑤ 대학원 박사 졸업

배문7. 배우자의 취업 상태를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정규직
- ② 비정규직
- ③ 자영업
- ④ 학업 중
- ⑤ 비취업

배문7-1. 배우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주 5일 평균 8시간 근무면, 주 40시간

주 총 ( ) 시간

배문8. 귀 닥의 월 평균 소득(근로/사업/기타소득)은 얼마입니까? 세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가구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여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한 것을 지칭함

- ① 0원 이상 ~ 233만원 이하
- ② 234만원 이상 ~ 307만원 이하
- ③ 308만원 이상 ~ 385만원 이하
- ④ 386만원 이상 ~ 467만원 이하
- ⑤ 468만원 이상 ~ 562만원 이하
- ⑥ 563만원 이상 ~ 680만원 이하
- ⑦ 681만원 이상 ~ 863만원 이하
- ⑧ 864만원 이상 ~ 1,388만원 이하
- ⑨ 1,389만원 이상

배문9. 귀 닥의 주소지는 어떻게 됩니까?

( ) 시도 ( ) 시군구 ( ) 동

배문10. 귀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각 급여의 수급 여부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 조사일 기준, 가구원 중 일부라도 수급인 경우는 “예”로 응답하십시오.

항목	수급여부	
	예	아니오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배문11. 귀 가구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배문12. 귀 가구는 다문화가정입니까?

① 예(12-1 문항으로)

② 아니오 → [DQ99](#)

배문12-1. 자녀의 부모님 둘 다 이주민입니까?

① 아동의 부모 모두 이주민임

② 아동의 아버지만 이주민임

③ 아동의 어머니만 이주민임

DQ99. 마지막으로 사례비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여쭙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사례비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답례품 수령하실 휴대전화 번호: ( )

- 선정된 기관 아동의 이름: ( )

♣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결과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 부록 4. 심층조사 모집 안내문 및 설문

### 「아동발달 검사」 참여자 선정 질문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아동 발달 현황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약 2년여에 걸친 코로나 19 팬데믹을 경험한 코로나세대 아동을 대상으로 생애초기 발달의 민감기인 아동 시기의 발달 변화 추이와 아동의 인지, 발달 및 적응행동을 살펴보고, 발달과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아동의 발달현황 조사」에 앞서 본 연구의 심층조사를 위해 **2022년 8월 ~ 2023년 7월생을 대상으로 발달 검사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한 문항에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 참여자로 선정될 경우,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동행하여 한국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4판(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적응행동)을 실시하고, 각 검사 결과에 대한 상담을 지원합니다(검사 비용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부담). 또한 1만원 상당의 모바일 교환권을 제공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조사 설문의 안내문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면 간략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다음의 추가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선문1. 귀하의 자녀와 함께 아래와 같이 실시 예정인 검사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모집 대상** : 2022년 8월 ~ 2023년 7월생  
\*한 가정 당 한 자녀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 **검사 도구** : 2세 한국 베일리 영유아발달검사 4판(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적응행동)
  - **검사 기간** :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예정)
- **검사 시간** : 70-90분 내외
- **참여 방법** : 참여자에게 일정 및 장소 별도 안내 예정.
- **참여 혜택** :
  - 1) 검사 완료 시 10,000원 상당의 모바일 교환권 지급
  - 2)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1회 30만원 이상) 실시, 발달 결과검사 결과지, 검사 결과에 대한 상담

**선문2. 아동 발달 검사를 희망하는 아동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선문3. 참여 안내를 위해 부모님의 연락처를 다시 한번 입력해주세요.**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 휴대전화 번호
- 본 설문에서 응답한 내용

**2. 수집 이용 목적**

아동 인터뷰 조사를 위한 사전 확인 및 일정 조율 등에 활용

**3. 개인정보 제공 업체**

**1) 연구 수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책임자 최은영 선임연구위원 02-398-7782, eyny@kicce.re.kr

박유진 연구원 02-398-7746, wisepyj@kicce.re.kr

**2) 검사 수행기관**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4.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 관련 정보는 잠금장치 및 암호화된 프로그램이 설치된 육아정책연구소와 조사업체의 저장장치에 보관되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연구진, 조사업체 데이터 담당 연구원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 수집된 자료의 보관:**

연구에서 수집된 원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연구 종료 이후 3년간(2031년까지) 보관되며, 이후 즉시 폐기됩니다.

심층조사 응답자 모집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 내용 확인 후 선정되신 분께만 별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세대(Covid-Generation)  
아동의 발달 추적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ISBN 979-11-6865-134-0